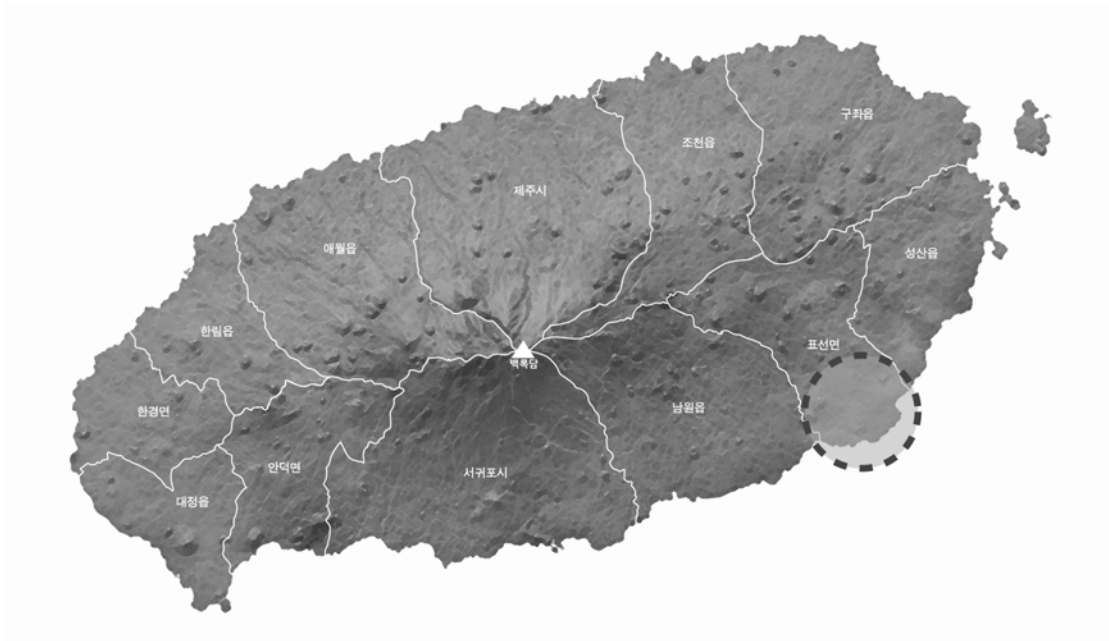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8-01

#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 29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최연미  
조사지점: 표선면세화리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은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9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10
제2장 표선면 세화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1
2.2. 조사 기간 .....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1
2.4. 전사 .....	13
2.5. 장비 .....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4
3. 밭일 .....	54
5. 바다일 .....	105
7. 식생활 .....	139
9. 신앙 .....	190
13. 민간요법 .....	218
2. 제보자 일생 .....	21
4. 들일 .....	85
6. 의생활 .....	115
8. 주생활 .....	171
12. 통화의례 .....	193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239
제2절 어휘	
1. 인체 .....	242
3. 친족 .....	255
5. 음식 .....	264
7. 생업 .....	278
9. 민속 .....	293
11. 자연 .....	296
13. 식물 .....	314
2. 육아 .....	248
4. 의복 .....	259
6. 가옥 .....	273
8. 수와 단위 .....	290
10. 신앙 .....	296
12. 동물 .....	304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표선면 세화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현봉화 (여, 1928년 생)  
김양선 (여, 1933년 생)  
장술생 (여, 1933년 생)  
고옥화 (여, 1934년 생)  
강필문 (남, 1934년 생)  
강기수 (남, 1937년 생)  
송인생 (여, 1938년 생)  
김정자 (여, 1946년 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세화) 구술1	강필문	00:24:25	○
2. 제보자 일생-1	(세화) 구술2	강필문	00:33:11	○
2. 제보자 일생-2	(세화) 구술2	송인생	00:24:31	○
2. 제보자 일생-3	(세화) 구술2	현봉화	00:26:31	○
3. 밭일	(세화) 구술3	송인생 장술생	00:52:54	○
4. 들일	(세화) 구술4	강필문	00:52:05	○

		강기수		
5. 바다일	(세화) 구술5	김양선 장순희	00:20:25	○
6. 의생활	(세화) 구술6	강필문 고옥화	00:57:06	○
7. 식생활	(세화) 구술7	김양선	01:17:23	○
8. 주생활	(세화) 구술8	강필문 강기수	01:11:44	○
9. 신앙	(세화) 구술9	강기수 김정자	00:04:56	○
10. 세시풍속	(세화) 구술10	강필문 고옥화	00:56:31	X
11. 놀이	(세화) 구술11	강필문 고옥화	00:52:53	X
12. 통과례	(세화) 구술12	강기수 김정자	01:05:34	○
13. 민간요법	(세화) 구술13	강기수 김정자	00:45:23	○
14. 경험담, 속담, 금 기어 듣기	(세화) 구술14	강기수 김정자	00:14:18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세화) 어휘 1	강필문 고옥화	01:33:49	○
2. 육아	(세화) 어휘 2	송인생 김인자	01:29:04	○
2. 육아(+ 보충)	(세화) 어휘 3	강필문	00:12:56	○
3. 친족(1)	(세화) 어휘 4	가마리 (세화2리) 노인회	00:21:38	○
3. 친족(2)	(세화) 어휘 5	강필문	00:32:10	○
4. 의복	(세화) 어휘 6	가마리 노인회	01:14:16	○
5. 음식	(세화) 어휘 7	가마리 노인회	01:55:39	○
6. 가옥	(세화) 어휘 8	강기수	01:41:04	○
7. 생업(농업)	(세화) 어휘 9	송인생	02:24:47	○
7. 생업(어업)	(세화) 어휘 10	현봉화	00:30:03	○
7. 생업(기타)	(세화) 어휘 11	현봉화	00:48:57	○
8. 수와 단위	(세화) 어휘 12	강필문	00:33:59	○

		고옥화		
9. 민속	(세화) 어휘 13	강필문 고옥화	00:43:54	○
10. 신앙	(세화) 어휘 14	현봉화	00:27:22	○
11. 자연(들,바다)	(세화) 어휘 15	강필문	00:39:16	○
11. 자연(시후,날씨,방향)	(세화) 어휘 16	송인생	00:46:28	○
12. 동물 (가축, 벌레와 곤충, 들짐승, 날짐승)	(세화) 어휘 17	강필문	01:39:04	○
12. 동물(바다동물)	(세화) 어휘 18	세화리 해녀회	00:47:35	○
13. 식물(풀, 꽃, 나무, 열매)	(세화) 어휘 19	강필문	03:07:30	○
13. 식물(바다식물)	(세화) 어휘 20	현봉화	00:09:53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최연미 #1: 강필문, #2: 고옥화, #3: 송인생, #4: 장술생, #5: 강기수, #6: 김정자, #7: 현봉화, #8: 김양선)

#### 1. 조사마을

101001 @ 지금 표선면 세화리에 대해서 그 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여쭙보쿠다예?

101001 #1 예, 예.

101001 @ 어, 먼저예? 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 됐어인지 말씀해주십서.

101001 #1 예, 맨 처음에는 이 마을이 지금부터 흔 삼백년 전이라예.

101001 @ 예.

101001 #1 삼백년 전에, 으 위에 가며는 양위산이라는, 양오산이라는 데가 이수 다게.

101001 @ 예.

101001 #1 그, 내 동쪽인데 가시리 밑에.

101001 @ 예.

101001 #1 거기에 맨 처음 살다가 차차 이제 마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 돼어가지고 현재 있는 데 까지. 저 위에 여기에서 흔 약 이(2) 키로.

101001 @ 예.

101001 #1 이(2) 키로 위에서 살다가, 이젠 그 이쪽 깎지 오니까, 흔 이제 흔참을 내려온 편인데, 게서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 살다가춤 마을이 이쪽으로 이제 형성이 돼십주.

101002 #1 게서 맨 처음엔 이, 여기에도 성씨가 젤 처음 산 분이, 어떤 성씨가 살았냐며는 예, 그 설촌이, 설촌 할 때가 허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허씨가 살았는데 허씨가 살다가 그 다음에 타 성씨덜이 김씨, 경주 김씨, 그다음에 광산 김씨, 예, 또 편안 강칩이, 저 그 편안 강씨들이 여기 왔고. 또, 현씨, 또 정씨, 이렇게 그 성이 침, 여러 성이, 성씨를 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

101002 @ 교장선생님은 무신 강잇파?

101002 #1 여 저는 편안 강.

101002 #@ 아, 기파?

101002 #1 여 신천이우다.

101002 @ 아, 기구나예. 아.

101002 #1 아, 또 여기에 그 성씨가 최씨도 이서수다.

101002 @ 아, 기파?  
101002 #1 예. 여기 최씨도 현재까지 살고 이십주. 이 성씨가.  
101002 @ 기파? 그 최는 무신 최파?  
101002 #1 최? 저 뒷산 변에~  
101002 @ 어디 최마썸?  
101002 #1 아, 그 본진 다 모루쿠다.  
101002 @ 기구나예.  
101002 #1 전부 다 귀양 온 즈순덜이우다.  
101002 @ 아, 기파?  
101002 #1 예, 다 귀양 즈순덜이우다.  
101002 @ 조선시대마썸?  
101002 #1 제주도에는 이 저 고, 양, 부 웨로는 다 귀양 자손입니다.  
101002 @ 아, 경허구나예.  
101002 #1 게서 이 저, 표선면에도 제일 먼저 그 마을이 산디가 진사리라고 해서, 저 진사리가 어디냐며는 성읍리라예.  
101002 @ 아, 예.  
101002 #1 성읍리 다음에는 가시리우다. 또 가시리 우예, 성읍리 보단 쥬 처음 표선면에, 면에 먼저 사람살기 시작헌디가가시리.  
101002 @ 아, 가시리예?  
101002 #1 예, 가시린디, 가시리는 저 청주 한씨파?  
101002 @ 아.  
101002 #1 청주 한씨가, 한씨 그 조상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한씨 즈순은 그, 가시리 귀양 온 하르버지 다 즈순덜이우다.  
101002 @ 아, 기구나예.  
101002 #1 겨고, 그 우예 그 한씨 전에는 누가 왔냐며는 변씨가 안좌동에.  
101002 @ 안좌동이면 어디?  
101002 #1 안좌동, 가시리 우예.  
101002 @ 아, 가시리 그 우쪽 사람들이 내려오명 내려오명 사람들이 세화리까지 온 거파?  
101002 #1 그러니까 저, 여기에도, 거기에 온 사람들 하고는 또 틀러마썸게.  
101002 @ 거민예? 세화리 중심으로 돌아줍서예?  
101002 #1 예 예. 그 차례가 표선면부터 생각허민 옛날 동죽면인디?  
101002 @ 아, 예.  
101002 #1 동죽면부터 허민은 쥬 먼저 사람 살기 시작헌디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좌리라마썸.  
101002 @ 안좌리.  
101002 #1. 예, 안좌리. 안좌리는 저 그 변씨 조상인데, 옛날 임금, 임금님 아덜

동궁관, 임금님 아덜 저 그르치는디가 동궁관 아니꽂? 사는디가, 집이. 그 동궁관 벼슬을 허던 그 하르방이 그디 와낫젠 험니다.

101002 @ 예.

101002 #1 그래서 예, 그 후에, 그디가 표선면에서 먼저 사름이 산디고, 이, 세화리는 그 후에, 지금부터 삼백년 전, 사백년 그 사이에 저, 허씨가 저, 양이산 거기에 오라네 이제 그 터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세화리 설촌 처음이우다.

101002 @ 아, 기구나예. 그면 지금 현재는?

101002 #1 지금은 허씨는 어수다.

101002 @ 없고, 어느 성씨가 켈 많우꽂?

101002 #1 지금은 어느 성씨보다도 기자 대강 아까 얘기한 김씨, 또 정씨 현씨 강씨, 그정도우다.

101002 @ 으 흐르기 와가지고 물어보난 어떤 어른들은 현씨가 켈 먼저 가시리에 자리 잡앗텐 현 말은 무슨 말이꽂?

101002 #1 가시리는 한씨.

101002 @ 아니아니, 세화리.

101002 #1 세화리 아니우다. 허씨우다. 허씨.

101002 @ 허씨가 먼저 와수꽂? 게민.

101002 #1 허씨.

101002 @ 허씨가 예?

101002 #1 그 허씨가 어떻게 왜 그랫냐며는, 옛날 그 정의고을들이 저, 동남에 이서나십주께. 고성에.

101002 @ 아, 기꽂?

101002 #1 고성에 잇단, 옛날 그 정의현이, 현에는 옛날 현감이 잇잖우꽂?

101002 @ 맞수다예.

101002 #1 현감 밑에 그 따라헛기는 그 저, 벼슬자리들이 잇잖음니까?

101002 @ 이방이나 이런 사름덜마씨?

101002 #1 예 예 예, 그런 사름덜 중에 허씨가 이신디, 이 저, 순회 돌아보레 텅 기다네, 여기 이 저, 고성에서 이제 저,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 따라 이레 다니다보니까 으 세화리 오름 가시오름과 가시오름 저 우에 가시리 잇잖음니까 양?

101002 @ 예.

101002 #1 가시리광 여기 세화리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데 지형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차를 이제 끝난 다음에 허씨가 이제 여기 와서 먼저 살았다고 험니다.

101002 @ 경헛구나예. 경허믄.

101002 #1 예. 터 잡앙.

101002 @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101002 # 그게 흔 삼백년 전에.



101003 @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라던가 이때에, 아니면 그 이후에 라든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와수과?

101003 #1 어떤 일, 보통 농사지어십주. 농사짓고 소 말 기르고.

101003 @ 소 말도 기르고예?

101003 #1 예 예. 목축이 많아십주.

101003 @ 예 예. 그다음.

101003 #1 우리 조상들도 보며는 소 말 기르고 농사짓고, 예.

101003 @ 교장선생님도 헤나수과?

101003 #1 예.

101003 @ 경해닷구나예. 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쭙보쿠다예?

101004 @ 그다음엔 예 이 세화리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내창, 바위라든가 굴 같은 거 이시민 흐낌 곱아줍서.

101004 #1 세화리 주위에 굴은 어수다. 바로 이 것, 으기 사는 우리집에서 흔 오메타 되는 으기에 동산이 이섯는데 거기에 굴이 흐나 이서나십주.

101004 @ 퀘마썸?

101004 #1 예. 퀘 퀘 퀘.

101004 @ 그 퀘이름이 무시건지 기억남수과?

101004 #1 게, 으기가 퀘므루, 퀘므루 흡주게.

101004 @ 예, 퀘모루예. 퀘가 이서나난 퀘모루엔 험구나예?

101004 # 이제 여기 우리 집 바로 동서남쪽에 집이수다. 그디 모루 옆에 집 지선 살압수다.

101004 @ 아, 예. 오름은 어수과?

101004 #1 오름은 저 가시오름베끼 어수다.

101004 @ 아, 오름이 가시오름이파?

101004 #1 예.

101004 @ 아, 가시오름. 내창은마썸?

101004 #1 내창도 저, 가시리에서 내려오는 내우다.

101004 @ 그 내 이름이 뭐우파?

101004 #1 가시천이엔 험니다.

101004 @ 가시천이엔 예? 옛날에도 가시천이엔 곱아수과?

101004 #1 예 예. 이딘 저, 돈오름 내엔 흐극.

101004 @ 무신내마썸?

101004 #1 돈오름내

101004 @ 돈오름?

101004 #1 예. 돈오름.

101004 @ 무사 돈오름이엔 헤신고예?

101004 #1 뽕뽕 돌라진데난 돈오름이엔사 험신디.

101004 @ 그다음에는 혹시 큰 바위라든가 뭐 이런 건 어수과?  
101004 #1 바위마춤?  
101004 @ 예.  
101004 #1 동산덜은, 바윗동산덜은 이서수다마는 이제 다 어서저부난.  
101004 @ 그때 이서난 바윗동산 이름은 뭐라나수과?  
101004 #1 팡문은 동산이엔 헌디가 이수다.  
101004 @ 무사 팡 문은디엔 헤신고예?  
101004 #1 그, 돌멩이나 이런 것이 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101004 @ 아, 팡팡 헤가지고.  
101004 #1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101005 @ 그다음에 이 세화리 안에예 무슨 기관 같은 거, 들어선 거 이수과?  
101005 #1 기관이엔 헌 거, 옛날엔 없고양, 요, 해방 후에 화산초등학교가 생겼다  
네 요즘 학생들 막 죽아가니까 뗏 안되니까 이젠 네중에 저, 세화리, 저 토산 저 하  
천이, 가시리 헤가지고 저, 지금 한마음초등학교 만들어부러수다.  
101005 @ 아, 한마음초등학교가?  
101005 #1 예, 저쪽으로 가십주.  
101005 @ 예, 막 곱닥헌 학교예?  
101005 #1. 예, 예.  
101005 @ 거민 아이들 학교에 어떻 다넘수과, 학교를?  
101005 #1 자동차가 이수게 빠쓰.  
101005 @ 아, 빠쓰가 잇구나예.  
101005 #1 예, 예. 학교 빠쓰가 잇썸니께.  
101005 @ 아, 빠쓰로예.  
101005 #1 빠쓰로 전부 실어가곡 실어 오곡.  
101005 @ 옛날에 교장선생님은 어느 초등학교 다녀수과?  
101005 #1 표선초등학교.  
101005 @ 아, 표선초등학교예.  
101005 #1 표선,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표선초등학교 가젠 허니까, 우리 아홉살  
때 가나네, 거기서 안 받아 주어네 시험보고 다 험디다.  
101005 @ 아, 예.  
101005 # 시험봐네 안 받아 주나네 이젠 안 갓단, 그 다음해에 열 살 뉘네 그디  
간 시험반 텅겨나십주.  
101005 @ 그 당시는 일제 때 마썸?  
101005 #1 예, 일제 강점기.  
101006 @ 기구나예. 그리고 이 마을에 계, 그 점 같은 거 어서수과?  
101006 # 점은 없고양, 옛날엔 마을에서 그 무슨 일이 나며는 상뒤.  
101006 @ 상뒤로?

101006 #1 예, 그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돕는 그 상뒤를 멘헛습니다게.

101006 @ 상뒤.

101006 #1 상뒤라고 헛가지고 마을 전체적인 그 친목입주. 전체적인, 무슨 사람이 돌아가신다 허며는, 그 영장허젠 허면 그 필요하지않은니까?

101006@ 예.

101006 #1 그래서 그 온 동네사람덜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장사를 지네주고.

101006 @ 경헛나수과.

101006 #1 예, 경허고 무슨,

101006 @ 몰ㄴ랑계 같은 거 어서수과?

101006 #1 몰ㄴ랑계렌 현 건 없고, 다 동네마다 몰ㄴ랑, 몰ㄴ레 헛나씩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헛니다.

101006 @ 계렌 허지 안헛 그냥 동네 헛나 영 이렇게 놛가지고예.

101006 #1 예, 예.

101006 @ 여기는 몰ㄴ레가 몇 개쯤 이서수과? 세화마을 안에.

101006 #1 동네마다, 하나 둘 셋, 세 개나 이서수다.

101006 @ 세 개예.

101006 #1 예. 동네마다 이서십주. 이 지금도, 지금도 삼동으로 갈라졌는데, 아 이젠 그때도, 그 때 네 개가 이섯구나. 몰ㄴ레. 몰ㄴ레가 네 개 이섯는다 이젠 헛낫도 어수다.

101007 @ 그리고 이 마을에, 세화리에 독특한 무슨 풍습 같은 건 뭐 이수과?

101007 #1 풍습은 여기 마을에 당이 이수다. 당.

101007 @ 당, 당 이름은 뭐마썸?

101007 #1 세화리 그자 당입주 당.

101007 @ 당 예?

101007 #1 그, 당이 있는데 그 사삼사건 전에, 일제 시대로구나 일제 시대에 그 일본 놛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일본 놛 멘장이 다 꿩고 일본 놛들이 다 오란 시키고, 학교 교장도 전부 초등학교교장도 일본사람덜이 허잖여수과?

101007 @ 맞수다.

101007 #1 전부 헛는다 그 당시 일본 놛들이 이 그 저, 우기 그 조선사람덜은 말을 완전히 바꿀려고 얼마나 혹독한 일을 헛는지, 모든 게 이 믿는 걸 미신이라 헛가지고 그 와서 전부, 그 방인데 집 지어놓고 거기서 그 기도를 헛다든지 뭇 헛나 십주. 공들이고 뭐 허꼭 헛난는다, 그걸 오란 그, 그당시에 먼서기덜, 서기 시켜가지고 와서 불지던 태와불지 안헛수과?

101007 @ 예.

101007 #1 그 사람이 불지던 그 당을 태와 버리두고 이제 갖는다 집에 가자마자 뭇을 받았는지 어어뻗는지.

101007 @ 곳 죽어부럿구나예?

101007 #1. 뜨겁다고 하면서 뭐해네, 그 불지더동 가네 죽어버려수다.

101007 @ 아아.

101007 #1 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현 말이 그 당 다시 설립 해달라고 그 유언을 냅고 죽어버려십주. 그러나 그 뭐 일본 시대나네그 뭐 했는디. 게, 당헌 불지더버리나네 그 집은 타버렸는디, 게 그 부락사람들은 또, 그건 타버렸지마는 다른쪽에 해서 조그맣게 뭐 나무 밑에난 이런데 가서 그걸 만들어수 쪽~ 하다가 그.

101007 @ 해방 전에마썸?

101007 #1 예. 허다가, 그 또 그때는 숨어서 허는 거 돼십주게. 모든 걸 다 일본 놈들이 저, 너무마 뭐허게 허기 때문에 일본 관리라고 허며는 다 속여숫게.

101007 @ 아. 그 마을주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마썸?

101007 #1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털이 거짓말이라는 건 저, 없었고, 거짓말은 하나의 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허지 아녀면 살길 못허게 된 것이 어떤 놈이 때문이나며는 저 웨놈들 때문입주게.

101007 @ 기구나예.

101007 #1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본놈을 속이지 안허면 못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에 실지 예를 든다고 허며는 그 시대에 일본 놈들이 대동아전쟁을 저 일으켜가지고싸움할 때에 오라네 낫그릇 다 걷어가 부러지, 심지어는 보리, 조, 뭐 생산허는 거 공출, 그것도 공출입니다. 공짜로 내 다 받아가는 거여. 밭이 멧평이고 밭을 갈며는 거 얼마를 내놓라 해서, 강제야. 저, 공산주의보다 더 현 놈들이여. 강제로 해서 전부 다 가져갔는데 만약에 보리를 가마니로 열 개면 열 개 내노라고 해서 열 개 못 내노며는 와서 이제 집을 완전히 춤 쭉대밭 돼도록히 문 조사해여. 조사해서 아지고.

101007 @ 음.

101007 #1 만약에 숨겨둔 씨앗이라도 이시면 씨앗도 전부 가져가불잖아.

101007 @ 그거는 다음 다음에 질문이실 때 질문허쿠다예.

101007 #1 예.

101008 @ 그다음엔 여기 세화리에서 특산물론 뭐가 이수과?

101008 #1 특산물로는 그 전에는 뭐 조, 보리, 고구마, 벼, 메밀.

101008 @ 옛날에 고구마니 벼레는 안 고랐지예? 옛날에는.

101008 #1 감저. 고구마가 감저. 켄디 고구마는 감저엔 허고, 지금에 말허는 감자는 지실.

101008 @ 지실이엔 곶갯고예.

101008 #1 예, 지실. 켄데 감자, 감자가 많이 나서, 그 감자 일제 시대는 감자 절간허영, 감자를 썰어가지고, 그 기계가 십주. 그 넣어서 돌리며는 감저가 썰어져 나와.

101008 @ 그 뺏데기 만들 때 일제 시대도 그 기계가 이서수과?

101008 #1 예!

101008 @ 기구나. 그러면 뺏데기로 걷어간마썸? 일본에서가?  
 107008 #1 그 받아가십주. 그해서 그 저, 제주시 그 저, 부두쪽으로 가는데 거기  
 에서 그 저 알콜.  
 101008 @ 주정공장마썸?  
 101008 #1 주정공장. 주정이 바로 그 고구마로 만든 주정이어.  
 101008 @ 맞수다게.  
 101009 @ 그다음에는 이 마을에서, 아, 우리 세화에서는 진짜 이게 최고라게 혈  
 자랑할 만 거 뭐이수과?  
 101009 #1 허! 자랑할게 이젠 다 없어져서.  
 101009 @ 옛날엔?  
 101009 #1 옛날에는 여기 참, 허! 화목하고 살기가 참 편안헌디주. 겐데 흥년이  
 들어서 해도 저 웨부에서 세화리 와서 먹을 거라도 조금 구해서 끓어지고 나가났  
 지, 세화리 사는 사람이 다른데 가서 흥년이 들어도 다른데 가서 얻어다 먹은 예는  
 없어.  
 101009 @ 그렇구나예.  
 101009 #1 그러니 여기 사람덜은 곳곳에 부지런히 헤가지고 자급자족 헛쟁허카?  
 101009 @ 예~.  
 101009 #1 그것이 이섯는데 이젠 누구나 다 경허는 사름은 없고.  
 101009 @ 맞수다.  
 101010 @ 이 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잇잖아예? 그 무슨 지형이라든가 풍  
 습이라든가 특산물 자랑거리 같은 거, 이거 웨로 뭔가 특별나게 세화리는 어떤 데  
 라는 걸 혹시 하시고픈 말 이시민 그라줍서.  
 101010 #1 휴! 제 여기 제주도 사삼사건 지금 말허는데.  
 101010 @ 사삼에 대해선 다시 질문할게예? 다음 칸에서예?  
 101010 #1 예.  
 101010 @ 따로 이제 사삼 말고 말할 거 어수과? 사삼은 이제 다음 질문에 저가  
 질문에 들어가쿠다.  
 101010 #1 어수다.  
 101010 @ 어수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마을에 대해 말씀드려수다예.

## 2. 제보자 일생

(@: 최연미, #1: 강필문)

102001 @ 어디서 낳고, 어떻게 자라신디 잠깐만 말씀해 주십서.  
 102001 #1 예, 난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살아수다.  
 102002 @ 경헛지예?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헛수과?

102002 #1 우리아버지는 목축, 소 말도 기르고, 농사도 지으면서 또 집짓는 목수 여수다.

102002 @ 경혜수과? 몇 오누이, 저기 형제분이 몇이라나수과?

102002 #1 우리아버지는, 우리아버지는 형제가 잇섯는데.

102002 @ 아니, 교장선생님네.

102002 #1 아, 나는 예, 우리아버지 밑에 세 성쩍주. 세 성제. 세 성젠디 내가 젘 막둥이.

102002 @ 예~.

102002 #1 다섯 오누이, 아 저, 다섯 저 형제간인데, 아섯 셋 딸 들인데, 내가 아 덜 중 막둥이 세 번째.

102002 @ 션 번째마썸.

102002 #1 내 밑으로 누이동생이 둘, 그래서 다섯 오누입주.

102002 @ 지금 다 살아계시우과?

102002 #1 우리 형, 두 형님은, 우웨로 큰형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 도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은 저 육이오 때 가가지고 전사당헤버리고.

102002 @ 아, 기과?

102002 # 그래서 저는 막둥이로, 기자 막둥이 흐나 남아십주.

102003 @ 기과? 교장선생님 어머니 고향은 어디여수과?

102003 #1 우리 어머니는 원래는 저 여우내. 신흥2리.

102003 @ 거기를 여우내렌 혜수과?

102003 #1 예, 예. 여우내, 신흥2리. 여우내엔 현디 광산 김침이 뜰입주.

102003 @ 아~.

102003 #1 광산 김침이 뜰인데 우리 광산 김침이 우리 어머니 웨가가 남원, 옛날 일제 시대 그 처음으로 멘장 혈 때에 저, 여기는 동죽면이고 남원이는 서중면 아넵 니까? 서중면이라났는데 서중면 면장 웰 처립주.

102003 @ 아~, 기엇구나예.

102003 #1 (웃음)

102004 @ 교장선생님 어릴 땐 여기서 어떤 놀이를 혜수과? 놀이 종류덜 고라줍 서.

102004 #1 놀이, 우리가 기억남은 게 연 띄우는 거.

102004 @ 예.

102004 #1 그다음에 팽이 치는 거.

102004 @ 예.

102004 #1 그 다음 구멍치기가 이서예 (웃음).

102004 @ 고망치기예?

102004 #1 구멍치기 (웃음).

102004 @ 다음엔 놀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질문 할게예?

102004 #7 예.

102005 @ 그다음엔 아까 잠깐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등 생활 전반에 걸쳐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공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신가요?

102005 #1 공출은 그 당시에 그 저 어떻게야 조사했는지 그 면에서, 면서기들이 전부 조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농사짓는데 뭐 그 집에 밭이 몇 평이고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허고, 전부 알잖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보리, 보리공출이 이것고.

102005 @ 저 빼떼기 같은 거.

102005 #1 빼떼기, 또 그 다음에는 뜸, 뜸이엔 허민 알아지쿠과?

102005 @ 모루쿠다.

102005 #1 뜸이넌 현건 뭐이냐면, 새 헤다가, 새 헤다가 이제 그 뭐 덮으려는 물 바라가지고 물, 비 맞지 않게 그걸 엮어갑시다. 노 꼬아가지고 그걸 새를 놓으면서 엮어마썸. 그걸 뜸이라고 합니다.

102005 @ 우장 같은 거 마썸?

102005 #1 예, 우장 같이 해서 허지 않고, 우장은 아주 가늘게 해서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우장이고 으건 바깥에 이거 뭐 저 빼떼기나 이렇게 막 헤다 노며는 구 우에 덮으는 거.

102005 @ 아~.

102005 #1 덮으는 용으로 그 그걸 만들어.

102005 @ 만들엉 가져오렌 헤마썸?

102005 #1 예 가져오렌 헤나수다.

102005 @ 아, 기구나예.

102005 #1 겨고 우리 학생시대는 학생들은 뭘 허느냐며는 저 송진.

102005 @ 예.

102005 #1 송진을, 그 저 소나무에서 빼어가지고 그걸 바찌렌 헤나고, 거, 여기서 송진이 소나무가 송진을 받을려면 오래 걸리거든예? 그러믄 소나무 가지를 착! 허게 끈영 내볼머는 그걸 송진이 맺혀잇지 안음니까? 게민 그런 걸 가지를 전부 끈 어다가 그걸 드람, 학교에서 도람통에 놔가지고 밑으로 불 땀니다. 그러믄 그 나무에서 진, 송진이 녹아서 내립주.

102005 @ 아~. 태우렌 행예?

102005 #1 그걸 바찌나썸니께.

102005 @ 예~.

102005 #1 그러지. 또 저~트, 지금에 말하면 이질풀.

102005 @ 예, 이질풀.

102005 #1 이질풀, 그 때 그게 켄노쇼컨데 이질풀, 또 도꼬마리 그 씨앗.

102005 @ 도꼬마린 뒤에 씨신고예?

102005 #1 도꼬마리도 그거 자기네 기름 뭐 헐려고.

102005 @ 아~.

102005 #1 그거 해서 저 바찌고, 또 학생들에게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며는 저, 해바라기 씨 열 방울, 또 피마자 씨 열 방울 주어서 내중엔 그거 열 방울 준 다음엔 뭘허냐며는, 해바라기를 그 열 방울 심어가지고 그 씨를 흔 말씩 내라는 거야.

102005 @ 아~.

102005 #1 그 안내며는 즈 젓(웃음), 그 당시에는 뭐냐? 실과?

102005 @ 예.

102005 # 그 뭐예, 성적에 올려.

102005 @ 아~.

102005 #1 그리고 그거 해서 피마자도 그렇게 행 바찌고, 뭘 행 바찌고, 그 일제시대 얼마나 학생들까지도 부러먹었다고?

102005 @ 아~.

102005 #1 저고 또 절간, 아까 얘기하듯 절간해서 그거 바졌지, 또 그 웨, 그~트, 저~트, 담배, 담배를 했는지 그걸 뭘로 썼는진 몰라, 그 저 이질풀을 헤가지고 그 몰려가지고 그것도 내놔고. 게 맞전 기영해서. 내중에는 막 저 뭐 헐 때는 드룻멀리 잇자니여 멀리.

102005 @ 예, 멀리.

10205 # 머위, 드룻멀리 그 잘 자란 게 까망허여, 그 녀쿨을 저 밧지라, 만들어, 저 끈어다가 밧지라고 해서 내 그것 저 들에 가가지고 그 녀쿨을 흔 짐 저네 밧져가지고 상 받으멍 해낫는다.

102005 @ 그걸로 뭐헤신고예?

102005 #1 그걸 뭘헷는지 몰라.

102005 @ 예, 경헷구나예?

102006 @ 그다음엔 어 여기, 세화에도 많이 사삼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이신디예? 사삼 때 교장선생님 네는 어떤 피해 같은 거 이서수과?

102006 #1 사삼 때는 피해는 없고, 우린, 난, 고생을 하영 헷는다, 세화리는 사삼 때 희생자가 흔 청년덜 임원덜, 청년회의 임원덜 십칠 명, 세화리 사람만 십칠 명, 또 그 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이고, 청년덜 피해가 그 여기에 그 이섯습니다. 이섯고, 세화리는 소탕을 하지 안해서.

102006 @ 음.

102006 #1 게, 소탕을 아니한 이유가, 그 당시에 세화리에 그 젓~트 이장까지 지내고, 그 옛날엔 구장인디, 지금엔 이장이고 옛날엔 수장인데 구장도 오래하고, 거~일본 놈들이 구장 허며는 구장을 오죽 못살게 헤수과?

102006 @ 맞수다게.

102006 # 구장안티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무시거 공출 하는 거, 또 사람 뽑아가지고 어디에 그 젓~트, 석탄 파레 보내는 노무자덜, 이장한티 구장한티 전부 행으네 뽑양으네 보내렌 헷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 허는 거 이장을 아주 기초로 행으네



아주 막 못살게 굴어나서.

102006 @ 누가 못살게? 정부가마썸?

102006 #1 그 일본 놈들이.

102006 @ 아니 아니, 사삼 때.

102006 #1 그헨디, 그렇게 헛던 사람이 구장이 있었는데.

102006 @ 예.

102006 #1 그 구장이 사삼사건 때는 예, 우리 부락에 그 한 사람이 옛날 그 일제 시대부터 그 일본에서, 일본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사상이라고 해서이.

102006 @ 예.

102006 #1 지금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며는 공산주인데 일본에서 사회주의는 일본 하고 이렇게 반대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흔 사람이 이섯서.

102006 @ 예.

102006 #1 그 사람이 일본에 살았는데, 이 부락 사람인데 그 사람 형은 여기에 구장으로도 이섯고, 그 동생은 표선 면장까지도 헛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게 이섯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자꾸 그 일본을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니까 지금 같드며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 허기로는 그게 반일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102006 @ 맞수다예.

102006 #1 그러니 요주인물이라 말이여 일본 놈들은. 하도 그 놈의 그 뭐허니까 일본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서.

102006 @ 추방을 시켜버리니까 갈 디는 어디이서, 고향에 베뀐 더 올 거 아니?

102006 @ 예. 맞수다.

102006 #1 게네 이디 오란 이젠 묻혀서 사는디 일본놈들이 그 싸움에 갱헨 내쫓았는디 일본 놈들이 망허지 안해서?

102006 @ 예.

102006 #1 망허난 우린 해방될 거 아니?

102006 @ 예.

102006 #1 해방 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허단 이디 오란 사는디, 일본놈들이 요주의 인물로 헤그네 감시를 헤낫거든. 감시를 헤낫는디 해방이 뉘어서 뭐허니까, 우리나라 그 경찰이 잇잖냐?

102006 @ 예.

102006 #1 경찰이 일본 놈들이 허던 감시허던 그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 바로 세 화리에 이섯던 거야.

102006 @ 예~.

102006 #1 게서 이젠 사삼사건은 나서 이제 뭐허니까, 이거 소개하라고 허니까, 흔 그 구장을 헛던 그 사람은 우린 소개허지 않겠다, 소개 허른 어디 가서 사는냐, 집 없이 다른데서 가서 살 수도 없고 우리 부락 사람들 다 가며는 살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네 우린 소개 절대 못 허겟다 허연, 중산간에서 소탕 안헐디가 이 부락허고 성읍리 뿐이야.

102006 @ 아~.

102006 #1 제주도 뽕~일주도로에만 사람이 잇고 중산간에 하낫토 없어, 집이.

102006 @ 맞수다.

102006 #1 겐디, 세화리 1리하고 저 성읍리만 이섯서. 그 성읍리는 왜 이섯냐며는 옛날 정의고을 아니라게?

102006 @ 맞수다.

102006 #1 현관이 잇고 해나나네, 게, 성읍리 잇는데 성읍리 허고 여기는 아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으문 죽어도 절대 우리 부락에서는 다른데 못 간다, 안가겟다 쟁허니깐 흘 수없이 이젠 여기는 안 갈 걸로 해서 헛는데 이제 내중엔 그 저 초토와 시긴가 뭇 놈의 그 놈의 작전으로 문밖 불 붙이기 시작 허지 아녀게?

102006 @ 여기 세화도마썰?

102006 #1 거난 세화는 안헛주게.

102006 @ 안 허고 예? 넘어가고예?

102006 #1 그 작전이 이젠 바로 시행을 허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기에서 살겟다고 해서 나쟈바졌는디, 거 허니까 가시리, 아 그이 땃 년도니, 그 사삼사건 다음 해 그 해.

102006 @ 사십구 년에예?

102006 #1 그 해, 으. 사십구 년, 그 사삼사건 일어나는 해에, 구년인가? 사십구 년.

102006 @ 사십구 년, 예.

102006 #1 사십구 년 음력 시월 십오 일. 시월십사 일 날 거기에 아즈니까 이 청년덜 무시거 전부 표선으로 전부 모이라 헛단 말이여. 게 거, 여기 청년덜 전부 같 거 아니?

102006 @ 예.

102006 #1 가니까 세화리에 요주의 인물이 흥나 이섯단 말이여. 겐디 세화리에 살고 잇섯서. 그 사람이 산에도 올라가지 아녀고.

102006 @ 예.

102006 #1 그 사람덜은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빨갱이로만 인정을 허는 거여.

102006 @ 아~ 아.

102006 #1 겐디 빨갱이 아니라는 건 어째서 나가 생각허기로 나느냐면, 내 그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땡길 때거든. 다른데서 메모지를 주어.

102006 @ 예.

102006 #1 이거 세화리 누게안티 전해주렌 허영 주며는 걸 갖다 주며는 그, 나하고 동창 아방니까 그 아덜안티도 안주곡 나를 시켜 동네에 사니까 나를 시켜갖고 그디 그 사람 안댄 허니까 그디 갖다 주라고 헤여. 게 가며는 갖다 주며는 그 사람

은 그걸 무시해버려. 자기는 필요 없는 것 같이 경해. 느 잘 아정 오랏져 현다든지 이렇게 흐민 허주마는, 예, 다시랑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102006 @ 음~.

102006 #1 경헨 내중에는 여러 번 쥐도 가져오지 말렌 헝 뭐하니까, 아마 대답을 그에 순응 안헐던 모양이지.

102006 @ 예~.

102006 #1 그게 가만 보니까 그 남노당 그 직원인 모양이라.

102006 @ 아~.

102006 #1 마음은 남노당에 땡기는 사람인 것 같애.

102006 @ 음~.

102006 #1 나도 모르는다. 켜디, 내중에야 그걸 알앗지. 켜디 그 사건이 뉘니까 불 부찌레 소탕허레 간다고 청년덜 모이렌 허니까 거기에서 열일굽 사람, 우리 부락사람 열일굽 사람 청년들 임원들 다 불른 거야.

102006 @ 음~.

10206 #1 불러서 딱 가되 논 거야. 그 소탕하러 가지 앗고 불러서 딱 가되 논 거야. 그 소탕하러 가지 앗고.

102006 @ 예~.

102006 #1 가시리는 그 다음날은 가시리 뺑~ 허게 둘러싸가지고 전부 불부찌서 사람도 죽여불고 다 불 부찌버렷잖아.

102006 @ 예~.

102006 #1 켜디 그 불붙진 아침에는, 저 그 형이 구장이엇서. 그 당시에.

102006 @ 그 마을에서 안 나가켜 현 사람.

102006 # 으으. 그 남노당으로 지목을 받던 그 사람이, 일제시대 그 추방당헝 온 사람.

102006 @ 예.

102006 #1 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성이 구장이엇서. 게 구장 면에서 침, 모이렌 흐민 모일 거 아니?

102006 @ 예.

102006 #1 모여서, 이사람 널 데려 오라. 널 아흠 시까지 안 데려오며는 으 일굽 사람, 열일굽 사람 이사람 대신 총살 허켜 허니까, 총살헝 정말 죽일 걸로 생각을 안헐거든.

102006 @ 맞수다예?

102006 #1 그래서 이젿 저녁에 와가지고 동생안테 ‘야, 제발 죽어도 느 손으로 강으네 죽으렌.’ ‘나 뭐 잘못이 잇으멍 나 뭐 흐는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뭐헌데 가서 죽느냐’멍, ‘죽으민 죽어도 아무디도 안 간다고.’ 형제간이 아멩 소정해도 뉘 말이나. 강제로 끌영가진 못헌단 말이여.

102006 @ 맞수다예.

102006 #1 누게 웨크냐게, 그 누게가 경 헐거니?

102006 @ 경허난예.

102006 #1 경허단보니까 아홉 시가 넘어버렸단 말이어. 게니까 총소리 나니까 정말 죽여 부러시카부덴은 아넛주게. 게 열릴굽 사람 다 총살해 버렸잖아.

102006 @ 찢찢, 게 그 구장 동생은 게 어떻 돼수과?

102006 #1 경허나네 내중에는 그 사람 다 죽여부러니까 게, 형이 어떻헐 말이라.

102006 @ 하이고.

102006 #1 스실관계 ㄱ를 거 아니?

102006 @ 예.

102006 #1 경허난 동네사람들이 ‘홀 수 없다, 우리 너네 성이나 무시거나 우리 사람덜 다 살리젠 허민 너 가렌’ 심언 받전 간 주어부러주게. 심영 가나네 이젠 일 본놈덜 그 칼로 야게 끊언 죽여부러주게.

102006 @ 아으, 진짜예(한숨).

102006 #1 경허네 그것이 발단이 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빨갱이 허고 산에 올라간 그 저 거시기 남노당 뭐 허던 놈들이 맨 처음엔 육지에서 들어온 놈들이거든. 구련대(9연대)가 그 전부 공산주의라.

102006 @ 예.

102006 #1 십일 연대는 저 제주시에서, 십일 연대 대대장은 그 부하안티 그 남노당 부하안티 얻어 죽자니여서. 총살 헤어부러주게.

102006 @ 예.

102006 # 경허명 헤언는디 그 트, 그 공산주의허고 남노당 그 저, 사삼사건 때 일어난 그 주도자덜 허고 이거 구분을, 양민허고 구분을 어떻게 허느냐면 증명을 해주게 돼어서.

102006 @ 예.

102006 #1 양민증이엔, 그게 양민증이라, 민증 나온게. 내중엔 뭐 도민증이넨 허다네 이젠 주민등록으로 다 바꿨주마는 맨 처음엔 그 양민증이라. 그 죽은 사람 가족은 양민증을 안 해주겠다고 하거든,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 일제 시대부터 그 구장허든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양민증 안 해주민, 이 가족들 양민증 안 해줄 바에는 우리 세화리 사람 다 양민증 해주지 말라. 다 죽이커들랑 다 죽이라.’ 게명 이젠 반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경찰이 그 사람을 개머리판으로 갖다 조지곡이 팍 맞는 거라.

102006 @ 음.

102006 #1 경 그 사람이 죽으면 죽어도, 입에 막 피버꿈 물고, 이렇게 막 맞아서 피 나면서도 이 사람들 양민증 아니해주민 우리 다 해주지 말라고 계속 속카렸단 말이어. 게니 그 사람 내중에 그렇게 돼도록 계속 허니까 이런 췌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젠 막 허니까 양민증을 다 만들어 줘서.

102006 @ 음.

102006 #1 그래서 그 형이나 그 가족이나 그 아들이나 딸이나 다 살곡, 그 친족 그 당시에는.

102006 @ 다 죽여실건디예?

102006 #1 그 당시에는 8촌까지.

102006 @ 맞수다예.

102206 #1 저, 거기에 가담한 뤼시면 팔촌까지 다 죽이게 뵈단 말이여.

102006 @ 계난예.

102006 #1 그 사람 죽여볼라면 죽일 때라.

102006 @ 맞수다, 맞수다.

102006 #1 게 가지고, 그 가족들 전부 살리고 내중에는 부락은 읍기지 안허켄 허니까 주위로 뽕~ 허게 둘러서 성담을 밑에는 우리 밭로 혼 밭 넘어, 굽이 그렇게 담을 쌓잖아. 높이가 얼마냐면, 예~ 한 삼 미타, 우리 사람 키가 일 메타 오십 베컨 더 뵈나, 계연 그거 사람 두 키.

102006 @ 예.

102006 #1 그 높이로 뽕~ 허게 둘러서 성담 쌓서 여기 살았잖아.

102006 @ 계믄 그 사삼 끝나가지고 구장이나, 구장 동생이나 그 가족들 때문에 죽은 열일곱 명의 그 젊은 사람들의 가족들 하고는 서로 원수정 살거나 정 안헤수과?

102006 #1 아니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102006 @ 그러니깐예.

102006 #1 즉 대행총살이란 말이, 그 대행총살이 있을 수가 있나.

102006 @ 그니깐예?

102006 #1 게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주의 거시기면 사람덜이 그 냉기는냐?

102006 @ 계난예? 맞수다. 계나, 아이고 아무튼.

102006 #1 겨난 이견 누게 아무도 몰라. 난 그 그걸 매 맞고 그 사람 매 맞는 걸 봤거든, 앞에서.

102006 @ 계난, 잘도 훌룡허다예? 진짜.

102006 #1 그래가지고 그 웨 사람들은 또 심어다가 저기에서 합동으로 총살 허는데 총 맞아서 게도 총을 제라헌디 맞지 아니헤영 이?

102006 @ 예.

102006 #1 옆으로 비킨다던지 영 헤그네 혼 사람은 내중엔 창으로 강으네 사람 찢러 죽이라고 헛거든.

102006 @ 예.

102006 #1 쟁해도 산 사람이 산 사람이 잇서. 살아서 와서 이제 숨은 사람 또 내중엔 심어다네 또 죽여볼고.

102006 @ 게 세화리는 그믄.

102006 # 게 그 사람들 허고 그 웨에 사람덜.

102006 @ 합치면 몇 사람 정도 희생돼수가? 사삼 때.

102006 #1 (한숨) 그 열일곱 사람하고 그 웨에 사람이 혼, 내 확실히 그거 다 세지는 못 세겠네. 그 그 답음엔 성담 싸기 전에 이?

102006 @ 네.

102006 #1 싸기 전에 저기에서 와서 식량을 구해, 막 털어가꼭 해놔주게.

102006 @ 산 사람들 마씨?

102006 #1 어. 쉘도 오랑으네 해가고, 혼 번 습격을 들어서. 습격 들어서 온 때가 그때 다숫 사람이 죽어서.

102006 @ 그 사람, 산 사람들 안티마썸?

102006 #1 산 사람들 안티. 얻어 죽어가지고 저 이 동네까지는 오지 않고 저 윗동네로 해네 헛는다 그 후에 성담 쌓은 후에는 습격을 들질 못했주. 성담 쌓음과 동시에 경찰이 이디 일개 뭐 소대민 소대가 경찰이 이서가지고 이 부락에서 소 잡으멍.

102006 @ 맥엇구나예?.

102006 #1 맥연 살렷거든. 그 사삼 끝날 때까지.

102006 @ 게난 경찰안티도 피해가 없고, 산 사람들 안티도 나중에 피해가 없오예?

102006 #1 게난 그 때만 피해가 잇섯주.

102006 @ 피해가 잇고~.

102006 # 겨난 그 열일곱 사람은 쉘 없이 얻어 총살 당한 사람.

102006 @ 경헛구나예? 아, 사삼 이야기는 여기로 정리하고예.

102007 @ 교장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셔수과?

102007 #1 결혼?

102007 @ 예. 몇 살 때 해수과?

102007 #1 나, 쭈물흔 슬 나는 해.

102007 @ 연애결혼 해수과? 중매결혼 해수과?

102007 #1 (웃음) 중매.

102007 @ 중매결혼 해수과?

102007 #1 어.

102007 @ 사모님은 어디서 오션마씨?

102007 #1 저 가마리. 세화 2리.

102008 @ 중매결혼 할 때 사주는 봐수과?

102008 #1 사주?

102008 @ 예.

102008 #1 물론, 그때야 사주 다 봐 현 때.

102008 @ 게 사주 막 조텐 해수과?

102008 #1 몰라, 조텐사 해신디 굿젠사 해신디.

102009 @ 그근예? 결혼행 올 때 새각시가 혼수품은 뭐 행 와수과?  
 102009 #1 혼수품? 이불 하나.  
 102009 @ 이불 하나예? 다른 건 어서수과?  
 102009 #1 다른 건 우리 결혼할 땐 돈이 없을 때라.  
 102009 @ 그근 교장선생님은 뭐 해줘수과? 새각시 안티.  
 102009 #1 해준 것도 없서.  
 102009 @ (웃음) 언제부터 교직에 가서수과?  
 102009 #1 (한숨) 천구백~ 오십~ 거신 나 땃 설에 가져신디 모르키어. 오십년?  
 오십이, 오십오 년인가?  
 102009 @ 그때 몇 세마썸?  
 102009 #1 오십오 년, 쭈물세 설에, 쭈물세 설부터 학교 땡겨시나네, 오십오 년  
 답다. 오십오 년.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 식 어디서 올려수과?  
 102010 #1 원래 우리 집이 저 리사무소, 옛날 리사무소 옆에 안네집이란는다.  
 102010 @ 예.  
 102010 #1 거, 여기에서.  
 102010 @ 집에서 헛구나예? 그 때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언마씨?  
 102010 #1 사진, 카메라도 어신 때.  
 102010 @ 기지예?  
 102011 @ 그무는 결혼혜가지고 신희살림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아수과?  
 102011 #1 음 음음.  
 102011 @ 부모님이랑 같이예?  
 102012 @ 지금 교장선생님은 저기 자체분이 몇 분마썸?  
 102012 #1 아들 넷, 딸 둘.  
 102012 @ 막내까지 다 결혼한 거지예?  
 102012 #1 어.  
 102012 @ 나이가 나이가예?  
 102015 @ 며느리 사위들은 잘합니까? 여기 세화 사는 어른들은 어서마씨?  
 102015 #1 세화리 하나 살암서.  
 102015 @ 그럼 다 이제 멀리 살아불멘마씨?  
 102015 #1 어. 저, 서울 살고, 저 어디 경기도 살고, 서귀포 살고.  
 102015 @ 서귀포도 살암수과?  
 102016 @ 아까 조사마을 마치고예? 이젠 제보자 일생을 쭈~ 제가 여쭙 본거라  
 예? 교장선생님, 특별하게 뭐 저희가 제주어 연구하는데 세화리에 대해서 특별나게  
 하시고 싶을 말 어수과?  
 102016 #1 (한숨) 것~ 티, 요즘 제주어엔 행으네 별도로 것~ 트, 뭐 허는데, 별  
 도로 경 애쓸 필요는 없고, 쭈물으뵤 글짜 다 사용 허도록히 허며는 그 내역이나

옛날에는 으거 쓰고 있고, 현재는 요거는 안 쓰는 거라는 걸 알게  
얘기 해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거 특별히 제주어라고 행으네 애쓸 필요가 시  
카. 우리 한글만 보존 허며는 그게 제주어가 그게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생각 허는  
데.

102016 @ 고맙습니다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까예?

(@: 최연미, #3: 송인생)

102001 @ 우선예? 송인생 삼촌이 언제 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먼저 여쭙보크라  
예?

102001 #3 음~

102001 @ 언제 어디서 나아수과?

102001 #3 가시리서.

102001 @ 가시리서 나안예?

102001 #3 가시리서, 음~ 가시리~서 난, 가시리서 열 살 나도록 컷주게.

102001 @ 가시리는 여기하고 마을이 많이 떨어져이신디파?

102001 #3 으 옷마을이라.

102001 @ 옷마을예?

102001 #3 응, 바로 옷마을. 옷마을이고양, 열 설, 열 설 나기 전에 웨정시대에.

102001 @ 예.

102001 #3 웨정시대에는 확실히 몰라도 그 때 나가 으덜 살 담수다, 으덜 살.

102001 @ 그때 와수과?

102001 #3 아니, 아니. 사삼사건 때 왔지, 열 설에.

102001 @ 열 설에예?

102001 # 응.

102001 @ 나중예, 웨정 때고 이때고 물어보크라예? 다시예?

102001 #3 응, 응.

102001 @ 다시 물어볼거난 그때 낀 그때 강 ㄹ르민 뉘고예?

102001 #3 어, 응 응 응.

102001 @ 그때 낄아가지고 어떻게 자라서 웨 여기에 와신지 곶아줍서.

102001 #3 그때가 지금 그, 거기서 가시리서 나네, 열 설 나도록 거기서 살아신  
디, 사삼사건이 닥쳤잖아요. 사삼사건 닥치나네 그때 어느 때냐면 음역으로 시월 십  
오일 날.

102001 @ 예.

102001 #3 시월십오 일 날 그 가시리가 그, 막 집에 불 다 붙지고, 곡실물도 다  
불 붙져불고, 사람도 봐지민 다 죽여불고 해서. 그걸 저, 이 저 순경덜이.

102001 @ 소개허랜 헛구나예?

102001 #3 응, 순경덜이 이제 막 그걸 그 마을 사람덜을 봐지민 그 다 죽여불고,



집에 불 붙저불곡 허난 우린 오라방도 엇고 어머니 아버지 허고 우리 형님 허나만 서나수다.

102001 @ 음.

102001 #3 식구가 네 식구만예. 네 식구만 시난, 우린 집이 그 가시리에서 알동 네라양. 폭낭동네엔 헌디, 알동네에 사는디, 막 그 위험지구 돼수께.

102006 @ 음.

102006 #3 밤에는 그 집예를 잘 못자수다.

106006 @ 음~.

106006 # 그때 무사그냥허민 그 우에 올른 사람덜이 자기네 말만 들으렌 해부난 양.

106006 @ 아, 경혜그네 여기로. 불 부처불 거난 내려가렌 허난?

106006 #3 아니, 내려가렌 안해수다.

106006 @ 사삼 거는 다시 물어볼게예? 사삼 거는예? 여기까지 온 거는 그때 사삼 때 마을에서 다 내려가렌 허난 내려 온 거?

106006#3 내려가렌 안헐.

106006 @ 안헐.

106006 #3 내려가렌 안헐주. 내려가렌 헐 생각, 어느 하가에.

106006 @ 음.

106006 #3 경혜네 그때 밤에도 무섭고, 경허민 우리 영~ 빛이 이서서양 옆에.

106006 @ 음~.

106006 #3 빛 시난, 우녁담옴에 영, 바람의지 웬디나네, 그때 시월달이니까 이불만 영 쌍 아자나서, 밤이양.

106006 @ 음~ .

106006 #3 이불 썬 아젓단, 뒷날은 막 헐 생각이 헐 아홉 시나 열 시나 웨는 거 닻아양. 배고프지 아녀파?

106006 @ 음~.

106006 #3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헤여, 집이 가까우니까, 빛 두 개 너무민 우리 집이난 밥을 해당 먹어 알 건디, 배고프난 어떻허민 좋고 허난, 우리 성님이 ‘나가장 헐 오쿠다.’ 쟁허난,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이고 무서왕 못간다, 어떻 갈티?’ 영허난 ‘예, 경혜도 나 강 헐 오쿠다.’ 쟁허난, 담을 영 올라사난 그 우녁बाट도 우리 빛이라나수다.

계난 순경이 탁 와서. 바로 우리 빛디. 거난 우린 알력बाट 잇고, 우녁बाट 순경이 탁 닻치난, 우리 성님이양 탁 내령 ‘아이고 큰일 나수다, 우녁बाट 순경 와서다’ 허난, 그때는 우리 알래레 돌아온거우다. 이 세화엘 돌아와수께.

106006 @ 음~.

106006 #3 무쫌건 알래레 들은 거양. 총이 팡팡 쏘아서예? 쏘아도 무쫌건 돌아수다. 무쫌건 들안에 어디와시냐 허민 으 가지오름 거의 돌아 완 막 뛰어왔주, 출बाट이

구 무시거구 막 돌아 완 가시오름 으 옆에까지 완 숨도 흐깁 느리 쉬고, 이제는 어딜 가미는, 우리 웨가가 가마리우다. 가마리.

106006 @ 음~.

106006 #3 가마리나네 이제는 그디강 예구, 흐쫄 그디나 가보카 헤네 이젠 가누렌 헤나네, 요, 강왓디엔 헌디가 그때 하르버지들이 영 목 지경 보추를 사수다. 보추를 사난 ‘어딜 가미니’ 물으난 우리 아버지 허는 말은 ‘가마리 처남네 집이 강 배고프고 허난 아이들 밥이라도 뻑이고 허쿠다.’ 허나네 ‘아이고 그디 가민 신작로가 비짜 헌디난 신작로 가이라부난 위험허난 가지 말렌.’

세화리 친족이 이서서. 웨가로 친족이 시난, 그 집일 가렌. ‘무사 오렝헐 때 안가서.’ 그때 세화리 켄당이 우리신디 가네 ‘가시리 못사니까 세화리 느려옵서, 느려왕 요디 집인디 우연네 오랑 집 짓고 이디 오랑 삼서.’ 헤도 우린 아덜도 엇고 허나네 아명치도 안헐텐만 헤네 ‘우린 아덜 어시난 어떻 안허메 어떻 안허여.’ 허멍 이젠 아녀오랏단 이젠 닥치난 그디 강 밥 먹고 허렌.

그디 올라네 이젠, 그때 시월 보름날이난 이디 분향이엔 헌디가 이수다. 분향. 그디덜 분향에 가시난 그 하르버지가 완 ㄱ라주난, 그 하르버지가 나와네 저, 집이강 보민 밥도 막 헤냈고 어디 막 반찬도 잇고 허난 그거 먹고, 고만이 이십서 영 허난, 이젠 배고프고 허난 그디 와네, 부엌에 와네 그때 정지주 정지, 부엌이 아니라 정지렌 ㄱ라서양? 정지에 와네 밥이시난 밥 먹고 이젠 그디 ㄱ만이 아자시나네, 이제 막슬칸덜 와네양, 이제 와네 그디가 이젠 그디 살게 쥘거라.

이제 ㄱ수왕 오지도, 그날 가시리는 우리집이, 가시리 전부 다 집도 불 부찌불고 곡식 놀 다 부찌불고 허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엇지아니파~.

102006 @ 음~.

102006 #3 경허나네 이제는 그 집에 살아수쥬게 거기.

102006 @ 경헝 이제 세화리 살기 시작헐구나예?

102006 #3 세화리 살기 시작헐거.

102006 @ 예, 알앗습니다예.

102002 @ 경허민 부모님은 어떤 일 허멍 살아수과?

102002 #3 농사헐수게.

102002 @ 게 어떤 농사마쥬?

102002 #3 밧 갈곡게, 보리 갈고, 조 갈곡 헝 먹엇주게. 그때는 감저도 농곡게. 연날에. 그때는 막 생활허는게 예로와수다.

102002 @ 음~.

101002 #3 지금 담지 아녕 곡식이 그때는 막 예로난 우린 게도 이녁 밧이 시난 양석에 붓지진 아녕, 이녁 식구도 어시난 이녁 먹고 살아신디, 충분히 먹고 살아신디, 그때는 다 작만도 못허고 놀로 누렁 내빋주. 산디, 조 막 누렁 내불어신디 다 불 부찌부난 일단 먹을게 엇잖으파, 다 불 부찌부난.

102002 @ 그 다음엔 사삼이 끝나난 그 밧은 또 밧 갈앙 먹엇구나예.

102002 #3 농사는 허고, 사삼 끝나난 농사는 허고, 이젠 경혜네 이젠 세화리 오 나네 혼 메칠 이시난.

102002 @ 이제 물어보크라예? 다, 하나씨예? 경행 세화에 오고예? 부모님들은 농사지으멍 살았고예?

102002 #3 예게.

102003 @ 친정어머니 고향은 어디짜?

102003 #3 토산.

101003 @ 아, 토산이짜?

101003 #3 우리 친정어머닌 토산, 우리 큰어머니는 가마리.

102004 @ 게민 어릴 때 어떤 놀이허멍 지내수과? 가시리서.

102004 #3 가시리서게, 가시리는 구쟁기딱쌀에 밥허멍 돌궤루 영영 글거당 놉그 네게 그거 밥허멍 놀았주게, 대막댕이 영혜영 풀, 새각시 풀이영헌 풀이 이서수다. 그거 헤그네 영 새각시 멘들곡 막 그추록허멍. 뭐 아이고 경허멍 무신 놀이게 혈겅가 그때는 두레주고 지금궤지 발달이 안 된 때나네 무시거 게 경허멍 놀았주게, 거 무시거게.

102004 @ 맞수다.

102005 @ 그다음에는 여기 세화리 오기 전에 어, 가시리에서 농사지을 때 혹시 나 기억이 날지 모르쿠다마는 일본, 일제 때나 일본군 순사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공출 같은 거 어서수과?

102005 #3 공출 막 헛주게. 공출.

102005 @ 공출 헛던 거 한번 곱아줘봅서.

102005 #3 공출~, 그때 그 막 저, 췌낭푼 고티 것도 막 아저가부러서. 놉췌그룩 고티 것도 아저가불곡, 순경이 막 텅기멍 뭐 저 영 이신거 시민, 그때 너무 두린 때라도 영 보난, 콩 영 널어시나네 콩을 볶아도렌 허나네 콩도 볶아 주어나수다. 그때 경허멍 헛주. 우린 두린 때난 잘 몰라도 순경덜토 그 웨정 일본순경덜토 와나수다. 옆이 칼 탁 차곡 순경들 와낫주게.

102005 @ 콩 볶아내네마췌.

102005 #3 그때 콩 볶아주멍 헤서. 지네 떡젠허난 볶아주렌 헤서.

102005 @ 겐 기억남수과?

102005 # 예. 거 알아저.

102005 @ 예~.

102005 # 으습 설 때 닙아. 겨민 그때는 비행기가, 요자게도 곧드시 양, 비행기가 오라그네 영 놉치 떠그넵에 자우락 자우락 허당 기자 빠라 짝 뿌려동 가부러. 경허 난양 비행기만 와가민 담옴에강 탁 업더지렌 헛디다. 우리신더레 업더저불렌, 영 사름 보민 마쳐부니까.

102005 @ 아~.

102005 #3 그 저, 비행기가 저만지 와가민 낭 알르레라도, 저 담옴드레 업더저불

렌 탁 업더저불렌 경골앗주게.

102005 @ 음~,

102005 #3 경호민.

102005 @ 그래서 이제는 세화리, 막 그렇게 가시리에서 도망청 나와그네 세화리에서 살았잖아예?

102005 #3 예.

102006 @ 그때 세화리에 살면서 사삼에 일어났던 일들 잇잖아예?

102006 #3 예게.

102006 @ 거 한 번 골아줘봅서. 가시리는 불태와버렸고.

102006 #3 불태와불고, 불태와부난 거기 소탕부락이 뻬지. 사람이 아무도 어션.

102006 @ 예~.

102006 #3 사람이 하낫토 어섯지, 가시리는 이제는 그 너른 부락에, 가시리가 막 너른 부락인디, 이디 저디 너른 부락이라도 사람이 하낫토 어서서 그때 당시엔. 하낫토 어시난 표선에 내려가렌 해서. 우리.

102006 @ 예~.

102006 #3 표선이 국민학교엘 가서.

102006 @ 예~.

102006 #3 경허난 가시리 사람덜 전부 표선이 국민학교렐 가수게. 그디간 일주일 을 산거라.

102006 @ 그때도 학교를 국민학교렐 골아수과?

102006 #3 그때도 응, 국민학교. 이젠 초등이주만 그뻬 국민학교. 국민학교 이젠 그디 살아네 이젠 저 겨난 그디서 막, 밧디 감저가 이서도 감절 파다 먹을 수가 엇주게.

102006 @ 맞다예.

102006 #3 순경들 무서완 가지도 못허고 허민 막 거 어뎡어뎡 허멍 일주일 살아네, 이제 그때는 우리는 저 뒷날, 일주일 찬 뒷날은 그 가족이 없는 사람, 흔 사람이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여부러서. 그 폭도다 헤네. 가족이 없는 사람은 폭도다 행 다 죽여불고, 영영 골려네 호명헤그네, 경혜신디 우리는 우리 삼춘이 아시 날치낙 득랑 나와부런. 그뻬 저 우린 아무도 췌 어시난 그 아들도 엇고 딸만 성제 나네 돌아와신디, 그때는 가족이 헉나라도 아들이라도 헉나 떨어진 사람은 다 죽여 부러수게. 그때 그 학교에서.

102006 @ 휴, 진짜예?

102006 #3 예. 똥곤모루왕 다 죽여부러서. 표선이 영~ 올라오민 그 소방서 헉썰 우트레 올라와. 지금 소방서 쪼끔 올라와 거기서 다 죽여부러주.

경 하이구. 그추록 헤네게 따살민 그 가시리 우리 아버지가 그 헉끔 아는 어른은 메누리가 세화리 사나네 이녁 씨어명도 츠자오지 못허난, 우리아부지귀 츠자줍센 허민, 가그네 그 죽은 사람 이사름 뎃사 낱 저사람 뎃사 낱 허멍, 그 할망을 츠자오

꼭 해주다게. 경허명, 무서운 거 무시겨 알아수과? 겁나고 허난 무서운 것도 몰라실 거우다. 계난.

102006 @ 음~.

102006 # 경허명 사름 죽은 거 손으로 막 이레 댓삭 저레 댓삭허명 좇구렌 허주 게 우리아부지가 그때. 경혜네게 세화리 계난, 흐쓸 꺼져가나네 뗏 해 후제는 가시 리터레 올라가렌 해주다게. 그 이녁 집을 밧 츠장 강 빛 지성 살렌 헤도 우린 식구 도 엇고, 나가 그때사 이디 국민학교에 부떠부난, 다 읍서 가지말겐 가지말겐 헤네 아니간 이디 삼 시작 헤연. 열 설에 느려와네 기자.

102006 @ 그 사삼 때 그 아버지가 그 저기 가시리 어른들 죽은 거 이렇게 시체를 골르고 잇던 거, 직접적으로 시체를 보거나 그런 건 어선마씨?

102006 #3 아버지가?

102006 @ 아니, 삼춘이.

102006 #3 나?

102006 @ 예.

102006 #3 난 두려부난 안 봤지. 그거는.

102006 @ 음, 안 보여줬구나예.

102006 #3 안 봐신디 그 우리 후제 막 우린 두린 댄디 우리 스춘을 돌아아전에 그 대축 비어먹으레 가나수다. 그때 사당대축이엔 막 우연네 싱거그네 연날에, 지금은 그런 대축 어서도 짱냥 대축 말고 사당대축, 막 이제 큰 것 가 같아나서예? 거 영 물빨아 먼어난 들코랑 허게. 그거 비어먹고 저밤도 저밤 알아지카? 저밤?

102006 @ 예.

102006 #3 쟈쟈현 거, 저밤 주서먹으레 가겐허명 우리 스춘 돌아아져네, 요번에 죽어부러신디 나보다 혼나 우인디, 스춘 돌아아져네 가네 영영 밧 엠에 거 좇는다 영~ 알력담엔디 베리난 그게 사름 죽은 거 님아 이제 생각해 보민, 수랑~허게 담 엠에 거먼 이불깍데기를 탁 더끈 것가 이서서. 게도 그땐 두려부난 사름 죽은 건지 몰라. 두려부난, 열 설이라부난.

102006 @ 경해도 겁나지 안행.

102006 #3 겁난 걸 몰라. 사름 죽은 줄 몰라부난.

102006 @ 저밤 주스레 가고예? 음~ .

102006 #3 응, 저밤주스레 가고, 그걸 몰라, 그거를 사름 죽어신가 그걸 아나, 이체는 생각허민 아, 그게 사름 죽은 거 담엠에 내벼낫구나 그 생각이 나점주.

102006 @ 음~.

102006 #3 몰라, 아예 당철패, 경헨 기자 세화리 삼시작 허난 이때ㄷ장 산 거 아니 파.

102006 @ 산 거지예?

102007 @ 중매결혼 해주과? 연애결혼 해주과?

102007 #3 아이고, 중매결혼 했주, 중매결혼.

102007 @ 당연히 중매결혼 했겠다예.  
102007 # 예, 예.  
102008 @ 겐, 사주는 봐수과?  
102008 #3 사주 봐주. 그 때.  
102008 @ 사준 계난 뭐렌 종텐 헛디가?  
102008 #3 무시게사 헤신디 그때.  
102008 @ 안 곺아줍디가?  
102008 #3 응. 그 저 종텐만 허멍 허나.  
102008 @ 맞수다. 그대에, 아 맞아 결혼은 몇 살에 헤수과?  
102008 #3 쭈무 슬에.  
102008 @ 쭈무 슬에?  
102008 #3 쭈무 슬에 헤연. 쭈무 슬에 우린 씨어멍 어신디 오란 난 막 고생헤연.  
102008 @ 남자어른은 몇 살 때?  
102008 #3 동갑이라낫주.  
102008 @ 아, 기파?  
102008 #3 예.  
102008 @ 남자어른은 언제 돌아가셔수과?  
102008 #3 하이고, 나 서른넷에 죽으나네 언제 돌아간지 알아지쿠과?  
102008 @ 무사 그추룩 빨리 돌아가션마씨?  
102008 #3 몰라. 경허네 서른넷에 죽어부럿주게. 겨난 그대 다숫 오누이 득란 나  
이때깻장 산겨주게. 애기들 아들 넷에 딸 하나 돌아네.  
102008 @ 하이고, 잘도 잘도 고생헤시키여예?  
102008 #3 고생은 죽기 강글, 말로는 곺앙 못헛 정도로 고생헛주게. 그대. 쥬 뒤  
가 고생하민 일 못 헛거 고생헤연. 밧 같지 못헤연. 농서허젠 허민. 헤이고.  
102012 @ 그문 어, 큰아이가 아들이어수과 딸이어수과?  
102012 #3 아들, 아들.  
102012 @ 그문 서른넷 헤봐야 열네 살베피 안 돼시키여.  
102012 #3 열네 설에.  
102012 @ 으흥~ 열네 살에.  
102012 #3 열네 설, 열두 설, 아홉 설, 딸이 으숫 설, 막내가 첫들 넘은 두 들전  
의 세 설, 경헛주게.  
102012 @ 음~ 경헛구나게.  
102012 #3 예.  
102012 @ 계도 다덜 잘 커수다예?  
102012 #3 에이고 계메, 아이덜이 막 착헤주언.  
102012 @ 네~.  
102012 #3 저 흑교에 폐선이, 중고등학교 폐선이서 헤신디~, 그자 재기 일, 흑교

풀민 재기 들으멍 들으멍 우리 밧드레 오렌허민, 유채가 제일 예로와 그때가 양.  
 102012 @ 음.  
 102012 #3 유채가 허민 막 세어불곡 허민, 오렌허민 들으멍 오곡게, 어떤 때 토  
 요일 날은 흑교도 아니 보내곡 경허멍 살아숫게. 아이고.  
 102012 @ 음~.  
 102012 #3 경허멍 짝.  
 102009 @ 그, 결혼식은, 아, 아니아니. 혼수품은 뭘 가져와수과?  
 102009 #3 그때 혼수품 하간 거 해서?  
 102009 @ 계도 이불이라도.  
 102009 #3 이불헤영 왓주게.  
 102009 @ 이불 뗏 채마썸?  
 102009 #3 이불 두 채.  
 102009 @ 두 채 해수과?  
 102009 #3 음. 두 채 헨 거 담아. 두 채 헨 오란.  
 102009 @ 두채 헨 오난 그 남자 어른네 집에서는 뭘 해줍디가?  
 102009 #3 그때 옷 헨 불.  
 102009 @ 옷 헨 불, 한복 헨 불.  
 102009 #3 한복 헨 불. 거베피 어서난 그때 연날엔.  
 102009 @ 음~. 한복 헨 불. 경헛구나예?  
 102009 #3 예.  
 102009 게 해준 한복 입어그네 식 올린 것과?  
 102009 #3 아니주, 식 올릴 땐 집에서 입영 온 옷이라낫주.  
 102009 @ 아, 경해수과?  
 102009 #3 그때는 유동치메 양단저구리.  
 102009 @ 맞수다, 맞수다.  
 102010 @ 계, 결혼식은 식은 어디서 올려수과?  
 102010 #3 아이고, 그때 식, 마당에서.  
 102010 @ 시집 마당에서마씨?  
 102010 #3 응, 마당에서 영헨 사진만 찜주.  
 102010 @ 아, 사진 찍어수과?  
 102010 #3 사진은 찜주.  
 102010 @ 사진 이수과?  
 102010 #3 우리 아이덜 아저가부런 어신 거 달믄디, 이디 신가?  
 102010 @ 사진, 만일에라도 사진 이시민 혼 번만 찍게예?  
 102010 #3 이디 이시카?  
 102010 @ 흐낌 봅서 이수과.  
 102010 #3 아이덜 아저가부런, 죽은아덜이 다 주서가부나네.

102010 @ 여기 아까 여기 앞집이 죽은 아덜이파?

102010 #3 아니, 가시리 사는 아덜이 죽은아덜. 이거 말것 세 번짜.

102010 @ 아 세 번짜.

102010 #3 어신 것 짧아, 이디, 아저가분 것.

102010 @ 나중에 츠지고 예? 나중에 츠지고예.

102010 #3 어, 어어.

102010 @ 그 차이가 이수다예 차이가예? 어, 스무 살이난 지금 어, 아, 잠깐만, 아까 교장선생님 네는 스무흔 살에 결혼 해신디, 그땐 사진 안 찍엇덴 험디다.

102010 #3 사진 안 찍엇덴?

102010 @ 예. 게난 그때.

102010 #3 사진은 찍언 으 마당에서.

102010 @ 게난 몇 년 차이냐 허면예? 열, 십사 년 차이난, 하이고 차이도 크다 예.

102010 #3 어디? 그 그 저 하르방네?

102010 @ 아니우다. 오년 차이.

102010 # 네 설, 다숫 설 차이.

102010 @ 오년 차이 맞아.

102011@ 그른 신희살림도 씨집에서 헤수과?

102011 #3 씨집에서 그자.

102011 @ 씨어머니 어선 씨아버지만 살아이서수과?

102011 #3 씨아버지만, 모션 십일 년 살안.

102011 @ 아이고, 경헛구나예?

102011 #3 밥도 두불밥 행 뵝이고, 보리썰.

102011 @ 큰아덜 안티 시집가수과?

102011 #3 아덜 하나.

102011 @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102011 #3 음.

102011 @ 아, 아덜 하나만 낳안.

102011 #3 아니, 일찍 그, 큰시아지방이 이서나신디 죽어부린.

102011 @ 아~. 죽어부린.

102011 #3 음, 죽어부린.

102011 @ 경헛구나예?

102011 #3 씨어명도 일찍 죽어불고.

102014 @ 아까 삼춘네 아이덜 다섯 오누이렌 헛지예? 아들 셋.

102014 #3 네 개. 딸 하나.

102014 @ 아, 그 딸 호나가 식당 헌덴 헤수과?

102014 #3 어어.



102014 @ 식당 어디서 햄수과?  
102014 #3 하이고, 그거 ㄹ만시라. 어디엔 ㄹ는다. 아, 저~엇 거 법원 영 핫술, 이디서 우리 ㄹ으민 우트레라.  
102014 @ 제주시마썸?  
102014 #3 제주시에.  
102014 @ 법원동네에.  
102014 #3 법원 영 올랑, 이도아파트 삼단지 입구로 영 서르레 간딘디.  
102014 @ 아, 이도동에서 햄구나예? 기구나예?  
102014 #3 어.  
102013 @ 그 씨집살이,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 혼자 계신 씨집살이 하면서 혹시 막 힘들엇던 기억 어떤 거 이서수과?  
102013 #3 제서 때가 제일 힘들언.  
102013 @ 제사 땃 번 헤수과?  
102013 #3 ㄹ레 ㄹ지 못헤연. 그 때 제사 일곱 번 헤신가?  
102013 @ ㄹ레사 남자언른안티 허렌허민 돼주.  
102013 #3 아이구, 영영 정ㄹ레로 ㄹ앙 목ㄹ슴도 ㄹ앗주 그때.  
102013 @ ㄹ렌 헐 거 아니파게. 하긴 옛날에 안 헤서예.  
102013 #3 하이고 아니 경헐, ㄹ레 난 힘이 어서 아무 때도. 힘이 어시민 저 못 ㄹ켄 허민 ㄹ아주긴 헤서. 저레 가불렌 허영(웃음).  
102013 @ (웃음)경헤수과?  
102013 #3 거 허벅 버청 물도 못 질어낫젠 허난. 나 막 힘이 어서.  
102013 @ 힘이 어서.  
102013 #3 아니, 일을 아녀나부난 두린 때도.  
102013 @ 맞수다게예?  
102013 #3 그 저 우리 형제뿐이난, 난 막내로 행글락 헤민, 열흔 설 난 국민학교 부트난 땃 설 난 졸업 말은, 열 으슴에.  
102013 @ 열 넷에 졸업 헐 거.  
102013 #3 아니주워. 열흔 설에 붙어부난, 이디 오란 부텃텐 허니까.  
102013 @ 맞수다게.  
102013 #3 경 허나네 또, 땡기다네 또 득새기 장시허레 땡겨불고(웃음).  
102013 @ 아, 것도 헤나수과?  
102013 #3 시에 강 풀극 허명게.  
102013 @ 득새긴 닭 키워그네?  
102013 #3 득, 땡기명 사당.  
102013 @ 사당? 하이고 잘도잘도 용감헤수다예?  
102013 #3 그 사당으네 올 땡 퀘기사왕 풀극.  
102013 @ 하이고, 경헤수과?

102013 #3 각제기 그거 ㄹ튼 거 경헛주게.  
102013 @ 아, 경헛멍~.  
102013 #3 경헛멍 살앗주게. 경헛멍. 경혜연.  
102013 @ 시집 강 결혼 행 이후에도 경혜수과?  
102013 #3 어니아니.  
102013 @ 결혼혜그넨 농사만 짓고.  
102013 #3 음, 전혀.  
102013 @ 아이고 혼자 어떻행 잘혜수다예.  
102014 @ 그 다음엔 지금, 다섯 오누이 다 시집장가 가수과?  
102014 #3 음, 다 간.  
102014 @ 시집 장가 다 간예.  
102015 @ 특별히 막 저 메뉴리덜.  
102015 #3 메뉴리덜 막 착혜.  
102015 @ 다 착혜여마썸.  
102015 #3 원 흐 번 대답 흐 번 안혜반.  
102015 @ 아~.  
102015 #3 겨고, 형제간 덜도 흐 번도 드타보지 안혜연.  
102015 @ 메뉴리 넷이 다.  
102015 #3 예. 막 착혜여.  
102015 @ 아, 다행이다예.  
102015 #3 아이덜이 막 착혜주난 살앗주게.  
102015 @ 멩질 제사 때 다 읍니까?  
102015 #3 예, 다 와.  
102015 @ 다, 여기 제주도 살멘마썸?  
102015 #3 예.  
102015 @ 것도 소망이이우다예.  
102015 #3 소망이라. 진짜 다 제춛메누리 허고.  
102015 @ 어구야, 진짜.  
102015 #3 큰메누리 감산리, 셋메누리 남원리, 말갓메누리 조천, 죽은메누리 폐선  
이.  
102015 @ 아이고야, 다행이우다예.  
102015 #3 다 이덧메누리.  
102015 @ 다, 이동네들, 그른 다.  
102015 #3 큰 아덜은 서귀포 살단, 밧이 여기라부난, 우리 하르버지 살단디 집터  
를 집이영 다 주어부럿주 큰아덜은.  
102015 @ 예~.  
102015 #3 쥐불고 이거는 셋아덜, 요집이 셋아덜이고 이거는 말젿아덜. 경허고

이디 죽은아덜 짝세ㄱ장 집터를 주어신디 안돼부난 가인 다시 가시리 간거라.  
102015 @ 음~.  
102015 #3 으, 역지동 들어 가는다. 그디 강 집 지성 살암주게.  
102015 @ 으음~. 아유 계도 다들~ 음, 사위도 막 착힘니까?  
102015 #3 사위도 막 착허믄 허고. 그자 막 착혀.  
102015 @ ㄱ찌 식당해마썸?  
102015 #3 혼디혜사 좋주. 이 저 버청 못허여. 아니 차 타네, 택시 타도 버청 못허여. 아니 차 차네. 택시 타도 버청 잘 타지 못헬젠. 일도 도와 혜사주.  
102015 @ 음 경헬구나예.  
102015 #3 그거 장서가 게 국수칩이고, 저 무신 순대국 허국 허는디난, 밤의 일 하영 헌텐. 막 열두 시ㄱ장도 허고.  
101015 @ 영두 시 ㄱ지도.  
102015 #3 예. 경혜불민 줌도 못자국 도와 혜야주, 경헌텐.  
102016 @ 기구나예. 그다음엔 세화에서 몇 년 산거파?  
102016 #3 열 설에 오나네게 이거 계난땡 해 산거라.  
102016 @ 혼 육십 년.  
102016 #3 육십 아홉 해.  
102016 @ 거의 혼 칠십 년 살았져예.  
102016 #3 칠십년 산거지. 예.  
102016 @ 칠십 년 살명, 특별나게 세화리 살아보난 참 이런 게 좋아라, 하고 싶은 말 뭐이수과?  
102016 #3 세화리 좋아라 구져라가 어딿고 기자 동네 사름덜이 다 좋아. 이 세화 텃어른덜은. 그 촌이니까, 부촌이난. 막 그 옛날엔 그 저 바당에 물질 다녋주 옛날엔.  
그때는 바당에덜 막 다년 이디서. 가마릴 걸영강 물질을 혜서. 메역허레.  
102016 @ 메역 헤치헬 때마썸?  
102016 #3 허치 허곡, 허치 현 후제도 막 허곡, 걸영 다녋주, 이디서 그덜.  
102016 @ 후제도 허곡? 하이고.  
102016 #3 걸영 메역 혼 짐 잔~뚝 정 이제 걸영 오곡 걸영 와.  
102016 @ 메역만 혜수과? 막 전복이나 구쟁기나 그런 건 안 혜수과?  
102016 #3 아이고, 그런 건 안 헬. 메역만 메역만 헬주게. 경허민 동넷어른덜이 나가 저 막 물질도 잘 허지도 못허곡, 젤 밑에난 막 애껴쥐그네 막 춤 도와 양, 출려도 주곡, 재기 못쟁기민, 그때는 검질을 구덕에 담양 강 물에 들어나민 출 불추아 사주게 추워부난. 그땐 물웃이 어선, 속웃 하나만 입영, 아무것도 안 입영 물웃 하나만 입영 거 바당에 그자 강 들영 엄 동안 메역 행 나오멍 헬주, 경헬.  
경허민 사람들이 막 은심이 중앙 이제도 그 어른들이 벅을 허는디, 갈때는 ‘가게, 출리라. 바당에 가게 가게’ 행 다 못 출리민 기다렸당 혼디갓주, 출리민 혼디 가. 경

헨 벗사, 그 벗들이 이제도 벗이주, 이제도 험서. 그 벗들이.

102016 @ 예, 알안예. 지금 그 삼춘에 제보자 생애 일생은 여기까지 허고 정리 할께예.

(@: 최연미, #7: 현봉화)

102001 @ 삼춘, 가마리에서 태어난마썸?

102001 #7 음.

102001 @ 옛날엔 가마리를 가마리렌 헤수과?

102001 #7 가마리, 응 가마리엔 헛주.

102001 @ 경헛구나예?

102001 #7 그다음엔 서화리엔 허고.

102001 @ 서화리엔 허고예.

102001 #7 서화리 상등, 이견 하등.

102001 @ 하등.

102002 @ 그때 삼춘네 부모님은 뭐헤수과? 어머니 아버지는.

102002 #7 어머니네도 물질허곡.

102002 @ 예.

102002 #7 밧디 농서지영 떡곡.

102002 @ 예.

102002 #7 아버지도 바당에 강 고기 잡아오곡, 농서지영 떡곡 경헛주게.

102002 @ 경헛구나예?

102002 #7 그당시엔.

102003 @ 그때 삼춘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파?

102003 #7 어머니 고향은 저 퀘선.

102003 @ 표선, 표선에서 이제 가마리 시집왔구나예?

102003 #7 음.

102003 @ 아, 경헛구나게.

102004 @ 흑시, 삼춘, 어릴 때, 그니까 일제시대 때, 그때 어땡 무시거 놀았던 거, 어떤 놀이 헛던거 기억남수과?

102004 #7 음.

102004 @ 일제시대 때 뭐허멍 놀아수과? 놀 때.

102004 # 어이구, 놀 생각, 열세 설 나나네 훈련만 훈련만 일본 나라에 우리가 이 조선은 부떠난.

102004 @ 맞수다.

102004 #7 미국광 일본이 이젠 싸우난 우린 일본 국민이 웨엇거든.

102004 @ 예.

102004 #7 경허난 메날~ 훈련만 허렌허난 집인 일은 헤져서. 허지 못허난 나가

열여섯 설부터 육지 격지 나가나서.

102004 @ 무시거 허레?

102004 #7 물질 허레.

102004 #7 가민, 혼련 벗친.

102004 @ 벗친. 제주도엔, 이 가마리엔 막 혼련을 헛구나예?

102004 #7 응,

102004 @ 아~.

102004 #7 이디서만 헤서? 이디서 연십혜영 퀘선국민학교에 이 동네마다 다 아홉 동네 그디 강 혼련을 일주일에 혼 번씩을 그디 강 가젠허민 이디선 메날 아척 저못 혼련, 집인 일을 못헤서.

102004 @ 그 혼련 받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102004 #7 전쟁 터지기 전에 제오 애기 들만 허나네, 열뒤 설 웨나네 혼련을 시작헤네. 내가 열으뜸에 해방 뵈주게.

102004 @ 기구나. 그 애기 들 때, 들명 놀아난 거 어수과? 고무줄놀이라든가 뭐.

102004 #7 무사 어서. 빵치기도 잇곡, 헤헤헤.

102004 @ 그런 거, 무싱거 허명 놀아놔수과? 그때. 곶아볶서.

102004 #7 그때 빵치기 허는 것가 이, 땅에 방 기러냥이.

102004 @ 예, 예 예.

102004 #7 그, 그것이 잘허는 아인 일등을 헤영 그걸 다 으답 칸 멩글어 놔그네 다 뛰국, 암만헤도 머리뺏이 예끼관 어신 건 허지 못헤그네 뭐 헤여.

102004 @ 예, 예.

102004 #7 우린 이제도 그 일본, 그때는 그때 시절에 일본 말만 헤영 뵈이던지 일본 말만 헤영 조선 말 못쓰게 헤나서.

102004 @ 아, 경 헤낫구나예? 게 집에 왕은 그냥 어, 우리 제줏말 허고마씨? 집에 와그네.

102004 #7 아니 해방 웨어사 이제 여깃말을 헛주, 해방웨기 전엔 일본말로만.

102004 @ 집에 왕도?

102004 #7 응. 집에 왕도 조선말 못쓰게 헛주.

102004 @ 아~.

102004 #7 연설을 하나씨까다 라고, 일본말로 연설을 허젠허민 이제 동은 행사, 서는 무까시, 이렇게 헤나난.

102004 @ 예.

102004 #7 밝은 하다께, 이렇게 허지?

102004 @ 예.

102004 #7 경허민, 그걸 교와, 다 일본말로 연설을 허렌 허민, 교와 오까산니 오도산니 오도도야 이쇼니 무꼬노 하다켄니떼 무끼오 마끼마시다 이모오 호리마시다 현 말을 섯빳디 가네 어멍이영 아버지영 동생들이영 ㄱ찌 가네, 섯빳디 가네 음, 보

리를 갈았습니다. 감자를 찢습니다 현 말이라 이 말이.

102004 @ 아~, 경헛구나~.

102004 #7 어. 일본말로 그 연설을 허렌 허민 이 사람이 아척이는 오하요 고사이마스, 인섯말이. 낮이는 곤이찌와, 저녁에는 곤방와. 허는디, 혼사름만 붓드는 디는 그렇게 단순허게 한 번만 곤방와 곤이찌와 이렇게 허곡, 그 둘리 이신딘 미나상을 똑 붓지주. 미나상. 둘리 이신디는 미나상 곤방와엔 헌건 둘리 이신여. 허나는 기자 곤방와. 저녁 인서는 곤방와.

102004 @ 저녁에 집에 왕도 어머니 아버지영도 일본말로 곶아수과?

102004 #7 전부 일본말만 썼거든 그때.

102004 @ 아, 경헛구나예? 경해도 무신 뭐 고무줄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나수과?

102004 #7 고무줄놀이등 무사 아녀? 고무줄놀이 허는디 고무줄을 헐 저르가 어서서.

102004 @ 애기 보젠 허난?

102004 #7 우리는 애기, 은, 큰딸로 나가 나 헤부난 두술 믈지, 두술 믈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 동생덜이 나와 느니까, 휘레 여디 내 오라나민 휘레 큰물에 가젠 애길 자불민 가보젠 막 저난.

102004 @ 하하하.

102004 #7 애기구덕드레 그 뜨테길 막 덮어 놔그녕 막 숨 그우찌게 행, 즘 제기 자불민 휘레 가젠.

102004 @ (웃음) 경헛?

102004 #7 그렇게 헤난. 그 거난 딸이 딸 딸 딸 딸 다섯 개가 허곡, 남동생이 허나 나난에 그 남동생 나야 우릴 호적에 놓젠 허난 거 호적에 줄여버서.

102004 @ 아, 경헛 헛구나예.

102004 #7 경헛서.

102004 @ 음, 기구나.

102004 #7 옛날엔 그 우리 시절엔 씨집을 열일곱에 너오누인 다 열일곱에 가서.

102004 @ 열일곱에 갓구나예.

102005 @ 그 때 그 저 일제 때 막 물질허면 혹시 공출 같은 건 어서수과? 일본서?

102005 #7 공출이엔 무사 어서서, 보리 갈앙도 먹을 거 어서도 공출 막 파견헤그네 응, 뗏 가멩이 내라 헤영 그 다 내엿주. 내곡, 이제 숫그락은 숫숫그락 이신디 숫그락도 밥 못 먹게 그 숫그락을 다 공출로, 숫냥푼 그런 거 다 총가랑가 멩근다 한다.

102005 @ 예.

102005 #7 긍허난 그걸 이제 다 밧지령 헤영 다 받저불곡.

102005 @ 물에 든 건마썸. 물질 현 건?

102005 #7 물질 현 건 게 벌어당 먹으미엔 메역 즈물아당 풀양 떡꼭게. 고동 잡양, 그뎨 고동, 생복이 하나네 잡양 먹어도, 막 조차가난 물질도 못허게 헤서.

102005 @ 아~.

102005 #7 길세, 그 뭐가 비행기가 막 오라그네 막 감장도는 때문에 쏘아부나네 그때 이디도 죽은 사름이 이서.

102005 @ 아, 누게가 쏘아부런? 비행기에서?

102005 #7 응, 비행기에서 그 간세끼 간시끼엔 현 비행기, 그 미국 비행기가 그 막 조자갈 뎨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간 거 쏘아부나네 삼춘조케가죽고.

102005 @ 가마릿사름?

102005 #7 응, 물에 빠져네 이제 배창 아래 숨비언 곱은 건 살국, 다숫이 고기 나끄레 간.

102005 @ 고기 낙다네.

102005 #7 응, 그때당시에는 막 웨정 시철이라고 아주 일본놈의 계난, 그때렌 학생들은 고고신민노 지까이고 거 우리는 쉐네타이는 고고신민노 세시, 그 때 헤난 거 이제 싱싱헤여.

102005 @ 음, 게 학교는 어디 다녀수과?

102005 #7 학교 텅길 생각이랑마랑, 어느 하가이 마.

102005 @ 음.

102005 #7 흑교 텅기지 안헤도 그 훈련허레 가그네 그 저 강의를 이제 그 일본말로 흐렌 허민, 그 나가 그때두 백도 넘엇젠 헤여. 흐두 번 그른 건 딱 웨우니까.

102005 @ 음~.

102005 #7 음. 그 그때 그 저 이 강단 우이 사그네 이제 그 흐는 것이 그때 헤난 거 이제두 싱싱허게 알아져.

102005 @ 음.

102005 #7 (일본어 연설~) 이, 사이까이니 현건 제주도라.

102005 @ 예.

102005 #7 사이까이니 현건 제주도, 겨난 그걸 배와그네 계난 그 교쭈센세이 교장선생은 일본사름이고 또 훈련선생도 소노다이엔 헨 응 일본선생이고, 그나무킨 이디 선생덜 이 헨 그르천신디, 그 교장선생 강단 우의 허난 그걸 그 강의로 이제 그 세넷 아이덜을 걸 웨아그네 걸 허렌 허나네 헤져서게?

102005 @ 계난예?

102005 #7 누게가 웨왕 흐두 번 곱은 걸 웨와져? 견디 우린 흐두 번 들으민 딱 웨왔주게.

102005 @ 음~. 거민 아까 곱은 일본말 우리말로 곱아봅서. 머렌 곱아신지.

102005 #7 그, 이제 다 이져비언 못헌다.

102005 @ 아까 현 것만.

102005 #7 (웃음)

102005 @ 아까 곱은 것만.

102005 #7 잊어버어네.

102005 @ 잊어버어네?

102005 #7 어, 잊어버어네, 이거 뭣 해니게? 그것이 어, 열으숏 열으숏에 그추룩  
현 것만 허렌 매날 해난 저 일본 물질 연습인가, 인술(인술) 오라시난 나도 가키엔  
허난, 어, 느 물질 그디 강 헤지크넨, 아이, 나도 어른광 ㄹ찌 험니덴. 경헨 간 허난  
그디간 빈대만 간 막 튼자아전 와나서.

102005 @ 일본 강?

102005 #7 응.

102005 @ 일본 어디 갔다 와수과?

102005 #7 강우시마.

102005 @ 음~.

102005 #7 강우시마 가네 예, 수랑현 함바에 방 허나만씩 현 거 똑똑똑 갈라네  
으숏 사름이 그 방에 눕곡 그디서 밥헨 먹곡 경 헨게. 경헌디 그 알은 세멘바닥 절  
르우고, 이 우의 ㄹ는 건 다듬이라고 대 꿰어네 대로 전거라라.

102005 @ 예.

102005 #7 그 깐아네 이만씩 현 빈데 그 쉬.

102005 @ 음~.

102005 #7 그 막 헛당, 밤인 하이고 나 솔성에 헤영 곱고 알랑알랑 헤엇주게. 게  
난 그 어른덜 트명에 강 누워시민 허깁 덜 튼짐사 험티 현걸. 빈데만 막 튼어네. 석  
덜을 제우 살아네.

102005 @ 음~.

102005 #7 그 저 강안도로 강안도 장진에 헤가멘 이제 나 그 생각 나.

102005 @ 장진항?

102005 #7 음?

102005 @ 강원도 어디마찌?

102005 #7 강안도 장진으루 간.

102005 @ 가그네?

102005 #7 배가 그디 가네, 그 배 야마구지엔 현 배가 가네, 야멧배로 가네 그디  
장진이렌 현디 오라네 이제 우리 그디 사름이 가마리 사름이 물질 가네, 가도오도  
못헨 그디 살앗주게. 사나네 물건은 하고 줌순 어시나네 음, 물건 헨 강 돈 벌영 가  
렌. 차비 헨 가렌. 경헤네 그디 오라네 물질헤네.

102005 @ 예~.

102005 #7 물건은 하곡 살름이 이디 줌수두 가도오도 못허나네 경헨.

102005 @ 거기선 뭣 해 살아수과?

102005 #7 그디서 두 덜 산디, 살아네 돈 제법 벌어네 와서.

102005 @ 아이구, 기구나예?

102005 #7 음.



102007 @ 계문 시집은 일제 때 시집 강건계양?  
107007 #7 음.  
107007 @ 해방되기 전에예?  
107007 #7 음, 열일곱에 간.  
102007 @ 계문 남자어른은 뭐 허는 사름이어수과?  
102007 #7 계~ 아무것도 안 허는 사름.  
102006 @ (웃음) 기구나예. 그다음에는 예, 결혼 해가지고 아이 나실 때 4·3 터  
쳐수과?  
102006 #7 아니. 어, 사삼스건?  
102006 @ 예.  
102006 #7 어, 사삼스건은 나가 쓰물하나에 터젯주게.  
102006 @ 아, 기구나. 계문예? 사삼 때는 무슨 피해는 어서수과?  
102006 #7 우린 피해 어서.  
102006 @ 음.  
102006 #7 우린 저 그는 나쁜 사름덜토 엇고 이해 가기는 엇고, 하나네 우린 피  
해 어서.  
102006 @ 음, 경헛구나예?  
102007 @ 결혼은 중매결혼 해수과, 연애결혼 해수과?  
102007 #7 아이고 덜러와. 연애산디, 시집이 얼로 붙은 처리도 모르는 시집을 가  
는 거주, 갓주.  
102007 @ 가마리에서 가마리로 시집갓텡 허명마썸?  
102007 #7 으 동으로 멧는디 웃서화리 간, 이 본터리에 느려 온 거주게.  
102007 @ 아, 경헛구나게, 음~.  
102008 @ 결혼 헐 때 사주는 봤지예?  
102008 #7 음?  
102008 @ 사주, 사주는 봐그네 결혼 헛지예?  
102008 #7 아이, 사둔도 안 보고.  
102008 @ 아니, 사주, 사주 사주, 사주팔자.  
102008 #7 옛날, 스주 보곡 예장 쓰국, 다, 그는 것사 헛주.  
102008 @ 헛지예?  
102008 #7 헤여두 저 스주팔자 맞은 사름이 연날 이서? 어서.  
102008 @ 계메예.  
102008 #7 반도 안 살아서, 다.  
102008 @ 안 살안, 맞수다.  
102009 @ 계, 시집 올 때 무시겨 헤웁디가?  
102009 #7 무시겨 헨와서?  
102009 @ 이불이라도 헤와실 거 아니꽈?

102009 #7 아니, 이불 헤연 이녀 덕을 거 행 가는 거주.  
102009 @ 이불 덕을 거.  
102009 #7 이녀 덕을 거.  
102009 @ 계민 혼 채?  
102009 #7 혼 채 행 갓주. 우리 시절에사. 제국시대난 무신 뭐 이서시냐. 살 것도 엇고, 풀 것도 어섯져.  
102009 @ 경헛구나예?  
102009 #7 시집 간 듯 해에 해방돼나네.  
102009 @ 아, 경혜수나예? 음~. 듯 해에 해방되면.  
102009 #7 열으답에 해방돼나네.  
102009 @ 예~.  
102009 #열으답에 저 울산 녹수금에서 해방웬 오라서. 물질 간.  
102010 @ 그때당시 결혼 헐 때 사진 같은 거 이서수과?  
102010 #7 하이고, 사진 출리고.  
102010 @ 맞아, 사진도 어섯지예? 그 후제라도 찍어수과? 후제, 애기 낭 다음에 라도 찍어수과?  
102010 #7 그 제국시대에 막 좃아가부난 그는 거 찍을 생각이랑 마랑.  
102010 @ 그 이후예, 해방 후에.  
102010 #7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삼년 이시난 또 스삼 사건이 또 일어나비엇주게.  
102010 @ 맞수다예. 맞수다.  
101010 #7 계난 숨을 쉰, 우리시절은 아주 그리나 나쁜 그리에 띄어난노니까고생 만 고생만 해서.  
101010 @ 맞수다.  
102012 @ 근데 무사 아들만 둘 낳아그네 애기 하영 더 안 나수과?  
102012 #7 아이고, 더러 죽어부럿저게.  
102012 @ 아, 기짱~.  
102012 #7 옛날엔 그 애기가 나민 한집이라고, 이제는 예방주사 다 놔부난 그런 것가 엇지아녀느냐?  
102012 @ 예.  
102012 #7 그 시절엔 그 예방주사 아니닌민 그 한집이라고 들민.  
102012 @ 죽은 한집 큰 한집마씨?  
102012 #7 오, 혼 집이 흠치 두 개씩도 죽어서.  
102012 @ 계난, 죽은 한집 큰 한집?  
102012 #7 음.  
102012 @ 계난 한집도 큰 게 잇고, 죽은 게 이서낫잖아예?  
102012 #7 음.  
102012 @ 계난 한집도 큰 게 잇고 죽은 거 이서낫잖아예?

102012 #7 큰 거는 막 엮어지는 거.

102012 @ 엮어지는 거.

102012 #7 죽은 것도 난 그때 육지 열일곱에 가부난, 우리 형제간들은 문밖 헤엿는디 나만 떨어졌다네 시집가네 애기 두 개 나사, 젓엔 애기 어느 때 죽은철리도 모르게 그 한집 혼난 부끄지 못헿 나이 향은 그 솟지 못헿 더 죽어, 애기 죽은처리도 몰란. 막 한집에 얼떡어서 나.

102012 @ 아이고, 경헿구나예? 음~.

102012 #7 옛날엔 훗슬허민 탈바그네이, 구신이 한 때난.

102012 @ 맞수다게.

102011 @ 결혼헿그네 신혼은 시집이서 살아수과, 따루 살아수과?

102011 #7 아니, 따루 안 살아서.

102011 @ 꺷지 살안?

102011 # 혼디 산디. 어, 시집 가나네 씨어명이 삼년 되나네 스섬스건 잇는 해에 오갓 죽어비서.

102011 @ 아, 그냥 아판?

102011 #7 어, 아파네. 죽어부나네 그 그디두 이제 그 할망이 아프나네 재기 이제 폰 거라.

102011@ 아~.

102011 # 아시해엔 우리 풀고, 또 듯해엔 씨아지방 혼나 이신 거 폰 거 보나네.

102011 @ 음~.

102011 #7 게, 경허난 스섬스건 잇는 해엔 3월에 할망이 죽어비서. 죽어부난 하르방은 술 먹는 하르방이난 살림을, 하르방이게 할망 죽어부나네게 ㄱ마니 부뜰 거냐? 풍지박살 해벳주.

102011 @ 아, 맞수다.

102011 # 경허나네, 이제 씨어명 살아시민 경도 안헿주마는 하르방은 할망 죽어부난 막 그 부젷집이라나서 경헌디 하르방이 다 즈가먹언 이제 헿가나네 이것가 친정똥네주게.

102011 @ 기구나예.

102011 # 응, 웃서화리 시집을 갖는디 이디 내려와네, 이 이 알녁집이가 우리 친정이라, 경헌 이디와네 애기 두 개. 남은 건 애기 두 개 남으나네. 저, 아들 두 개 남으나네 한집허멍 딸도 혼나 죽어불고.

102011 @ 아,아~.

102011 #7 경허나네 이디 오라네, 나가 윈 첨, 물질을 잘 허나네 육지 갖닥 어디 갖닥허멍 그 제국시대도 벌어네 이제 이거, 이디 삼시작을 헿네 친정 동네 이거 태스른 동네주.

102011 @ 그 때, 여기 내려올 때 바깳어른 살아실 때구나예?

102011 #7 응, 그 땐 이 간 오난 일본 해방 뉘나네 또 스섬스건 이나네 군인 가

부런.

102011 @ 군인 잣구나. 음~.

102011 # 음! 경헛주게.

102011 @ 음~.

102011 #7 군인 간 그때뜨른 응, 육년 썩 칠년 썩 살아서.

102011 @ 계난마썸예?

102011 #7 어, 군인을. 이제는 무신 수물녀 덜인가 수물 뗏 덜 살민 오라도.

102011 @ 그땐 계른 그 저 한국전쟁 육이오영 다 끝나그네 돌아와시쿠다예? 바깥어른은예?

102011 # 음, 육년 칠년 차 왔주.

102011 @ 아이고, 애기덜 다 커그네 왔구나게. 쟈,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버리고 가면 시아버지는 막 오래 살아수과?

102011 # 씨아버지 우리 저 죽은아덜보다 혼나 알인가? 그 후제 할망 장만혜네 아덜 나네, 우리 저 죽은아덜보단 혼 설 아래 이제 이서.

102011 @ 아, (웃음) 기구나예.

102011 #7 할망 죽어부나네게 우린 딱라진 목숨이주게.

102011 @ 맞수다예.

102011 # 하르방 저, 하르방이 책음혜연 뭐 다 헤부난, 할망 살아시민 허주마는 뭐우런 권리가 어션.

102011 @ 맞수다.

102011 # 뭐헛 이젠 친정으로 애기 두 개 들안오라네, 원차 나가 물질을 잘 헛혜네. 그 때 당시에 우리 애기덜 장성 시켰주.

102012 @ 거난. 애기덜은 다 착헛마씨?

102012 #7 막 착혜여.

102012 @ 음~.

102012 #7 착혜여난는디 큰아덜은 뺑이 이상헛 뺑이어서.

102012 @ 어디?

102012 #7 그땐 뺑이 나민 뺑안의 잘 약도 엇고 뺑안이 잘 어션, 문 다 돌아사 뺑이름도 나타난 죽어비서.

102012 @ 어디 아파신디마씨?

102012 #7 백헛뺑이엔 다 뺑어사.

102012 @ 음~, 경헛구나. 계민 그때 손지들은 누게가 키워수과?

102012 #7 손지, 손지덜은 지집아이 두 개 나난 지네 어멍이.

102012 @ 데런 간? 음~.

102012 #7 들안 간, 국민헛교 뺑 때 뺑나네 이제 오랏주.

102012 @ 음~. 기구나예? 음~.

102012 #7 오란 우리 저 죽은메누리 혜단, 우리 죽은메누리가 다 들안 살고, 풀

고.

102012 @ 아이고 세상에 잘도 잘도 착허우다예?

102012 #7 가네덜토 멩이 쫄란 다 죽어비서.

102012 @ 아이구야, 무사마썸?

102012 #7 가네 그 손지덜은 이제 세 개씩 이서도.

102012 @ 아~.

102012 #7 겐디 어떻헤연 큰아덜엔 딸 손지만 딸 손지만 다 잇주.

102012 @ 음~.

102012 #7 아덜이 없서.

102012 @ 아~, 그 손지덜은 어디아팡 젊은 나이에 죽언마씨?

102012 #7 그 친정애가 아메도 그 암 종네기가 불리가 이신 생이라.

102012 @ 아~.

102012 #7 경헤네 큰아인 유방암으로 죽구, 죽은넌은 이녁 차에 사고 난 죽어부  
럿주.

102012 @ 아이고 세상에 경헛구나게. 음~. 그문 이제 죽은아덜 죽은메누리에 또  
손지가 또 이신 거구나예?

102012 #7 죽은메누리에 손지덜 저거. 저거 증손덜.

102012 @ 음~. 경헛구나예?

102012 #7 증손은 작년의, 죽은아덜엔 아덜만 두 개나네 자네 저 이제 돌아댕기  
는 거, 아방 어멍은 큰손지고, 큰손지에 저거 난거고 죽은손진 제주시 간. 작년에  
풀아네 제주시에 간 살암서.

102012 @ 경헛구나예? 게 멩질 때 손지덜은 여시서 다 모임수과? 멩질 제사 때?

102012 #7 우린 멩질이나 무시거라도 다 교를 믿어네 다 파헤네 개척으로 다 헤  
부러서.

102012 @ 아~, 제사도 안하고예?

102012 # 어. 게난 제서도 정월 초하를날 합동 기념으로 허여.

102012 @ 게민 섭섭허지 안협니까?

102012 #7 섭섭은, 그디 다 출려 낡 합동 기념식으로 허나네, 스월 십구일 날 허  
곡, 정월 초하를날 허고.

102012 @ 그문 삼춘 아들이영 메누리영 증손자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쯤 똥수  
과? 땃 사름?

102012 #7 (웃음) 쓰무나문 개 돼주게.

101012 @ 스무나문 개? 예~. 아이고 알아수다. 고맙수다예. 이, 삼춘이야기는 이  
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예?

102012 # 예.

### 3. 밭일

103001 @ 어, 지금부터는예 밭일에 대해가지고 여쭙보쿠다예? 밭일은 그냥 쉬운 거라예? 해난 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어예?

밭일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잇섯습니까?

103001 #3 밭일, 농사허는 거?

103001 @ 예. 농사 종류들 어떤 거 이서수과?

103001 #3 곶읍서.

103001 #4 어떤 농사, 옛날 보리 갈아난 거?

103001 @ 예 보리 갈아나고, 또?

103001 #4 보리집 일며는 게 걸름 내고.

103001 @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보크라예? 그니까 무신 농사? 농사 종류. 보리 농사가 잇고 또? 조농사가 잇고 또?

103001 #4 그거.

103001 #3 산디도 잇고.

103001 @ 산디도 잇고예?

103001 #4 모를도 잇고.

103001 @ 모를도 잇고, 또?

103001 #3 옛날엔 콩을 하영 안 갈아나서.

103001 #4 옛날엔 밀도 허고게.

103001 @ 밀도 헤나수과?

103001 #3 밀도 헤수게.

#### 보리농사

103002 @ 지금부터는 보리농사에 대해서 여쭙보크라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돼수과?

103002 #4 보리농서 허젠 허민게 걸름 네영.

103002 @ 예.

103002 #4 걸름 네영으녕에 돛걸름에 서꺼그녕에.

103002 #3 도새기 통에.

103002 #4 도새기 통에 행 걸름을 내영.

103002 #3 도새길 질루민 도새기 영~ 담다왕, 옛날 도새길 질랐주. 질루민 거기 막 쉼걸름도 담양 농곡, 무시 것도 하영 담아 낵, 그것 막 썩어서 더 거기서 썩으면.

103003 @ 썩어서 준비가 웬 거잖아예 그러면 보리밭 거름을 만들젠 허민 어떻게 만들어수과?

103003 #3 게 그 거름을 만들젠 허며는 그 거름을 또 네어놔사 사름이 터내영,

쉐스렁으로 영 막 터내영.

103003 @ 음.

103003 #3 그게 경허민 그게 썩으난 그때는 그 터내영 보리씨 영 빼영으녕에 불러놔주. 쉼로.

103003 @ 쉼로 불령 그다음에 어떻헤수과?

103003 #4 쉼로 불러그녕에 올령, 올령으녕에 쪽~ 허게 낱, 이제 그 멩텅이에 담양(웃음), 멩텅이에 담아그녕에 밧디 강 빼여그녕에 걸름을 탁탁 허게시리 영 헤낱주.

103003 #3 손으로 영~ 찌지멍 낱주.

103003 #4 빼어낱주. 쪽~ 허게시리 쪽~ 허게 폐와놔그녕에.

103003 @ 저, 흔사름씩 허게예?

103003 @ # 응 뭐?

103003 @ 흔 사름씩마썸.

103003 #3 응.

103003 #4 쪽~ 허게 폐와그녕에.

103003 @ 예. 쪽~ 폐와 노면 씨영 ㄱ찌 서꺼정 허는 거잖아예.

103003 #4 영, ㄱ찌 서깁, 그추룩 헤나시네.

103004 @ 보리씨는 아까 거름이랑 서깁 현고예? 보리씨는예?

103006 @ 그다음 보리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3006 #3 보리? 걸보리도 있고, 주녕이보리도 있고, 솔보리도 있고, 경헛주게.

103007 @ 경헤수과? 그다음엔예? 그 보리를 뿌리면 겨울이 오잖아예? 보리밧기 헤나수과

103007 #3 보리 볏아서.

103007 @ 어떤식으로 볏아수과?

103007 #3 그 발로, 보리가 탁탁탁 영~ 놓아 노며는 그 무룩무룩 멩텅이 나잖아. 보리가 멩텅이 저그네 하나로 게민 그걸 막 그 겨울 들어 막 눈 오고 흔민 고사불민 들러져부난 걸 막 발로 블라서 발로 막 블라.

103008 @ 그다음엔 보리밧엔 검질은 몇 번 메수과?

103008 #4 흔 불썸 멧주, 흔 불.

103008 @ 흔 불예?

103008 #3 보리밧된 으라 번 안 메여.

103009 @ 그다음에는예 보리밧된 어떤 검질들이 이서수과?

103009 #4 여께 닳은 거.

103009 #3 겨울풀.

103009 @ 여뀌가 있고. 겨울풀이 있고.

103009 #3 대게 콩풀.

103009 @ 이름이 콩풀마썸?

103009 #3 콩풀이엔 헛주 우린. 콩풀, 콩풀이엔 해서 그 겨울풀은.  
103009 @ 겨울풀은 콩풀, 그거바피 어서수과?  
103009 #4 그거허곡 씨메께.  
103009 # 췌웨끼, 꿰대우리도 잇고 대우리.  
103009 @ 대우리예?  
103009 #3 대우리렌 헛 거도 이서서.  
103009 @ 아까 씨웨께렌 해수과 췌메께렌 해수과?  
103009 # 췌웨께, 건 벌~경 허느네.  
103009 @ 알아수다예.  
103010 @ 그다음엔 보리를 이제 거들 거 아니파예? 거들 때, 처음에 보리 베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돌아줘봅서.  
103010 #3 호미로 비엿주게.  
103010 @ 베영.  
103010 #3 호미로 비영 거 물류우민 물르민 무껏주.  
103010 @ 예.  
103010 #3 무경, 또 늘어서. 늘엇다가 장만허는 거라.  
103010 #4 게영, 흘태로 흘타.  
103010 #3 영 클로 흘탕.  
103010 @ 클로예?  
103010 #4 마당에 앓당.  
103010 @ 마당에 앓다당예?  
103010 #3 마당에 앓당 흘탕 두드리곡.  
103011 @ 게, 두드릴 땐?  
103011 #3 도께로.  
103011 @ 어, 도께로만 해수과?  
103011 #3 도께로.  
103011 #4 도께로.  
103011 @ 흘탄 다음에 이제 도께질 허는 거예?  
103011 #3 음음, 도께로.  
103012 #4 그다음에 보리 흘타그네 도께로 두들기잖아예? 그다음엔 보리쌀은 어  
뎡 장만해수과?  
103012 #4 쌀은? 물ㄴ래.  
103012 #3 쌀, 그 물ㄴ래에도 글주. ㄴ래에.  
103012 @ 물ㄴ래에.  
103012 #4 큰~ 멧돌 서서.  
103012 #3 큰~ 멧돌이민 그래 물 버뜨령, 물 버뜨령 그래 영~ 가민 빙빙 그 사  
름으로 막 밀령 곶앗주.



103012 @ 물고렌디도 사름으로 해수과? 물 안 무경?  
103012 #3 사름으로 허고 물도 메왕 허곡.  
103012 #4 그거민 물매왕 헐 때는 막 저 흥끔 늦언.  
103012 #3 처음엔 사름으로만 해서.  
103012 @ 사름으로만 헐게, 혹시 일제 때는 어떻 해수과?  
103012 #4 일제, 일제 때도 게 그게 경헤네 곶앗주게.  
103012 #3 일제 때도 그거주. 그축 헝 살앗주게. 경헝 살안.  
103012 @ 그냥? 그게 언젠까지 해수과?  
103012 #4 옛날엔 다 전 탕겨시네. 에이고.  
103012 @ 방앗간 놔두고?  
103012 #3 방앗간이, 그땐 방앗간이 잘 어서서.  
103012 #4 방애가 어서서.  
103012 #3 옛날에 방앗간이 어선. 물 ㄹ레엔 헝 거.  
103012 @ 방앗간이 언제부터 이서수과?  
103012 # 3 방앗간이 그게 땃.  
103012 @ 옛날엔 방앗간보고 뭇렌 곶아수과?  
103012 #3 기갯방.  
103012 @ 기갯방~.  
103012 #4 기갯방 나건덴 오래지 아년거여.  
103012 #3 ㄹ만셔보라. 그게 땃 년, 땃 해, 우리 땃 설 때여 마는.  
103012 @ 전기 나기 전잇파? 후파?  
103012 #3 전이.  
103012 @ 전에 나긴해수과?  
103012 #3 응. 전기 나기 전에.  
103012 @ 왜냐하면 기갯방은 기계 돌리젠 허믄 전기로 돌려실 거 아니파?  
103012 #3 그때 그 전기가 아니라.  
103012 #4 발동기 살려서 해서.  
103012 @ 아, 발동기로 그믄 친구백칠십년 전이어예? 칠십구 년 뭇, 그때 전기들 들어왔덴 허나네.  
103012 #3 아이고 저, 칠십년 전이주.  
103012 @ 칠십년 전이어예.  
103012 #4 것도 옛날이엇주.  
103013 @ 그다음엔예? 보리쌀을 ㄹ레에 가그네 곶아오면 보리쌀은 주로 어떤 걸 헤떡어수과?  
103013 집에 오랑, ㄹ레에 거퍼서~.  
103013 @ 거퍼수과?  
103013 #3 쓸땡게 거 벌러지게.

103013 #4 정ㄹ레에.  
103013 #3 보리도 혼불만 곶앙 안돼서. 뒤 벌 곶앗주.  
103013 @ 집에서 정ㄹ레로에 아까 삼춘 막 힘들엇덴 현 거 그걸로.  
103013 #3 응응, ㄹ레도 곶곡, 치명 그추룩도 헤영 호고.  
103013 @ 게, 걸로 뭐헤영 먹어수과?  
103013 #3 밥헿 먹엇주게.  
103013 @ 보리밥?  
103013 #3 보리밥.  
103013 @ 보리밥 바피 안 헤먹어수과?  
103013 #3 보리밥 베피 안 헤먹엇주게. 옛날엔 보리밥.  
103013 @ 개역도 안 헤먹어수과?  
103013 #4 어, 개역도 헤서.  
103013 #3 개역도 헤먹언. 개역도 헤먹엇주게.  
103013 @ 개역도 헤먹엇지예? 그다음엔 혹시 보까다그네 물, 보리찬 안 끌러먹어봐수과?  
103013 #3 아이고, 보리차 안헤연.  
103013 #4 그거 차 안헤여 먹언.  
103013 @ 그른 아이덜 배탈 나그네 허민 어떻헤수과?  
103013 #4 탈나그네 하영 죽엇주게 경허난 애기덜. 애기덜이 나민 죽고, 나민 죽고 연날 할망들.  
103013 #3 배탈나민 소금물이나 헿 먹어났주. 배 아프민 소금물 헿 먹어났주.  
103013 #4 대산이물나 떡곡.  
103013 #3 배 아프민 대산이 올린 물 떡곡, 소금물 떡곡 헿주.  
103014 @ 그담엔 보리 갈아나면 쌀은 밥을 헤먹거나 개역을 헤먹잖아예? 그담엔 남는 찌끄라기를 뭐렌 ㄹ라수과?  
103014 #3 찌끄레기가 잇게 헤서? 저, 무게기 무게기 헤나신디, 그 무게기도 잇게 다 곶앗주. 게 영~ 채로 치명.  
103014 @ 아니, 게난 곶아난 그것들. 그 무게기들이영 그것들은 무에 써수과?  
103014 #3 무게기는 엇게시리 또 곶앗다가 또 곶앗다가 헤서 대체로 쳐서 쓸만 들어 난. 거프레기는 데껴불고.  
103014 @ 거프레기는 데껴부러수과?  
103014 #4 데껴부러주, 떡질 못허난 그걸.  
103014 #3 ㄹ루 또 나와. ㄹ레 곶민. ㄹ루.  
103014 @ 짓도 다 데껴부러수과?  
103014 #4 텃겨부러주게. 떡질 못허난.  
103014 #3 ㄹ루 떡 헿 먹엇주.  
103014 #4 영 처그넵에.

103014 #3 증진체로 처그네 떡 헨 먹어서 것도.

103014 @ 떡 헨먹었지예? 그다음엔 증진체로 헤그네 막 그 ㄱ루들은 떡 헤먹엇  
덴 허고 그 우에 남앗던 것들은 어떻게수과? 체 헨 남앗던 거.

103014 #4 첸 데껴부럿주게,

103014 @ 웨지 안 줘수과? 도새기 안 줘수과?

103014 #3 도새기 줘주게. 도새기 질루왕.

103014 #4 도새기 줘줘. 맞다, 도새기 줘줘, 참. 도새기 첨 도통에 허난 도새기  
준다게.

103014 @ 그, 보리 까끌까끌한 거, 저 맨 처음에 보리를 털잖아예? 왕 이제 도리  
깨로 두들겨가지고 이제 알갱이로 만들고 그거를 강 ㄱ레에 강 곶아오면, 곶아온  
다음에 다시 왕 정ㄱ레로 헨잖아예? 그문 ㄱ레로 곶 때라든가 아니면 맨 처음 털  
때, 그 약간 거므스름 헨 보리쌀 같앗던 나머지 까끌까끌 한 것들은 뭐에 써수과?

103014 #4 까끌까끌 헨 건 체 영~ 헤나민 ㄱ사 말 짝아니이도 도새기나 줘벧주  
건 먹지 아녜져.

103014 @ 아니 먹진 안헨 도새기 주엇구나예?

103014 #4 응.

103014 @ 도새기 먹이로 주어수과? 아니면?

103014 #4 거프레기난.

103014 @ 계난, 돛통에 놔그네 거름으로 쓰게 돛통에 바라바락 비와수과?

103014 #3 아이아이, 바라바락 안 비와서.

103014 #4 비울게 이서?

103014 #3 헤끔씩 주엇주게. 도새기덜이 하영 주어서?

103014 @ 거의 도새기덜에 다 주엇구나예?

103014 #3 아니 그 거프레기 도새기 주곡 그 보리도 저 무시거라 그 저 ㄱ루 저  
ㄱ레에 곶아그넵에 헨 때는 도새기 줄게 경 어서나서 혼어시.

103014 @ 음~.

103014 #3 그걸, 쓸 뵈수시민 쓸을 멘들양 밥을 헤 먹엇주.

103014 @ 계도~ 보리로 그 저 무시거파 그거 순다리가 아니라 그 멧질 때나 잔  
치 때 쓰는, 마시는 거 걸 뵈렌헵니까? 그 보리 뵈로 만드는 거 어서수과? 보리 영  
쌈 나게 헤가지고 하는 거.

103014 #3 감주? 감주.

103014 @ 감주 만들 때 보리 뵈로 헤수과?

103014 #3 곶. 보리 곶 놔.

103014 #4 곶감지.

103014 @ 곶은 뵈로, 어느 상태에 곶로 곶을 만들어수과?

103014 #3 저, 줄보리로 곶 만들엇주. 줄보리.

103014 @ 줄보리로? 곶을 만들 때 곶아줍서, 어떻 헤수과?

103014 #3 물에 영 컷다가 영 건정, 건정 뜻뜻하게 영 뇌두민 순이나, 싹이 나와.  
103014 @ 예.  
103014 #3 싹이 나오민, 싹이 요만씩도 나오고 것도 준 쉬엄발이 저. 싹은 말고.  
103014 @ 뿌리.  
103014 #3 뿌리가 나와. 거 나와가며는 영 찌지명 물리왔주게.  
103014 #4 들꺾름 헤여.  
103014 #3 찌지명 들류왕 걸 골미는 그 골이 되는 거라.  
103014 @ 그게 골이 되는 거구나예?  
103014 #4 골감지, 연날엔 골감지엔 헛주.  
103014 #3 경허민 좁쌀 재미는 죽 쭈워그넝에 그 골에 혼디 서터땅 그게 흥끔  
밭우가 돼며는 걸러그넝에 걸 딸리민 감주가 되는 거주.  
103014 @ 감주가 되는 거구나예?  
103015 @ 어, 보리농사 지으명, 특히 삼춘 같은 경우에 저기 남자어른 돌아가서  
부난, 보리농사 지으명 뭔가 막 그 재밋거나 아니면 막 힘들엇거나 슬픈 일 어서수  
과?  
103015 #3 하이고, 무사 어서말이라?  
103015 #4 아이고.  
103015 @ 혼 가지만 곱아줍서.  
103015 #3 게, 보리농서 허민게 시꺼오지도 못허고 집이게 시꺼오젠허민 늙의 늙  
바레기라도 빌어사.  
103015 #4 맞아, 거기 데몇당.  
103015 @ 혼 사름씩 곱아줍서예?  
103015 #3 늘엇다가 바레기 빌어사 시꺼왔주게. 늙의 바리게 빌영. 바레기 마차.  
그뻘 바레기엔 곱앗주. 이젠 마차엔 허주.  
103015 @ 물 무꾼 거 마썸? 췌 무꾼 거 마썸?  
103015 #3 보리 무꾼 거를.  
103015 @ 아니, 그니까 마차에 뭐 무꾼 거, 뭐 매단 거? 췌 아니믄 물?  
103015 #3 물도 허곡 췌도 허곡. 물도 허곡 췌도 허곡 해서.  
103015 @ 물이나 췌, 보리를 시끄면 한 번에 몇 단 정도 시꺼수과?  
103015 #3 하영 시끄믄 해서.  
103015 @ 하영 시꺼예? 게민 한 번 시꺼 오미는 돈으로 쥐수과 아니믄 뭐 쓸로  
쥐수과?  
103015 #3 그자 일도 대신 해주고.  
103015 @ 수늘영?  
103015 #3 응, 수늘영도 대신 해주고 그자, 돈이 어서서, 그뻘 돈이 어서.  
103015 #4 돈 출리곡.  
103015 #3 돈이 어성 득새기나 낭 풀지 아녀곡 득이나 질황 풀지 아녀민 돈이

어서서 연말엔.

103015 #4 수놓영 헛주게.

103015 #3 수놓영 헛주.

### 조 농사

103016 @ 알안예, 그다음엔 조 농사에 대해가지고 여쭙보크라예? 조 농사를 할 땐 어떤 준비가 필요허우꽈?

103016 #3 조 농사할 때에는 그, 밧을 쉼로 다 갈앙~, 초불 갈곡, 두불 갈곡 헤그넵에 톨로 막 밧블러서. ‘이리 아자. 펜안히 아자.’ 펜펜허게.

103016 @ 예.

103016 #3 펜펜허게 혼 불 블러낭 그 좁씨를 또 빼엇주. 좁씨를 빼민 또 블린 거라. 좁씨를 영 심어지게.

103016 @ 예.

103016 #3 땅에 심어지게 또 또 블러.

103016 @ 예.

103016 #3 경헤그넵에 막 멘짜허게 그 조가 이 흑이 흑씩흑씩 허민 조가 아니 염넨허멍.

103016 @ 아~.

103016 #3 땅땅허게 블리렝허멍 그거를 막 땅땅허게 블렛주게. 경형게, 검질이나 비나 와낭 검질매젠 허민 글개기 안 들어강 차룩차룩 또 땅 팔딘 가민 닝끼르곡 경헤나서, 막 들어가지 아녕.

103016 @ 조 농사 할 땐 땅을 딱딱허게 헤그네예?

103016 #3 어, 딱딱허게.

103017 @ 거문 조밭에는 거름은 어떻 거 헤수과?

103017 #3 조는 그때는 거름이 어디 서서? 그자 헛주~.

103017 #4 기자 헛주.

103017 @ 조는 예?

103017 #3 그루후제가 옛날 후제가 비로가 나온 후제야 그 비로를 췌주. 그전에 는 그 옛날 처침은 보리 갈 때나, 조 블릴 때나 비로가 어서나서.

103017 #4 기자 빼영 기자 헛주.

103004 @ 그 보리는 언제 갈아수과?

103004 #3 보리는 구시월에.

103004 @ 구시월에 예. 양력으로 예?

103004 #3 음력으로.

103004 @ 음력으로?

103018 @ 그럼 조는 몇 월에 갈아수과?

103018 #3 조는 유월절 웨영. 그민 유월절이 오월에 드느냐 유월에 드느냐. 그민

그 절기를 생각했 갈았주 절기.

103018 #4 혼 오월쫘에 허는 거주.

103018 #3 게메는 저, 그 그 절기를 유월절 웨어그네 유월절 혼 앞서 경헨 갈안.

103019 @ 게문 그때 갈고예? 그 보리씨는 막 걸름허곡 막 서꺼가지고 뿌린덴 헛  
잖아예? 좁씨는 아까 땅땅헌디, 뿌려냥 땅땅허게 헤수과? 땅땅헌디 뿌려수과?

103019 #4 아니 아니.

103019 #3 초불 불러냥.

103019 @ 불린다는 말은 뭐짜?

103019 #3 물로 막 불뿔, 글라냥. 펜펜허게 땅을 영 이추룩 그 밧을 쉼로 영 잠  
대로 갈앙, 그거를 영 골라지게 훗쓸 어는 정도 높으고 낮아진디 어신 때는 좁씨를  
뺨 거라.

103019 @ 경헛구나예.

103019 #3 즈근즈근 블라.

103019 #3 좁씨를 빼영, 또 이제는 그때는 또 불렛주. 불러그넝에 이꺼그넝에 물  
도 여남은 개씩 열댓 개씩 허멍, 쭈무나몬 개씩 행 다 불렛주.

103019 @ 아, 조밭 불릴 때는 물 데려다그네 막 헤수과?

103019 #3 으, 물로.

103020 @ 혹시 남태는?

103020 #3 남태 헤서.

103020 #4 남태도 헌다.

103020 #3 그루 후젠 남태도 헤연.

103020 @ 남태도 헤나수과?

103020 #4 물 안 날 땐 남태 헛주.

103020 @ 남태하고 돌태하고, 돌태도 혹시 헤나수과?

103020 #3 돌태는 아니봐나서.

103020 #3 남태.

103020 @ 남태로예?

103020 #3 낭 영~ 헤그넝에 고망 딸르멍 영~ 영~ 다 멘들아 나서.

103020 @ 끄개라는 거 혹시 알아지쿠과? 들어나수과?

103020 #4 끄슬퀴!

103020 #3 끄서퀴주 끄서퀴.

103020 @ 끄슬퀴짜, 끄서퀴짜?

103020 #3 끄설퀴, 끄슬퀴.

103020 @ 끄슬퀴?

103020 #4 그걸로 허영, 물로 매왕도 멘짜헌 거.

103020 #3 끄서냥.

103020 @ 끄서키, 끄설퀴.

103020 #4 베나벨 거 다 이서.

103020 #3 거 모물 갈뻬는 꼬설키로 꼬섯주게.

103020 @ 음, 꼬설키로.

103020 #3 모물은 이추록 줌지롱 현 골 그서.

103020 #4 접아 낱.

103020 #3 접아 낱. 거 막아지게 꼬섯주게.

103021 @ 조밭에는 검질은 몇 번 메수과?

103021 #3 조는 서너 번 메서. 초불 두불 세불도 메고.

103021 #4 아, 옛날엔 검질 지서.

103022 @ 그담엔 조밭딘 어떤 검질 나나신디 혹시 기억 남수과?

103022 #3 조밭딘 제완지.

103022 @ 제완지예?

103022 #4 모에제완지 나난.

103022 #3 그거 절완지 절완지 허는 거. 우리 제완지 제완지 해나신디, 제완지도 모에제완지 춤제완지 헛주.

103022 #4 민짜 현 거.

103022 #3 쉼터럭.

103022 @ 잠깐만예? 제완지 중에서 모에제완지, 춤제완지예?

103022 #4 쉼터럭도 나곡.

103022 @ 모에제완지, 춤제완지예?

103022 #3 어.

103022 @ 쉼터럭예?

103022 #3 쉼터럭도. 쉼터럭이엔 현 거. 쟈쟈현 거 꼬즐꼬즐허게 막 나.

103022 #4 쟈쟈현 거, 빼쪽빼쪽 현 거.

103022 @ 그다음엔 제완지나 쉼터럭이나 또 다른 건 어서수과?

103022 #3 그 여름에는 그 조팍딘 흔어시 그런 거 베피 어서난.

103022 @ 그거 바편예?

103022 #3 그 ㄴ라지 곱은 거 서터젯주.

103022 @ ㄴ라지예?

103022 #3 ㄴ라지도 메어불곡. ㄴ라지영.

103023 @ 그다음엔 예? 조, 이제는 그 수확을 해야 뉘잖아예? 거뉘드려야 하잖아예?

102023 #3 어.

102023 @ 거뉘드릴 때는 어떻게 베어가지고 묶는 건 어떻게수과?

102023 #3 호미로 막 비엿주 다.

102023 @ 다 비엿예?

102023 #3 호미로 다 비엿 거 다 무껍, 것도 집이 실러 와야.

102023 @ 그거 무끝 땀 좇단하고 보릿단하고는 구분 뉘마썸?  
102023 #3 응. 조는 저 크게 무꺼썸.  
103023 @ 보리보다?  
103023 #3 보리보다.  
103023 @ 음~.  
103023 #3 으섯 단이 혼 바리 혜수과?  
103023 #4 응. 으섯 단이.  
103023 #3 거는 혼 바리.  
103023 @ 으섯 단이 혼 바리 혜수과?  
103023 #3 보리는 썬물넉 단이 혼 바리 허고, 조는 으섯 단이 혼 바리.  
103023 @ 조는 으섯 단이 혼 바리고예?  
103023  
103023 #3 흑게 흑게 무꺼. 이만~씩 무꺼. 이만~씩 무꺼(두 팔을 벌려 크게 안으로 모으며).  
103024 @ 그다음에는예 어, 조 타작할 땀 어떻 혜수과?  
103024 #3 조도 그 툷아, 집이 오랑 경행 툷아.  
103024 @ 기냥 손으로 툷아수과?  
103024 #3 손으로 툷아, 건 손으로 툷아.  
103024 @ 도께질 헐 뉘마썸?  
103024 #3 손으로 툷앙, 고고리만 혜영, 고고리만 마당에 널영, 널영 그때엔 도께로 두두린 거.  
103024 @ 도께로만 두드려수과?  
103024 #3 도께로만 두두리주게.  
103024 @ 흑시 뉘 덩드렁마께 같은 건 아 썸수과?  
103024 #3 이딘 덩드렁마께 안 썸환.  
103024 #4 덩드렁마께도 쓰는 사름은 썸주.  
103024 #3 그 저 흑끔씩 헐 거.  
103024 @ 호끔씩 헐 거.  
103024 #3 으, 경 헛주게.  
103025 @ 그다음엔 그거 이제 도께러 두들겨그네,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먹을 수 있게 조를, 그다음엔 어디 강 어떻 혜수과?  
103025 #3 조, 그거를 불령 거주.  
103025 @ 불령?  
103025 #3 불령, 물류왕, 햇빰디 물류민, 그때도 기켓방이 안 난 때는 그레에 굴앙, 그레에 굴민 그걸 저 그 조가 니가 잇젠 허주. 조 이신 것 그라 니 잇젠 그라.  
103025 #4 (웃음)  
103025 @ 예.



103025 #3 조가 그 좁쌀에 아니 꺾테기 안 벗어진 거 이서. 영~ 보민. 게민.  
103025 #4 니 잇젠 허주.  
103025 #3 아이고 니 잇져게 니, 더 곶아사키여. 막 침도 허곡.  
103025 @ 음.  
103025 #4 옛날, 아이고 게메.  
103025 #3 에롭게 살았주.  
103026 @ 그러며는예? 좁쌀, 조로는 뭐뭐 헤먹어수과?  
103026 #3 조, 조팝 헤먹엇주게.  
103026 #4 조팝도 헤먹곡, 죽도 썬먹곡.  
103026 @ 또 뭐 헤먹어수과?  
103026 # 아이구 경헛주, 거 베끼 안 헛주게.  
103026 #4 죽 썬먹곡 기자 밥도 허곡 헛주게.  
103026 #3 거고 흐린좁쌀은 곶양 범벅도 헤먹곡.  
103026 @ 감주나 술은 안 헤먹어봐수과?  
103026 #3 감주, 술도 허주. 무사 안 헤여?  
103026 @ 송도 헤봐수과?  
103026 #3 술도 헛주게.  
103026 #4 술도 허는 사람은 헤주.  
103026 #3 흐린좁쌀로 술 헤여. 우리 어머니넌 술을 막 헤난. 우리아버지 술 잡  
좌부난.  
103026 @ 삼춘은 안 헤봐수과?  
103026 #3 헤반. 나도 우리 씨아방 들양 살젠 허난.  
103026 #4 청주 앓져그네, 아이구.  
103026 #3 헤봤주게, 그 누룩에.  
103026 @ 청주 만들 때그 도자기, 흑으로 웬 그 만든 향아리를 뭐렌 곶아수과?  
103026 #3 게나네 향아리렌 헛주.  
103026 @ 향아리?  
103026 #3 응.  
103026 #4 향아리에 헤그넵에 오메기떡 헤놔그넵에 쥬영 담아.  
103026 @ 음~.  
103026 #3 누룩 헤영.  
103026 # 서경,  
103026 # 보리쌀 거퍼그넵에 누룩 만들양 그 툴와, 바로 시겨, 그거 물리왕 그거  
바로 시기민 그 빨긋빨긋 노릿노릿 허주. 그 바로시겨진 것가. 게민 거 즐게 부시테  
경, 부시테경 조도 찰조로 곶아당 오메기떡 헤영 거 막 술떡이라고 걸 막~ 물 낱  
말 달방 훌훌허게 달방 누룩 서텅, 누룩 서터그넵에 영 향아리에 담양 놔두민.  
103026 #4 팍씩허주.

103026 #3 흔 메칠뒤민 바가기 올라와, 그것가 그 부구락허게 버금 있게 올라 와 가지게, 올라 왕, 흔 오래 이서사헤여, 흔 수무날 정도나 이서사.

103026 #4 박~짝박짝 헨다.

103026 #2 청주가 돼주. 그 우위가 노랑허게 그 뒤 술은 글라 앓곡 우위 물이 올라와, 그 청주.

103026 @ 걸 청주렌 헛구나예?

103026 #3 청주.

103027 @ 그다음엔 밥도 헤먹고 술도 헤먹고 헤신디다가 조찍으론 뒤 헤먹어수과? 아니, 조찍으론 뒤 헤수과?

103027 #4 것사 쉼 쫓주.

103027 @ 조찍은 다 쉼 주어수과?

103027 #3 응, 쉼 쫓.

103028 @ 그다음엔예 그 조 농사지을 때 막 가장 힘든 건 뒤어수과? 조 농사지을 때 힘들엇던 거.

103028 #3 조 농사지을 때는 밧만 갈아불곡 저 곳사ㄴ지 몰헤그네 줍씨 빼영 블러만 불민 힘든 건 엇주게, 검질 메는 그거주.

103028 @ 뒤가 특별나게 그거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어수과?

103028 #3 그게 뒤 헤그네 블리젠 허민 소리치명 막 블러 어리역 떠리역 허게시리.

103028 @ 정말 소리치명 헤수과?

103028 #3 경헛주게. 소리여 어리어려.

103018 #4 어려 더 어리어려 허여 가명.

103028 #3 성님, 소리 헤봅서게. 그게 거.

103028 @ 소리 헤봅서게 예?

103028 #4 예, 나 그거 니딱분.

103028 @ 헤봅서. 웨냐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자료로.

103028 #3 블리젠 허며는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들들 허명.

103028 #4 그추룩.

103028 #3 으레 돌아 오라~ 몰들아, 허명. 어려 어여 어려 들들~ 허명. 경허연게 허명 막 소리치명 뒤 밧 블릴 때 막 소리혀. 경 아녀민, 경허민 뒤덜토 귀가 곧짜곤 짝 허게끔 막 돌아 와.

103028 #4 이제도 그 무사 민속촌에서 그추룩 헨게.

103028 #3 어려 덜덜 허명 막 소리허여서 그추룩.

103028 @ 계난 그 어려 덜덜 허는게 그 옛날에 헛던 그거하고 지금 뒤 다시 옛날 헛던 거를 다시 살린덴 헤가지고 헤그네, 마을마다 사실은 다 다른데 지금은 흔 가지로 헤블잖아예?

103028 # 3,4 음~.

103028 @ 계란 세화에서 삼춘 밧 블릴 땀 어떻 헤수과?  
103028 #3 밧 블릴 때게.  
103028 @ 아니 아니, 조 블릴 때.  
103028 #4 조 블릴 때게 게메게 그 어리어리 허멍 헛주게, 몰로.  
103028 @ 몰로.  
103028 #3 몰로 블렁.  
103028 #4 몰로 몰로 응.  
103028 @ 한번 더 끝아봅서. 다시 한 번만.  
103028 #4 노래로? 저 어리어리 허영? (웃음)  
103028 @ 예. 아까 삼춘처럼.  
103028 #4 어러~ 어러~ 어러~ 어러들들~ 허멍(웃음).  
103028 @ 아니, 헤봅서 말로.  
103028 #4 예구, 나 못허키여.  
103028 @ 헤봅서, 한 번.  
103028 #4 느 허라. (웃음)  
103028 #4 나 이, 설룬나라부난 못헤여. 니가 빠져부난.  
103028 @ 아, 빠져부난.  
103028 #3 어뤄정 헤지쿠과게. (웃음)  
103028 #4 무시거 어러울 거 이시니게. 어러 어러 헤그네 어러~ 들들. (웃음)  
103028 #3 어러~ 어러~ 어러~ 어러~ ~ ~ 으눔의 망아지들아 으레 뱅뱅 돌아오라~ 으레 뱅뱅 들라 어러어러 여러~ 들들~. 경헛주.  
103028 #4 그거주게.  
103028 @ 아니, 하루 종일 일허젠 허면 막, 또 그 소리까지 허면 지치지 안헛디가?  
103028 #3 막 다리도 아파. 막 저무랑은 안 헤여.  
103028 #4 저무랑은 안 헛다. 흐.  
103028 #3 저무랑은 안 헛다. 밧 흐나민 땀 시간 블렁 나왔주.  
103028 @ 경헛구나예?  
103028 #3 으~.  
103028 #4 몰게 서너댓 개 헤그넵에.  
103028 #3 몰 여나믄게 열댓 개씩 헤서. 우리 아버지 열다섯 마리 쭈무 개씩도 헤서. 우리 아버지 므치 태우리 허레 텅겨서. 막 밧 블리레 텅기민 몰 흐나만 이꺼. 몰 흐나만 탕 므력상 이끄민 앞이 이끄민 즈름에는 둘리가 영 몰 몰앗주, 소리허멍.  
103028 #4 어리어리 허멍.  
103028 @ 음~.  
103028 #3 그추룩 허멍, 양 엠으로 상. 으레나 사라 보져, 허멍.  
103028 @ 예, 이제 조 농사는 그렇게 헛고예.

##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사로 넘어 가쿠다예?

103029 #3 옛날에는 콩을 잘 아이 갈아서.

103029 @ 경해도 헛던 거 한 번 하영 안 해도 헤난 거예?

103029 #4 경해도, 오게.

103029 @ 콩 갈 땐 뭘 준비해수과?

103029 #3 그 콩은 이? 콩 갈건디는 오래지 아녀, 이 저 콩노물 콩 허멍 허근데는 오래지 아녀. 그때는 장콩만 헤서. 옛~날엔.

103029 @ 게난, 장콩 헐 때.

103029 #3 장콩만 허민 따루 갈지덜 아녀국, 조팠디 하나씩 난덜 장콩들 헛주.

103029 #4 강알에.

103029 #3 조 갈 때 하나씩 빠미는 그게 하나씩 아들락 아들락 이서~. 경허민 그거 해당 장 허곡, 또 혼 쪽들에 헛설만 갈양, 조 영 불리는 예염덜에 찝김만 갈양, 이녁 장콩만 헤여난.

103029 #4 장콩 하영 갈지 아녜저게. 옛날엔.

103029 #3 옛날엔 경 콩 풀거영 하영 갈아나지 아녀.

103029 @ 아까 뒤편 말씀하셔수과? 강알에 갈앗덴 헛 말은 무신 말이파?

103029 #3 조 강알에.

103029 #4 조 강알에 하나씩 하나씩 씨 빼영.

103029 #3 조 알에.

103029 @ 아, 조 알에.

103029 #4 야, 경허민 푸는 채 만씩 헤라.

103029 #3 혼 아눔씩 터박터박 허주게. 저 웨로 이시니까 저 콩 하나, 막 북짜이신게 아니라 하나 만씩 막 크주게.

103029 #4 옛날엔 갱헛주. 따루 안 갈아봐서.

103029 #3 따루 경 하영 안 갈아난.

103030 @ 그 콩, 어챗든 갈 때, 조 강알에 갈든 어떻하든 콩은 언제 갈아수과?

103030#3 아, 조영 같이.

103030 @ 아, 고치, 고찌 갈앗구나예?

103030 #4 같이, 하나씩 빼여그네.

103030 # 지금도 콩 가는 시기가 그거라. 조 불리는 시기라. 이제도.

103031 @ 게민 콩밭 거름은?

103031 #3 콩밭은 걸름 안헛.

103031 @ 하낫토 거름 안헛예?

103031 #3 걸름 안해도 돼.

103031 #4 옛날에 걸름이 서서?

103032 @ 콩씨는 게문 아까 조 아래 하나씩 심어 놓고예?  
103032 #3 장콩, 이녀 칩이 장콩만 허니까.  
103033 @ 장콩만 허니까~. 게민 콩밭 따로 검질 메거나 경은 안 헤나수과?  
103033 #4 그런 건 안 헤난.  
103033 #3 이제사 콩밭, 이제사 하영 갈곡 험주. 콩덜이.  
103033 #4 옛날엔.  
103033 #3 나도 콩을 만 평씩, 구천 평씩 같아나신디.  
103033 @ 그 만 평씩 구천 평씩은 콩나물콩이파?  
103033 #3 콩나물콩.  
103034 @ 콩나물콩 갈 땐, 검질 어떤 거 나나수과?  
103034 #3 그 콩, 이제 여름에 나는 잡풀이 나지, 이것저것.  
103034 @ 어떤 잡풀마썸?  
103034 #3 콩밭디 검질은 저 콩이 좇게 가르민 검질이 혼어시 하영 안 나.  
103034 @ 안 나고예?  
103034 #3 어. 콩밭디 거 뭐 시지그랑 헨 거 나 뭐 이것저것 기자 여름에 잡풀  
나, 이것저것.  
103034 #4 잡풀.  
103034 @ 혼 번 생각들 헤봅써. 잡풀들 이름들.  
103034 #4 제완지 ㄱ튼 거 나느네.  
103034 #3 어, 그런 거 나 제완지 ㄱ튼 거. 여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이 있  
주. 겨울에 나는 건 그 콩풀 같은 거 나고, 여름엔 절완지 그 절완지 그런 게 나.  
103034 @ 절완지마썸?  
103034 #3 콩밭디나 조팍디나 마찬가지로 콩 허는 디 메는 건.  
103034 #4 옛날엔 콩 하영 안 같아시네.  
103035 @ 먹을 만치 장 험 만치 콩을 갈면 그 콩은 또 어떻 수확 헤수과? 어떻  
거뒀수과? 거둘 땐.  
103035 #3 하이고 거 험썰 꺾엇주게. 조 비어나민 다음에.  
103035 @ 아, 조 비어나민 다음에 꺾어수과?  
103035 #3 어어어. 하나씩 땡기명.  
103036 @ 이제 콩을 꺾엉 오잖아예? 꺾엉 어떻 털어수과? 그땐.  
103036 #3 그땐 그 험깁만 헨거나네 도께로도 두두리고.  
103036 #4 막땡이로도 허고 도께로도 허고.  
103036 @ 막땡이로도 허고.  
103036 #4 워낙 하민 도께질 허고, 옛날엔 보리도 지둥 트명에 접저그넝에 경 하  
영 허지도 안헛져.  
103036 #3 그건 막~ 옛날.  
103036 #4 우리 낱기 전에.

103036 #3 그건 막 연날이고, 우리 난 후젠 경은 안현.

103036#4 지등 트멍에 접전.

103036 @ 케민 그 콩 꺾엉 오잖아예? 그 콩을 다 털면, 그 콩으로 웬장 만들고 다른 건 뭐 안 만들어수과?

103036 #3 웬장만 아니 물장을 헛주.

103036 @ 물장?

103036 #4 콩 솥양.

103036 #3 콩을 솥양 띄와, 띄왕 선들 나민 십이월 달 나민 장을 물로 돕그는 거라. 소금이영, 소금 곶아 놔그넵에, 이제도 우리 물장 해 먹어. 사지 안 행 먹어.

103036 @ 맞아예. 맞수다.

103036 #3 우리 아이덜 상 먹지 안 헤여. 이디 장 먹주.

103036 @ 맞수다게.

103036 #3 경헤나민 그거 행 마끝데 그 이 삼월나민 걸러, 문장을 갈랑 그 그래 막 끈끈히게 막 문지데경 웬장 만드는 거주.

103036 @ 게 지금 웬장 만드는 콩도 흐깎 같아그네 험수과? 사당 험수과?

103036 #3 우리?

103036 @ 예.

103036 #3 우리 갈앗당. 집이서 그거 흐깎 갈양. 갈양 헤여.

103036 @ 기구나예?

103037 @ 그다음엔예? 콩 털어난 다음에 콩찍으론 뭐 헤수과?

103037 #3 옛날에?

103037 @ 예.

103037 #3 췌 주엇주.

103037 @ 콩찍으로 췌 주어수과?

103037 #3 어, 췌 막 잘 먹어. 잘 먹어 췌. 물도 주곡 췌도 주곡.

103037 @ 물도 주고 췌도 주고예.

103038 @ 콩 농사지을 때 특별나게시리뭐 생각나는 거 어수과? 콩에 얽힌 특별난 기억.

103038 #3 콩 농사는 저 다른 농사보다 쉬어 비여 난. 막 흔 만 평씩 같아도 막 쉬언게.

103038 @ 기파?

103038 #3 응.

103038 @ 그 만 평씩 간 거 다 풀젠 갈앗잖아예?

103038 #3 어, 다 풀안.

103038 #4 건 흔어시 옛날 아니아냐게.

103038 #3 건 하지아년, 오래지 아년 때주게. 흔 이십년 전에.

103038 @ 콩늬물콩은 비짜지 안헤마썸?

103038 #4 비싸놔주게.  
 103038 @ 겐 돈 하영 벌어수과?  
 103038 #4 이제도 콩 하영 가는 사름은 하영 같암주게.  
 103038 #3 그땐 하영 못 버실언.(웃음)  
 103038 @ 경혜수과?  
 103038 #3 태풍 불어불고, 쫌물 헤불곡 허민 하영 못 벌언.  
 103038 #4 건 이제사 난 거고. 옛날엔 점, 콩 하영 안 같아놔져.  
 103038 #3 눅 빌영 막 꺼끄며는 거 막 무끄고 놓고 경행 매탁기로 두두리니까, 그때는 경헛주.  
 103038 @ 아, 만 평 그추록 헐 땐 매탁기가 이서나수과?  
 103038 #3 어, 그땐 매탁기가 이서난.  
 103038 #4 옛날에사.  
 103038 #3 옛날에 흐김씩 헐 때 이녁 장 허젠 저, 막대기로 두두리곡 저 도계로 도 두두리곡 헛주마는 하영 같 때는 매탁기 난. 보리도 매탁기 난 마끄때는.

**밭벼 농사**

103039 @ 그다음엔 산디, 여기는 산동네들은 산디들 같앗잖아예?  
 103039 #3 응, 산디 같안.  
 103039 @ 산디도 같아나수과?  
 103039 #3 산디, 같앗주게.  
 103039 @ 산디 같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혜수과?  
 103039 #3 산디도 저, 조나 마찬가지. 흐김 일찍 같아, 산디는.  
 103039 #4 쫌김 일찍 같아.  
 103039 #3 초과일 넘으민 같아신가? 그 산디가?  
 103039 #4 응.  
 103039 #3 초과일 넘으민 간 거 닻아.  
 103039 #4 산디는 헤다그네가 문 홀타놔주.  
 103039 @ 음, 그다음엔 예? 산디 가는 거 초과일 그때쯤 같고.  
 103041 @ 걸음은 어떻 준비혜수과?  
 103041 #3 옛날에는 거름 안헤난.  
 103041 #4 걸름 안헛 기자.  
 103041 @ 산디도예?  
 103041 #3,4 어.  
 103041 #3 걸름이, 비로가 어서놔젠 허난. 옛날엔 비로가 어서나서.  
 103041 @ 아니 거난, 그 저 무시거파? 아까 보리 같 땐~.  
 103041 #3 보리 같 때는 돛걸름을 헤신디.  
 103041 @ 산디는 안 혜수과?

103041 #3 산디는 아니현.

103041 @ 아~.

103041 #4 여름 농스나네 비료 안 해도 웨엇저게. 비료가 서서?

103042 @ 산디씨는 어떻 뿌려수과?

103042 #3 산디씨 그자 줍씨 뿌리듯이 뿌렸지.

103042 @ 아니, 조 갈 때는 밧 불령 헛덴 헤신디.

103042 #3 어, 산디는 불리지 안헤영.

103042 @ 불리지 아녕예?

103042 #3 응, 산디는 안 불려.

103043 @ 그다음에 산디는 검질 밧 번 메수과? 산디 밧디는.

103043 #3 검질도 으라 번 메서.

103043 #4 건 으라 번 메여.

103043 #3 세 번, 서너 번 메여.

103043 #4 서너 번 메여.

103043 #3 서너 번 멧주.

103044 @ 산디왓에 검질들은 어떤 종류 나신지 혹시 알아지쿠과?

103044 #3 그 여름 검질은 마찬가지로. 절완지 ㄱ튼 거, 히지그렇헌 그런 거 나.

103044 @ 절완지 ㄱ튼 거?

103044 #4 제완지 ㄱ튼 거 잘 낫주.

103044 #3 모에제완지 춤제완지 그런 거 난.

103044 @ 아아~.

103044 #3 그 히지렁 헌 풀덜 기자.

103045 @ 그다음 산디 수확은 어떻 헤수과?

103045 #3 산디가, 것도 호미로 비여.

103045 @ 비여.

103045 #3 익으며는, 이 상강일 웨 가민 익주. 것도, 시월 나가민 익어.

103045 @ 예.

103045 # 구쉐 단풍들어 그 익으며는 호미로 다 비어 경. 산디 이 무끄문 보리 무꿈만 썩베끼 안혀. 준마롱 하게 만큼씩 무껏주. 조 ㄱ찌 크게 안 무끄고, 보릿단 만씩, 산디단도.

103045 #4 갱 영~ 홀타나시네.

103045 #3 게, 집에 시꺼당 낱, 영~ 헌 클로 홀타.

103045 @ 보리 홀트듯이.

103045 #4 어.

103045 #3 으. 보리 홀트듯이 클로 홀탕, 도께로 두두리곡 저 발로도 보비곡 헤 나서. 고스락이 이서부난.

103045 #4 지닝이 머리 벗으듯이.



103045 @ 음~.

103045 #4 그때서는 클이 이서, 옛날엔. 산디 홀트는 거.

103045 #3 옛날엔 클이 이서 영~현.

103045 @ 경행 도께질 하고예?

103045 #3 어.

103045 #4 우리도 거 어디 이실거라.

103045 @ 그다음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께질 한 다음 그레에 강 돌아와수과?

103045 #3 어. 것도 돌아완.

103045 @ 돌아왔잖아예?

103045 #3 어.

103046 @ 산디로는 뭐뭐해 먹어수과?

103046 #3 아이고, 산디썰이 밥, 식계 때나 밥 허곡, 저 멧질 때나 밥 해먹주. 곤밥을 해 먹어져봐. 이디서는 곤밥을 못 해먹어봐.

103046 @ 무사라예? 막 하영 갈문 뵈건디.

103046 #3 하영을 갈지 못해서, 그뻘 어떻게산디.

103046 #4 하영을 갈지 못해주 그뻘.

103046 #3 이녁 기자 저, 잔치 때나 그 보리썰에, 보리썰도 풋 놓아그네 숲아그넝에 곤썰 서끼 밥헐.

103046 #4 해~끔씩.

103046 #3 잔치 때.

103046 #4 잔치 때 보리썰 서끼, 예고~.

103046 @ 산디로 게민 떡 해먹는 일은 그문.

103046 #3 그, 그때, 떡도 방에에 찌낫주.

103046 #4 방에에 저 도기에 저그넝에.

103046 #3 도기방에에 정. 방에기로 영 찍영.

103046 #4 옛날엔 방에가 이시난.

103046 #3 물에 것도 컷당, 방에에 지영 떡 해낫주.

103046 @ 집에서.

103046 #3 집에서 멘들안.

103046 #4 집에서 멘들앗주.

103046 @ 어떤 떡 해수과?

103046 #3 그때는 솔벤, 절벤.

103046 @ 솔벤, 절벤예.

103046 #3 어, 인절미도 허고. 세 가짓헐주.

103047 @ 그다음엔 산디찍으론 뭐해수과?

103047 #3 산디찍은 저 혼어시 무시거 아네서.

103047 #4 산디찍은 낫다그넝에 얘기 날 때도 끝곡,(웃음) 또 이제, 그거~ 죽으

민 그 이녀 무시것도 허곡 관에 담앗주.

103047 #3 관에 담앗주, 흥깝씩.

103047 @ 관에도~.

103047 #4 음, 정혜라. 그 큰 걸로 헤라.

103047 @ 메주 매달 뎌 뭘로 헤수과?

103047 #3 거, 으~ 산디쪽으로.

103047 @ 맞잖아예? 콩 삶을 때가 아까 선달 때 헛잖아예?

103047 #3 아니, 콩은 동짓달 썸에 삶양, 선달 나민 장 돛아.

103047 @ 아, 장 돛아.

103047 #3 어, 선달 나민 장 돛아.

103047 @ 게민, 동짓달 삶을 때 그때 산디적이 이서나수과?

103047 # 어. 이서나주.

103047 @ 산디가 언제썸 수확 헤수과?

103047 #3 산디도 조영 혼디헤여. 단풍들민.

103047 @ 게민 그거 놔뒀당, 늘 누렁 놔뒀당 이제 메주에 쓰고예?

103047 #3 어, 메주에 쓰고.

103047 @ 옛날엔 메주를 그냥 메주렌 굴아수과?

103047 #4 메주, 메주 맞추게. 요셋사름 뭉들걸. 메주엔 허민. 애기덜은.

103047 @ 앓니다게.

103047 #3 알아. 쟁해도 메주는 알아.

103048 @ 그다음엔 산디 농사지을 때, 보리농사나 콩 농사하고 달라나서 산디 농사지을 때 뭘가 막 하영 거뒀드리는 거, 뭘가 막 지꺼지고 현 일은 어서수과?

103048 #3 하영 갈진 안 헤나서 산디는.

103048 @ 기라예? 무사라예?

103048 #4 하영 갈썸, 흥끔헤당 지둥 트명에 다 줍즈나주.

103048 #3 하영 안 갈양 이녀 먹을 거나 흥쓸 갈곡, 기자 흥쓸 폴아도 쪼깝씩 폴 앓주. 쟁 하영 거 막 하영 허진 아년.

103048 @ 게난, 저가 다른 마을도 강 물어보면 막 쟁헛다고 하드라고예? 멍질 제사 헛 만큼만 허고, 기냥 여벌로 씨앗 줍 허고. 쟁헛텐 허명.

103048 #3 씨앗도 허곡, 쟁 아녕 걸로 제사 때 뒀민 물에 영 컷당 도귀방에 지 영, 집에서 떡 헛주.

103048 #4 산디졸도 어성 밀졸 서쟁 밥 허고 헛져. 제사 때도.

103048 @ 밀은 하영 헤수과?

103048 #3,4 밀도 하영 아녕.

103048 #3 보리가 하영 갈앗주. 하영 안 갈양, 쪼깝.

103048 #4 쟁헛 그거 다 밀팝 헤먹고 헤시네.

## 고구마 농사

103049 @ 다음에는예? 감저 농사라예? 고구마예?

103049 #3 고구마.

103049 @ 감저 농산데, 감저를 심젠 허민 뭘 준비해수과?

103049 #3 그 옛날에, 지금은 막 비료도 놓고 그 중간에 해신디.

103049 #4 이지금은 그자 헛주 그때. 감저 하영 안 헛져.

103049 #3 하영 안 놔도 먹을 거 옛날 토종감저가 있져, 지금 웨감저가 아니고.

103049 @ 예.

103049 #3 옛날에 토종감저가. 그거 해그네, 고름도 막 나는 감저라 그때. 그거 허미는 거름이 어서 그자 헛지, 고사리 비어그넵에.

103049 @ 거름은 나중에 또 물어보크라예? 감저 싱그젠 하면 감저 씨앗을 이제 어떻 준비하고 현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

103049 #3 감저씨앗은 그 입춘 저, 봄 나민 구감 낱. 구감 낱 집 놓듯이 구감 낱.

103049 @ 구감은 어디시민?

103049 #3 우연네.

103049 @ 아, 우연네 그냥 낫두시민.

103049 #3 우연네 이녁 밧. 우연네.

103049 @ 밧디 그냥 내불문.

103049 #3 심어. 그때.

103049 @ 겨울동안은 어떻해수과?

103049 #4 구텡이 판 무덤주.

103049 #3 겨울에는 구텡이 판 무덤주.

103049 @ 계난, 구텡이 팡 묻엇당, 그다음엔?

103049 #4 해싸그넵에.

103049 #3 그걸 이추룩 봄 나민 그걸 파네영, 감저를 놔, 그 영~ 판이를 지서그네 감저를 낱, 원상ㄴ찌 낱, 흑 골령 그거 허민, 종자가 이거 순이 나오며는 그 싹이 크며는, 그 조 불릴 고비에 혼디 놔. 유월절 뉘민 혼디 낱. 경행 감저 놔낫주게.

103049 #4 구텡이 판 무덤주, 씨.

103049 @ 씨를예?

103049 #3 구텡이 판, 가을 뉘민 그것도 ㄴ찌 파단 ㄴ 묻어나서 구텡이 판.

103049 @ 아까 구감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파?

103049 #3 그거 감저 노안 거 ㄴ라 구감이엔 ㄴ라.

103049 #4 그거 옛날엔 구감 낱 쫄 기차나면 숲아 먹어낫주.

103049 @ 아, 구감 낱~.

103049 #3 거 구감이렌 헛주.

103049 #4 맛 좋텐 허멍 범벅도 해 떡곡.

103049 #3 심심해서, 경 맛 좋텐 해수게. 심심행 맛 어성, 물 질질 나멍 맛 어서

수다. 줄 나부난.

103049 #4 쟁해도 그걸 먹어서네.

103050 @ 고구마 계란 이제 구감 그 싹이 나잖아예? 그거 찰랑 언제쯤 땅에 묻어수과?

103050 #3 케니까 조 불릴 마리에 낫다니까.

103050 @ 조 불릴 마리에.

103050 #3 어, 유월절 전후 썸일로 놔서. 유월절 기준 잡앙.

103050 @ 조 불릴 마리에예?

103050 #3 어. 조 불릴 마리에.

103051 @ 그다음엔 예? 감저밭에 거름은 뭐혜수과?

103051 # 하이고, 그때 거름이 어디 서? 옛날엔 거름 안혜난.

103051 #4 걸름 안혜난. 걸름 안혜난.

103051 @ 이것도 거름 안허고예?

103051 #4 안혜난. 그자 찢르만 헛주.

103051 @ 그 영~ 현 거 뭐렌 곱아수과?

103051 #3 판이? 판이.

103051 @ 판이 만 만들엉예?

103051 #3 어, 판이 멘들앙.

103051 #4 판이 멘들앙.

103051 #3 초불 갈곡 두불 갈앙 판이 멘드는 거주.

103051 음~.

103051 #3 거 흔 번에 못 갈아. 초불 갈아놔당, 또 두불 갈앙 그자 싱것주.

103051 #4 세벳대랭 헤그네. (웃음)

103053 @ 그다음엔예, 감저밭에는 검질 뗏 번 메수과?

103053 #3 검질~ 그자 흔 번 메민 뉘카? 감저왔디는. 그 저 거시기 꼴이 탁 더 꺼져부난 검질이 안 나.

103053 @ 안 낭예?

103053 #3 어, 흔 불 멧주.

103054 @ 흔 불 멜 때는 어떤 검질이 나나수과?

103054 # 그때, 제완지도 나고, 버벌레기풀도 나고.

103054 @ 버벌레기?

103054 #3 버벌레기풀마라 거 무시거렌 곱아나시니? 그 썸은 너불너불 난 부트국 허는 거 이서낫주.

103054 #4 옷에두 막 부트국. 개바능 닳은 거.

103054 @ 도깨비바늘인가?

103054 #3 어, 도깨비바늘인가? 막 썸 너발너발 현 거.

103054 #4 개바능 맞아. 여름엔 그제 하.

103054 #3 그런 것도 막 하영 나오꼭 헤낫주.  
103054 @ 음~.  
103054 #4 옛날에 살멍말멍, 아이구아이구, 요센.  
103054 @ 버블레기가 혹시 그 저, 속에 알맹이 이성 익으믄 먹는 거짜?  
10354 #3 아니, 아니.  
103054 @ 버블레기 뭐짜?  
103054 #3 건 푸께지, 그건.  
103054 #4 건 푸께.  
103054 @ 아, 맞아, 맞아. 그건 푸께지예. 푸께허고 버블레긴 다른 거마썸?  
103054 #4 틀린 거. 푸겐 ㄱ슬틀민.  
103054 #3 푸겐 조빌 때 먹는 거.  
103054 #4 조빌 때 막 먹나. 간절기도 떡곡 다 헤낫저.  
103054 #3 구시월에 그 푸께가 익어나고, 그 검질 여름에 저, 유월 칠월에 검질을 메첸허머는 그 감저왔디도 저, 대게 제완지 많이 나. 썩허고.  
103054 @ 썩허고예?  
103054 #3 썩허고 제완지. 그런 거 잘 낫주.  
103054 #4 게디 이제 그런 거 잘 어서. 푸께 곱은 거.  
103054 #3 예게, 이제 근사미 치곡 험수게게.  
103054 #4 그 약덜 치곡 헤가난.  
103055 @ 감저 수확은 언제 헤수과?  
103055 #4 구시월에.  
103055 #3 감저 수확은 조 다 헤나민.  
103055 #4 구시월에 허느네.  
103055 #3 조 다 헤나민, 것도 혼디 조 헤나민 혼디 부짱 팟주, 것도. 상강이 전에, 상갈일 뉘가민 해서. 상강일 뉘민.  
103055 @ 상강일 뉘가민예? 그 감저 팔 때 어떤 식으로 파수과?  
103055 #3,4 곱갱이로.  
103055 #3 곱갱이로 영, 영. 꿀 거뉘동.  
103055 @ 꿀 거뉘동 그 다음엔 곱갱이로 예?  
103055 #4 꿀을 걷지 아넝 기자 잡아텅기멍 헛주게. 옛날에사.  
103055 #3 아이고, 그것 저, 그 옛날, 옛날엔 기자 그, 예, 예. 꿀이 찰라부난.  
103055 #4 옛날엔 그자 잡아텅것저게, 꿀이 그차시냐?  
103055 #3 비루 안헤부난 꿀이 찰랏주게.  
103055 #4 찰루나네 잡아텅기멍 그자 헛주.  
103056 @ 감저는 감저 보관할 댐 어떻 헤수과?  
103056 #3 계난, 구텅이 파그넝에 그 엠에 막, 어웁이나 조칩이나 막 영 세왕, 세왕 그예 낱.

103056 #4 노라미 더깅.  
103056 #3 흑 영~ 우트레 이렇게 뒤편이리 올링 영~ 멘들앙, 저 그레 흑 더퍼~.  
103056 @ 음.  
103056 #3 흑 더핑 느람지 둘러칭 새로 느람지 여핑.  
103056 @ 예, 그거는 씨 헐 때 헐 거고, 먹을 것.  
103056 #3 아니아니 과 먹을 거.  
103056 #4 먹을 꺼또 쟁헤여..  
103056 #3 썩어 불카부덴 파먹을 것도 그디 묻엇다그네 꺼내먹어.  
103056 #4 영~ 꺼내그네 먹어.(웃음)  
103056 #3 숲앙 먹고 흥나썩 파네멍.  
103057 @ 그다음엔 감저로예 감저로는 어떤 것들을 헤먹어수과?  
13057 #3 하이고, 좁쌀에 헤나그네 밥도 행 먹곡.  
103057 #4 죽도 쭈고.  
103057 #3 감저 썰어냥 죽도 썩 먹곡, 범벅도 행 먹곡. 모물 꿀앙 모물 그루에 범  
벅도 헤먹곡 헤연.  
103057 #4 으라가지 헤먹엇주.  
103057 @ 그다음에 흑시 뺏떼긴 안 만들어수과?  
103057 #3 뺏떼기는 그루후제 헛주.  
103057 #4 그루후제 그건 막.  
103057 #3 옛날 후제 헛주.  
103057 @ 언제쯤 헤수과?  
103057 #4 그건 흥어시 오래지 안헤서.  
103057 #3 오래지 아년. 뺏떼기가 우리 시집 온 후제 허나네. 온 후제 허나네, 나  
가 쭈므 쌀에 오나네, 흥 쭈믈뎃 나난 그 짓, 뺏떼기 헤서양?  
103057 @ 음~ .  
103057 #4 쟁헤실 거라.  
103057 #3 일제 때에 기리보시라고 그때도 이서낫주.  
103057 #4 그때도 이서나서.  
103057 #3 이서나서 그'대도, 기리보시.....  
103057 #4 그때도 이서나서. 그 시절은 감저 하영 놔서.  
103057 #3 기계, 손으로 영~ 영~ 돌르는 걸로 썰영, 영~ 영~ 뺏떼기.  
103057 #4 아이고 그뎀 감절 하영 냥 뺏떼길 하영 헤나시네.  
103057 #3 일제 때부터 이션.  
103057 #4 우리 옛날엔 감절 경 하영 안헤낫저게.  
103057 #3 뺏떼기 행 숲앙도 먹곡 헤낫주.  
103057 @ 숲앙도 먹고예.  
103057 #3 어, 쟁헤낫주.

103058 @ 그러면 이때 감저줄기로는 뭐 해수과? 줄기.  
103058 #3 거 췌 주엇주 췌.  
103058 @ 다 췌만 주어수과?  
103058 #3,4 어.  
103058 #3 그뻬, 이파리 툃아당 베껴동 먹는 거 몰라나수다게.  
103058 #4 건 몰라난.  
103058 #3 췌허고 들허고 그런 거만 주어난. 들류왕, 놀엇당.  
103058 #4 무슨 구어 먹어도 그건 먹을 줄 몰라나서, 이?  
103058 #3 몰라. 난 안 먹어난.  
103058 @ 아, 무수를 구언마씨?  
103058 #3 어. 옛날은, 옛날 승년엔.  
103058 #4 보리 승년에.  
103058 #3 옛날에는 우리 두린 때 닥아.  
103058 #4 닢 두린 때. 나 시절엔 오가리 해연 구어난.  
103058 #3 열 설도 전에. 나도 그 알력집에서 헛 거 얻어먹어나수다.  
103058 #4 아이고, 그것사.  
103058#3 바당에 강 꽤 메어다가, 꽤 메당 그 물룣이엔 헛 거, 이젠 근사미 치난 물룣도 다 엇는디, 그 물룣 헤그넵에 막 씨쳐그넵에 그레 헤그넵에 향아리 헤그넵에 ㄱ스락불 헤그네 막 구어나서양.  
103058 @ ㄱ스락불이 뭇파?  
103058 #3 보리 두드려난 ㄱ스락.  
103058 @ 아, 그걸로 불 지더그네?  
103058 #4 중대로 영~ 헤그넵에 감양.  
103058 #3 향아리 감양?  
103058 #4 향아리 감양, 경헤네 먹어나시네.  
103058 @ 향아리 감양 허믄.  
103058 #3 고스락에 불 살랑, 향아리 우트레 불이 그게 부뜨주 부떠. 경헤도 옹 그랑허게 그게 벌러지진 안허여.  
103058 #4 향아리가 벌러지지 안헤여.  
103058 #3 경허연.  
103058 @ 음~. 경헛구나예.  
103058 #4 옛날엔 침 험헤낫주.  
103058 @ 감저는 구원에, 숲양만 먹어나수과? 구워그네는 안 먹어나수과?  
103058 #4 구영도 먹고.  
103058 @ 어떻헛 구웁 먹어수과?  
103058 #4 불에 영~ 지드민, ㄱ싸 말짜가네라도 ㄱ스락불에도 썩 지더그넵에 내 불곡.

103058 @ 밥 하나면 솟강알에 집어 넣고예?  
 103058 #4 솟강알에 불숨을 때 지더그넝에 경 네영그넝에 득득 먹어나시네.  
 103058 @ 음.  
 103058 #4 입가에도 가망, 손두 가망. (웃음) 구워먹엇주.

###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에는예, 고구마 농사까지 헤시난 혹시 수박도 같아나수과?  
 103060 #4 수박 원, 우린 수박 안 같아난.  
 103060 @ 혼두 개 따먹젠도 안 같아나수과?  
 103060 #4 수박은 안 해나고.  
 103061 @ 참웨는마씨?  
 103061 #4 웨 ㄹ튼 건 싱거난 먹어낫져마는.  
 103061 @ 웨는 일부러 씨앗을 심어나수과?  
 103061 #4 그 옛날엔 수박 싱그록 하간 거, 수박 안 싱거낫져.  
 103061 #3 웨도 싱그민 송텡이 먹어비여그네 웨어시냐?  
 103061 # 송텡이 먹어그네 웨도 안돼여.  
 103061 @ 송텡이가 뭐파?  
 103061 #4 버랭이.  
 103061 @ 아, 버랭이덜.  
 103061 #4 우리시절엔 그런 거 어서나서.  
 103061 #3 그 늘개 든은 쩌끌락 현게 불그랑 그 송텡이 송텡이 허멍 그 웨 영 싱그민, 이파리 나가민 다 가까 먹어부러 그것가.  
 103061 #4 이제난 험주, 옛날엔 웨랑 무시거 어서낫져.  
 103061 @ 어서난예.  
 103061 #3 어.  
 103062 @ 고추 농산 어떻 해수과?  
 103062 #4 고추도 그때 싱그지 아녜져게.  
 103062 #3 고추, 이녁 먹을거나 토종고치 쟈젠헌 거 흐끔 싱그나마나했주.  
 103062 #4 플라, 고치 싱거나지 아녜져 난.  
 103062 @ 아니, 고치 싱거사, 고춧가루 이서사 김치 담글 거 아니파?  
 103062 #3 그때 흐끔 싱그민 해나서. 옛날에.  
 103062 #4 아이고, 짐친 풀고치 헤그넝에 기냥 녹물 캐다그넝에 헤 먹어낫주. 어 디 고치가 서시카.  
 103062 @ 풀고치, 풀고치 허젠허민 고칠 같아야 헐 거 아니파?  
 103062 #4 고치 안 같아난, 고치 아이 같아낫져.  
 103062 @ 풀고치는 뭇파? 계문.  
 103062 #3 풀고치는 퍼렁한 고친디 흐나씩은 이녁 먹을 거 해나수다게.



103062 #4 몰라. 난 안해서.  
103062 @ 거른 고치 묘종은 어떻 혜수과? 씨앗 다 받아놨당마씨?  
103062 #3 요새에?  
103062 @ 아니, 옛날에.  
103062 #3 옛날 씨 받아 놔다가~.  
103062 @ 씨 받아나민 고치씨를 그냥 땅에다 묻으믄 고치가 나완마씨?  
103062 #3 어, 어.  
103062 @ 그냥 땅에다 묻으면?  
103062 #3 봄 나민, 놔다가, 이제 지금 놔사는 거주.  
103062 @ 지금 놔사야예? 음~.  
103062 #3 어.  
103062 #4 옛날에 기자 소금.  
103062 #3 소금어성 기자 바당물에 강 누물 씨서놔져.  
103062 #4 옛날에 바당물에 강 기자 먹어놔져.  
103063 @ 배추마썸?  
103063 #4 드룻누물 케여, 케영 바당에 강 싯청, 오랑 향아리에 담양, 기자 그 찻지그랑허게 기자 먹어나서.  
103063 @ 아, 바당물로 씻으민 그 찻 기운으로 향아리 놔가지고.  
103063 #4 어어어. 경헨 먹어놔져게.  
103063 @ 게른 누물은 어떻 싱겨수과? 배추 같은 건.  
103063 #4 드룻누물 케당.  
103063 @ 아, 드룻누물 케당~.  
103063 #4 야이, 첨. (웃음)  
103063 @ 아니 드룻누물도 어딩가 싱겨나사.  
103063 #4 난 그거 나자 마눔도 케레 가오고.  
103063 #3 바께 가민 막 이서나서.  
103063 @ 아 아.  
103063 #4 그자 비작비작 쟁 헤.  
103063 #3 그때 드룻누물이 막 하.  
103063 @ 향 예.  
103063 #3 지금 드룻누물 닻지 안헤여. 그뎨 드룻누물이 맛잇서서.  
103063 #4 맛도 좋아.  
103063 #3 크시롱헨 게 맛 좋아. 이 누물이 꼬골꼬골해서, 꼬골꼬골 헨 누물 헤놔주게. 경헨 그게 막 맛잇서서. 지금 누물 닻지 아녕. (웃음)  
103063 #4 반 죽으민 이 향아리에 담양, 허민 꺼넝으넝에 윈 세금세금 헤라, 그뎨. 세끔세끔, 경헨 감저 숲아그넝에 기자 먹어라. 기자 먹어시네. (웃음)  
103063 음~.

103063 #3 아니, 소금 흐깎 뿌려수다게. (웃음)

103063 #4 소금 흐깎 뿌리는 축 헛주게. (웃음)

103063 #3 소금 흐깎 뿌렸주게. (웃음)

103064 @ 늣뻘는 어떻헤수과? 같아그네.

103064 #3 허이고, 그뻘 늣뻘도 이, 즐바로 아니 같안 먹어나지 아녀서. 토종 누물 그자.

103064 #4 나, 아니 그람냐게 드룻누물 케당 먹곡, 마농 케당 먹곡.

103064 #3 늣뻘도 잇긴 이서나수다게.

103064 @ 드룻에서 막~ 낭.

103064 #3 아니, 늣뻘 집이서 흐끔 같긴 헤나수다게, 옛날도게.

103064 #4 달라.

103064 #3 같아수다게. 옛날 배추도게 그 소매치 집에서 같안 먹언. 배추 빨리도 솟아 먹으멍 헤나수다게.

103064 #4 나, 마농 케레 땡기곡 거, 그건 알아져.

103064 #3 배추도 집이 같며는 옛날 당배추가 아니라, 지금 배추가 아니랑. 포기 영 앓지 아녀는 거. 영, 퍼닥퍼닥 헛 거라도 허민 거 영~ 케민 그거 헤그넝에, 퍼닥 퍼닥 허여, 짐치 허는 책 행 먹곡, 그 뿌릴 솟양 먹어나서. 뿌리, 배추 뿌리.

103064 @ 음~.

103064 #3 뿌리도.

103064 #4 맛 좋아.

103065 @ 지슬은 어떻 헤수과?

103065 #3 그 지슬은 난 먹어나서. 그때 옛날, 옛날에도 그때 우리 두린 때 보면 양?

103065 #4 불치 놘그넝에.

103065 #3 불치 낭. 검질불 솟앗주 그때.

103065 #4 경해도 이, 뵤질 안헤라게.

103065 #3 검질불 솟으나네 불치 놘그넝에 지슬을 싱거서. 지슬 싱그민.

103065 @ 예~.

103065 #3 옛날, 지금 님지 아녕, 저, 지슬이 저 슝슝스슝 헛게 저 토종 지슬이 이서낫주.

103065 #4 토종지슬 쟈쟈헛 거.

103065 #3 줍지그랑헛 거. 꺾데기가 불구랑 헛 지슬 이서난.

103065 @ 예.

103065 #3 그런 거 헤난.

103065 @ 아까 불치에 어떤 헛마씨?

103065 #3 불치에 영~ 뿌렁, 고랑에 영 짝 뿌리민 그 위에 흑 올렁, 그 지슬 영 싱것주 싱거. 꼭꼭 싱그민. 경허민게 거름이엔 옛날에 어서부난게 비료 나건디가 오

래자 아녜주게. 경허난~.

103066 @ 혹시 피 농사도 헤나수과?

103066 #3 그, 피도 물 곤는 밧디 피 갈아.

103066 #4 옛날에, 피도 헤낫져.

103066 @ 어떤디마썸?

103066 #3 물 안는 밧데.

103066 @ 아 아~.

103066 #4 조 블릴 때~.

103066 #3 조 못 블리는 밧디.

103066 @ 물기 잇는데.

103066 #3 조는 헤여그넝에 아니웨주. 물 골라볼민. 죽어부러.

103066 #4 피가 잘 웨어.

103066 #3 겐디 피는 웨어.

103066 @ 음.

103066 #3 물, 수증끼 이신 밧디 피 블러나서.

103066 #4 게민 기계도 아녕 방에서 다 저.

103066 #3 ㄹ레에서도 곱고, 물 ㄹ레에도 곱곡.

103066 #4 정 ㄹ레도 곱고.

103066 @ 피로는 뭐 헤먹어수과?

103066 #3 거, 죽도 써 먹국, 밥도 헤 먹곡 헤연.

103066 #4. 야, 좁쌀 헤영헌다 거 피.

103066 #3 피밥 막 맞디서. 복삭복삭 현 게.

103066 #4 복삭복삭 현게, 아이고, 무석도 헤낫져 첨.

103067 @ 음~. 그다음 아까 저기 어, 모물?

103067 #3 모물.

103067 @ 여기선 모물이렌 ㄹ리수과? 모물이렌 헤수과?

103067 #3 모물이렌 헛주. 메밀이렌 안 곱안.

103067 @ 모물 농산 어떻 헤수과?

103067 #3 그 모물 농사는 그, 것도 불치에 서텅 접아나 놔서.

103067 #4 접아 낫주게. 영~ 걸름을.

103067 @ 걸름을예?

103067 #3 모물씨를 영~ 씨에 막 서텅, 불치에 서터그넝에 구덕 엽구리 메그넝에 툫툫툫툫 접와 낡.

103067 #4 게난 하영을 안 갈아시네게.

103067 #3 게도 흔 천 평씩 갈아수다게. 그때도.

103067 #4 경 하영 간 사름도 잇곡 안 간 사름도 잇고.

103067 @ 그 모물을 폴아수과?

103067 #3 풀지아년 그때 먹엇주. 골안 먹언. 제베기도 행 먹곡.  
 103067 @ 제비도 행 먹고예?  
 103067 #3 어.  
 103067 #4 영 접아놔시네. 툇툇허게.  
 103067 #3 접아 낫.  
 103068 @ 담배 농사도 저나수과?  
 103068 #3 담배? 담배도 우리 아버지 막 이녁 먹을 거 헤난.  
 103068 @ 기억 남수과?  
 103068 #3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세화리 온 후제도 갈안. 세화리 온 후제도 헤연.  
 103068 #4 으자기 겁 퀘연.  
 103068 #3 우리 아버진 담뱃 잘 허난, 담배 헤그네 우연네 씨 거 담배씨가 쟈쟈 쟈쟈 허여. 쟈쟈허민 거 헤영 낫당, 낫다가 그 씨 봄 나민 빼영 갈아, 우연네 영~ 울앗에 갈아그네 그것가 나, 담배 썸이 더발더발 흑주. 영~ 터박터박 허민, 그 가무 룡허게 아랫썸으로 톤아, 아랫썸으로 톤앙.  
 103068 #4 것도 소뭇 옛날 아니라, 하르방 거 담배 심은 거.  
 103068 #3 예. 옛날에도 우리 저 가스름 살 때도 헤나수다게 그거.  
 103068 @ 음~.  
 103068 #4 아주 옛날은 아니주.  
 103068 #3 가스름 살 때도 그거 험디다게. 슝슝스건 전이.  
 103068 #4 하르방?  
 103068 #3 슝슝스건 날 때도.  
 103068 #4 경헤나나네 여기 느려오란.  
 103068 #3 느련와도 그걸 험 거 아니파, 우리 아버지네 가스름 우연이 험 천오백 썸 뉘. 막 커니까 울안이. 거난 그디 농서를 그런 거 험디다, 담배 영 우연네 갈민.  
 103068 #4 옛날엔 싱경 먹어놔주게.  
 103068 #3 싱경 허민 영 톤아그넵에 영~ 느람지 옆에도 막 여평, 영~ 집지슬 예 옆에 돌아메영, 몰류는 거지. 몰류민 그것가 별~거게 발던게 이추룩 이런 색깔 ㄱ 썸.  
 103068 #4 노~랑 허주.  
 103068 #3 브그룡 허게 발민, 바싹 므르민, 걸 영 뜯어그넵에 으만썸 험 줌썸 헤그네 막 여평, 그거를 지금은 비니루지, 비니루 어서부난 멍텅이에 담앙, 멍텅이 알아져?  
 103068 @ 예.  
 103068 #3 멍텅이 헤그넵에 영 끈끈허게 담앙 돌 탁! 지들라 놔뉘게 그거를 땀땀 허게시리헤네. 그추룩 허연 헤연.  
 103068 #4 자이 멍텅이 아라? (웃음)

103068 @ 예~.

103068 #4 접지사.

103068 #3 먹을 땀 썰렁 먹곤 험게. 경형 막끄때레 강, 막끄때 꺼는 그자 툄아그  
넵에 그자 썰렁 퍼렁허게 그자 툄류왕 툄려.

103068 #4 봉초로.

103068 #3 입초, 입초 허멍.

103068 @ 음~.

103068 #3 그추룩 험게. 담배도.

103068 #4 보옥~짹 썰어라 하르방덜.

103068 @ 음~.

103068 #3 우리 아버진양? 가스름 살 때부터 허난 그 거난 이디 완도 그거 헤수  
게. 예, 예.

103068 #4 옛날부터 헤시네게.

103068 #3 거 험디다게.

103068 @ 예, 이제 그 농사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예.

103068 #3 우리 승민이 담배 흐나 사단 헤단 싱거십디다, 지금.

103068 #4 지금?

103068 @ 예. 우연네.

#### 4. 들일

##### 소 기르기

@ 지난번에 부탁드린 조사마을이랑 정말 고맙게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노인회  
장님 모시고 두 분이서예 들일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104001 @ 들일에 보면 뭐 췌 질루는 거하고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말 질루는  
그런 애긴데 먼저 췌 질루는 거부터 질문하겠습니다예? 그 췌가 송아지부터 태어나  
가지고 어른췌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곱아줍서.

104001 #5 췌, 췌를 처음부터?

104001 @ 예.

104001 #5 새끼를 나민.

104001 #1 새끼나민 금승송아기.

104001 #5 금승송아기엔 허주게.

104001 @ 아, 기파?

104001 #5 처음에 난 송아지 보고 금승송아기.

104001 @ 금송이파? 금송이파?

104001 #5 송인가 승인가? 나 모르겠는데. (웃음)

104001 #1 금승이 맞일거여. 금승.

104001 @ 금승송아지예? 금승.

104001 #1 응.

104001 @ 금승송아지엔 ㄹ르고 그다음엔마씨?

104001 #5 그제 혼 일 년쯤 돼며는 에미가 젓을 맥여, 일 년 동안을.

104001 @ 예.

104001 #5 일 년 동안을 새끼가 나며는 에미가 젓을 맥영 키우주게. 계민 우리는 목장에 가지다그네 여름철에 놔볼면 거 그자 혼 들에 혼 번 영 강, 진드기 약 거나 해주곡,그렇게 헤영 네벳당.

104001 @ 예.

104001 #5 농사철 돼민 밧 갈랴고.

104001 @ 일 년 지나민마씨? 한 살 지난 다음?

104001 #5 아니, 그 저 송아지, 봄에 보통 나니까 여름철에 농사철에 가그네 송아지영 데려다그네 밧 갈곡.

104001 @ 벌써 봄에 난 송아지가 일을.

104001 #5 아니 아니, 에미 소가 오며는 송아지도 ㄹ짜 와야주게.

104001 @ 맞수다예.

104001 #5 계민 오라그네 이제 또 농사 끝나민 또 범목장에 이네 올리고.

104001 @ 예.

104001 #5 그러다가 일 년 동안 젓 맥이면 젓을 떨어.

104001 @ 아, 기짜?

104001 #5 젓 떨어비도그네 또 새끼 배민 나고 계민 그 자연적으로, 옛날엔 지금은 뭐 수정허고 뭐 헛주마는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그 숫소들이 목장에 많이 이시니까 그 새끼 배어, 일 년에 혼 번씩 낳는 소가 잇고, 또 2년에 혼 번 새끼 나는 소가 잇서.

104001 @ 아~.

104001 #5 계난 그거는 도움이 잘 안돼지. 일 년에 혼 번 나 줘야 그제 돈이 돼곡 허는데.

104001 @ 맞다예.

104001 #5 마 그래도 이 년에 혼 번 나는 소가 이서. 새끼를. 경헤그니 혼 세 살, 세 살쯤 돼면 그 젓 떨어볼민 자기대로 이제는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에미허고 가치 다녀 그래도.

104001 @ 아~.

104001 #5 가치는. 근데 젓만 안 맥이지. 게 놀아도 가치 늘곡, 물 먹으레 갈 때 도 가치 가곡 허는데 혼 세 살쯤 돼며는 그때까지는 ㄹ치 다녀.

104001 @ 음~.

104001 #5 ㄹ치 다니다가 세 살쯤 돼며는 새끼를 밴다고. 새끼가.

104001 @ 세 살 돼머는예.

104001 #5 새끼가 또 새끼를 배면 또 그 식으로 해서 키우고. 해서 가을철 돼머는 이제 출, 겨울을 월동준비로 현 출 맥여.

104001 #1 겨울에 맥일 거. 출 비여당 집에 넣어놔 맥여.

104001 #5 비어그네 밧디 눌었다가 예, 근간에는 뭐 마차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차로 이렇게 실렸지마는 옛날에는 그런 거 어섯단 말이어. 소에 질메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출을 실러서 집에까지 운반을 해서.

104001 @ 나똥당 겨울엔 움겅구나예?

104001 #1 어.

104001 #5 경허영 집에 쌓여 낫다가, 마 겨울철에 이제 동지 되면 입동 돼머는 목장에서 쉼을 내려다가 이제 쉼막에 메여서 그 출 주곡, 또 낫 돼머는 물 맥이러 또 하루 한 번씩 내창에 강 물을 맥영 와. 경허명 그 쉼을 질루주. 물도 마찬가지.

104001 @ 물도 마찬가지고예. 먹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더 여쭙보크난예?

104002 @ 쉼도 막 종류가 여럿 잇잖아예? 어떤 종류가 이서수가?

104002 #1 옛날에는 토종도 토종 하나뿐.

104002 #5 옛날에는 토종 하나베퀸 어섯는디 옛날엔 숙소엔 현 쉼이 이섯는디 그 후엔.

104002 #1 숙소엔 허주 숙소.

104002 @ 숙소?

104002 #1 응, 숙소, 흐부 그다음엔.

104002 #5 그다음엔 개량종들 브라만이니 뭐여 웨국서 들어온 무슨 싸루레니 그런 것들, 종류가 많이 이섯지이.

104002 @ 맞수다.

104002 #1 건 해방 후에 들어완.

104003 @ 해방 후에 예? 아까 그 말씀해주실 때 소를 밧 갈 때 이용헛던 허는데 예? 그 소를 밧 갈 때도 이용헛주마는 또 다른데, 쉼이 다른데 어떤데 또 이용헛나 수과?

104003 #1 밧도 갈고, 짐 시르지.

104003 #5 밧 갈곡, 짐 실르곡, 옛날에 짐 지을 때 흑질 허젠허머는 그 흑을해서 물주멍 수세능 멩 헤그네.

104003 #1 발봐야.

104003 #5 발브는 걸 소가 해서. 소가.

104003 #1 끈다고 헤.

104003 @ 거른 흑시 노인회장님 직접 쉼 이경 꼬멍 발브멍 짐 지서나수과?

104003 #5 쟁헛주게.

104003 #1 그때 다.

104003 #5 집, 게, 흘 때 다~ 헛주게.

103003 @ 계민 나중에 집지슬 때 어떻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여쭙볼게예?

104004 @ 아~, 문제는 췌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가지고 에미 소 따랑 허멍 허문 돼주마는 갑자기 어디서 큰 췌를 사올 때도 잇잖아예?

104004 #5 사올 때도 잇고 풀 때도 잇고.

104004 @ 계민 그 사올 때 어떻게 그 췌를 길들이는 방법 이수과?

104004 #1 아, 길들이는 건 집에서, 만약에 소, 암소를 사오며는 거 새끼 날거 아녀. 새끼 나며는, 부랭이 나며는, 솟소 나며는 세설만 돼며는 저, 밧 가는 거 가르쳐. 짐 시르는 것도 가리치고. 세 설만 돼며는 소는.

104004 #5 그거는 필수. 경허니까 농사를 헬라며는 그 일허는 걸 가르키지 안 허며는 안돼거든.

104004 #1 피료가 없주게.

104004 #5 쟁기로 해서 밧을 갈아야 돼니까.

104004 @ 막 거친 췌가 만일에 췌가 막 거칠문 어떻합니까?

104004 #5 하, 거칠문, 삼 개월 사 개월씩 가르칠라며는 거 그렇게 힘이 들어.

104004 #1 일 년 내내들어.

104004 @ 예~.

104004 #1 막 습관이 돼야.

104004 @ 일 년 넘게예?

104004 #5 그렇게헤야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잘허지.

104005 @ 그 췌들은 혼 슬 두 슬 안 행 따로 췌 나이 맥이는 소리가 잇지예?

104005 #1 어. 나이 맥이는.

104005 @ 뭇렌 그룹니까?

104005 #5 금승.

104005 @ 예, 금승.

104005 #5 다간.

104005 @ 다간.

104005 #1,5 타릅.

104005 @ 타릅.

104005 # 1.5 나릅

104005 @ 나릅.

104005 #5 그 이상은 뭇 어서.

104005 @ 그 이상은 그냥 췌, 자이 나이 하영 먹었져.

104005 #5 그때는 이빨 봐서.

104005 #1 네 설이 네 설, 사람 곁으면 만 네 설 돼며는 나릅이엔 허주.

104005 #5 나릅 이상은 뭇 불르는 게 어서.

104005 @ 뭇 살까지, 나릅에서 뭇 살까지 일을 시켜먹어수과?



104005 #5 아이구, 일을 시키는 건 뭐.  
104005 #1 보통 소 수명이 25년.  
104005 #5 쭈무 설 난 췌도 일 해서.  
104005 @ 쭈무 살까지도 음, 예~.  
104005 #5 집이 따라서 좀 여유 있는 집안은 교체해가지고 좀 젊은 걸로 으렇게 교체해서 허주마는, 없는 사람은 허나 해노며는 걸 교체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로 계속 이네 했다고.  
104005 @ 아이고, 경헛구나예?  
104006 @ 그다음에는 그 췌 맞갈 때, 췌기가 잇잖아예?  
104006 #1 어, 췌기.  
104006 @ 그 췌기들을 보면 명칭들이 다 이서예?  
104006 #1 어, 명칭이 이서.  
104006 @ 그 명칭들을 아는 대로 곶아줍서예?  
104006 #1 어. 췌기 이서 그디?  
104006 @ 예.  
104006 #1 사진 찍어놔 잇구나. 물레도 잇네이.  
104006 @ 혹시 여기 세화리에도 직접 그 물레 차명 비단이나 아, 그 저기 멩지나.  
104006 #5 옛날에는 다 해서.  
104006 #1 우리 집에도 해나서.  
104006 @ 기파~.  
104006 #5 옛날엔 다 해주.  
104006 @ 사모님도 직접 해난마씨?  
104006 #1 아니, 우리 어머니.  
104006 @ 혹시나 어머니.....  
104006 #1 어머니 님 돌아가셔부런.  
104006 #5 그거 해난 분들은 살아계신 사람 어서.  
104006 @ 음~. 으정도 나와수다. 으정도 나와신디예.  
104006 #1 췌기?  
104006 @ 예.  
104006 #5 베려지카? 췌기를 흐젠흐민.  
104006 #1 이 앞예, 이 젓 명예, 이 또 저 명예광 잠대 끝쟁이 깃지 잇는 걸 저, 성예 깃지 잇는 걸 몽쿨.  
104006 #5 몽쿨은 땅예 영~ 들어가명 영~허는 게 몽쿨이고.  
104006 #1 밀엿게 몽쿨이고 이건 저 성예.  
104006 #5 쪽~ 허게 뻗어나간 거는 성예.  
104006 #1 설칫은 그자 몽쿨광 이거.

104006 #5 몽클광 성에허국 ㄴ찌 끼워진 게 설칫.

104006 #1 또 밧 가는.

104006 #5 또 손잡이는 양긱머리.

104006 @ ㄴ 양쪽에 가는 건 양긱머리마씨?

104006 #1 어, 양긱머리. 또 이 저 밑에 땅에 들어가는데 보섭이 이서.

104006 # 보섭예?

104006 #1 보섭이 잇고, 벳이 잇서.

104006 # 예.

104006 #1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104006 @ 음~.

104006 #1 그러면 흑이 넘어갈 때에 또 그 벳 받침이 또 ㄴ 쟁기에 부떠 잇서. 이렇게.

104006 #5 영~ 꼬부라진 거.

104006 #1 어, 꼬부라진 거.

104006 @ 건 뤼렌 굴아수과?

104006 #1 벳받침.

104006 #5 벳받침. 또 앞에.

104006 #1 ㄴ렇게 십자로 구멍 뚫러서 그 저, 예.

104006 #5 끈을 끼우는 걸 들벳이뿔이라.

104006 #1 오리목을 끼우는 걸 어, 들벳이뿔.

104006 @ 나중에 잇잖아예?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때가 잇거든 마씨?

그때랑 다시 한 번 여쭈볼게예?

104007 @ 길마는 뤼과? 길마.

104007 #1 길마엔 아녕 질메엔 허주. 질메. 짐 실르는, 그 저 췌 우에다가 짐을 실르젠 허머는 저, 노로 거기에 동여매야 뤼 거 아냐? 그러문 그 배, 배를 췌앗배렌 허주게이. 췌앗배.

104007 #5 질메예도 ㄴ라가지가 잇주게.

104007 #1 췌질메가 잇고 뭇질메가 잇고.

104007 #5 췌도.

104007 #1 췌에 시끄는 거 하고 뭇에 허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이서.

104007 @ 췌는 별도로 사진 찍어 논거 잇는데 컴퓨터에서 화면 보면서 보여드릴 수 잇거든마씨? 근데 오늘 컴퓨터 안 가져와부난 그거 질문할 땐 그거 보여드리멍 질문할게예.

104008 @ 그다음에 멩에, 아까 멩에엔 말씀하신 거?

104008 #5 멩에엔 현 거 그건 밧 갈 때 허는 거.

104008 @ 멩에부분 ㄴ 안에는 멩에라는 게 어수과? ㄴ것들 중에.

104008 #1 아, 이걸 거시기 저 물 마차할 때 질멘게.  
104008 #5 음, 물질메.  
104008 @ 음~.  
104008 #1 고리 물 저, 멩에 이디 어신게.  
104008 #5 이 췌 야가기에 현게 멩에주게.  
104008 @ 아, 기파?  
104008 #1 음.  
104008 #5 영~, 뒷야가기 여~ 현 거.  
104008 #1 이걸 물 등에 허는 거. 젓, 마차 거시긴게.  
104008 @ 예. 나중에 이걸 여쭙볼게예. 일단 이것도 봐긴 봐야 할 거예.  
104008 #1 여긴 엇다.  
104009 @ 그다음엔예? 아까 췌를 맡긴덴 헛잖아예? 췌 맡긴덴 헤신디.  
104009 #1 그 목장에 목감이 이서 목감.  
104009 @ 목감, 목장도 옛날도 목장이렌 헤수과?  
104009 #1 어, 목장.  
104009 #5 방목허는 디.  
104009 #1 방목해서 키우는 그 막작.  
104009 @ 대신 키워주는 거마썸?  
104009 #5 아니, 거 우리 땅에, 우리 땅에 가그네.  
104009 #1 마을땅이 잇다니까?  
104009 #5 마을 공동목장에 아지당 놓는 거주. 노며는 관리하는 사름, 흔 사름이 잇는거주.  
104009 #1 그제, 관리허는 사름이 책임져서, 그제 또 다른 데로 도망가볼 수가 잇거든.  
104009 @ 계난 그 관리허는 사름을 뭇렌 곱아수과?  
104009 #1,5 목감.  
104009 @ 목감~. 목감은 마을에서 이렇게 정헤가지고 헤나고마썸?  
104009 #1,5 어, 어.  
104009 #1 흔 사름 거기 살면서, 살면서 돌봐주는 거.  
104009 @ 그문 그 사름 먹고 사는 건 마을에서 책임지고예?  
104009 #1 어, 거 우리 품 타주.  
104009 #5 소 흔 머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라.  
104010 @ 아, 기구나. 그다음엔예? 췌 키우멍 송아지 나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췌 키우멍 잘도 재미져라, 그때 생각하믄 잘도 재미져, 하는 어떤 그런 기억나는 거 어수과? 수 키우멍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104010#5 특별나게는 뭇 그 중간에 송아기 부랭이 나며는, 숫송아지 나며는 돈을 많이 줏거든.

104010 @ 아~.

104010 #5 암송아기는 돈을 얼마 안주고, 숫송아기는.

104010 #1 암송아지는 더 번식용이고.

104010 @ 경해도 새끼나며는.

104010 #5 계란 그 숫송아기만 나기를 기다려 하는 거야. 계민 그거 나며는 기분 좋아서. 거 숫송아지.

104010 #1 돈도 많이 받주게.

104010 @ 경해수과?

104010 #5 돈은 많이 주니까.

104010 @ 그렇구나예? 새끼 하영 나고하민 돈 더 벌 거 닻아도예?

104010 #5 암쇄하고 오십만원 차이 돈이 잇섯주.

104010 @ 예를 든다면 지금 이천십육 년이잖아예? 그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루쿠 다마는 일제 때 그 쇠 송아지, 부랭이 흔 마리 얼마 현 거 혹시 기억납수과?

104010 # 그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른들 꾀는 걸 생각해보면, 흔 집이 쇠 흔 머리 잇는 디가 그렇게 드물엇서.

104010 @ 아, 예~.

104010 #5 큰 부제라야 서너 머리, 두어 머리 질루지, 보통사람은 쇠를 못 질러 봤주.

104010 @ 그므는 노인회장님, 일제강점기 지나그네, 뭐 이제 사삼도 지나그네 쇠는 집에 계속 이서낫잖아예?

104010 #1 겐디, 일제시대도 쇠를 키와낫는디 사삼사건 때 쇠, 툄 이거 흔 집에, 집에서 여러 마리 키우질 못헛거든, 보통 마을도 이삼십 마리 키우며는 저, 어데 밧 디다 가두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키우고 헛는데 사삼사건 때 전부 다 잡아먹고, 뭐 해부럿잖아.

104010 @ 그때 당시만 해도 흔 마리에 얼마 헛신지 기억납니까?

104010 #5 사삼사건에는 그 옷드르 사람덜이 소탕 뉘머리니까 이레 내려올 때에 밧 ㄱ튼 건 가정오지 못허거든.

104010 @ 맞수다예.

104010 #5 거난 보통사람은 못 가져오니까 쇠 가진 사람은 쇠 끌고 왔단 말이어. 거문 그때에 쇠 흔 마리는, 뭐 네 설, 다숫 설 나민 그 부랭이 숫소를 보리썰 흔 말 정도로 바꾸면서 그렇게 어, 살앗다고.

104010 @ 아, 예. 경헛구나예.

104010 #1 심지어 우리 마을엔 사삼사건 때 소개를 안헛거든.

104010 @ 맞수다.

104010 #1 안허니까, 여기에서 경찰이 주둔 헛는디 경찰관을 마을에서 뵙엇거든. 하루 쇠 잡으면서. 쇠 잡고 저, 요센 쫄이 만추마는 집에서 제서 때나 산디썰 잇자 녀게.

104010 @ 예 맞수다.

104010 #1 산디솔 든 내놔그네 그거 영 밥허멍 맥엇주. 맥이멍 살아서. 그때 하영 잡아먹어버렸주.

104010 @ 정헛구나예? 음~. 보리솔 혼 말에~.

104010 #1 물들은 저 집에 키와보지 못허고. 저, 들에 내부럿주. 들에 내불며는 다 잡아먹고 해부럿주.

### 말 기르기

104011 @ 아까는 췌 키우는 거주마는 이젠 물 키우는 것에 대해 여쭙보쿠다예?

104011#5 물은 키우멍 옛날에는 그 저 농사를 지으며는 이 저 화산토라노니까 밭봐줘야 돼 농사를 지으려며는, 게난 그 물들이 혼 열 므리 이렇게 행 몰아당 놔그네 그 불미주는 물 많이 질루는 분이 잇서.

104011 @ 아.

104011 #5 그 분이 거 찜, 밧을 불봐주곡 거시기 해주곡, 춤 댓가로 거시기 검질메는 거나 혼 메칠씩 헤드리고, 영~.

104011 @ 해주고예.

104011 #5 영 허곡, 개인적으로 혼나 썩 질루는 거는 이제 마차, 운반용. 농사짓는 마차에 물 메와그네 들에 강 날라오곡, 그런 용으로 물들은 길랐주.

104011 @ 그며는 물허고 췌허고 허며는 어느 것이 더 비싸수과?

104011 #1,5 췌가 비쌌주게.

204011 @ 췌가 비쌌구나예?

204011 #1 음. 췌가 비쌌주게.

104012 @ 그다음엔예? 물도 췌처럼 종류들이 이섯잖아예? 물들 종류덜 곱아줍서.

104012 #5 거의 조랑말들이니까, 옛날에 그.

104012 #1 그 조랑말이엔 허는디, 저, 가라물.

104012 #5 건 색을 말 허는 거.

104012 #1 가라물, 꺼문 물, 꺼멍헌 물을 가라물, 적다물.

104012 #5 거엔 등급이 잇서. 가라라고 시커멍 깡둥이 물이 일등, 일등으로 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청충이, 백도 아니고 검도 아녀고.

104012 @ 청충이마씨?

104012 #1,5 청충이.

104012 @ 음~.

104012 #1 흰 거허고 검은 거허고 석거진 물.

104012 #5 그게 이등, 또 빨간 적다마렌 현 건 삼등. 삼적다, 색물다, 이런 식으로 거 애길헛주.

104012 @ 적다물예?

104012 #1 적다물.  
104012 #5 백마.  
104012 #1 백마, 백매. 백마 백마. 흰물.  
104013 @ 물들은 보통 운반하는 거나 밧 불리는 걸로 사용됐구나예?  
104013 #1 밧 불리는 거. 운반 허는 거.  
104013 #5 마차용.  
104013 @ 마차용으로예?  
104013 #1 마차용하고, 마차용 아닌 건 질매 지왕으네 출도 시끄곡, 이 곡식도시  
끄곡.  
104013 #5 게민 마차가 어실 때.  
104013 @ 어실 때 예.  
104014 @ 물고 쉼처럼 나이가 이렇게 굳는 소리가 이서수과?  
104014 #1 보통.  
104014 #5 금승 뭉생이, 이수 뭉생이, 삼수.  
104014 @ 아~.  
104014 #5 건 또, 스수, 영 오수 이렇게 허주게.  
104014 @ 이수 뭉생이, 그문 세 살은마씨?  
104014 # 1, 5 삼수.  
104014 @ 아~. 네 살은 ?  
104014 #5 스수.  
104014 #1 오, 옥, 칠, 팔.  
104014 #5 오수, 옥수, 에 이렇게 들은.  
104014 @ 수로 험구나예?  
104014 #5 예, 그렇게.  
104015 @ 그므는 저기 두 분은 물 길러나수과?  
104015 #1,5 에, 길러난.  
104015 @ 길러나수과? 물 길러명 쉼 길러를 때 이제, 무시거 아까 부랭이 낭 막  
좋아헛덴 헛잖아예?물은 어떻게수과?  
104015 #5 물도 역시 웅매 난 걸 좋아헛주게.  
104015 @ 웅매는 뭇과?  
104015 #1,5 웅매는 솟물.  
10415 #5 거는 마차용으로, 아메도 솟물이 쉼니까 힘어. 거 마차용으로 돈도 더  
주고.  
104015 @ 웅매렌 행예?  
103015 #1 암말은 저, 보통 짐 많이 시끄고.  
103015 @ 암말은 따로 하는 말 어서수과? 암말은?  
103015 #1암말도 타, 솟물도 타고.

103015 @ 솫물은 웁매렌 헛잖아예? 암물은 뉘렌 곁아수과?

103015 #1,5 즈매.

103015 @ 즈매예, 아 그렇구나예.

103015 #1 즈매, 자매주 자.

## 떡이

104016 @ 물이나 쉼 먹엇던 거, 어떤 것들을 먹엇는지 곁아줍서.

104016 #5 그, 감저꿀, 곁구마 즐.

104016 @ 예 맞수다.

104016 #1 곁구마 덩굴.

105016 @ 계난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예? 저, 세화에서 사용 헛던 우리말이라예? 그니까 곁구마 꿀이 아니라 옛날예 감저꿀이니까 옛날말로 곁라줍서.

104016 #5 아, 오케이.(웃음)

104016 @ 모오든 말들을예? 이거예 대한 어떤 그 어떻게 키워났던 내용을 알려 곁 하는 게 아니라 어떻 키워을 때 어떻 키워났저, 우리 목적은 세화에서 사용헛 왔던 그 말들, 그 언어를 조사하는 거라부난 꼭 여깃말로 곁아줘예?

104016 #1 감저꿀, 조칩.

104016 @ 조칩이렌 헛수과 조쩍이렌 헛수과?

104016 #1,5 조칩.

104016 @ 조칩, 예~.

104016 #5 또, 새꿀.

104016 #1 새꿀이렌 현 건 저 들에강 풀 새, 진황이라던지 그런 풀.

104016 @ 풀 예.

104016 #1 풀 비어당 낮으로 비어당으네 시꺼온 게 그 새꿀이주.

104016 #5 그 웨예는 콩쩍도 주고.

104016 #1 그 웨예는 자굴.

104016 @ 무시거마썸? 콩쩍?

104016 #5 콩쩍, 콩쩍.

104016 #1 콩쩍도 주고 자굴.

104016 @ 자굴은 뉘과?

104016 #5 자굴이엔 현 거는.

104016 #1 저, 옛날 차풀이엔 허주, 차풀.

104016 @ 아. 차풀.

104016 #1 딱 따지는 거.

104016 @ 것도 맥여났구나예.

104016 #5 쉼나 물이나 다.....

104016 #1 자굴 들이머는 또 여기 제완지. 제완지왔디 자굴 혼디 헤여그네게 들이주게. 갱행으네 그걸 아주 특별히 밧가는 쉼들이나 그거 맥여.

104016 @ 제완지도 ㄴ찌 맥여수과?

104016 #1 으, 제완지허고.

104016 @ 그다음에 그 출은, 출 마련허젠 허민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가을에 비어당 겨울에 맥엇덴 헛잖아예?

104016 #1 어.

104017 @ 그른 이제 출은 쉼, 출은 게민 강 직접 강 베영 와수과?

104017 #1 어, 출밧이 잇주게, 들에. 풀이 나서 이렇게 자란, 뭐 고사리도 나고 거기 종류가 새도 나곡, 또 자굴도 나곡, 저, 진황이엔 헤그네 새 닭은 풀이 잇서.

104017 @ 예.

104017 #5 어욱이영 무신.

104017 @ 어욱도 나고예.

104017 #1 이런 걸 언제 비느냐며는, 팔월 음력. 음력 돼며는 하니보름 불기 시작허여.

104017 @ 예.

104017 #1 그때 팔월에 비어당으네 말려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눌엇다가 저, 가을 돼면 곡식 걷어 들이잖아 이?

104017 @ 예.

104017 #1 출 비어서 누러두고 다른 곡식덜 전부 드러온 다음에 그 출을 또 시러와. 집에 시러다가 눌엇다가 이제 그, 쉼나 들 집에 이제 몰아온 때에 그에 밤에.

104018 @ 그 출 베어난 얘기 곶아줍서.

104018 #1 건 낮으로 비주. 큰 낮.

104018 @ 옛날 호미가 아니라 낮예?

104018 #1 음, 낮.

104018 #5 낮으로 가그네.

104018 @ 게민 그냥 낮 벨 땀 서가지고 베어마씨?

104018 #1 물겨그네 이렇게.

104018 @ 아, 막 헨다음에 그냥 영 무경 오는 거구나예?

104018 #1,5 어.

104019 @ 베어 놓고, 베어 논 다음엔 게민.

104019 #5 비어논 다음엔 말로.

104019 #1 비며는 그걸, 그건 마른단말이어. 마르면 또 그걸 무꺼.

104019 @ 무꺼 걸 뭐렌 곶아수과?

104019 #5 즐라멘텐 허주게.

104019 #1 무꺼텐 허주게.

104019 @ 즐라멘텐 허는 거 한 무꺼이렌 험니까?



104019 #1 단, 단.  
104019 @ 혼 단 두 단~.  
104019 #5 음, 혼 단이렌 허주  
104020 @ 그른 쉼 혼 므리 키우젠 허민 멧 단정도 겨울용으로.  
104020 #5 혼 서른 바리.  
104020 #1 서른 바리.  
104020 @ 서른 바리면?  
104020 #1 혼 바리가 출 비여서 무꾼, 이만씩 무꾼 출이 멧 단 웨느냐 혼 서른 단.  
104020 @ 서른 단이 혼 바리.  
104020 #1 서른 단이 혼 바리.  
104020 @ 게민 그걸 서른 바리 해야 웨마썸?  
104020 #5 예, 서른 바리 정도.  
104020 @ 잘도 하키여예?  
104020 #5 서른 바리도 더, 쉼 혼 일고여덜 머리 일 년, 겨울에 멕이젠 허민 혼 삼백 바리정도는 회야.  
104020#1 아, 우린 이삼백 바리 헤낫는다.  
104020 @ 그른, 늘을 멧 바리정도 해야 혼나가 웨수과?  
104020 #1 혼 삼백 바리도 잇고.  
104020 #1 그 쉼 혼두 개 흐며는 백 바리 이상 이삼백 바리 이상 해당으네 해야 그 다음해 깎지 멕이거던. 저 풀, 새 풀 날 때깎지 멕이니까.  
104019 @ 그걸 운반할 땐 쉼나 풀이나?  
104019 #1. 쉼, 풀로 움직거리고 그 다음에 마차 땡기니까 마차로 운반허고.  
104019 @ 그 쉼로 움직이고 할 때 혼 번에 멧 바리정도 실을 수 이수과?  
104019 # 1 저, 마차에?  
104019 @ 예.  
104019 #5 혼 으둑 바리.  
104019 #1 으둑 바리에서 열 바리 사이.  
104020 @ 그 다음에 쉼나 풀 멕일 때 출만 멕이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걸 무시거 무시거 놔그네 어떻행 줘수과?  
104020 #1,5 아니, 아니 그대로.  
104020 #1 거 출 단으로 그자 갖다 주민 먹어.  
104020 @ 아, 기구나예?  
104020 #5 게, 물만 하루 혼 번 낮에 멕이주.  
104020 @ 아, 기구나예? 음~.  
104020 #1 또 그 저, 쉼 혼 므리만 키우는 사름은 저, 밧이나 갈 때 밧갈쉐라고 하주게. 밧갈쉐 저 흐는 사름은 그 자굴허고 제완지 행 멕인텐 헤지 안헤서?

104020 @ 예, 예.

104020 #1 자굴하고 채완지나 이런 걸 작두로 썰엉, 작두로 썰어가지고 그저 큰 가마솥에 놔서 다른 거 놓고 행으네 끌러가지고 조합해서 쉼 맥이기도 해나서.

104020 @ 그믐 쉼들은 어느 걸 더 좋아해나수과?

104020 #1 건 일 혈 때.

104020 @ 일 혈 때 더 잘 맥이는 거구나예.

104020 #1 바령빔이라 해그네 갈 때는 쉼나 물을 들에다가 저 맥여서 큰 밧데다가 밤엔 가두어. 가두며는 그 소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헌단 말이여.

104020 @ 예, 예.

104020 #1 그래서 허민 막 바래져.

104020 #5 걸름똥민.

104020 #1 경행 걸름똥게.

104020 @ 아, 아~.

104020 #1 여름 내내 경행 혼다, 가을까지. 경행 다음에 그걸 갈젠 흐며는 쉼 두 개 이니면 흐나로 갈젠 흐며는 잘 맥여야 허거든 쉼. 그럴 때 경행 딸령 맥이는 수도 이서.

104021 @ 예, 아~.그다음에는 출 벨 때 막 특별나게시리 뭐 기억나는 게 어수과? 누가 다친다든가 아니면 뭐 출 베다가 무신 뭐 뱀이라도 본다든가 하는.

104021 #5 아, 그런 건 많이 잇주.

104021 @ 흐나만 곶아줍서.

104021 #5 그 출 비당 보미는 독사, 독사 계난 낮으로 찢라비어.

104021 @ 경허민 어떻힙니까?

104021 #1 그믐 죽어 죽지.

104021 #5 옛날 말로 그 낮이 못쓰게 된다고 허면서, 그걸 찢라나며는 못쓰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불에 가서 그거 막 그 독을 제할려고 불을 영~ 헤영 사이에 영헤영, 찢라난디 불로 기시려불곡.

104021 @ 노인회장님도 그런 경험이 이수과?

104021 #5 잇주.

104021 @ 계민 막 물리거나 겁나지 안헤마썸?

104021 #5 아니, 그런 건 물려보진 안허고.

104021 #1 그 독사를 여기선 뭘엔 허느냐 허면 물페기렌 허주게.

104021 @ 아, 기지예.나중에 그것도 한번 저 여기말로 뭘렌 끄는지 그런 거에대해서 다시 질문하쿠다예?

## 땃감

104022 @ 땃감인데예? 옛날에 막 낭허레도 다녀낫잖아예? 그 땃감, 밥헤먹고 할

때 어떤 어떤 것들로 빨감의 종류를 알아줍서.  
 104022 #5 그 그거는 보리짚, 보리짚 헤그네 허고 또 그 보리짚이 죽으며는 질레  
 에 고사리, 고사리 핀 거, 생고사리. 그거를 비어다가 또 빨감허고.  
 104022 @ 예.  
 104022 #1 또 하나는.  
 104022 #5 들에 가그네 나무 설피 그런 것도 끈어다가 이제 때곡 헤난.  
 104022 #1 또 쉼 맥이단 나며지, 그 풀을 맥였거든. 모른풀, 그 먹단 나며지 고사  
 리도 거기에 있고, 이따 뭐 쉼가 안 먹는 것이 잇거든. 그건 내중에 걸어다가 것도  
 불로 때서.  
 104022 @ 불로 때고예? 음~. 장작 같은 건?  
 104022 #5 장작도 때고.  
 104022 @ 왜냐면 그 우리.  
 104022 #1 장작이나 때는 거는 큰일 때.  
 104022 @ 큰일 때만~.  
 104022 #1 어, 큰일 때만 쓰고 보통 가정에서는 기자 설피, 어웁이라든가 다른  
 거 비어당으네 오히려 빨감으로 행으네 별도 다뒤.  
 104022 @ 아, 경헛구나예.  
 104023 @ 그 쉼똥이나 똥똥들 주서당 안 때수과?  
 104023 #5 거는 굴묵에만 군불때는 거.  
 104023 #1 굴묵 때는 거.  
 104023 @ 굴묵 지들 때만예?  
 104023 #1 음. 방 뜨겁게 헐 때.  
 104024 @ 아까 솔피가 혹시 저 그, 솔피가 뭐파?  
 103024 #5 설피 설피.  
 104024 @ 설피가 뭐파? 아까 쉼 먹당 남은 거?  
 104024 #5 부수머리, 들에 가그네 뭐 나뭇가지 꺾은 거 그런 걸 비어그네 무꺼오  
 는게 설피~ 그걸.  
 104024 @ 한꺼번에 설피렌 곧는 구나예?  
 104024 #! 삭다리.  
 104024 @ 삭다리~?  
 104024 #1 삭다리엔 잘허주.  
 104024 @ 아, 설피가 삭다리구나.  
 104024 #1 옛날 삭다리. 그 저, 나무 가지 삭은 거.  
 104024 @ 삭다리는 표준어라서예? (\*에고, 실수~ ‘삭정이’가 표준)  
 104024 #5 삭대기.  
 104024 @ 삭대기.  
 104024 #1 삭다리엔 곧주 삭다리. 죽은 나무 가지.

104024 @ 소나무 잎 잇잖아예?

103024 #5 솔잎.

104024 @ 예, 솔잎.

104024 #5 것도 걷어다그네.

104024 @ 솔잎 걷을 땐 어떻 해수과?

104024 #1 그것 글쟁이로 강으네 소나무 밭 밑에 솔잎이 쌓이잖아? 쌓이머는 그 거 그 글쟁이로, 지금도 글쟁이 이서. 글쟁이로 글거그네 모아놔 저당.

104024 @ 세화에도 소나무 밭 이서난마씨?

104024 # 1 소나무 밭 하낫주.

104024 @ 음. 기구나예?

104025 @ 그 다음에 아까 큰일 할 땐 장작 펜 헛잖아예? 그 낭들은 어디 강 어떻 행 와수과?

104025 #5 낭은 죽은 낭들 어디, 소나무 밭디 강 보머는 그중에서도 막 죽은 거 잇 꼭 허민 그 낭을 해 와서.

104025 #1 소나무 밭디 가민 나무 가지가 밑에건 이렇게 막 큰 걸 이 딱 가지 거 시렁 내불거든. 그 나무를 키울려고 허머는, 밑에 이렇게 굽어가머는 밑에 가지 거 실려야 이게 올라가주게. 게서 그 거시려서 내버린 게 잇서. 그런 것도 주어다 허고, 또 임자 없는 뒗에는 거 가지 거시리지 아녕으네 그대로 내불민 밑에 가지가 죽는다 말이여. 이 나무 커가민 밑에 거는 햇빛도 못 맞꼭 좀 얻어먹기가 조금 얻어먹엄신디 그게 말라죽어. 죽으면 그거 꺼꺼다가 때기도 허고. 또 그 웨예 소나무 밭디 이시머는 잡목 잇잖아?

104025 @ 예.

104025 #1 뒗 이디서 그 복당낭, 닥나무데 종이닥이 아니라 여기서 복당낭이렌 허주게, 닥나무.

104025 @ 예, 복당낭예?

104025 #1 닥나무라든지, 그 웨예 잡목덜 그 나무에 비어도 나무에 지장이 없는 거. 그런 거는 다 비어다가 놔뒗다가 그걸로 땀질허여.

104025 @ 경헛구나예.

104025 #1 땀감으로.

104026 @ 혹시 솟도 구어봐수과?

104026 #1 어, 솟도 구어.

104026 @ 아, 그 솟은 어디 강 어떤 낭으로?

104026 #1 솟은 어떤 낭이나면 초낭.

104026 #5 아무낭이나 뒗어, 솟은.

104026 #1 초낭도 뒗고.

104026 @ 어떤식으로 솟을 만들엇는지 낭 비는 걸로부터 곱아줍서. 낭 비어당 그다음엔?

104026 #1 남 비어당, 쌓아 낱, 그 흑 더평, 전부 이 막아낱, 밑으로 구멍 네영으  
네 저, 불을 부쨌.

104026 @ 예.

104026 #1 게 그게 완전히 타며는 숨구멍이나 무시거나 연기 나가는 디는 모두  
막아버려. 다 탄줄 알면.

104026 #1 예. 그러면 그대로 그게 숨 뻑혀서 그대로 굳어져버리거든.

104026 @ 음~.

104026 #1 그게 솟이주.

104026 @ 그 솟은 집집마다 그처럼 다 만들어수과?

104026 #1 아니, 다 만들지 못혀.

104026 #5 경은 안헤여.

104026 @ 음~.

104026 #5 그, 동아리헤여그네.

104026 #1 멧 멧이 동아리헤서, 남 많이 들거든.

104026 #5 나무도 끈어 오곡.

104026 @ 그때 낱은 마른 낱 끈어당 헤수과?

104026 #1 아니. 놀낱.

104026 @ 놀 낱으로. 놀 낱 헤신디, 아까 무신 낱마씨?

104026 #5 초낱.

104026 @ 초낱이나.

104026 #1 초낱이 최고.

104026 #5 초낱 어시민 탄 낱, 복당낱, 폭낱, 뭐 뭐 아무 잡나무 다 췌주.

104026 @ 아, 예.

104026 #1 주로 이, 폭낱 ㄱ튼 거 많이 췌주.

104026 @ 솟 구울 때 게믄, 막 이제 불 지드기 시작하잖아예?

104026 #1 음.

104026 @ 몇 시간쯤 걸려마씨?

104026 #5 혼~, 삼 일.

104026 @ 삼일동안 계속 불 꺼지지 안행 부쨌야합니까?

104026 #5 어, 어.

104026 @ 게믄 잠은 언제 잡니까?

104026 #5 잠은, 삼일로도 안돼지 이젷 솟구멍이가 클수록 오래가.

104026 @ 그 즘은 언제 자고마씨?

104026 #5 그난.

104026 #1 아, 거기 불 때어도그네.

104026 #5 잘못허며는 삭아버려. 거 어지간히 탄 때에 보면서 구멍을 막아주지  
아녀민 때가 놓치며는 그게 복삭헤불민 췌덩어리 돼불어.

104026 #1 그게 제 돼버리거든.

104026 @ 아이고, 계난 그게 못돼게 계속 지키는 거구나예.

104026 #5 지켜그네 아, 으게 어느 정도 으만이헌 구텡이로 자꾸 보면서 불이 으  
기까지 돌아왔다, 경허민 아, 으고 땃 분 땃 시간이 잇스며는 막아야 돼겏다 헤그네  
거기서 연기가 안 나곡 파~랑헌 연기가 살살 나올 때에 글 막아주는 거라.

104026 @ 아예 그니까 그거를 뭇렌 곶아수과? 솟구텡이?

104026 #1 구텡이.

104026 @ 솟구텡이.

104026 #1 솟가마지 요셋말로.

104026 @ 솟구텡이를 헤서 한 삼일 간 불을 부쩌야 웰 거잖아예?

104026 #5 혼 번 부쩌느민 안네서 타는 게 혼.

104026 #1 혼 이삼삼일 가.

104026 @ 아, 난 계속, 지네끼리 타는 거구나예?

104026 #1 계속 불 때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봐야 돼거든.

104026 @ 알아수다.

104026 #5 게서 그걸 완전히 막을랴면 혼 일주일쯤 돼야.

104026 @ 그 그믄 지켜볼 때 주로 어디 가그네 헤수과?

104026 #5 집 근처에.

104026 @ 집 근처에, 아~.

104026 #1 밧디.

104026 #5 집 근처에 헤냥, 집이서 혼 땃 시간 자당도 가보곡, 그렇게 계속 돌아  
봐야주.

104026 @ 게서 그 다 땃다싶으면 구멍을 막아버리면, 그 식으면 솟이 웰는구나  
예?

104026 #1 어, 어 어, 음.

104027 @ 혹시 그때 솟 구울 때, 솟이 웰기까지 기다리거나 솟 구우멍 혹시 땃  
가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어수과?

104027 #5 지끔 우리두 기억나는 게.

104027 #1 이 딱, 그거 불 잘 안 돌밧따그네 그만.

104027 #5 이 저 솟이엔 헌 거는 조깅 불을 일찍 막아불며는 냉바리라고 솟이  
안웰 거. 타다가 남은 게 그게 많의 저불며는 솟의 양이 족아지고, 또 너무 게을리  
게 너무 늦게 막아부리며는 또 삭아부러.

104027 @ 삭아버리면 또 솟을 구워야 됩니까?

104027 #1 삭아부리며는 그 솟이 족아져불지게.

104027 @ 아, 족아지는 구나예?

104027 #1 겐디 나무가 불 부뜨며는 완전히 타며는 그때 뵐경게 헌 양 그대로  
잇지 아너게?

104027 @ 예, 예.

104027 #1 그때에 딱,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탄 때에 막아붙머는 그것이 까만 기  
자 슷이 돼주게. 슷이 돼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중에 빨강 헛다가 제가 돼붙주게 나  
중엔.

104027 @ 음~.

104027 #5 아 계난, 그 막는, 구멍 막는 그게.

104027 #1 중요하주게.

104027 #5 계난 정신 바짝 출려그네.

104027 @ 한 뗏 살 때쯤 헤나수과? 뗏 설 때쯤.

104027 #5 흔 삼스 년 전에도 헤봤는다.

104027 @ 아니 그니깐 가장 처음 한 때가 뗏 설쯤 돼수과?

104027 #5 처음 헐 때는 어른들 허는 거 구경만 허고, 흔 삼사 년 돼실 거라. 흔  
번 헤본다고 헤봤서. 돼더라고.

104027 @ 아, 잘뵈디가? 그 슷 뒤에 써수가?

104027 #5 제서 때 고기 구울 때.

104027 @ 고기 구울 때, 적 구울 때에? 우린 사당 허잖아예?

104027 #1 고기 구울 때에 그거 많이 쓰주.

104027 @ 우리도 관테기로 슷허멍 저기.

104027 #5 여기선 만약에 슷을 묻으며는 저 어디 살짝이 그 저 친족이나 어른들  
안테 집이 제서 때나 씩씩 흔 바구니씩 가져가곡 경희여.

104027 @ 경헛구나예? 음~.

104027 #1 요샌 그런 인심이 없주마는.

## 사냥

104028 @ 그다음에는 예? 보니까 다른 마을에는 이런 게 잘 없긴 없디다 마는  
혹시 사냥 헤봐수과?

104028 #5 꿩 사냥은 헤나서.

104028 @ 꿩 사냥은 헤나수과?

104028 #1 꿩 사냥만 허고 난 노루 사냥도 헤봐서.

104028 @ 노루 사냥도 헤나수과? 꿩 사냥 노루 사냥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크라  
예? 그믄 꿩 사냥 헐 때 어떻 헤수과?

104028 #1 개 데령강.

104028 #5 개 흔 으숫사름이면 으숫사름, 개 흔 므리씩 데령강 꿩을 게민 망 아  
진 개가 잇고, 일 놓는 개엔 현 건 꿩을 앓아 잇는 걸 놀게 허는 걸 일 놓는 거엔  
흔는다, 거 일 노며는 꿩이 이 놀앙 어느 쪽으로 가며는 “어딜로 간다!” 희영 이제  
웨민, 그 사름은 망보는 사름은 거 높은 동산이나 우에 영 아жат당 카 꿩이 날아오  
는 것 닭으민 어디 딱 앓는 거 보며는 개 데령강으네 기냥 강.

104028 @ 개가 물어마썸?  
104028 #1 어.  
104028 @ 총으러 쏘는 게 아니고.  
104028 #5 개가 물어.  
104028 #1 어, 총 쏘우는 거 없서.  
104030 @ 개가 물어예. 게민예? 노루 사냥은 어떻게수과?  
104030 #1 노루 사냥도 저, 개 데리고 가서 노루 잇는데 강 개가 물어.  
104030 @ 아, 노루도 개가 물어그네예?  
104030 #1 어.  
104031 @ 혹시 지다리도 사냥 해나수과?  
104031 #5 우린 그런 거 안 해판.  
104031 #1 지다리, 난 지다리 사냥은 안 해보고. 여기서 지다리 잡는 사름은 개, 좋은 옛날 좋은 개 해여그네 일부 직업으로 잡는 사름, 그 사름 아니면 못해여.  
104031 @ 아, 그런 사름도 이서낫구나예?  
104031 #1 어.  
104031 #5 토산 그 사름 이서나서, 그 잡는 사름.  
104032 @ 족제비는마썸?  
104032 #1 족제비는 아무나 잡고.  
104032 #5 족제비는 다들 잡아낫주.  
104032 @ 뭘로 잡아수과?  
104032 #1 덧.  
104032 @ 덧 놔그네예?  
104032 #1 거, 덧을 만들어.  
104032 #5 족제비가 돈을 하영 줏주.  
104032 @ 족제비는 무시거에 사용헤신디 돈 하영 줏수과?  
104032 #5 옛날 거 저 고급사름덜 목도리.  
104032 #1 고급사름덜 목도리라던지 이런 것, 옷에 잠바나 요새 털 부뜨지 아너?  
104032 @ 그런 거라던지. 또 끌리는 붓, 붓 감으로 많이 쓰고.  
104032 #5 옛날에는 족제비 혼 머리 잡으면 양복 혼 불을 사 입어서.  
104032 @ 아, 경헛구나예. 그믐 덧 만들 땐 뭘로 어떻 만들어수과?  
104032 #5 으롱게 상클이 뵈건데 나무 으런 나무를 헤다가 말에다가 으만씩 으만씩 내나무, 왕대나무 깨어그네 부찌, 부찌서.  
104032 #1 으런 거림팍 응~ 돈은 거 해당. 왕대로행 열거. 열거그네 앞에 받침.  
104032 #5 으롱게 들러지게 헤영, 게민 으디다가 무슨 고기, 고깃덩어리 행 으롱게 으기 놓고, 으걸 물영 땡기며는 이게 탁!  
104032 @ 고깃덩어리는 무신 퀘기로?  
104032 #5 닭고기. 뭘 그런.



104032 @ 게문 족제비 잡기 위해서 닭을 잡아마씨?

104032 #5 닭 배설.

104032 @ 득 배설을?

104032 #5 득 배설을 헤여그네 흐며는, 득 배설을 최고 좋아 허주게.

104032 @ 허이구야 게민 돈이 더 들큰게.

104032 #1 돼지 배설이나, 득 배설을 켈 좋아허주.

104032 #5 게난 그거 영 먹으레 들어와그네, 이 우에는 이만~ 큰 돌이 우에 잇서. 게난 이 무게로 이걸 땡기며는 물영 땡기며는 이게 탁 내려앉게 돼엇단말이어.

104032 @ 음~.

104032 #5 경헝 팍 지들라그네 잡는 거지. 거, 우리도 잡아 맞는다. 족제비 흔 머리 잡으면 양복 흔 벌 사 입엇다고.

104032 @ 땡 마리카 잡아바수과?

104032 #5 어, 흔 뒤 머리.

104032 @ 아, 경혜수과. 그 족제비 잡을 때라든가 꿩 잡을 때 뭔가 특별나게시리 손지들 안티 옛날에 꿩 잡을 때 족제비 잡을 때 영~ 헤낫져 하고 뭔가 재미잇는 추억 잇걸랑 흐나만 곱아줍서.

104033 #5 재미잇는 소리는 뭐 꿩 사농 가미는 으라머리 잡은믄 그걸 합동으로 폴아.

104033 @ 아, 집에서 안 먹고마썸?

104033 #5 아니, 그 옛날에는 꿩병아리 으만씩 헨 거 어린애 세 머리만 맥이면 뭐 아주 건강 현다고 해서 쟁장히 돈 많이 줘서. 큰 득 흔 머리 값보단 더 줘다고.

104032 @ 아.

104032 #5 거, 그런 거 흔 열 머리, 열댓 머리 잡안, 우리 돼지 산 잡아먹어 낫다고.

104032 @ 아~.

104032 #5 그 꿩 잡안 폴아네.

104032 @ 꿩병아리를 꺼병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선 뭐렌 곱아수과?

104032 #1,5 꿩비애기.

104032 @ 꿩비애기 그걸로 어떻 헤그네 맥연마씨?

104032 #5 아이들 그거 헤그네 참지름에 볶아그네 딸렁 맥이주.

104032 @ 아, 경헤낫구나예.

예, 알앗습니다. 일단 들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겡습니다예.

## 5. 바다일

@ 바다에서 무신 일 허는디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쭙보겡습니다. 별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대답해주시면 돼어예?

105001 @ 삼춘, 바당에선 주로 어떤 일 해수과 이제까지?

105001 #8 바다에서 난, 여기서 나고 바다에서 채암은 메역, 메역 막 즈물양 그것 옛날엔 속옷만 입었 옷도 안 입고.

105001 @ 맞수다.

105001 #8 그것만 입어그넝에 메역 즈물양 다 여기 행 다 톨류왕 다 흙치 문~딱 모다그네 기자 야미장시 와서민 다 저울로 다 폴아그넝에 그걸로 다, 옛날엔 밧도 사곡 다 무시겨 먹을 거 어시민 그걸로 양식도 받아 먹곡, 그거 폴양.

105001 @ 경헨예.

105001 #8 경허명 다 살았주 무신.

105001 @ 맞수다.

105001 #8 옛날에 촌에서 이디서 무걸 헤여.

105001 @ 맞수다.

105001 #8 겨난 그걸로 문 밧도 사곡, 그걸로 다 쓸 받아먹곡.

105001 @ 맞수다, 맞수다.

105001 #8 다 경허명 이제 메역 즈무는 시절은 다 넘어가곡.

105001 @ 넘어가곡 예?

105002 @ 듬북하고 감텐 어떻 즈물아수과? 듬북하고 감태 조물 뎨?

105002 #8 이 망사리 태왁헤영 호미헤영 물아래 강 박박 비영 땅 속~박허민 여 기오랑 파삭 들량 다 놀로 영 놀엇당, 감태 메칠날 받으레 온다 허민 거 다 이제 뜨레 오랑 그걸로 다 생활허명 살았주.

105002 @ 감태하고 그.....

105002 #8 파도처 가민 아이고, 늬보다 므녀강 하영허젠 듬북, 듬북 많이 허쟁 아이고, 옛날엔 바당에 듬북이 민~짝헝게 나나서 바당에.

105002 @ 공동으론 안해수과?

105002 #8 이젠 그거 어서. 그거 헤그넝에 또 문 이제 또 감저 구감, 밧디 강 그 거 깔양, 감저 구감 흑 올리명 다, 영 영 듬북 깔아냥 감자 구감 팔왕, 또 밧디 가 그넝에 또 감저 다 냥, 또 그 고구마도 다 파명 망사리에 이런 것에 담으명 다 감 저공장에 다강 폴아.

105002 @ 경헝구나예?

105003 @ ㄹ메기나 보말은 어떻 잡아수과?

105003 #8 아, ㄹ메기도 물 싸민. 물싸민 돌 일렁 잡아당 그거 다 이녁 먹고, 이 녀 먹고.

105003 @ 물에 들명은 안 잡아수과?

105003 #8 어?

105003 @ 물에 들명은 안 잡아수과?

105003 #8 물에 들명은 그 시절엔 물에 들명은 ㄹ메기 안 잡아서.

105005 @ 거민 여기서 쟁이는 쟁이렌 험니까 쟁이렌 험니까?

105005 #8 쟁이, 쟁이.

105005 @ 쟁이는 어떻 잡아수과?

105005 #8 쟁인 저 가마리 저~ 바닷가에 베피 쟁이가 어서. 게민,막 돌 이마~니 짜민 뱅뱅뱅뱅 애염에 다 헤여그넝에 모두록허게 헤냥, 으마니 남으민 퀴가 다 으디 기어들어, 으디 기어들민 북작허게 그거 다 심어다그네 집이 가그넝에 다 단지에 담양, 촌물 다 올라동 그거 다 보까도 떡국 백상 옛날에 죽두 씨 떡국.

105005 @ 예 경헛지예? 게민 혹시 쟁이 종류가 어떤 거 이서나신디 곶아지쿠과?

105005 #8 쟁이 종륄 그디서 깨우멍 그디서 다 산걸 종륄 어떻헝?

105005 @ 쟁이 이름을 뉘렌 곶아나수과?

105005 #8 쟁이, 쟁이. 그건 그자 쟁이.

105005 @ 다 쟁이렌 곶아나수과?

105005 #8 어. 똥쟁이도 잇곡, 춤쟁이도 이시민 잡을 때 똥쟁이는 우리 안 잡아난.

105005 @ 안 잡아난?

105005 #8 나빠그네.

105005 @ 지름쟁이도 이수과?

105005 #8 어, 지름쟁이. 지름쟁이도 잇곡, 쟁이가 뿔 가지. 맨 우인 지름쟁이, 밑에, 밑에 가민 춤쟁이, 경허민 맨 우의건 우리 잡으레 안와가고, 이추룩 까만 쟁이.

105005 @ 그 까만 쟁이는 뉘렌 곶아수과?

105005 #8 그자 쟁이.

105005 @ 쟁이 그냥?

105005 #8 그자 쟁이. 경허민 돌이 이마~니 쌓여저. 경허민 뱅~ 허게시리 들랑 이마~이 무룩허민 다 이 안에 기어들어.

105005 @ 예~.

105005 #8 경허민 젤 많이 잡주게. 쟁일.

105005 @ 아, 기구나예.

105005 #8 옛날에 뉘 먹을 거가 이서. 그런 거 바당 강 헤다그네 떡곡 헛주. 돈 나볼게 이서?

105005 @ 맞수다.

105005 # 돈 벌어볼 것이 어서.

105005 @ 맞수다.

105005 #8 다 그 노력허멍.

105005 @ 맞수다게.

105005 #8 간세헌 사름은 그런 것도 잡으레도 못가.

105006 @ 맞수다. 옛날에도 혹시나 밤에 이런 횡볼 같은 거 이용헤그네 뉘 잡아

나수과?

105006 #8 밤이?

105006 @ 예.

105006 #8 밤이, 이 조금 때에 저 문 새헤그네 휘 무경, 휘 무경 바닷가에 강 불쌍, 그것 들러그넝에 이디 ㄱ메기 나민 다 주서와.

105006 @ 예~.

105006 #8 경 허멍 게도 난 그때 난 어린 때 언니덜짱 다 헤두 난 그 시절엔 나가 어려부난 잡으렐 잘 못가서. 언니덜 허는 것만 봤주.

105006 @ 아~, 경헛구나예?

105006 # 아이구 그때 나 밤ㄱ메게 잡으레 난 잘 안헛겨난.

105006 @ 안 가봐수과?

105006 #8 언니덜 우루 성제가 이시난 거 언니덜만 잡으레 가 왔주. 난 밤ㄱ메기 잡으레 난 잘 아이가.

105007 @ 혹, 여기도 원담 다아그네 그 저 들어온 멜이나 이런 거 거려나수과? 원담 다아그네?

105009 #8 아 아, 우리 저 막, 멜 기냥, 치테겨베여. 몽땅 바닷가에 이섯땅.

105009 @ 치테겨부러?

105009 #8 곳들에 치테기민 쟈 사름은 그것 강 주서오곡, 날 끝지 뜬 사름은 그것 강 못 주서와.

105007 @ 원담은 따로 당진 앓아수과?

105007 #8 아니, 우리 시절엔 그 원담 다진 아녀서.

105007 @ 안 헤그네 그냥 저.

105007 #8 아니, 또 그 보민 원담덜 다그네 허는 거 보기는 헤서.

105009 @ 그른 멜 들엇져! 허민 그 멜은 어디 들어나수과?

105009 #8 멜들엇져 허민 저 서래엔 현디.

105009 @ 아, 서래.

105009 #8 서어래 오랑 헤도 나중 뜬뜬허민 강 멜도 무시거 두어개 강 주서오나 마나 허곡.

105009 @ 기구나양. 게 멜치 잡을 때, 멜잡을 때, 게문 멜 들영 잡아수과 따로 멜 잡으레 가나수과?

105009 #8 아니, 멜잡으렌 아인가고 바당가에서 멜 영 치테겨.

105009 @ 두루치테길 때만예?

105009 #8 어, 막 그 몽땅 텅기당그네 막 치테겨불민 것 강, 아이고 쟈 사름 강 문 주서불민 뜬 사름 가민 흐나 참녀 못헤나서.

105009 @ 아하, 경헤낫구나예?

105009 # 그 흐나 참녀 못헤나서.

105010 @ 이거는 남자 어른들이 주로 허는 거우다 마는 퀘기 나꿀 때는 어떻 헛

니까?

105010 #8 고기도 그때 고망우럭이엔 허여, 고망우럭. 저 까망한 우럭.

105010 @ 예.

105010 #8 올로 으만씩(손바닥) 현 거.

105010 @ 예, 예.

105010 #8 그거 그거 나까당으녕에 다 반찬 헤먹고, 그건 아무나 헤져서? 그 고망우럭 나끄레.

105011 @ 게난예? 그 혹시 남자 어른은 낙시 헤나수과?

105011 #8 남자 어른덜?

105011 @ 아니, 삼춘네 남자삼춘 낙시 헤나수과?

105011 #8 아니, 무산디 하르방 아~무 것도 아녀.

105011 @ 게민예? 낙시대나 낙시줄 같은 거는 무시걸로 헤나수과? 낙시대?

105011 #8 낙시대? 대루.

105011 @ 대로 예?

105011 #8 대루, 침대, 침대.

105011 @ 침대로예? 낙시줄은 마씨?

105011 #8 침대 만들양, 그거 헤그네 다 고기 나끄레 가곡 스뭇 헛주.

105011@ 낙시줄은 뭘로 헤나수과?

105011 # 아, 줄? 썰로 헤그녕에 멘서가 그때 노끗 그때 이서수과? 썰로 헤그녕에 영영 꼬아그녕에 대에 영~ 돌아메그녕에 낙시 으영허영 고망트레 드리청.

105011 @ 낙시는 무시걸로 헤수과?

105011 #8 낙신 다 사당 헤나서.

105011 @ 옛날에도 다 췌로 낙신 이서나수과?

105011 #8 낙신 이서나서.

105011 @ 게민 뽕뜰은 뭘로 헤수과?

105011 #8 뽕뜰, 뽕뜰 그런 거 잘 우린 아녀낫주마는 다 집에서 만들양.

105011 @ 무시걸로 만들양?

105011 #8 연철로.

105011 @ 연철로.

105011 #8 연철로 다 만들양.

105011 @ 연철 녹여그네마썸?

105011 #8 으, 녹영, 불에 녹여그녕에 다 만들아난.

105011 @ 아이구, 경헛구나예.

105012 @ 삼춘, 물에 들 때 작살로 퀘기 잡아나숫과?

105012 #8 어, 우린 고기 나끄레 그런 거.

105012 ## 고기 쏘아납디젠?(줌수1)

105012 #8 아, 고기, 작살로 고기 쏘아납디젠? 아, 그런 거 그뎨 못헛다네 이제사

그 작살 배완 그 바닷가에 아전뎡기는 거주, 난 그런 것 잘 못해.

105012 @ 아까 소살예? 여기선 소살이렌 곶아수과?

105012 #8 소살, 소살 다 언니덜 이딴 헛 거 다 빌영.

105013 @ 세화리에는 고깃배가 어떤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

105013 #8 서화리 고깃배?

105013 @ 예.

105013 #8 서화린 고깃배 어서나서.

105013 @ 가마리(세화2리)엔 풍선 말고 고깃배 뭐 이서수과? 풍선 말고 퀘깃배 다른 거 뭐 이서수과?

105013 #8 오, 가마리 흐는 거? 가마리 흐는 것도 저처럼 고깃배 헤영, 다 헤영, 그때 주낫, 주낫.

105013 @ 주낫.

105013 #8 주낫, 주낫 흐 상자가.

105013 @ 배 이름, 배 이름.

105013 #8 배이름은 기냥 베엔만 곶아낫주.

105013 @ 아, 그니깐 풍선이렌 헛잖아예?

105013 #8 풍선?

105013 @ 예. 풍선 말고 무신 태우 같은 거 어서나수과? 뽕마나 이런 거?

105013 #8 아, 터베, 터베.

105013 @ 터베~?

105013 #8 터베로 헤그넵에 거 것도 아무나 헤저게? 이디서 배운 사름만 터베 탕, 저 밧마루 강 자리 거려 오국 흐민, 우린 흐깁 중간에 사난 그 자리도 이디 오라그넵에 사단 먹엇주.

105013 @ 아, 경헛구나예?

105013 #8 이 바닥가에 저디 저 개맛 저디 저거.

105013 @ 저 개맛디.

105013 # 개맛디 저디 오랑, 그 저 자리도 사단 먹엇주.

105013 @ 게문예? 그다음에는 그 저기, 삼춘, 퀘깃배 종류들이 이실 거 아니파예? 풍선도 있고, 아까 무시거, 터베도 있고 또?

105013 #8 터베허고, 또 베엔만 곶주 무시거 어서나서.

105013 @ 알아수다.

105013 #8 거 터베, 낭으로만 이처럼 지성, 으 우이 상다리 으마니 지성 그디 아자.

103013 @ 예. 경헛예?

103014 @ 그문 이젠예? 어, 해녀들이 잡는 거 이거 귀 말고 또 무시거 무시거 이서나수과?

105014 #8 옛날예?

105014 @ 예.

105014 #8 전복이~ 지핀디만 가민 전복 이만씩 현 거.

105014 @ 예, 또 뭐 이서수과?

105014 #8 고동도 잡곡. 지핀디 가민 전복 널렝이가 이만씩 현 거 돌에 영 탁탁 붙어났주. 탁탁 붙어나민.

105014 @ 전복 말고 뭐 이서나수과?

105014 #8 고동, 구쟁기.

105014 @ 구쟁기 떼고, 그다음엔?

105014 #8 구쟁기 허곡, 전복허곡 베끼 안 잡안.

105014 @ 조겐 안 잡아수과? 오븐제기, 조겐 안 잡아수과?

105014 #8 아, 그땐 물 바~짝 싸민 곳으로 와그넝에 잡주. 오븐제긴 물에들엉 그 옛날원 안 잡아나서.

105014 @ 게민 그 저, 그 뭇로는 메역허고 감태허고 또 뭐 이서수과? 듬북 말고 또?

105014 #8 고직기, 고직기.

105014 @ 고직기가 뭐파?

105014 #8 고직기가 듬북.

105014 @ 아, 기파~.

105014 #8 고직기 나는 시기가 이서~. 고직기 나는 시기가 이시난 그 시기에만 고직기도 다 즈물양 밧디 낄양 보리도 같곡.

105014 @ 아, 경헛구나예?

105014 #8 보리 같민, 짓도 아무나 고직기도 즈물어저? 바닷가에 이거 배운 사름만 고직기도 즈물앗주.

105014 @ 다른 건 어서수과? 물망도 헛지예?

105014 #8 물망 혜영. 이런 것가 어디이서? (그물망태 가리키며)

105014 @ 아니, 물망.

105014 #8 오 아, 물망도 그때 민짜 즈물민 그때 이제, 이제 난 때지.

105014 @ 예.

105014 #8 이제 나민, 이제 그 물망도 즈물아. 물망도 아무디나 안 나. 나는디 베끼.

105014 @ 기파?

105014 #8 으, 나는디 베끼 안 나. 아무디나 안 나. 그 경허민 물망두 즈물아다그넝에.

105014 @ 허고예?

105014 #8 그 퀘 앞이엔 현디 베끼 물망도 안 나. 이 바닷가에 이디도 물망 안 나곡, 저 퀘 앞이 베끼 물망도 안나.

105014 @ 툄은 안혜수과?

105014 #8 무사, 톨도 그것 톨도 옛날엔 이젠 어촌계로 중간엔 문 헤냇저마는 옛날엔 어촌계도 아녕 기자허민 그 아침이 강 물 바짝 싸민, 그것 비어당 지붕 우이 널엉 다 발레영, 발레민 드령 낫다그녕에 여름에 밧디 검질 뉼 때, 물에 당갓당 그거 헤영 저, 밥에 곧지 송키로 먹어나곡.

105014 @ 경헛구나예?

105014 #8 아이구, 옛날에 무시것가 이서나서?

105016 @ 게민 삼춘, 옛날에 물질 헐 때 허던 삶하고, 지금 물질 헐 때하고.....

105016 #8 아, 지금 물질허는 건 호강이라.

105016 @ 호강이라?

105017 #8 고무옷 다 입곡, 옛날엔 속옷만 입영.

105017 @ 옛날 속옷이렌 안헛지예? 무시거렌 곶아수과?

105017 #8 아, 쓰중이, 쓰중이만 이 물쩍삼, 부젓집 사름이나 이 물쩍삼 헤영 헛거 입어낫주. 가난헌 사름은 물쩍삼도 어성 못 입어서 어선.

105017 @ 어선예?

105017 #8 거 물쩍삼도 아무나 입어져? 그 시절에. 것도 못 입어낫주. 어디시민? 물쩍삼.

105017 @ 처음에 소중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옷까지, 처음엔 소중의 입고 그다음에 물쩍삼 입고?

105017 #8 어, 게난 그때도 이 수건, 광목헤영 이 수건만 영~ 써.

105017 @ 지금은 뭐 씬수과?

105017 #8 지금은 고무모저.

105017 @ 고무모자 쓰고예?

105017 #8 다 써볼고 헤볼민 무신 경 어려운 것이 혼어서 어서.

105018 @ 옛날 톨, 톨은 개인적으로 영 즈물아수과? 아니믄 톨 헤치 헤수과?

105018 #8 기자 옛날엔 기자 내블믄 톨 금허지도 아네영.

105018 @ 아, 경헤나수과?

105018 #8 으, 어촌계 시절 나사. 문 어촌계 튼 사름만. 것도 아무나 헤저? 어촌계 튼 사름만 톨도 문 허치헤야.

105018 @ 허치 헤야.

105018 문딱 문여그녕에 물 바짝 싸민 그거 비어당 흠치 문딱 널엉, 경허민 그걸 다 헤영 조합에 다 밧져. 풀곡. 쟁헤낫주.

105019 @ 그다음엔예? 우미도 헤냇지예? 우미, 우미.

105019 #8 아, 우미. 우민 여기 안 즈물아나서.

105019 @ 아, 경헤수과?

105019 #8 우민 여기 아년.

105020 @ 삼춘, 아까 곶아난 말이우다 마는 혼 번만 더 곶아줍서예? 전복은 여기서 옛날부터 전복이렌 헤수과? 생복이렌 헤수과?



105020 #8 아 아, 기자 저 생복, 옛날에 생복.  
105020 @ 생복하고 구쟁기.  
105020 #8 구쟁기 고동이엔도 잘 안 골아나서. 그자 구쟁기허고 전복, 생복.  
105020 @ 생복허고 구쟁기 켈 댜 개인으로 혜수과 공동으로 혜수과?  
105020 # 8 그땜 개인으로. 개인, 이녀 많이 잡은 사름은 많이.  
105020 @ 경헛지예?  
105020 # 하영헌, 못 못 헌 사름은 전복 못 잡은 사름은 헛낫토 못 잡고, 많이 잡은 사름은 하영 잡고 경헛낫주.  
105021 @ 삼춘, 생복허고 구쟁기 종류가 이섯지예?  
105021 #8 으.  
105021 @ 생복에 종류 막 오래 살앙 큰 거는 무시거렌 골으고? 두린 어린 건 뭐렌 골으고 혜수과?  
105021 #8 아, 어린 건?  
105021 @ 예. 생복 죽은 건 뭐렌 골아수과?  
105021 #8 저 거시기 꺼꾸막이엔 허곡, 또 큰 전복은 전복이엔 허곡. 생복이엔도 허곡.  
105021 ## 암천복, 숫천복.  
105021 @ 암천복, 숫천복예?  
105021 #8 우리 어머니넨, 저 거시기 아 그싸 그랏단 잇어떡어부러져.  
105021 @ 큰 거는 생복, 죽은 건 꺼꾸막예?  
105021 #8 꺼꾸막, 꺼꾸막.  
105021 @ 구쟁긴마씨?  
105021 #8 고동.  
105021 @ 큰 건 뭐렌 골아수과?  
105021 #8 민둥구쟁기.  
105021 @ 죽은 건?  
105021 #8 쌀고동.  
105021 ## 생쟁이.  
105021 @ 무시거마씨?  
105021 ## 할망 확 골아봅서게. 녹음험수게.  
105021 #8 아이고, 성게도 못 까키여.  
105022 @ 아까 무시거 테베? 터베? 터베엔 주로 무시거 무시거 잡아수과?  
105022 #8 자리 거리레.  
105022 @ 자리 거리레 갈 때.  
105022 #8 어 자리 거리레, 터베론 자리 거리레 갈 때베끼 안 갖주.  
105022 @ 아, 기구나예.  
105023 @ 게민 터베 말고 돛배 잇잖아예? 돛 다랑 하는 거.

105023 #8 돛 다랑 하는 건 거시기.

105023 @ 풍선~.

105023 #8 거시기 문 저 생성, 생성허고 그때 젓, 그때 고기도 두 가지라. 젓, 생성허곡 또 거 무시거니 슬레기, 그땐 슬레기엔 허곡 또시 보골치, 보곤치 허곡 두 가지 잡앙 와.

105023 @ 아, 경헛구나예.

105023 #8 문 주낫헤영, 주낫 강 놓앙, 거 견영 허민 다 고기 다 낙시에 벵~ 들 아지민 떼어그네 아정오민 우리 겨민 곳, 고기 잡아온 사름덜이 문 노끗 행 다 웨 영 으거 얼마네치, 얼마네치 다 웨영 풀아나서. 웨영.

105024 @ 그다음엔예? 이 저 아까 풍선에 달던 그 천으로 뵈 건 뵈렌 곶아수과?

105024 #8 돛 들앙 갓덴, 그 그땐 옛날엔 영~ 헤그네 문 돛 돌아.

105024 @ 돛 들앙예? 영~ 저으는 건 뵈렌 곶아수과?

105024 #8 웨이.

105024 @ 웨이.

105024 #8 웨이, 영 젓는 거.

105024 @ 웨이, 젓는 거잖아예? 웨이 저을 때 영 바당에 닿는 제일 끝 부분은 뵈렌 곶아수과?

105024 #8 난 웨이베끼 안 들어나신디.

105024 @ 웨이 손잡이는 뵈렌 곶아수과? 웨이 손잡이는.

105024 ## 치.

105024 @ 치?

105024 #8 아, 치.

105024 ## 치잡으라.

105024 @ 그다음엔 풍선에 맨 앞에 부분은 뵈렌 ㄱ라수과? 베 영~ 나갈 때 앞에부분, 뵈족한 부분.

105024 #8 아, 이물에나 고물에나 허는 거. 앞에 건 이물, 딱 ㄱ망에건 고물. 아이고, 머리가 히엃뜩허다.

105024 @ 삼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예? 한 가지만 허문 끝날 거.

105024 #8 혼 가지만 무시거 물어볼 거라?

105024 @ 지금 계속 물질허멍, 물질허멍 평생 사섯잖아예?

105024 응.

105024 @ 그게 살안보난 막 좋아 라라든가, 물질헌 거 좋은 거 기억나는 거 곶아줍서.

105024 #8 아, 난 그때 물질헛 땐 막 그땐 젊을 때난 좋게 살았는디 이젠 막 힘들게 살암서. 계난 애기들이 다 나가부난.

105024 @ 크멍 돈 다 써부러구나게.

105024 #8 예. 경혜수다.(웃음)

105024 @ 경해도 잘도 건강하게 잘 하셈수다.

105024 #8 예.

105024 @ 고맙습니다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예.

105024 #8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히여뜩한다. 이말 못젠허난 나 머리가 히여뜩  
한다. 옛날말 못젠허민 이저비언 튜네지도 못허곡.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오늘은 옷감에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 여쭙보쿠다예? 거난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아시는 대로 글  
아주시믄 돼여예? 몰르믄 몰라부난 ㄴ는 거난예?

106001 @ 우선예? 옛날에 여기서 만들엇던 옷감의 종류에 대해 글아줍서. 어떤  
옷감들이 이서수과?

106001 #1 옷감의 종류가.

106001 #2 멩지허고, 미녕허고, 베허고 세가지 뿐이주.

106001 #1 미녕허고, 멩지, 멩지 요센말론 요센 비단이엔 허주.

106001 #2 예 예, 요새도 멩진 멩지엔 ㄴ릅니다게.

106001 #1 멩지허고 비 저, 미녕허고, 베.

106001 @ 베하고 예?

106001 #1 그 옛날에는 삼베 전에는 칩베 헤나서 칩베.

106001 @ 칩베예?

106001 #1 칩 해당 숲양, 그 거죽 백경, 그걸 썰 뿍양, 헤서 칩으로 칩꺼죽으로  
허여그네 현 배가 옷감 짚게 칩베엔 허주게.

106001 @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쿠다예, 여쭙보쿠다예? 옷감에는 멩지허고 미녕  
허고 베나 칩베 그거예?

106001 # 어, 그거뿐이주.

### 명주

106002 @ 그믄 우선예? 멩지에 대해가지고 여쭙보쿠다예?

106002 #1 어.

106002 @ 멩지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글아줍서.

106002 #1 멩지썰은 그 누웨.

106002 #2 누웨꼬치, 누웨꼬치가 잇주게. 이맛씩 현 꼬추.

106002 #1 누웨를 키워, 여기선 누웨부터 키워주게.

106002 @ 예 예.

106002 #1 누웨 해당으네 맨 처음엔 그 저, 누웨알 붙든 걸 사당, 저 다른디서 사와서 그때. 문 보급도 해주고. 그거 사당으네 그 알 까며는 거기에 뽕나무를 이파리, 뽕낭 이파리를 타당, 그걸 썰으네, 그 저 누웨꼬치가 아주 작은 때는 칼로 압게 써썰으네 주고. 커가며는 그대러 이파리차 전부 주어도 그 다 먹주게.

106002 @ 예.

106002 #1 경행으네 누웨를 예, 어느 정도 크며는 즘잔덴 허여.

106002 @ 예.

106002 #1 혼 즘. 두 즘, 석 즘 헤그네 내중에 다 자라며는, 으게 입으로 썰 행으네 저 그.

106002 #2 거미줄 곧찌 집은 지어.

106002 #1 집 지으네 들어가젠 허주게. 경허며는 여기서 새 비어당 놔뒀당으네 그걸 썰 으만씩 짤랑 그기에 꼬면서 새 그저 그 이파리를 이렇게 벌어지게시리만 들어. 누에가 거기에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 잇도록히. 그래서 집을 만들으네 노며는 내중엔 그게 집을 만들어서 들어간 것이 고추주게. 고치.

106002 @ 예.

106002 #1 누웨꼬치.

106002 @ 예.

106002 #1 누웨꼬치를 이젠 어떻게 허느냐며는 물에 놔서, 밀으로 불 때고, 따뜻하게 해서, 자그마한 솔에 해서 누웨고치를 놔서 물에 적진 다음에.

106002 #2 즐바로 곱아삼니다게. 화릿불에, 화덕 만들앙.

106002 #1 아이 확, 내불라게. 부섭에 시난, 부섭에.

106002 #2 부섭이난 화리시난 마찬가지로. 경행 놓앙, 조그만 냄빌 놓앙, 물 놔그네 그레 불 땡 놔두민 물이 뜨뜻이 켈시작 허민 누웨꼬칠 낱게, 누웨꼬칠 놔민 그것이지, 막탱이로 심영, 나뭇가지 심어그네 빙빙빙 둘러가 가민 그디서 어떻게 해서 썰이 나오라 나뭇가지에 걸어져 나오민 그걸 하나 뽑아그네그 틀러레 틀 허민 물레에다.

106002 @ 틀이렌 헤수과 클이렌 헤수과?

106002 #2 그때 ㄹ라 무시거렌 ㄹ라수과?

106002 #1 클.

106002 #2 클이렌 헤살거라. 클 만들앙, 나가 보나네 클 만들아네 여기 사진 이실 거라. 아까 거. 그 썰 뽑는 거. 으거 으거. 누에고치 썰 뽑는 틀이주게.

106002 @ 예.

106002 #2 여기거 영~ 허민 빙빙빙빙 히여시리.

106002 #1 여기 헤그네 으기 젓 다른 솟디서 헤그네 다른 저 어디 으기에 그 저 썰을 걸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ㄹ름 특을 만들어 경해가지고 으걸 돌려 가며는 저 물에서 나온게 썰이 그대로 여기에 감아지주게.

106002 @ 예.

106002 #1 감아, 경행 씨를 뽑아내어.

106003 @ 예. 어, 그다음에는 예? 그 씨를 뽑잖아 예? 뽑은 거는 이제 멧지, 그 걸로 천을 만들며는 멧지렌 허잖아 예?

106003 #1 어.

106003 @ 그른 멧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이수과?

106003 #1 멧지 종류는 거 한 가지주원. 멧지 허나.

106003 #2 옛날에는 멧지 종류가 흔 가지 베끼 어서.

106003 @ 생멧지니 뭐.....

106003 #1 아, 생멧지엔 현 건 그 저.

106003 #1 짜멍싸라 ㄱ는 건 생멧지. 짜멍싸라 그 풀 맥이멍 늘주게, 마당에서 영 씨~혜영 놀아. 그 ㄱ라 버리는 걸 닐덴혜영. 놀앙 붓으로 영행 칠허멍 다끄멍 그 거난 풀, 가시리풀 요새 밀풀 행은 안뵈어. 가시리풀로 혜영 막 혜영 놀아그네 허영 가망 허영 짠 거는 생멧지. 요새 저 멧지는 그 저 양젯물 놔그네 숲아불민 모량허게 썬 거.

106003 @ 그걸 뭐렌 곱읍니까?

106003 #2 것ㄴ라 뵈멧지.

106003 @ 뵈멧지예?

106003 #2 응. 그자는 생멧지가 뵈주게.

106004 @ 그다음, 멧지로는 주로 어떤 멧지를 만들어수과?

106004 #2 멧지로는 그 시절에 옷 만드나네 그자.

106004 #1 멧지로는 바지 저고리, 또 두두마기, 또 다른 이 제례복, 그런 것도 만들아서.

106004 #2 치메 저고리도 허곡, 요새 그 죽음의 옷덜, 그런 것덜 다 그런 멧지로 멘들아. 육지 사름은 베로 현덴 헤도 이 제주도 사름은 다 옛날 멧지로.

106004 @ 멧지료예.

106004 #2 견헌디 요새 이 것, 멧질 때 입는 옷덜 멧지 사당 허는 사름덜 보민 생멧지, 팔월에 입는 건 생멧지로 허곡, 베ㄴ찌 스락헌 똑ㄴ찌지 생멧지로. 또 경아녕 기자 치메 저고리 만드는 거는 양젯물에 행 숲아그네 뵈멧지로 경 만들앙 입곡.

106004 @ 뵈멧지파 뵈멧지파?

106004 #2 뵈엇다는 거주.

106004 @ 아, 뵈멧지.

106004 #2 어. 뵈멧지. 양젯물에서 뵈 거. 숲은 거.

106004 @ 예.

## 무명

106007 @ 그다음예? 미녕에 들어가쿠다예? 미녕에는 종류가 어떤 게 이수과?

106007 #1 미녕은 우리 집이선 저~.

106007 #2 흰 가지 베끼 더 혜수과?  
106007 #1 우리 집이선 두 가지 혜서. 하나는 기자 하얀목화로 흰 저 거시기 미  
녕이고, 하나는 골미녕이엔 혜영으네 노란면화가 이서서.  
106007 @ 예.  
106007 #1 우리 집이. 노란면화를 혜가지고 그걸 노란면화허고 흰면화허고 썰을  
뜨두뜨루 빼어서 그걸 사이사이에 끼어서 만든 게 골미녕.  
106007 @ 골미녕, 아아 골미녕마씨?  
106007 #1 어. 골 잇게시리 만든 거.  
106007 @ 예.  
106007 #1 거 두 가지베핀 어서서, 미녕은.  
106007 #2 미녕은 두 가지베핀 엇주. 골미녕 허꼭 그냥 미녕.  
106008 @ 미녕으론 어떤 옷을 만드야수과?  
106008 #1 예, 바지저고리도 허고 또 갈옷도 만들고. 또 이 치마.  
106008 @ 바지저고리나 갈옷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이라예?  
106008 #1,2 어.  
106008 @ 옛날엔.....  
106008 1,2 옛날도 갈옷.  
106008 @2 노동복 허젠허민 다른 물이 어시나네 감 들여그네 감옷으로 입언.  
106008 #1 갈옷보다 더 좋은 게 어서.  
106008 @ 갈옷이렌 혜수과 감옷이렌 혜수과?  
106008 #2 감옷.  
106008 #1 갈옷.  
106008 #2 갈옷이렌 안 혜수다게. 감옷이렌 혜수다게.  
106008 #1 갈옷이렌 혜서 우린.  
106008 @ 옛날엔 바지저고리도 바지렌 ㄹ라수과?  
106008 #1 어, 바지. 바지저고리.  
106008 #2 어, 바지.  
106008 #1 치메.  
106008 @ 교장선생님 말씀해주신 골미녕 말고 노란 미녕이 혹시 토목이파? 토목  
은 뭐파? 토목. 미녕 종류엔 토목이 잇고 생목이 잇고 광목이 잇고예?  
106008 #2 아, 광목은 일본에서 나온 거고.  
106008 @ 여기선 안 만드야수과?  
106008 #2 안 만드야서.  
106008 #1 광목은 이디서 만들지 못허고, 집에서 만드는 건 미녕이고.  
106009 #2 미녕 중에 흐썰 들들 흰 걸 거라게. 흐낌 두텁게 짠 거.  
106009 #1 토목이엔 흰 건 거시기 그 썰이 훌근 걸로 짠 거.  
106009 @ 아, 그렇구나예.

106009 #2 거, 거시기 솜도 초불 것에 거 탄 거는 곱고, 막물에 가쁜 조금 엉기고 구겨계.

106009 @ 목화가.

106009 #2 꽃도, 목화도. 경허난 그걸로 훔칠 곳게 한 건 일헐 때 입젠 엉기게 시리 기냥 짚거는 곳 ㄹ라 토미녕이엔.

106010 @ 토미녕? 음. 게쁜 광목은 사당 씨수과?

106010 #1 광목은 건 기계로 헤서 기계로 제작 헐 거.

106010 #2 광목은 옛날이 이디 어서서. 웨정시대.

106010 @ 게민예? 흥세미녕은 뭐파? 흥세미녕.

106010 #2 아, 그건 결혼 헐 때예.

106010 #1 흥세렌 헐 건 결혼 헐 때에 그 미녕을 그 뭐냐.

106010 #2 두 필 놓주계. 여장 썩 노는 이런 박스에, 경헤그네 흥세엔 헤그네 미녕을 놓아.

106010 @ 미녕은 집에서 짚 그냥 하얀 미녕마씨?

106010 #1 어, 어. 그 미녕.

106010 #2 하얀 미녕. 요새는 미녕 어시난 멍지로 놓고.

106010 #1 결혼헐 때 쓰는 미녕이 흥세미녕이주.

106011 @ 맞수다. 그른예? 목화는 뭐렌 곱아수과?

106011 #2,1 멘네.

106011 @ 멘네는 씨는 어디서 구헤시며 어떻 갈앙 어떤식으로 경작헤수과?

106011 #1 아, 멘네는 흔 번 저 거시기 그뻐 집집마다, 우리 집엔 언제나 그 씨로 그대로 이용헤서.

106011 #2 게난 어디로 주문헤온 건지 우린 모르고.

106011 @ 받아놨다그네 그대로 헛구나예?

106011 #1 우리 집에서 그것 멘네 재배허미는 가을에 그것 따지 아네여. 멘네를 따며는 따당으네 집에서 씨 갈르는 물레가 이서.

106011 @ 그걸 뭐렌 곱아수과?

106011 #1 씨갈르는 그 저 씨앗.

106011 @ 씨아~마씨?

106011 #1 아이고, 씨 무시거 물레엔 허는다.

106011 #2 씨 갈르는 물레가 이서서. 납작헌 나무로 웬 거.

106011 #1 씨 갈르는 물레가 이서. 뽁뽁 소리 나메.

106011 #2 씨 갈르는 그것도 물리민 씨만 똑똑 허게시리 이렇게 돌려그네.

106011 #1 나무가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가며는 그 사이로 밀리며는 씨만 떨어지고 이쪽으로는 멘네만 나오주계.

106011 @ 게 그 기구 이름은?

106011 #1 씨앗 씨틀 씨, 아이고, 씨 무시거엔 곱앗는다. (웃음) 이제 잊어부렸져.

106011 @ 기구나예?

106011 #1 어. 씨 갈르는 거엔 허주.

### 모시

106012 @ 모시는 안 만들어나부난 모르고예?

### 삼

106016 @ 베 잇잖아예? 삼에 대해가지고 어떤식으로 만들어신지 알아줍서.

106016 #1 삼은 집에서 재배헤여. 재배헤영으네 그걸또 삼 껍질을 벗겨 이.

106016 @ 예.

106016 #1 껍질 벗경으네 그걸 또 젓물에 삶아. 젓물이엔 허며는 나무나 저 이런 모물쩍이나 아니면 다른 저 거시기 나무 제 슬아난 그 체를 가지고 그걸 물에 낵, 그 물에 그 삼을 삶는 거라.

106016 #2 그 삶으는 제가 모물체라.

106016 @ 모물체.

106016 #2 으. 매밀. 매밀 체 껍데기.

106016 @ 모물체 껍데기 스라그네.

106016 #2 으, 그거 그거. 대중은 그거 삶아. 그걸 헤그네 부섭에 헤그네 계~속 불을. 옛날에 하각도 엇곡 허나네 그 부섭에 헤그네 헤영 그거 놔그네 허민, 볏두룩도 불이 그대로 잇주게.

106016 @ 아, 예.

106016 #2 경허민 그 제가 너미 높아게가민 트루 행 낫당 고~웁게시리 헤낫당 물에 놓아그네 그레 됴과.

106016 #1 그 제가 좋주.

106016 #2 다른 거는 안돼.

106016 @ 옛날에도 재를 체렌 알아수과?

106016 #2 쟁헤그네 그물 곶아 젓물 젓물.

106016 @ 젓물 젓물.

106016 #1 젓물에 삶넨 허주. 젓물에 삶아그네, 젓물에 삶앙, 그다음에 삶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며는 저, 베 칼로 베 칼로 이거 저 뭐 헤그네 짹짹 곶어.

106016 #2 내에 강, 곶 강 문 젓물을 빨아.

106016 @ 예.

106016 #1 아, 게메, 그걸랑 네불곡.

106016 #2 물에 문 빨앙, 빨앙 가져왕, 가져오라그네 그걸 따시 저, 나무상지 무시저 놔그네, 나무통 놔그네 나무칼로 이렇게 만들앙 짹~짹 껍데기 벗기는 거.

106016 @ 예.

106016 #2 껍데기 짹짹 허게시리 벗겨그네 벗 바싹 곶어그네 혼 두어 번 서너



번 숲아네사 그것이 고아.

106016 @ 예.

106016 #2 서너불 숲아네그네 그것이 고민 그뎨 그것을 썰을 만들젠 허민 나무 통 이렇게 놓콕, 이 저 나무판대기 닳은 걸로 바짝 밀멍 그 꺾데길 문딱 뱃겨냥 널 엇당 들류미는 그때는 썰을 할마님들이 아자둡서 영 무릅에 놔서 흐나씩 아스멍 찌 지멍 다 영영 갈라 다 이렇게 놔그네 짹짹 보비멍 썰을 뽑아네여.

106016 #1 다시 그르민 이, 젓물에 숲을 거 아냐? 게 숲으민, 그걸 저 물에, 큰 물에 강으네 막 빨아당 파싹 들류와. 들류 다음에는 이거 하나 하나 그 저 삼해서 이렇게 가죽 뱃긴거니까 많이 으마니 현 거 길쪽헌 거 아니라.

106016 @ 예.

106016 #1 길어야 흐 받이주게.

106016 @ 예.

106016 #1 쥘 긴 게 흐 받이고, 쟁아닌 건 쭈은 건디. 그걸 이젠 이 나무 돛베, 돛베 낳으네 그 우에서 이제 그.

106016 #2 나무칼 남 팡.

106016 #1 쥘칼이라도 끊어지지 않는 이제 놀이 나지 아녕 끊어지지 않게시리 행으네 이걸로 전부 삼을 꺾질을 뱃기는 거라. 하나하나, 저부 뱃겨. 다 뱃긴 다음에는 그것이 으마니 넓을 거 아냐? 거죽이?

106016 @ 예.

106016 #1 그걸 이젠 가늘게 다 찢어. 찢어 낳으네 그 찢진걸 가지고 하나하난 이젠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헤가지고 두 가달로 으롱게 만들아서 그 하나를 이제 그 사이에 놓고 으 무릅에서 이렇게 비비는 거여. 게, 잇는 거지 잇는 거. 그래서 이으면서 으롱게 허는 게 삼 삼는 거주.

106016 @ 예.

106016 #1 삼는다고 헤여. 삼 삼아 낳으네 으롱게 삼아 논 다음에는 저, 길게 짓 그 거리가 베를 이세 그 썰을 놀아. 논텐 허는디, 아까.

106016 #2 흐 필 지럭시주 베 흐 필 지럭시. 마당에 낳.

106016 @ 예.

106016 #1 이와 같이 헤여. 이와 같이 행으네 썰을 여러개 이렇게 헤낳, 으롱게 해서 한쪽에 감으면서 풀칠 헤여.

106016 @ 흐 사름이 마씨? 아니면?

106016 #1 아냐, 흐 사름이 안 돼여. 두 사름이 헤야주. 두 사름이 허는디, 이걸 여러 날 걸려.

106016 @ 예.

106016 #1 이걸 웨 풀칠 허느냐며는 으롱게 해서 꼬아 낳잖아. 꼬아느니까 거꾸로 헤버리며는 이거 베껴져버려. 게니까 놀 때도 꼭 저쪽에서 영~허며는 이렇게만 가도록히 그 뭐 현 것이 꼭 으롱게 가도록히 잡고 이어야주게.

106016 @ 예~.

106016 #1 게서 으롱게 헤영 풀 맥영 느라 낱 그다음 베틀에 올링 짜는 거.

106016 @ 천으로 나오게시리예? 경헛구나예?

106016 #1 응.

106016 @ 그다음엔예, 아까 그 칩베에 대헛 마라줍서.

106016 # 칩베도 그와 마치 허는다.

106016 @ 칩으로 허는 거마썸?

106016 #1 어, 칩으로 꼭.

106016 @ 꼭으로~.

106016 #1 응, 꼭 해당으네 숲아. 숲양 그거 거죽 벗겨.

106016 @ 예.

106016 #1 거죽 벗경으네 그 아까 삼 모양으로 이거 거죽도 글거.

106017 @ 게른 아까 베로는 뭇헛 입고, 칩베로는 뭇헛 입어수과?

106017 #2 저, 베로는 곱게시리 허민 곤웃으로 만들야그네 중의적삼으로 치멧저 구리 적삼 곱은 거, 여름에 옷 만들양 입고, 또 경 아너민 흑게시리짠 것들은 여름에 기자 기자 의복으로 만들앗주.

106017 #1 무녕 나기, 베 나기, 삼베 나기시작헤네 칩베는 없어저불고.

106017 @ 없어저불고예?

106017 #1 삼베 나오기 전에 칩으로 헤서 베를 짜서 사람이 입엇고.

106017 @ 칩베로 한 옷도 아까 중의적삼으로 입어수과?

106017 #1 어, 어. 그렇게 헤서.

106017 @ 입어나수과?

106017 #1 그때 다른 옷이 없어.

106017 #2 어 어어, 꺼멍. 옷이 얼롱얼롱얼롱얼롱얼롱 허여. 칩베는.

106017 #1 그게 깨끗지 못허주게.

106017 @ 원래 칩은 검은 거난예?

106017 #1 어, 줌 붉으수루, 줌 검붉어.

106017 #2 찻찻찻 짠 것도 찻찻찻찻 까물까물 돼어. 나도 그런 것 입어보지는 안헛는디 말만 들어네.

106018 @ 베를 짜젠허민 삼이 이서야 웰 거 아니파예? 삼은 어떻 제배헤수과?

106018 #1 삼은 이 것 밧데 씨 뿌렁으네 뭇허며는 그 삼 나면 커, 그대로.

106018 @ 쵩예?

106018 #1 커미는 혼 질썸 크주게. 혼 질썸 크미는 봄 돼며는.

106018 #2 시방 시방도 제초제 헤부난이주, 삼이 막 하나서. 밧데마다. 혼 질썸 헤여, 혼 질썸.

106018 @ 음~.

106018 #1 젓, 삼이엔 허는게 이제야보니까 대마.

106018 @ 그니깐예? 대마.  
 106018 #1 대마가 삼이라.  
 106018 @ 옛날 어른덜은 이 삼으로 헤가지고 담배 피우거나 경 안헤나수과?  
 106018 #1 아, 그걸론 담배 안 피와나서.  
 106018 @ 음~.  
 106018 #1 겐디, 그 삼 꺾질 뻗긴 거 낭당이 잇잖에, 그걸로 불 부찌며는 하루종일 으거 다 부뜰 때까지 처음부터 부떠.  
 106018 #2 꼬지 아녕.  
 106018 #1 그래서 그 불쪽으로 대신 이용허메.  
 106018 @ 아, 아.  
 106018 #2 그 시절에 하각이 어신 때난.  
 106018 @ 맞수다예.  
 106018 # 거, 들에 갈 때, 저 그거 특허게 불 부찌그네 가정가주게.  
 106018 @ 예.  
 106018 #1 가정가며는 그 불이 하르버지덜 담배도 피우고, 경허다그네 으거 비나 오라그네 뭐 험직 허며는 어떤 걸 허며는 저, 억새 잇잖에이.  
 106018 @ 예예.  
 106018 #1 억새 뺑이 빼며는 억새 꽃 잇잖녀.  
 106018 @ 옛날엔 억새렌 안헛지예?  
 106018 #1 어, 어웁 어웁. 어웁 뺑이로 헤그네.  
 106018 @ 미우쟁이마씨?  
 106018 #2 미뿌쟁이. 미뿌쟁이 뽑아그네.  
 106018 #1 미뿌쟁이, 미뿌쟁이로 으만이 굶게시리 쭈~허게 길게 헤여 그것 ㄹ라 화심이엔 허메.  
 106018 @ 맞수다 예.  
 106018 #1 게 그걸 불부찌그네 칩으로 행 감양 오며는 저 비기 와도 ㄹ만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 헤불미는 비 맞아도 불 안 꺼져.  
 106018 @ 안 꺼정예?

**도구**

106019 @ 그 아까 삼까지는 다 허고예? 그 삼이니, 미녕이니, 이제 어 뭐파 그거. 멩지니 허젠허면 베틀이니 뭐 이런 거 필요헛엇잖아예?  
 106019 #1 어, 베틀.  
 106019 @ 거민예? 그 도구들 중에서 씨아, 씨아가 무시거파?  
 106019 #2 도구 이름이 씨아가 이서? 엇주 어서. 씨아엔 현 말은 들어본 적 어서.  
 106019 #1 베틀예?

106019 @ 우리가 총 멘네를 헤가지고 씨를 빼고, 그다음엔 솜을 만들거나 씨를 만들거나 하잖아예? 그때 쪽~ 도구들이 필요하잖아 예?

106019 #2 기계, 기계들. 미녕 짜는 기계, 기계ㄴ라 뭇이엔 험니까? 기계ㄴ라. 으ㄴ는 가레기고.

106019 #1 가레기로 헤그네 씨 뽑는 거. 멘화. 멘화씨 뽑는 거.

106019 @ 멘네, 그 씨앗하고 솜하고 분리하는 거 어수과?

106019 #2 어서 어서.

106019 #1 그건 어서, 건.

106019 #2 경히고 또 씨 거, 잊어부런.

106019 #1 씨아, 그게 씨 불리는 거엔 헤그네 씨앗이가 무시거엔 ㄴ라나서.

106019 #2 건디, 으, 으ㄴ는 가레기고.

106019 #1 아니. 가레기엔 현 건.

106019 #2 이영~ 감는 거ㄴ라 가레기엔 히고.

106019 #1 가레기냐? 물레엔 곤다 것ㄴ라. 물레엔 곶아.

106019 #2 물레고, 으디 마라 죽은 거 이성, 으디 죽은 거 도르르 허게시리 돌아 가는 거 이수다게.

106019 #1 그게 가레기주.

106019 #2 게메, 게난. 으 으디 걸쳐 놔그네, 멍지 빠는디 으 걸쳐 낱 씨 뽑는 건 췌끌락 현 거 도르르허게 돌아 간 건 가레기고.

106019 #1 가레긴 췌.

106019 @ 게난 아마 그, 이 세화에서는 씨아를 멘네 씨 뽑는 그.

106019 #1 아, 그게 그게 씨아야.

106019 @ 그난 그게 씨아니까 그 씨아를 여기선 뭇렌 곶아신고예?

106019 #1 아, 그 이름을 잊어부렸저.

106019 @ 씨아레는 안 곤쟁이어예?

106019 #1 으, 씨 무시거엔 곶아서.

106019 #1 씨 불리는 기계가 이서낫주게.

106020 @ 그다음에는.

106019 #1 씨 불리는 기계를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낫거든?

106019 @ 아, 기파?

106019 #2 목시나네.

106019 @ 뭇렌 곶명 만들긴 헤실건디예?

106019 #2 그디 그게 잊어분거시, 씨 불리는 게.

106019 #1 보통 씨 불리는, 씨 불리는 물레엔도 곤주게.

106019 @ 씨 불리는 물레예?

106019 #1 으. 씨 불리는 물레.

106020 @ 예. 그거는 무신 물레파? 그거.

106020 #1 이건 저, 씨 거시기 면화허며는.

106020 #2 게메, 경허난 으기 돌아가는 것ㄴ라.

106020 #1 게메, ㄴ만 시라 보게. 면화 허며는 면활 저 멘네를 조그만씩 빙떡 모양으로, 정기떡 모양으로 스랑허게 만들어. 갱행으네 으기에 가레기 부짱으네 가레기로 으 물레로 행으네 으거 췌로 행으네, 아 줄로, 노끈으로 영~ 잇주게.

106020 @ 예.

106020 #1 이영, 으고 돌려가며는 가레기가 돌아, 갱헤그네 췌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영, 가레기에 탁 부짱, 으걸 돌려가며는, 그게 그걸로 헤그네 영~ 사람이 손으로 뽑는 거야.

106020 #2 그자 아자둬서 손으로 손으로 감주게. 문딱 문딱 저 으만씩(주먹을 보이며) 허게시리, 경행 소쿠리로, 소쿠리호 하나 췌 만들어 놔~.

106020 @ 예.

106020 #2 멧 날 메 틀씩 감아놔~. 갱헤그네 으레 으레(그림을 보며) 툯 허게 걸어. 췌, 췌꺄락헌 췌 여~ 헤영 놓아그네 헤그네. 그ㄴ라 가레기엔 허는다. 으 차롱을 으레 놔둬서 으레허당 툯 걸민 으기서 가레기가 줄줄줄, 이 물레에서 돌려가민 가레기가 불불불불 불불불불 돌아.

106020 @ 돌면서 췌이 감아지고예?

106020 #2 응. 췌이 감아져.

106020 @ 예.

106021 @ 그다음에는 아까 그 저기 멧지, 멧지 짤 때 베틀 잇잖아예? 베틀도 직접 만들어수과?

106021 #1 베틀, 베틀도 그거 이? 멧지틀이나?

106021 @ 멧지클이렌 헤수과? 멧지틀이렌 헤수과?

106021 #1 틀, 틀.

106021 @ 틀이렌 헤수과?

106021 #1 클이렌 안혀. 멧지틀.

106021 예.

106021 #1 멧지틀이나 미녕틀이나 우린 ㄴ찌 헛는다.

106021 @ 아, ㄴ찌헛구나. 췌 짜는 건 마찬가지로안예?

106021 #1 짜는 건 마찬가지. 겨고 으 저 ㅼ디, ㅼ디도 툯 ㄴ뜨고.

106021 #2 다, 툯 ㄴ따.

106021 #1 ㅼ디도 ㄴ뜨고 으 저 거시기 미신 통이엔 헛다마는.

106021 #2 췌 놓는 통. 췌 낱, 통.

106021 #1 예, 이 저 으 췌 ㄴ라~.

106021 #2 무시겨엔 꺄나마는 가레, 가레기가 아니고.

106021 #1 으기에 네모나게시리 툯 허게 들어가게시리 영~ 감는 것도 아무나 못 감아.

106021 #2 기술적으로. 벗어져 불카부덴.

106021 #1 꼭, 으렇게 네모나게시리 감주게. 강행 감양, 이견 옆으로 영행 허멍  
것, 치는 거나네.

106021 @ 예. 이걸 전체적으로 합칭 브디렌 허는 거파?

106021 #1 브디는 으디, 으ㄱ, 으ㄱ(그림을 보며). 으 으 손 심영으네 이것 갖당  
영~허게 허곡도 허는 거.

106021 @ 게 그거는 물레에 따로.

106021 #1 물레 아니 이거, 틀에 잇는 거.

106021 @ 게난, 틀에든 물레든 부분 부분 현 명칭은 다시 여쭙볼 때 여쭙볼게  
예? 여쭙볼 기회가 이서부난예?

※참고문헌: 《제주자연과 민속문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8.

### 바느질

106022 @ 바느질에 대해 여쭙보쿠다예? 옛날 바느질을 바능질이엔 혜수과?

106022 #1,2 응, 바능질.

106022 @ 그든 그 바능질 헐 때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뭐 우선 바능싼지  
가 이서났지예?

106022 #2 바능쌍지.

106022 @ 바능싼지렌 혜수과 바능쌍지렌 혜수과?

106022 #2 바능쌍지.

106022 @ 바능쌍지예? 거문 바능쌍지 안엔 어떤 것들이 들어져 이서수과?

106022 #2 ㄱ세허고, 바능페는 것 ㄱ라 아이고, 바능주멩이 만들어.

106022 @ 바능주멩이예?

106022 #2 어어, 옛날에 머리 빗어나민 머리 빠진 거 몽쿠렁, 그것이 바능을 일  
년을 꼽양 나뉘도 안 블러, 희안허게. 경행 바능쌍지 구덕 바의에 만들양 드랭이 들  
아메듭서 그레 꼽앗주.

106022 #1 바늘꽃이.

106022 @ 바능쌍지 안에 바늘꽃이가 잇고 또 뭐가 이서수과?

106022 #2 ㄱ세.

106022 @ ㄱ세 잇고 또?

106022 #2 ㄱ세 잇고 썰, 거베피 더 이서서?

106022 @ 거 베피 어서수과?

106022 #1 ㄱ세허고 썰, 잘잘한 옷감.

106022 @ 그걸 뉘렌 곶아수과? 잘잘한 옷감덜을?

106022 #2 옷감, 그.

106022 @ 그 자치덜 곶는 게 잇엇잖아예? 옷감 지치덜안티 곶는 소리?

106022 #2 옷 몰르던 자치렌 골앗주.

106022 @ 그냥 자치?

106022 #1 응, 존자치.

106022 @ 존자치예?

106023 @ 그 답엔 바느질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잇잖아예? 어떤 어떤 게 이수과?

106023 #1 흐~는 거 잇고, 즘질이 줍는 거 잇고.

106023 #2 그때는 미싱이 어신 때난 또 여름에 입는 적삼 ㄱ튼 거 만들 때는 이도련, 도련 박젠허민 이것이 실거라. 박음질이엔 허여. 박아.

106023 @ 박음질.

106023 #2 꿰영 나오랑 따시 그 고망드레 찢렁 또 나오곡, 그 고망드레 찢렁 또 나오곡. 게난 ㄱㄱ라 박음질이엔. 박음질이엔 허곡, 기냥 이렇게 허는 건 호음질이렌.

106023 @ 흙질.

106023 #2 호음질이엔 허곡 기냥 좃게시리 허는 건 돈돈허게 허는 건 박음질.

106023 @ 그믐은 옷 만들다그네 소매, 으기가 안 뻗잖아예? 케민 이 소매 잇는 이 이거 무시거 허라! 험니까? 흙질은 아니지 않으파? 이거 박음질 허라! 경은 안하잖아예?

106023 #2 아니여.

106023 @ 거민 뉘렌 골아수과?

106023 #2 이거 그 그레, 아이고 ㄱㄱ라 무시거엔 곧나마는? 현옷 ㄱ튼 거 대여 그네 줍젠허민 이거 그레 헤그네 현 조개기 대여그네 그디 마쳐그네 주렌 경골아.

106023 @ 주렌만 헤여.

106023 #2 주렌만 헤여.

106023 @ 주어불라. 그렇게마씨?

106023 #2 응.

106023 #1 그레 형겘대영주라.

106023 #2 현 조개기엔도 곧곡, 이 현옷 줄때는 현옷 갖다당, 그때는.

106023 @ 만약 누빌 때는 뉘렌 골아수과?

106023 #2 누빌 때는 누비옷이엔 그때 안헤신가?

106023 @ 아니, 애들 씨러질 거잖아예? 씨러정 와그네 무릅이 터졌다, 동무릅 터지민 거기다가 형겘 데그네~.

106023 #2 형겘 데드네 돈돈허게 박으렌 헤여.

106023 @ 그냥 돈돈허게 박으렌 골아수과?

106023 #1 음.

##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엔 옷 종류에 대해가지고 여쭙볼게요? 남자 분들의 옷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6024 #2 그때는 보통은 중의적삼.

106024 @ 중의적삼.

106024 #2 응, 바지저구리.

106024 2 바지저구리예?

106024 #1 바지저구리, 쫘께.

106024 #2 여름에는 우선 쫘께 멘들앙 쫘께. 헤사 그디 담베도 농곡, 경허는 덕분에.

106024 @ 음~. 맞수다.

106025 @ 여자 옷들은 마씨?

106025 #2 여자덜토, 중의적삼 만들고, 치마저구리 만들고.

106025 @ 치마렌 곶아수과? 치메렌 곶아수과?

106025 #1,2 치메.

106025 @ 저고리는 그냥 저고리파? 저구리파?

106025 #2 저구리, 저구리.

106025 @ 치메저구리예?

106025 #2 여저들은 겨울틀민 저, 꼬장(고장) 중의렌 허주게.

106025 @ 딱뚝허게 우의 입는 거마씨?

106025 #2 쏘곱에, 쏘곱에.

106025 #1 소곱에 입는 거.

106025 @ 누벼 가지고마씨?

106025 #2 굴 중의 잇고 꼬장 중의 잇고.

106025 @ 굴 중의 뵈고, 꼬장 중의는?

106025 #2 굴 중의는 쪽치마 대신, 쪽치마 대신 이디 이만~큼 넓게시리. 쏘곱에 꼬장 중의 입어그네 굴 중의 입곡. 그 우에 치마 입곡.

106025 @ 그믄 옛날엔 맨 속에 입는 팬티를 뭇렌 곶아수과?

106025 #1 속옷.

106025 @ 그냥 속옷?

106025 #1 어.

106025 @ 남자도 속옷, 여자도 속옷?

106025 # 어, 속옷.

106025 #2 아주 옛날엔 속옷이엔 현 요새 팬티여 무시거여, 그런 거 팬티 안 입어나서.

106025 @ 안 입어난예?

106025 #2 아무것도 안 입어난.

106025 #1 으 중간에사.



106025 #2 겨난 이 안내, 안내 가려진 꼬장 중의가 그것이 안내 가려진 속옷이나 다름없는 거.

106025 #1 특히 남자는 그 속옷이 잘 안 입었는데 여자는 입어서. 여자는 뭐어나며는 소중의.

106025 @ 소중의예.

106025 #1 소중의 옷이 여자들 해녀들 입는 팬티주게.

106025 #2 견디 웃드르는 소중의 안 입어봐서. 우리 시어머니도 소중의 안 입어뵈.

106025 @ 음.

106025 #2 옛날 꼬장 중의 그거 입언.

106025 @ 꼬장 중의 입어가지고예.

106025 #2 응.

106026 @ 그다음 아이들 옷은 어른들 옷이랑 조금 다르잖아예? 어떤 식이어나수과?

106026 #2 아이들 옷도 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 바지 입을 때난 바지저구리 그자 멘들아 입고, 겨울에는 추우며는 숨 놓아그네 손으로 누뵈.

106026 #1 강알 터진 바지 입짐도 허곡.

106026 @ 꼬장 중의를 입게 뵈면 문제가 뭐냐며는, 아이고 우리 교장선생님 계셔도, 일단 질문해야 헐 거나네 여쭙보쿠다예? 그러면 만일에 생리가 오게 뵈면?

106026 #2 그대로 흘러 내려.

106026 @ 그냥 흘러내렁, 닦아서 살앗구나예?

106026 #2 응.

106026 @ 별도로 어시예?

106026 #2 그것이 어려와. 경허나네 꼬장 중의 입곡 굴 중의 우터레 입는 거는 그때 그거는 아래 강알 막아진 거.

106026 @ 막아진 거. 음~. 아이 옷은 특별난 게 어시 마찬가지로예?

106026 #2 어서, 어서.

106026 @ 물애기 옷, 금방 태어났을 때는 뭐 그런 옷들은 따로 잇엇지예?

106026 #2 미녕.

106026 @ 미녕으로, 그 옷은 뭐렌 곶아수과?

106026 #1 삼베로도 허주.

106026 #2 배넛저구리.

106026 #1 배넛저구리는 삼베로도 헛주.

106026 @ 혹시 붓땃옷이라는 말은 안 써나수과?

106026 #1 붓땃옷이렌도 허여.

106026 #2 배넛저구리렌도 허고. 붓땃옷이렌도 허고

106026 #1 그 두 가지 써났져.

106027 @ 옷을 만들젠 허면 그 분이 이서야 돼잖아예?

106027 #2 본 안 출려.

106027 @ 안 출렸잖아예?

106027 #2 어, 옛날엔 손짐작으로. 본 안 출려.

106027 @ 안 출리민 네 개 반듯한 천이 잇다 헤그네. 만일에 이제, 거기다가 중 의적삼을 만들젠 허면 케민 어떻헤수과? 처음에.

106027 #1 그 사람 키, 키 헤그넹 자로 영~ 행 어느 자 높이, 길이.

106027 #2 이, 멩지나 미녕이나 짜민, 그 너비가 딱 지정 쉰이서 기계에. 너비가 지정쉰 딱 이시민 다숫 치 으숫 치, 보통 으숫 치. 으숫 치 으숫 치 반 돼면 조금 널른 거고, 으숫 치에 딱 허게 누누며는 남저 품 큰 사름은 바지 만들 디는 쪼끔 족으미는 밑을 쪼끔 넓게 부찌국.

106027 @ 예.

106027 #2 지정 이서 딱. 경허민 그거 싹 폐와노며는 여저 치메 ㄹ트민 땃 폭 치 메. 으숫 폭 치메, 으둑 폭 치메. 경행 허곡. 경허난 그 지정 이시난 그것에 옷 들루 문 문제가 아니.

106027 @ 문제가 아니. 아, 경헛구나예. 경행 그냥 손짐작으로 헤봐그네 바로 꼬 메수과?

106027 #2 어~.

106027 @ 꼬멘 때도 웨 기본적으로 탁 틀만 꼬멧당 나중에 자세히 꼬메고 경 안 헤수과?

106027 #1 거시기 대강 영 허게, 서툰 사름 할 때~엔, 서툰사름 헐 땀 대강만 영~ 허게 싯거그네 크게, 싯거그네 쥐낭으네 으 발라 주렌허주게.

106027 #2 조선옷 만들믄, 시방 입는 옷 만드는 것 ㄹ찌 까다랍지 안혀.

106027 @ 기구나예? 맞수다.

106027 #2 어~, 질쓰민 질수록 그자 싹 허게시리 허곡, 이 이, 저구리 옷 만드는 것도 꼬구러그네 딱 보여늬민 일루 이레 딱 박앗당 이 우트레 다가가민 보기 좋게 으렇게 으영 허꺼지게 홀타지게시리 허영. 경허난 까다롭지 아니.

106027 @ 경헛구나예?

106027 #2 어~.

106028 @ 그다음엔 예? 바지가 잇고 저고리가 잇고, 치메가 잇고 보선이 이섯잖 아예?

106028 #2 으.

106028 @ 보선이 잇스며는 그 바지 잇을 때 허리부분은 남자어른은 그 바지 허 리부분을 뒤편 굴아수과?

106028 #2 허리, 허리띠 트루 만들야.

106028 @ 트루 만들야. 그냥 허리렌 하고예?

106028 #2 허리띠 띠루 만들야, 응.

106028 @ 바지 같은 경우에 으런데는 뭐렌 곶아수과?  
106028 #2 여~헌디 ㄱ라 정쟁이엔 ㄱ라, 이것 ㄱ라 정쟁이엔 곶아수과? 이거 다  
남지는 정강 다님이렌 안 곶읍네까? 여기 중간에 매는 건 정강다님이엔 곶고.  
106028 @ 아, 정강다님.  
106028 #2 으기 으기 매는 때는 이 헐 때는 보통 갈옷 입어그네 남저 어른덜 일  
허레 가젠허민 으걸 메니까 정강 다님이엔.  
106028 #1 이디 정쟁이니까 정강다님이엔.  
106028 #2 이레 치는 건 다님이엔 흐곡.  
106028 @ 다님이엔 허고예?  
106028 #2 응. 으디 치는 건 정강 다님이엔 흐고.  
106028 @ 저고리는 , 여기는 뭐렌 곶아수과?  
106028 #2 짓.  
106028 @ 짓 중에서 으건마씨?  
106028 # 그건 앞섭.  
106028 @ 그다음엔 여긴 뭐렌 곶아수과?  
106028 #2 저구리 우문.  
106028 @ 우문, 그다음엔 여기는마씨?  
106028 #2 여기까지 우문이렌 허주. 으 저쟁이로 풀꿈치 ㄱ지 영~ 허민, 이것이  
우문. 저구럿단 우문.  
106028 #1 으 으 앞에건 슻미고.  
106028 @ 저고리 단허고 슻미. 슻된 우리말이파? 슻미가.  
106028 #1 으.  
106028 #2 슻미엔 현 건 우리말이고 여기 이디 ㄱ추룩 허민, 거 흐쉴 슻미 흐쉴  
곶으라.  
106028 @스미, 슻미? 슻미?  
106028 #1 으.  
106028 #2 슻미 흐쉴 곶으라 하고 으기는 우문이. 우문.  
106028 #1 으기부터 으기까지. 으 앞에거는 슻미고.  
106028 @ 그담에 저고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헤가지고 무끄잖아예?  
106028 #2 저구리 곶.  
106028 @ 저고리 곶이잖아예? 으기서 여~ 허는 건마씨?  
106028 #2 젓 곶.  
106028 @ 젓곶이파? 적곶이과?  
106028 #1,2 젓. 젓곶.  
106028 @ 지웃 예?  
106028 #1 응.  
106028 @ 젓(젓) 곶이고 이거는 그냥.

106028 #1 젓곱이고, 저에다가 그냥시웃(ㅅ) 헐 거여.  
 106028 @ 젓곱예?  
 106028 #2 이 짓허곡, 앞에는 앞섭.  
 106028 @ 앞섭하고예. 그다음 무끄는 건마씨?  
 106028 #2 저구리 곱. 안내 거는 젓곱.  
 106028 @ 예. 그다음엔예? 버선 잇잖아예? 버선 이시면 버선 으 부분은 뭐렌 곱  
 아수과?  
 106028 #2 무시거엔 안 곱아. 버선은 버선이주.  
 106028 @ 으기는 뭐렌 곱아수과?  
 106028 #2 이디 곱아 뒤꿈치, 툃.  
 106028 #1 앞꺱지. 버선꺱지.  
 106028 @ 여기 우에는 마씨? 여기 전체.  
 106028 #1 보선 목.  
 106028 @ 여기는 마씨?  
 106028 #1 보선창.  
 106029 @ 그다음엔예? 단추에 대헤가지고 여쭙볼게예? 옛날엔 으런 단추가 어섯  
 잼아예?  
 106029 #1 불ㅁ작.  
 106029 @ 불ㅁ작 만들양 헤수과?  
 106029 #1,2 으.  
 106029 @ 다?  
 106029 #2 응. 다 불ㅁ작.  
 106029 #1 대부분 불ㅁ작이 많주.  
 106029 @ 불ㅁ작도 종류가 잇잖으과?  
 106029 #1 불ㅁ작은 다 헉나라. 큰 거, 족은 거.  
 106029 #2 어서.  
 106029 #1 크민 크곡, 족으민 족곡.  
 106029 #2 으라게 들게 돼어도 불ㅁ작이엔.  
 106029 @ 불ㅁ작예?  
 106029 #1 불ㅁ작.  
 106029 #2 돈들게 헉나토 엇주게.  
 106029 #1 겐디, 불ㅁ작, 그 단추 나온 것이 일제시대에 나온 거라.  
 106029 @ 단추가예?  
 106029 #2 맞아. 다 불ㅁ작.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른 재단허고 염색할 때 재단은 아까 뭐 그냥 다 짐작으로 헛덴하고

예? 그문예? 옷감을 미녕이나 멩지나 하잖아예? 그거를 손질할 땐 어떻 해수과? 옷 만들기 짝 전까지 네모반듯한 천 만들젠 허민. 썰로 짤 다음.

106030 #2 으, 썰루행 딱 짱 나오미는 필루 만들주게. 필루. 혼 필. 멩지는 저것이 마흔 자. 베와 미녕은 쓰물두 자.

106030 @ 게든 저 바지 할 때 혼 으숫 자 든덴 헛잖아예? 남자 어른 바지 할 때, 아까.

106030 #2 바지 할 동안에 남저 어른덜 중의적삼 만들젠 허민 쓰무 자.

106030 @ 쓰무 자.

106030 #2 쓰무자. 좀 몸이, 키나 큰 사름은 쓰물혼 자, 쓰물두 자 들어가.

106030 #1 기자 혼 필 들어간다는 말.

106030 #2 혼 필, 딱 들어.

106030 @ 아까 사십 필이렌 허멍.

106030 #1 아니, 그건 멩지.

106030 #2 멩지는 기력시가 마흔 자주게.

106030 @ 마흔 자~? 마흔 자가 혼 필~?

106030 #2 마흔 자가 혼 자 두 자 헤영 재는 거.

106030 @ 예~.

106030 #1 마흔 자가 혼 필.

106030 #2 그것이 마흔 개, 마흔 개라사 마흔 자.

106030 @ 경혜야 그걸로.

106030 #2 또 쓰무 자는 중의적삼 그튼 거 만들 때, 남저 어른덜은 저, 바지허고 저구리 만드는 디 쓰무 자 딱 들어 가.

106030 #1 혼 필은 두 개, 쭈물 두 자베끼 안 나.

106030 @ 아버지 거허고 아들 거허젠 하면 그 혼 필 다 들어가키여예?

106030 #1 예고, 혼 필로 모지라주.

106030 #2 어, 경헌디 남저 어른 거 다 출리젠 허민 남저 어른은 쪼퀘가 들어가.

106030 @ 맞아, 맞아, 맞아. 경 혜부난.

106030 #2 쪼퀘가 들어가지.

106031 @ 염색을 안해가지지는 안 헐 거잖아마씨?

106031 #2 그 당시 염색이엔 허민 어시나네, 검은색도 엇고 허나네. 요새 저 까끄레기, 해변 가에 가민 까끄레기엔 흰 낭이 이서. 그 낭에 가~망헌 열매가 돌아정 이시메. 까끄레기 열매엔 흰 거.

106031 @ 까끄레기 열매마씨?

106031 #2 시방 올라신가? 시방 꽃 피어신가 하여튼 간에, 경행 그거 헤어당으네 백사그네 물헤영 짜그네 그걸로 염색 시기민 껌지도 이니허고 그까라 청색 비슴칙 헤여.

106031 @ 감물 드리는 거 하고 까끄레기 염색하고?

106031 #2 어, 두 가지 배편 어서.

106031 @ 아, 경헛구나예

106031 #2 어.

106031 @ 케민 시집 갈 때 막 색깔 잇게 허젠 허든 어떻 헤수과?

106031 #2 색깔 잇게 허젠헤도 어서.

106031 @ 경 헤수과?

106031 #2 시집 갈 때 색깔 입젠 허민 그 붉은 멍지 푸린 멍지 ㄱ튼 건 그 장옷 멘들젠 허민 어디상가 그 물을 헤 왓는지, 건 어디서 주문헤완디 그거는 몰라.

106031 @ 일단 버스랑 보내볼게예? 세 시 차랑 보내볼고예, 이제 몇 분 안 남아 시난 토산까지는 제가 모셔다드리쿠다예?

### 신발

106032 @ 신발인데예? 신발 종류 뭐 뭐 이서수과?

106032 #1 신발?

106032 @ 예.

106032 #1 가죽신.

106032 @ 예, 가죽신. 가죽신이렌 곶아수과? 뭇렌 곶아수과?

106032 #1 가죽신.

106032 @ 그냥 가죽신? 그다음 뭇 또 이서수과?

106032 #1 가죽신, 초신, 짚신~. 짚신 ㄱ라 초신이엔 허주게. 젓, 초신도 북세기가 이서. 북세기는 까주 깝 보벼그네 뭇헌 거는 초신이고, 북세긴 기자 깝 메면서 그대로 만든 게 북세기고.

106032 #2 그자 못데로 신영 땡기는 거. 옛날에 신이 원 어시난게. 씨집갈 때는 막, 정성들영 만들안.

106033 @ 그든 이제 초신에 대헛 다시 여쭈볼 거고예? 가죽신은 어떻 만들어수과? 무신 곶로.

106033 # 가죽신은 저, 쉼가죽이나 게아니민 개가죽이나.

106033 @ 만들 때 어떻 만들어수과?

106033 #2 아이도, 그거 만드는데 즈때 몰르는다.

106033 #1 야, 거 마드는 건 그거 거 만드는데 다 허쟁허며는 쉼가죽 헛으네 그거 문 저, 그 털 다 태와그네 그시렁 뭇 헤와그네 그거 다루는 건 우리 다 설명 못 허크라.

106033 @ 보긴, 직접 하긴 헤나수과?

106033 #1 어, 보긴 봐낫는다.

106033 @ 예~.

106033 #1 바짝 땡겨그네 막 돌류곡, 내중엔 막 쉼 뭇으로 헤그네 막 곶어놓곡, 곶어그네 그거 얹게시리 허주게. 겨는다 아이고 그거 힘들어.

106033 #2 근디 그때 그 무신 지름사 불르명사 계신디 지름 불랑 헤낫당, 흐썸  
 막랑허민 물라가민 바~짝 허주게 과즐 ㄱ찌 바짝 허미는 그걸 다시 물르곡 헛주.

106033 #1 물 타그네 물안장에 옆에 물 들레도 허곡, 물안장에 거시기 우예도 씨  
 우곡 경 헤난는다.

106033 @ 가족신을 만들면 우리 신발모양, 지금처럼 신발모양은 나수과? 아니면  
 버선추록 헤수과?

106033 #2 보손 ㄱ찌 만들앗주.

106033 #1 긴디 보손도 잇고, 가족신은 이디서 못 만들아서.

106033 @ 가족 보손은 신어나고에?

106033 #1 보손은 경 헤네 보손 만들주게.

106034 @ 나막신은 어떻 만들아수과?

106034 #1 나막신은 남신이주게. 이디서 남신이엔 헛주.

106034 #2 나막신은 무신 양으로 만드는 건고? 아무 낭이나 안돼어.

106034 @ 예~.

106034 #1 저 거시기, 예, 마주목.

106034 @ 마주목마씨? 마주목이 마가목이파?

106034 #1 마주목이 이디서 물쿠실낭. 물쿠실낭이 마주목이주게.

106034 @ 아~.

106034 #1 말 구술, 구술 주자. 물 마자, 마주 목.

106034 @ 마주목이엔 헛구나게.

106034 #1 물쿠술낭. 여기선 물쿠실낭이엔 허여.

106034 @ 맞수다게.

106034 #2 나막신도 파는 어른이 잘 팟주. 아무나 파질 못헤여.

106034 @ 격도 신어나수과?

106034 #1난, 신어나서. 나 만들어, 나도.

106034 #2 나도 멘들어 는 거. 옛날에 비오곡 허민 초신만 신영 텅기민 옆집에  
 가젠헤도 비가 줌 처 오며는 나막신 신영 투박투박 걸영가서.

106034 #1 난 나대로 그거 만들어나서.

106034 @ 경헤나수과? 막 발 아프지 안 헤마썸?

106034 #1 아니, 발 아니 아파 윈. 발에 딱 맞창허민. 그거 신영으네 막 뽀도 허  
 는디.

106034 #2 그 발에맞창 흐 집에 뗏 흐 집에 흐나 이신 집이 베랑 어서.

106035 @ 그다음에는 예? 아까 그 초신예? 초신 만들 때 아까 잠깐 말씀헤주섯  
 잦아예?

106035 #1 음.

106035 @ 한 번만 더 곶아줍서.

106035 #2 즈질허게 만드는 건 그 신사라도 즈 헤낫주.

106035 #1 초신은 짝은 저 산디, 산디 짝 잇자녀.

106035 @ 산디 짝, 예.

106035 #1 산디 짝 우에 그 이삭 달려난디 잇지?

106035 @ 예.

106035 #1 젤 윗부분만 그것만 끈어가지고, 그걸 젓물에 삶양, 그걸 비벼서 짝을 만들어. 신 옆에 이렇게 그 저 바위 부찌는 걸 그걸 만들어. 그거 만들양, 그 다음엔 늘은 뿔로 하느냐며는 미, 저 역새. 뽕이, 뽕이. 역새 뽕이 뽑아다가 들류며는, 그 거 잇잖아, 속엿 거 빼불미는 이렇게 몽클어진 거, 완전히 나온 거 흐민 안 돼어. 나오는 거 빼어야 으게 굵거야 그걸 돌려가지고 그 속을 빼어두고, 그걸 가늘다랗게 이젠 찌어가지고 그걸로 노 끈 것이 미라.

106035 @ 아, 예.

106035 #1 그걸로 행으네 늘 네영 찢으로 산디 짝 것, 두두려 가지고 것, 멍석이 나 뭐 맥이나 절 때 이렇게 뚜두려 가지고 허잖아이, 그렇게 만들 듯 짚신 창을 그걸로 만드는 거야. 짝을 옆에 부찌멍.

106035 #2 흐루 흐 배 못 만들어. 경, 곤 건.

106035 @ 흐루 흐 배 못 만들민 게 그거 신을 뎌 얼마큼 신읍니까?

106035 #2 아이구, 그거 일 년이나 아깁 신주.

106035 @ 예를 든다면 제주시 걸영 갖다 왔다.

106035 #1 걸영 갖다 와도 그것.

106035 #2 그럴 때 걸영 갈 때는 안 신어. 아까와그네.

106035 @ 게민 뿔 신어수과? 복신?

106035 #2 복데기. 으 복데기 닳은 신 신영 거주. 게분 거 신주. 그런 신은 만들민 어디 시집가는 사름이나 그런 거 신주.

106035 #1 시집가는 사름들이나 그렇게 행 만들양 행 좀 신주.

106035 #2 아무상이나 그런 초신 못 신어.

106035 @ 그렇구나예. 초신에다가 아까 그렇게 아무상어시 신는 걸 복신?

106035 #1 어. 복데기. 복데기로 만든 거주. 복신, 복신.

106035 #2 산디 짝 기자 턱턱 두두려그네 털어도네 구걸로 행 만드는 거주, 복신.

106035 #1 그걸로 짝도 네곡.

106035 #2 초신은 제라헌 초신은 산디 짝 꼭대기엿 것 그거 뽑아넝 허곡.

106035 #1 그거 흐며는 씨집가는 사름도 그럴로 행으네 고~웁게 해서 그거 신고 가나서.

106035 @ 맞수다.

106035 #1 나도 시집가는 누님 신을 거 삼아드려 낫는데.

106035 @ 아이고, 경헛구나예.

## 모자



106037 @ 다음은 모자라예? 옛날 어른들 모자들은 어떤 걸 써신고 헤가지고 예? 걸 여쭙보쿠다.

106037 #1 모자?

106037 @ 모자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6037 #1 모자, 후양(휘양).

106037 @ 후양? 예.

106037 #1 저, 상통이에 없는 거시기 현 이렇게 쓰는 저 어린아이덜 거시기 수양 모양으로 쓰는 그게 하나의 우리 어린 때 그 모자였고.

106037 @ 후양? 이름 뭐마썸?

106037 #1 후양.

106037 @ 후양.

106037 @ 또 뭐 이서수과? 모자 종류가, 후양 잇섯고.

106037 #1 후양 말고는 가족 감티.

106037 @ 가족 감티예?

106037 #1 어. 가족으로 이렇게 행으네 주영으네 머리에 쓰는 거, 겨울에 거, 겨울 모저로.

106037 @ 후양은 여름 모저에 속허는 거파?

106037 #1 후양은 저, 천으로. 무명이나 그걸로 행으네 그 안내 저 거시기 숨 놓고 헤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짝깍 이 이런 뒤에 가려지게 만들언.

106037 #2 겨울에 눈 온 때나, 아무 집이나 경 멘들양 씨 아녀.

106037 #1 머리 우웨는 터져.

106038 @ 여름 모자엔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6038 #1 여름 모저는 페랭이베핀 더 이서?

106038 @ 페랭이예?

106038 #1 페랭이도 밀짚이나 보리짚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106038 @ 예. 옛날엔 밀짚이나 보리짚을 짚이렌 해수과? 짚이렌 해수과?

106038 #1,2 짚, 짚.

106038 @ 밀짚, 보리짚이렌 헛지예?

106038 #1 짚.

106038 @ 그때도 페랭이는 페랭이렌 굴아수과?

106038 #1 어, 페랭이.

106038 @ 아까 겨울 모저는?

106038 #1 후양. 거 집에서 하르버지덜이나 쓰는 모자주. 아무나 못써서.

106040 @ 양태는 뭐파? 양태.

106040 #2 양태가 뭇엔대헛 건ㄴ? 양태가. 이 제주도도 지방마다 다 틀리나네 말이 틀리난.

106040 @ 양태를 만들젠 하면 어떤식으로.....

106040 #2 양태면 저 거시기 말 아녀꽂? 익자, 익자 만드는 디 말 아닌가?  
 106040 #1 양태엔 허민 놀개신디, 페렝이 모양으로 무시거 이거 이신.  
 106040 #2 그런 건 어디 본 적 엇는다.  
 106040 @ 모자 일단 직접 만들어 봐수과?  
 106040 #1 아니, 그런 거는. 그 웨로는 저 무시거 병것, 털병것이 이서, 털병것.  
 건 비 올 때나 그런 때 쓰는 거.  
 106040 @ 예~.  
 106040 #1 털페렝이 모양으로.  
 106040 @ 털페렝이 모양으로예? 어~.  
 106040 #1 털병것.  
 106041 @ 총모자는 뭐꽂? 총모자.  
 106041 #1어?  
 106041 @ 이거는 말 뭇로 만드는 것 닻은디예? 총모자.  
 106041 #1 총모저는 몰총으로 만든디 우린 몰총으로 만든 모자 못 써봐서.  
 106042 @ 탕건은 만들어봤지예?  
 106042 #1 탕건은 저 이디서 옛~날에 우리 두린 때 누게 만들아낫젠 허는디 그  
 다음엔 그런 거 못 보고, 저, 어디 제주시예 어디 할림 이런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오는 건 늘 봐낫주. 사당으네 그거 씌도 허고.  
 106043 @ 그른 탕건은 만드는 거 안 봐시민 망건도 마찬가지로?  
 106043 #1 탕건이나 망건이나 마찬가지로.  
 106043 #2 안내 쓰고 베끼디 쓰는 거라.  
 106044 @ 비올 때 막 그 쪽으로 짠 걸 뒀엔 곶아수과?  
 106044 #1,2 우장.  
 106044 @ 우장 만드는 건 봐수과?  
 106044 #1 어. 나도 만들어봐서.  
 106044 @ 우장은 어떻 만들어수과?  
 106044 #1 새루.  
 106044 @ 새로, 예.  
 106044 #1 새 헤당으네 저 그 낭뎡이 짝 허게 그거 불량, 이파리만 헤서.  
 106044 @ 이파리렌 헤수과?  
 106044 #@ 새썸~.  
 106044 #1 새썸만 쪽~허게 모양 그걸 하나씩 이렇게 여끄면서.  
 106044 #2 여퍼가는 거주, 여퍼.  
 106044 #1 하나씩 으롱게 여끄면서 이어서 만드는 거주.  
 106044 @ 여끄는 걸 여핀다고 헛지예? 여퍼그네예?  
 106044 #1 어, 여평 허는 거.  
 106044 @ 그것도 짧은 거 잇고 긴 거 이신디예?

106044 #2 아, 겨난 그거 우장 만들젠 허민 새가 존 거라사.

106044 #1 새 하영 들어.

106044 #2 하영 들어. 존 거라사. 새쩍 가운데 물가리가 시난, 물가리 떼어비동  
쩍만헐거라부난.

106044 #1 물가리 그거 떼어동으네 허는 거나네.

106044 @ 음~. 게 그거는 그믐 새가 좋은 건데 다 말랏덴 험니까? 봄에 싹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예?

106044 #1 봄에 싹 아니, 가을 틀어그네 새 비여당.

106044 #2 가을 틀어그넝 십이월 달 뉘사. 첫눈 올 거리에 때 새 비주게. 눈 맞  
이명 새 비는 겨난.

106044 @ 음~. 아, 기구나예.

106044 #2 음~.

106044 #1 선들에. 선들 뉘사.

106044 @ 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허당보난 그만 세 신 확 지나부런예? 오  
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까예?

106044 #1,2 예. 아이고.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이제부터는 예? 밥 헤먹어난 거라예? 밥 헤먹어난 거에 대해가지고 말  
씀드리크라예?

107001 #8 어, 밥 헤먹어난 거?

107001 @ 옛날에 밥은 어떤 어떤 밥 이서수과?

107001 #8 그때 보리쌀.

107001 @ 보리밥.

107001 #8 보리밥 헤그넝에 그 거 떡곡.

107001 @ 또 무신 밥 이서수과?

107001 #8 그땐 큰 쫄이 산디, 산디쫄이엔 허여이. 이젠 큰 나룩쫄이주마는, 옛날  
엔 나룩쫄 이디 어서. 산디쫄이 곤밥.

107001 @ 곤밥 말고 또 무신 밥이 이서수과?

107001 #8 조팍.

107001 @ 조팍이 잇고 또?

107001 #8 흐린 조팍, 모인 조팍. 또 모물, 모물 팍은 안헝 먹어. 모물꺾루로 수  
제비 헤 먹는 거.

107001 @ 수제비 헐 때는 또 물어볼 거라 예? 밥 종류만 곱아줍서. 보리밥 잇고,

곤밥 있고, 조팝 있고, 흐린 조팝 있고. 또 뭐 이서수과.

107001 #8 뭐, 거베끼 어서서.

107001 ## 뇌쟁이 조팝.

107002 @ 밥을 해먹을 때 쌀 종류는 뭐 뭐 이서수과. 보리쌀 이섯고, 나록 말고 산디 이섯고, 또.

107002 #8 어,어. 산디쌀. 부챗칩이 베끼 산디쌀 어서서.

107002 @ 맞수다게.

107002 #8 흐린쌀만, 여름엔 보리쌀만 해영 떡곡, 겨울엔 또 조 갈앙 희린 좁쌀도 잘 어신 모인조팝, 모인좁쌀 밥맘 그거 행 떡곡, 밥 종룬 그거 뿐.

107003 @ 맞수다. 보리밥은 어떻 해수과? 보리밥 헐 땐?

107003 #8 보리밥, 보리쌀 낭푼에 놔그네 싯거그넵에 낵 학생덜 혼 저 막 일~칙 해영 그걸 낭불 땡 슣당봐도 그디 뭐 서끌 것이 어시난, 보리쌀만 우리 먹어난. 보리쌀만허민 학생덜 거렁 주젠허민 다르르르 허게시리게 밥이 웰 거라? 보리쌀 만이 난. 게난 그것만 해영 먹영 살곡. 겨울에 또 보리쌀 어서. 다 먹어비여. 게민 또 좁쌀.

107003 @ 조팝은 또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107004 @ 그다음엔예, 반지기밥은 무시거봐?

107004 #8 반지기밥?

107004 @ 예.

107004 #8 반지기밥, 산디쌀에 보리쌀에 서경, 그 부챗칩 사름이나 그거 영 반지기밥은 서꺼그네 행 먹는 거.

107005 2 그다음은 곤밥은마씨?

107005 #8 곤밥은 그거 그 산디쌀이 곤밥.

107006 @ 조팝은 어떻 해수과?

107006 #8 조팝은 모인좁쌀 살락 현 거, 희린좁쌀은 잘찰흐리지. 게난 그거 두가지주. 모인조, 희린조, 산디도 갈앙, 제서 때난 그거 곤밥행 먹주 미신 뎨 때 서경 먹을 것이 어서.

107007 @ 맞수다. 혹시 풋밥도 이수과? 풋밥.

107007 #8 어?

107007 @ 풋밥. 풋은 언제 낵 해 먹어수과? 풋밥, 풋, 풋.

107007 #8 풋? 아~,풋도 그뎨 막 어려운 시절이난 아무나 같지 아녀. 막 땅이 한 사름만 풋 갈앗당으넵에 겨울에. 가을 뎨 그거 장만해영, 죽도 썩 떡곡, 제서 때에.

107001 ## 음, 풋이렌 글지말고 그 때 이름을 말혀. 돛비, 돛비라고 헤가지고.

107001 @ 돛비로?

107001 ## 음, 돛비.

107001 #8 겨난 제사 때나 슣양, 쉬허젠 아경 먹질아녀. 하도 어려운 때난.

107008 @ 게민예 피밥은 어떻해수과?

107008 #8 피밥은 옛날에 그 저 조 같 때 여름에 이디 물 앓지민 조가 녹아비어. 계민 피를 이레 빼어, 경허민 피가 그레 조영 ㄹ찌 빼어.

107008 @ 아~.

107008 #8 이디 물 글라불민 조가 안 돼어.

107008 ## 좁쌀은 노랑고 피는 하양허여.

107008 @ 그때도 피렌 ㄹ라수과.

107008 #8 어, 피, 피.

107008 @ 계난 피밥.

107008 #8 어, 피밥.

107008 ## 피밥은 하양허여.

107009 @ 감저밥은 뭐과?

107009 #8 고구마, 고구마 그뎨 고구마, 좁쌀에 고구마 하영.

107009 @ 옛날말로 감저렌 ㄹ라좁서예.

107009 #8 어, 감저. 옛날엔 밧 두 개씩 놓아. 꿀 기창. 경허민 그 땅 파그넝에 그 감저 묻엇당 그거 파네영, 밥 헐 뎨 시성, 솟디다 썰어 낱 퀘영 익으민 좁쌀 놔 그넝에 밥 헤여.

107009 @ 아, 경헛구나예.

107009 #8 감저에 좁쌀에 서경으넝에 밥 돼주게.

107010 @ 경헛구나예? 늣뻘 썰어낱 늣뻘밥도 헤떡어나수과?

107010 #8 늣뻘 겨울에 국 끌러떡어.

107010 @ 국만 끌러떡어수과? 쓸에 서꺼떡진 안 헤수과?

107010 #8 늣뻘에 서꺼떡진 안 헤나서. 우리 대엔.

107011 @ 아까, 저 갯그시서 말 헐 때 툄 헤다그네 툄로도 밥헤떡어나수과?

10711 #8 툄밥, 툄밥. 우리 대엔 툄밥을 안 헤떡어난는다, 우리 옷 대 어른덜 얼 마나 힘들어나시코이. 툄밥, 우린 안 떡어뵈. 우리 대엔.

107011 @ 안 떡어봐수과? 기과?

107011 # 우리 옷대에 툄밥을 떡엇주.

107011 @ 툄밥은 어떻 헛니까?

107011 #8 툄밥은 그 툄 영 널영낫당, 널영 나두민 발강허게 헤영게 발아. 계민 깨끗헤여. 그거 영 썰어그넝에 솟디 낱 퀘민 아마도 그 좁쌀을 또 놓앙 영영 헵 물 맞창 밥을 만드는 쟁이라, 할망덜. 우리 대엔 툄밥 것가 어선는다 옛날 우리 옷 대에 경헛 떡언 살아서.

107012 @ 아, 예. 기과? 계민 패밥은 무시거과? 패밥.

107012 #8 무시거?

107012 @ 패.

107012 #8 아, 패? 팬 무평, 밧디 못 주서다그넝에, 주서당으넝에 장마 때 밧 갈 야그넝에 비 오라나사 으만씩 으만씩 헛 것가 막 헤영게 밧디 이서.

107012 @ 예, 예.

107012 #8 겐 그거 주서오민, 으 꼭지게 똑똑 쫄라당 곱~닥 허게 이제 내창에 강 씻어당으녕에 으추룩 항에 막 담아놔, 바당에 꽤 놔. 계민 씻어그녕에 바글바글 경허민 이디 저 ㄱ스락, 보리 장만해난 거 담양놔당, 이디 불살랑허민, 이것가 그 못, 겨민 이추룩 이디서 구어.

107012 @ 못?

107012 #\* 못, 밧디 강 주서당, 계난 난 아녀반디, 우리 어머니덜 어머니 그거 못 딱 해서. 경허민 계난 그거.

107012 @ 게 못, 못에다가 꽤 놔그네 끌려수과?

107012 #8 바글바글 췌가민 바당에 강 꽤 메당, 씻영 혼 불 혜영 논 건 버려동 또 씻영 이제 또로 또 놓양, 그거 먹곡, 그거 익으민 거 걸영 먹어.

107012 @ 아~.

107012 #8 또 이제 또 다음 또 꽤 쓰당 세 번을 곱아. 췌 번건 버려불곡, 두 번 차 거 먹곡 세 번차 것도 먹곡, 그다음 아렌 못이 그뻐 익어. 이제 영~혜영 불살라.

107012 @ 예.

107012 # 불살랑, 예를 들어서 이거 항이민 여기 놀겨주. 경허민 난 그거 아녀반디 는디 어머니덜은 그거 해서, 어머니덜.

107012 @ 예. 경헛수나예?

107013 @ 그 다음엔 국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7013 #8 국? 국은 ㄴ물국.

107013 @ 다른 국은?

107013 #8 다른 국은, 메역 철 나민, 바닷가에 강 메역 즈물아다그녕에 거 빨앙 췌어 낱, 또 메역국.

107013 @ 메역국 잇고예?

107013 #8 메역국 끌령, 그자 그것에 먹주. 반찬이 어디서, 반찬.

107014 @ ㄴ물국 끌릴 때 어뎡 끌려수과?

107014 #8 ㄴ물국? ㄴ물 씻어다그녕에 췌민, 예를 들어서 이거 솟이민 이래 놓 곡, 저 웬장이나 간장이나 이래 타냥.

107014 @ 타냥.

107014 #8 갱형,간 맞창. 갱형 또 췌영, ㄴ물이나 늪빼나 익으민 거 국 돼는 거.

107015 @ 계난. 콩나물 국도 끌령 먹어봐수과?

107015 #8 아이고, 그때 콩ㄴ물, 제사때나 콩ㄴ물 먹주. 기자 때 콩ㄴ물 먹을 수가 어섯주. 그 시절에~.

107016 @ 아까 그 못 세 번헤그네 마지막엔 먹엇텐 헛잖아예? 못은 국은 안 끌 려 먹어수과?

107016 #8 아니,아니. 먹지 못허는 거.

107016 @ 그건 먹지 못허는 거.

107016 #8 못 먹는 거. 경 세 번은 혜영 그 팽 돌아놔사 이디 못이 먹주. 독해그  
넝에 먹지 못허는 거.

107016 @ 늪뼤국은 어떻 끌렁 먹어수과?

107016 #8 아~, 늪뼤게 늪뼤 밧디, 이 땅에 갈앗당으네 늪뼤 메영 싯거그넝에,  
게, 영영 썰어그넝에 웬장 이추록 카 농곡혜영, 이렇게 썰어놔, 늪뼤 익으민 국 간  
맞게 혜영 국 돼는 거.

107016 @ 옛날엔 웬장국 끌릴 때 느돌국에다가, 늪뼤국 끌릴 때, 이제는 뽕치라  
도 낱.

107016 #8 아이고, 메리치가 어디서? 메리치가. 이제사 메리치 육지가민, 이 제주  
도도 메리치 안 나.

107017 @ 콩국 끌릴 땐 어떻혜수과?

107017 #8 어떻? 콩국?

107017 @ 예.

107017 #8 콩국 끌릴 때엔 언물에 그 콩ㄱ를 낭푼에서 탕. 이거 싯이민 이 물을  
끌릴 거 아냐?

107017 @ 예.

107017 #8 끌리민 영~ 이리 돼와그넝에 젓지도 안혜사 ㄱ만이 비와그넝에 그대  
로 불 막~ 족게 영~ 느민, 우의 두부 ㄱ찌 돼여. 경허민 이거 두부 이거 막 오래  
팔려야 돼여, 콩국은. 이제 국 거, 다 팔려지민 으래 배추나 늪뼤나 혼 짹더레 툃툃  
놓아그넝에 그 늪뼤 익으민 콩국이 돼여.

107017 @ 예.

107017 #8 경허민 그때, 이제 ㄱ뜨민 옛날에 국자라이?

107017 @ 예, 예.

107017 #8 이젠 삭구, 다 걸이는 거 나오주마는 것가 어디서, 낭국자, 낭으로  
영~ 행 만들앙, 영~ 행 사발러레 거러놔 그때 막 밥먹을 때, 아이고.

107018 @ 호박입국은 어떻 혜수과?

107018 #8 호박입? 호박입국은 툃아당 그 싯 영영영 베껴베동 물에놔 우터레 서  
도 싯끄지 안행, 판짜 싯겨동 물에서 복~복 복~복 영 ㄱ지려 영, 이대로 영~영영  
모지렁.

107018 @ 호박쌈을?

107018 #8 영영영, 호박쌈을. 경행 ㄱ지렁 싯드레 영 놓아그넝에 놓앙, 호박쌈은  
익으민 그레 ㄱ루 영~ 타그넝에 또 이레 비와야.

107018 @ 밀ㄱ루마씨?

107018 #8 어, 밀ㄱ루. 그땐 밀ㄱ루도 쟁ㄱ레에, 이젠 메밀ㄱ루도 시장, 마트에  
가민 막 천지. 그땐 그것도 어서, 정ㄱ레에 영 돌아사 ㄱ루가 나올 거 아니? 밀.

107018 @ 맞수다예.

107018 #8 경허민 그거예 체로 처그넝에 이디 우윗건 버려동 이디 ㄱ루 앓정. 아

무집이나 그것도 어서서. 막 얼마나 힘들게 우리 옷대에 살아서 우리 옷대. 나 대에 깎진 퀘치아넨디, 그 보리쌀만 먹어도 보리쌀만 먹어도 퀘치아넨디 우리 어머니네 대에 우리도 할마니네 대에 깎장은 웬간이 힘들엇주 살기가.

107019 @ 물망국은 어떻 끌려수과?

107019 #8 물망국?

107019 @ 예.

107019 #8 물망, 바닷가에, 아무데나 어서. 거 물망도 나는디만. 바닷가에 나는디만. 거 우리 거 오늘 바닷가 허는딘 물망 안 나. 으쪽으로만 거 나민, 것도 똑 겨울에만 나 이, 겨울에. 물망.

107019 @ 예, 맞수다.

107019 #8 우터레 민~작허민 그거 막 비어당. 그때 영영 속옷만 입영 즈물 때라. 그 물망 즈물 뎌.

107019 @ 소중의? 속옷 소중의.

107019 #8 어, 쏘중의 쏘중의. 쏘중의만 입영, 그거 물망 즈물아다그네 널영났당 물루민 또 씻거. 판칙 빨아. 빨아그넹에 썰영 국 끌렁 먹는 거~.

107019 @ 물망국엔 뭐뭐 낱 해수과?

107019 #8 ㄹ루, ㄹ루.

107019 @ 것도 ㄹ루?

107019 #8 ㄹ루 ㄹ루, ㄹ루 허꺼야 것두. 기잔 못 먹어 찌르륵 탁 헤영으네 맛이 어서.

107020 @ 게민 그다음엔예 물레기, 레기들은 무시걸로 극 끌려나수과?

107020 #8 아이고, 레기덜은 우리 성계 까난디 잊지? 저디 매 뎌디. 그디가 개맛이라. 개맛이영 헤여, 개맛. 배 메는디가 개맛 허민. 그 보제기덜이 레기 잡아당.

107020 @ 무신 레기?

107020 #8 생성, 우력, 조기, 갱행 주낫 행 강, 주낫. 그거 행 강 잡아 오민, 그것도 부젯칩 돈 이신 사름이나 그디 가그네 레기 뗏 웨연지로, 웨영 폴아.

107020 @ 게, 무신 국 무신 국 끌려나수과? 그걸로.

107020 #8 계난 그것이, 그거 행 사당.

107020 @ 생성 말고 다른 국 안 끌려나수과?

107020 #8 다른 거 무신 물망국이나 ㄴ물국.

107020 @ 아니,아니. 물고기 종류로?

107020 #8 아, 그, 물고기 종류로? 그거 해당 거 사당 생성 사당 메역 빨아놓국 국 끌려.

107020 @ 생성 말고 다른 말 걸 뭐렌 곶아나수과?

107020 #8 판 거? 우력.

107020 @ 아니, 생성을 옛날엔 뭐렌 곶아수과?

107020 #8 생성 ㄹ란 올테미, 올테미.



107020 @ 올데미예?

107020 #8 이젠 옥돔이엔 ㄹ라도 그땐 올데미.

107021 @ 그다음엔 메역으로 국 끌릴 땐 어떻 끌려수과?

107021 #8 메역 빨아그네게 이거민 장 이디 놓아그넵에 민 간 맞창.

107021 @ 장물로?

107021 #8 장물이나 웬장이나 건 이녀 자유.

107021 @ 아~ 기파?

107021 #8 물에 판~쩍 빨아그넵에 과닥허게 접지랑 똑똑허게 썰영, 으레 특허게 낱, 끌리민 메역국 텔 거.

107022 @ 냉국에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

107022 #8 냉국은 그 메역국 허곡, 느물국 허곡, 무시거 또.

107022 @ 물웨 ㄹ튼 거 타당 안헤수과?

107022 #8 아~ 여름엔 여름엔 그 웨도 마트도 어시난 웨도 어서서. 이 부젯칩 사름이나 그거 이 영 현, 우연네 웨도 여름에 낫당 그거 타당 웨 썰영 냉국, 냉국.

107022 @ 웨냉국. 그니까 아까 메역냉국 잇고예, 웨냉국 잇고예, 그다음 냉국 종류 뭐이수과?

107022 #8 무시거 종류 그것뿐. 거주, 무시거 이서? 흐쟁허민.

107023 @ 성계국은 어떻 끌려떡어수과?

107023 #8 이제 성계 하도 비싸난.

107023 @ 옛날에.

107023 #8 아, 옛날에 성기가 그 아이고, 그 물 싸민 곳으로 가그네 거 잡아당으네.

107023 @ 성계가 아니라 뉘렌 곶아수과?

107023 #8 성기, 저 거시기 귀, 귀.

107023 @ 귀 이름도 다른 거 잇잖아예?

107023 ## 숨, 숨.

107023 #8 숨은 쪼끌락 현 게 숨이고.

107023 @ 아, 죽은 게 숨이고? 가시 와작 현 건?

107023 #8 우리 까는 건 옛날엔 귀.

107023 @ 계난 귀국 끌릴 때 어떻 끌려수과?

107023 #8 어떻 그거 아이고, 그 으물만 똥은 버려두고 으물만 사발에 놔그네게 메역 빨아놓곡 끌려, 이제 막 팔팔 끌려 가민 그거 영 솔으레 비영, 영영 저서 가민 성귀국 웨는 거.

107023 @ 보말국은 어떻 끌리는 거파?

107023 #8 보말국은 물 싸민 막 영 돌 일러사 그 보말이 이서 옛날은. 이젠 나와도 그땐 안 나와라이.

107023 @ 기파~.

107023 ## 그 즈믄 ㄹ메기라는 게 잇지.

107023 #8 ㄹ메기 그거 잡아당 영 막 들썩들썩들썩들썩 물 농곡, 이 저 양제기에 낱 영영 헤영, 헤영 이레 비와사 또 메역 놉.

107023 @ 거믄 간은 뭐로 헤수과?

107023 #8 간? 간장으로 간은 그거 뿐.

107023 @ 너패국은 어떻 끌려수과?

107023 #8 아, 옛날에 너패도 바다에 막 나뉘져. 잘 아람져이?

107023 @ 너패국은 어떻 끌려수과?

107023 #8 아, 너패국은 너패 메당, 것 막~ 보벼그넝에 그거 저, 든물에 빨아. 빨 아당 솟디 호~은 솟 낱, 낱불 떼영 딸리민 그것이 문데~기 익어. 겨민 그자 낱당, 국 끌릴 땐 이레 영 비와농곡, 기자 많이 끌리젠 허민 그걸 하영 거려농곡, 족게 끌리젠 허민 쪼끔만 거려 낱 족게 끌리국, 경행 너패국 끌리는 거 경행.

107023 @ 너패국엔 간은 뭘로 헤수과?

107023 #8 ㄹ루 카농곡 간장 농곡.

107023 @ 가시리로도 국 끌려나수과?

107023 #8 어, 옛날에 기시리도.

107023 @ 가시린 뉘렌 ㄹ라수과, 가시린?

107023 #8 가시리 ㄹ라 가시리엔 헛주. 무시거 어서 거.

107023 ## 싯거리엔 헛주, 싯거리.

107023 #8 싯거리? 난 그말은 잘 몰라 난 안 들어나나부난.

107023 @ 무시거마씨?

107023 ## 풀 허곡, 막 딸려서.

107023 #8 이젠 그거 바당에 안 나.

107023 @ 옛날에 가시리국 어떻 끌려수과?

107023 #8 게메, 국 끌려 먹는 거, 이젠 안 난텐허난.

107023 @ 게난, 옛날에 어떨 끌려먹어수과?

107023 #8 아 아, 그때. 빨앙, 영 솟더레 낱 기자 간 맞창 기자 먹엇주 무신, 어 땡은 어떻.

107023 @ 저 흑시 파래도 이서수과?

107023 #8 바당에 이서, 이제도.

107023 @ 파래는 뉘렌 곶아수과?

107023 #8 파래? 이제도 프레.

107023 @ 프레국 끌릴 땐 어떻 헤수과?

107023 #8 아니,아니. 프레국은 아년.

107023 @ 안 끌런?

107023 #8 아, 나 영 그 보난, 옛날 할망덜 지봉 우의 막 널엇당 비오민 것가 헤 영케 바라. 막 먹엄직헤여. 경허민 밥 건즙 다 뉘가민 그 프레 거더다그넝에 막 환

찍 빨아드그넵에 밥 우터레 솟 영 올앙 우터레 막 써꺼. 우린 거 안 먹어반.

107023 @ 안 먹어반?

107023 #8 할망덜 허는 거만 반. 흥민, 밥 풀 땀 박박 저서. 막 영 서티그넵에 걸 흥민 우린 못 먹어. 어릴 때난 맛어성.

107023 @ 맛어성.

107023 #8 못 먹어. 봄만 해서 건.

107023 @ 그다음 자리물훤 그튼 거 이섯잖아예?

107023 #8 어~, 자리물훤 잇주게.

107023 @ 물훤 무시거 뉘뉘 이서나수과? 자리물훤 말고 또 뉘이수과?

107023 #8 비께. 옛날엔 바닷가에 비께, 비께. 비꼈 경 우리어머니네도 막 해너 라. 막 잘 해나서. 그 쭙는 거 소살 잇지?

107023 @ 예.

107023 #8 그런 거로 가그넵에 쏘아다그넵에 가죽 벳경, 그 훤거리덜 헤여. 동넛 어른덜 다 안네여.

107023 @ 비께가 무신 거짜?

107023 #8 비께, 비께. 훤 거리. 이제 그거 어서.

107023 ## 상어여 상어. 상어 새끼.

107023 @ 아, 존다니마씨?

107023 #8 아니,아니.

107023 @ 비께하고 존단인 달른 거짜?

107023 #8 어, 달라. 이제 비께 씨저서.

107023 @ 아, 어서예?

107023 #8 이만 썩 허주, 큰 거.

107023 @ 아, 기과?

107023 #8 이만이 커. 이만이(두 팔 벌리며)커. 경흥민 그것이 사름 물민 안 네비 여. 그 슬 키차정 나와야. 겨민 거 봐저도 서시지 못헤여, 므수와. 물어 불카부텐.

107023 @ 물어 불카부텐~.

107023 #8 으, 우리 어머니넵 소살로 쏘왕 헤와나서.

107023 @ 거 잡아당 동네 갈랑 물훤 헤떡엇구나예?

107023 #8 어, 물훤 헤떡곡, 이디 우리 아버지 산 때 경흥민 그르민 가죽 벳경 그 막,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비언. 젊을 땀 걸 막 좋아헤나난. 그르민 우리 어머니가 그르민 아버지가 강 가죽 벳그네 거 저 비께 가죽 벳경 아버지도 아저와낭거 얼무시 알아저.

107023 @ 기구나예?

### 죽류

107024 @ 이제는 죽에 대해서 여쭙보크라예?

107024 #8 어?

107024 @ 죽, 죽. 죽은 어떤 종류덜이 이서수과? 죽 종류덜.

107024 #8 아이고, 죽도 보리쌀 낱 둠비죽도 썩 먹고, 팏죽도 팏을 슬망 영 피영, 산디쌀 낱 죽 썩민 맛이 좋주마는 산디쌀이 어서. 보리쌀 낱 썩민 그 기자 팏 달각 달각행 죽도 맛이 어서.

107024 @ 맛이 어서.

107024 #8 경해도 그거 흔 때 먹영 넘어가는 거라. 넘어 가.

107024 @ 그른예? 이제 죽 종류 쪽 여쭙보크라예?

107024 #8 어.

107025 @ 곤죽은 어떻 쏘니까?

107025 #8 곤죽? 곤쌀, 건 흰죽이엔 허여 흰죽.

107025 @ 맞수다.

107025 #8 그건 며, 아픈 때나 썩 먹주. 영 성헌 때 그거 아이 먹어.

107026 @ 조축은 어떻 끌러수과?

107026 #8 조축도 그거 쓸 때에 기자 기냥 놓아그네, 물 하영 낱 좁쌀 노민, 막 오래 딸러가민 죽이 돼여. 경허민 죽 썩, 겐디 우리 그거 잘 아이 먹언디, 옷대에 어머니덜은 경헌 먹어서.

107027 @ 팏죽은마씨?

107027 #8 팏죽도 팏 쏘마그넵에 물씩물씩 무르테겨그넵에 젓, 물 막 하영 놔그넵에 쓸도 그때 씻영 곤쌀만 낱 좋주마는 보리쌀 농곡, 곤쌀 농곡 행 죽 썩민 맛이 어서. 곤쌀만 낱 썩시민 맛이 이섯주마는. 겐디 우린 두린 때라부나네 먹지 못행 안 먹어나서.

107027 @ 게도 이젠 동지 때 지금 팏죽은 드섬수과? 동짓날.

107027 #8 동짓날?

107027 @ 예.

107027 #8 아니, 우린 못 썩어도 절에서 노인덜이엔 우리 영 들리 이시민 여기 툃툃현 그릇에 두 개 아저와. 경 아저오건디 흔 삼년 돼서. 저 절에서.

107028 @ 음, 콩죽은 썩먹어 봐수과?

107028 #8 어?

107028 @ 콩죽.

107028 #8 콩죽?

107028 @ 예.

107028 #8 콩꺾루 곱아당, 콩꺾루 곱아다그넵에 저 영영 꺾루 카. 우터레 툃~ 허게 비와. 젓지 말아사. 젓으면 저 콩꺾루가 어디 간중 블라.

107028 @ 콩죽에 거민 콩꺾루 말고 쓸은 뭐 놔수과?

107028 #8 곤쌀.

107028 @ 아, 곤쌀.

107028 #8 곤쌀 이시민 곤쌀도 농곡, 보리쌀 농곡, 좁쌀도 농앙 쓰곡. 좁쌀에 보리쌀에 농앙 쓰민 원 난 두린 때 그거 얼무시 알아지는데 난 맛 여성 안 먹어난.

107028 @ 그믐 콩죽 안 썬수과? 나중에?

107028 #8 무사 안 썬어?

107028 @ 삼춘 쌀 땀 어떻 해수과?

107028 #8 나 쌀 땀 곤쌀만 낱. 영 글아그넵에 죽 저 콩꺾루 영 타그넵에 영~ 놓아그넵에 잘 짓지 말아사. 막 저서불민 그 콩꺾루가 어디간줄 몰라.

107028 @ 콩죽은 쌀 다 익은 다음에 놓는 거과? 콩꺾루는.

107028 #8 아니, 미리 낱 딸려야 돼여.

107028 @ 딸려야 돼여.

107028 #8 딸려야 코썬허주.

107028 @ 딸려난 다음에 쌀 놓는 거과?

107028 #8 어. 딸린 다음에 쌀 썬영 놔사.

107028 @ 예~.

107028 #8 저 죽도 허주. 원 맛 어서.

107029 @ 모물죽은 어떻 끌려수과?

107029 #8 아, 모물죽? 모물죽 쌀 때? 막 시워. 물 끌리민 모물 놔그네 흐쌀 딸리민 모물죽 돼주. 흐쌀 끌리민. 아이고 모물죽 아무나 이서서, 그때 옛날에.

107029 @ 아, 모물이 귀한 거여수과?

107029 #8 으, 농사 지어그네게 땅이 이서사 농사 질 거 아니? 땅 이신 사름이 뭇 개라? 땅 여성 농사 짓지 못허주.

107030 @ 계난예? 기구나예? 녹디로는 죽 끌려나수과?

107030 #8 녹디?

107030 @ 예.

107030 #8 녹디도 이서낫주게.

107030 @ 옛날 녹디는 녹디렌 꺾라수과? 여기선 뭇렌 글아수과?

107030 #8 기자 녹디. 옛날은 으라가지 녹디 일름이 어서, 녹디.

107030 @ 녹디론 어떻 죽 끌립니까?

107030 #8 이제도 숭아. 숭아그넵에 푹 허게 익으면 따시 물 흐깁 영 많이 농곡, 쌀 씨경 그래 낱게 막 끌리민 녹디죽 돼는 거. 간단해 녹디죽은.

107031 @ 득죽은 끌렁드섬수과? 요즘.

107031 #8 풋죽?

107031 @ 득, 득죽. 득, 득으로 끌리는 거.

107031 #8 어, 득~. 아이고, 옛날엔 빙아린 집이서 영 깨왕, 그 빙아리 키왕, 유월 쭈무 날, 그땐 득 잡아먹는 날 아니?

107031 @ 맞수다.

107031 #8 유월, 경허민 검질메당도 그날 흐룬 쉬어. 득 잡아먹젠.

107031 @ 아~.

107031 #8 저, 어머니덜투 저 쉬렌허곡, 그날 흐룬. 그날은 독 서너 머리 집이서 질루다그네 서너 머리 잡앙.

107031 @ 서너 머리씩이나?

107031 #8 응, 숙구가 뗏 개라?

107031 @ 맞수다예.

107031 #8 흐 대으숯 식구 웨는다.

107031 @ 맞수다예.

107031 #8 우리 두린 때난 아기덜 우리 클 때나네 언니덜투 시집 아이가곡.

107031 @ 게, 독은 누가 잡아수과?

107031 #8 어머니.

107031 @ 어머니가?

107031 #8 아바진 나 열 설에 아바진 돌아가부런.

107031 @ 아이고, 어머니 뗏 오누이 키워수과?

107031 #8 어머니가 물질을 경 잘히여. 경허민, 켄디 우리 성할마니가 경 좋아.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셋 메누리라. 게도 그 씨어멍이 우리 성할망이 똑 바닷가에 가랭만 허여. 그 보리 헐 때라도. 네비동 가렌. 하도 어려운 때난게. 겨민 그때 전복도 막 지픈디 가그네 막 이만씩 허주.

107031 @ 게메 경헛덩 허명예?

107031 #8 경허민 그뻘 흐 냥쥁, 두 냥쥁 헤서. 어머니네 전복 잡앙 풀 때엔.

107031 기짜~?

107031 #8 게민 할머니가 어머니 와서민 ‘오늘은 뗏 냥쥁이나 헤시니?’허민 ‘땃 냥쥁 헤수다.’ 할마니신디 어머니가 메누리라도 다 ㄱ라, 씨어멍신디. 경, 게난 막 의가 좋아, 할망덜이. 저 셋 메누리영. 셋 아들, 어린 때 아바지 죽어비연.

107031 @ 독은 잡으면 그 시집 식구덜이영 다 불렁 ㄱ찌 먹언예?

107031 #8 영, 다 불렁 다 ㄱ찌.

107031 @ 아, 그렛구나예.

107031 #8 경허명 그 시절에 경헛주. 게난 일 년에 ㄱ때 흐 때 그날 흐루 쉬는 거라. 일허레만 가비연. 무신 우리 학교 텅기곡 헤서~?

107031 @ 쟁죽은 끌려 먹어봐수과?

107031 #8 쟁이죽, 무사 아녀. 쟁이도 잡아당 물에 흐룻밤 으레 낱 등강.

107031 @ 쟁이죽 말고 쟁죽이렌 헤그네 막 폭 같은 거랑 뜯어당 풀죽처럼 행 먹는 거.

107031 #8 아니, 그런 건 우리 어서났는다.

107031 @ 어서수과? 경헛구나예?

107032 @ 아까 쟁이죽에 대헛 곁아줍서. 어떻 써수과?

107032 #8 쟁이죽? 물에 덤갓당, 영 차반지에 거렁 물 빠지우민 방허게 쟁이를

영 막 백사.

107032 @ 든물에 담팍당?

107032 #8 으으으. 이제 물에 듬팍당, 싱거운 물에 흐룻밤만 헛당 건저그넵에 막~ 영~ 복작 백상 그 물 짜 놔.

107032 @ 아, 물로만.

107032 #8 응, 그 물 영행. 그 주시사 까닥까닥 행 먹어저게? 물 영행 짱 으레 비우곡 또시 영 행 시경 물 또시 솟드레 비우곡 헤영, 그 물로만 백사. 꺾테기사 먹어저게? 빠들락빠들락헤영.

107032 @ 맞수다예.

107032 #8 경행 허민 경행 그레 솔 씻어 느민, 딸렁 오래영 낭플 땡 딸리민 쟁이 죽이 되는 거~. 무시거 탄 거 안 놔.

107032 @ 맞수다.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엔예,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행 여쭙보크라예?

107034 #8 아, 범벅?

107034 @ 예.

107034 #8 범벅은 젓, 겨울에 구텡이에 감저 팡 영영 묻엇당, 막 영영 팡 뭐 우리 젓, 형제간들 여라이난 난 실평 잘 아네난. 언니덜 이션. 영 이영헌 스굽에 묻엇당 막 집 영영영 하나씩 파네영 씻겨그넵에 꼽닥허게 벳겨그넵에 이만씩 이거민 두 개씩 썰영 솟디 놔그넵에 폭 솟아, 폭 솟아그넵에 그 감저가 익으민, 물 하민 딸라동, 딸라동 이 우터레 ㄱ루 놔. ㄱ루낭 아뤄도.

107034 @ 무신 ㄱ루마씨? 그냥 밀ㄱ루?

107034 #8 그때 밀ㄱ루. 밀ㄱ루 정ㄱ레에 곶아.

107034 @ 예~.

107034 #8 거 밀도 아무집이나 어서. 아무집이나 어서. 옛날에 보린 아무집이나 이서도. 정ㄱ레에 ㄱ랑 올로 ㄱ루 나오민 헛당 체로 칭, 그 ㄱ루에 물캉 이레 영, 놔비연.

107034 @ 경행 범벅 행 먹엇구나예? 저, 감저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안 행먹어 수과?

107034 #8 아, 감저범벅은 젓, 우리 나대에 잘 안 먹어반.

107034 @ 거난, 감저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어서수과?

107034 #8 무사, 모믈ㄱ루로 저, 느쟁이. 모믈 정ㄱ레에 곶아나민 그디 느쟁이이가 이서. 그걸로 감저 농곡 감저 낭 막 익으민, 느쟁이 ㄱ루 이레 놔그넵에 이제 ㄱ트민 혼 삼 분 헤영 꺾민 또시 남죽으로, 남죽 이마~니 현 걸로 솟디서 막 저성 빙빙 허민 범벅이 웨어.

107034 @ 거민 느쟁이범벅이 맛좋아수과, 감저범벅이 맛좋아수과?

107034 #8 그, 느쟁이가, 느쟁이로 놓양, 느쟁이로 놔그넝 허주.  
 107034 @ 게, 어느게 맛좋아수과?  
 107034 #8 아이고, 느쟁이에 감저 범벅은 막 잘 어서.  
 107034 @ 기파?  
 107034 #8 느쟁인 거 모물쭈 돌아난 찌께기라, 찌께기. 거 흐민 것도 경 아무집 이나 이서~?  
 107034 @ 계난예?  
 107034 #8 흐김 영 살양, 땅이영 이서사 그런 것도 잇주.  
 107034 @ 맞수다.  
 107034 #8 잘 어서서 그거.  
 107035 @ 여기서는 수제비를 뭐렌 곶아수과?  
 107035 #8 수제비? 저베기.  
 107035 @ 저베기. 저베기는 어떻 행떡어수과?  
 107035 #8 이, 저베기. 모물꺾루로 저베기 흐젠 흐민 솟디 물만 낵, 삭삭 퀘민, 퀘민 꺾루 이레 낵 영영 저성, 이레 딱딱딱딱 기차 농곡.  
 107035 @ 모물저베기 말곡 다른 저베긴 뭐 이서수과?  
 107035 #8 다른 저베기 미시거 어서서. 모물처베기 말고. 탄 걸로 저베기 허젠 헤도 어서. 탄 거 허젠 흐민 칼국.  
 107036 @ 칼국에 대행 꺾라줍서. 칼국은 어떻 헤수과?  
 107036 #8 물 삭삭 퀘민 꺾루 아레 영 비왕 박박 이레영 꺾민, 이 손 주떡 꺾찌 땅땅 헐 거 아니?  
 107036 @ 예.  
 107036 #8 계민, 영영영 밀영, 딱딱 찢라게, 칼로. 푹푹푹 영영영 썰어.  
 107036 @ 칼국에는 뭐 놓아그네 떡어수과? 맹물 말고.  
 107036 #8 간장.  
 107036 @ 간장만?  
 107036 #8 간장, 늘 것이 어시난 간장베찌 늘 거 어서. 아, 늣뻘 늣뻘.  
 107035 @ 늣뻘 놓고.  
 107035 #8 늣뻘 흐썰 농곡.  
 107035 @ 닭이나 꿩, 이런 건 안 놔수과?  
 107035 #8 어, 그거 뿐. 모물칼국 헐 때, 늣뻘나 그레 놓주, 그거 뿐 놔. 무시거 늘 거 어서.

## 김치

107037 @ 그다음 김치에 대해 여쭙쿠다예? 김치는 무신 무신 김치 이서수과?  
 107038 #8 아이고, 그 때 우연네 배추 같아.  
 107038 @ 배추? 배치?



107038 #8 녹말.

107038 @ 녹말예?

107038 #8 녹말, 우연네 갈아그넵에, 거 아무집이나 이서? 그 김치 녹말. 옛날 징꾸엔 해서.

107037 @ 징꾸예?

107038 #8 징꾸엔 헤그넵에 저, 소금에 죽엿당 바닷가에 강, 이디 물도 어서서. 지영 강, 바닷가에 강 씻어. 씻영 오랑, 무신 저 고치ㄴ루도 솟디서 보깡 고치. 갱형, 방우루게 뺏상, 체루 처. 갱형 고치ㄴ루도 갱헤그네 고치ㄴ루도 만들앙. 이젠 김치엔 헤도 그뻐 짐꾸. 갱형 영행 항에 담앗당. 대산인 그때 땅만 시민 심그난. 대사니 허궂 고치만 놓주, 무시거 놀 거가 이서.

107039 @ 열무짐꾸도 잇잖아예?

107039 #8 아, 열무?

107039 @ 예.

107039 #8 열무 이제 여름에 갈앗당 헤두, 열무.

107039 @ 옛날엔 열무 뭐렌 굴아나수과?

107039 #8 옛날에 열무 어서나서. 옛날엔 우리 두린 뻐.

107039@ 이젠 열무렌 햅주마는 으 열만 전까지만 헤도.

107039 #8 늣뻐, 늣뻐.

107039 @ 늣뻐?

107039 #8 여름에 가는 늣뻐. 늣뻐엔만 헤나서.

107039 @ 기구나예? 늣뻐김치는 나중에 물어보고, 그믐 열무김치는?

107039 #8 아이고, 열무김치 우리 아녀 받.

107039 @ 안 헤떡어판예?

107039 #8 이서사 만들주.

107040 @ 물김치는 어떻 헤수과?

107040 #8 아, 물김치도 우리 잘 만들 충 물란게. 똑똑 얇게 썰어그넵에.

107040 @ 무시거 얇게 썰어? 늣뻐?

107040 #8 늣뻐. 늣뻐 똑똑 으추룩 썰어. 이추룩 썰어그넵에 저, 영영 소금을 탕 그레 빡곡, 무시거 양념은 무시거 이서? 소금물 타곡 그레 늣뻐 썰어 놓곡, 갱형 영물 비우곡, 갱형 어떻 어떻 행 떡엇주. 그때 무신 미원이 나서 무시것가 이서? 고추도 잘 어서난는다.

107041 @ 녹말 동지 짐치는 어떻 헤수과?

107041 #8 아, 동지짐치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에 죽엿다그네 건저그넵에 기자 고치나 흐썰 버무리곡 헤그넵에 저, 그 대사니 그 저 대사니 ㄴ라 저, 콧대사니, 콧대사니에 고치 흐썰 서경, 영영 행 버뜨령 떡엇주 무신, 옛날엔 무신 양념이 이서서?

107042 @ 늣뻐김친 어떻 헤수과?

107042 #8 늣뻐김치도 그뻐 으 크게 썰어. 크게 썰영, 소금에 담갓당, 건정, 이에

뜻시 물 빠지면 기자 그디 고치ㄴ루 흐깁 농곡, 소곰 영영 버무렁 무시거 콥대사니  
나, 콥대사니 뺨사그네 흐깁 농곡. 늘 것가 무시거 이서시니? 그때~.

107042 @ 맞수다.

107042 #8 대사니흐곡, 이제 콥대사니흐곡 소곰베피 그때 어섯주.

107043 @ 맞수다. 파김치, 파를 옛날 뒤렌 곶아수과?

107043 #8 저기 거시기 패마농 패마농.

107043 @ 패마농으론 김치 어떻 담가수과?

107043 #8 패마농김치도 아년 먹어서 아년.

107044 @ 그른 꿩마농으론?

107044 #8 아, 들에 마농 그땐 막~ 하.

107044 @ 그때 들에 마농은 뒤렌 곶아수과?

107044 #8 그땐 드룻마농.

107044 @ 드룻마농 맞아.

107044 #8 그땐 밧디 막~ 좋안 그것가.

107044 @ 아, 드룻마농이?

107044 #8 어, 게민 구덕으로 흐나씩 케당 저 바닷가에 강 시서그넵에 기냥 흐  
쭈쭈 헤영 기냥 깝깝 담양, 집에 오랑 단지에 담양, 그 우터레 소곰을 탕 영~ 우터  
레 흐깁 영 비왕 ㄴ만이 나두민 흐깁 노리롱허게 익으민 기자 먹엇주. 양념이 어디  
서, 어이고.

107045 @ 그다음 흑시 갯노물로 김치 헤먹어봐수과?

107045 #8 아, 갯노물? 갯노물도 난 잘 헤보지 아년. 갯노물도 물, 기자 단지에  
썰어그네 담야. 물, 소곰물 탁 꼬려그넵에 으레 비왕 두께 더경 놔뒤그넵에 흐 이틀  
이나 이시민 게민 영 그거 노리롱흐민 기자, 기자 먹는 거.

107045 @ 갯노물도 기자 갯노물이렌 곶아수과?

107045 #8 갯노물 기자 갯노물, 딴 거 무시거 어서.

107046 @ 세우리론 김치 헤먹어봤지예?

107046 #8 아, 세우리?

107046 @ 예.

107046 #8 아이고, 세우리김치 헐 생각? 거 톨아당 흐루 흐 번씩 장 꿩와사. 그  
때 웬장만 먹을 때난. 무시거 서?

107046 @ 웬장에 게믄?

107046 @8 세우리 썰어놔. 세우리 썰어놔, 나 두린 때 얼무시 알아져. 똑 난 그  
때 두린 때난 밧디도 아이가민 꼭 어두거가민 세우리 톨아당 장, 항에 큰 항에 돕  
으민, 그 웬장에 흐끔 웬장 흐나 거려다 농곡, 형 그 세우리 썰어놔 장 꿩왕 놔뒤  
사. 꿩왕 놔뒤사 언니덜 밧디장 오명 저녁 먹고. 듯날 아치기 아침밥 먹곡. 게 무시  
거 먹을게 이서 그것뿐이주.

107046 @ 맞수다예.

107046 #8 물 흥곡.  
107046 @ 맞수다.  
107046 #8 물에 보리쌀.

### 젓갈

107048 @ 그다음,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니까 그 젓갈 같은 거 자리젓 같은 거 담양 먹었지예?  
107048 #8 무시거?  
107049 @ 자리젓.  
107049 #8 아, 자리젓도 그땐, 우리 그땐 잘 어성, 막 우리 흥김 역아사 그 자리젓도, 기자 자리 늘차 그땐 막 거려다그네. 그땐 자리도 바당에 하난 생이라. 자리.  
107049 @ 예.  
107049 #8 그땐 것도 우린 우뜨르난 잘 어성, 바당, 그 개맛디 사례 가, 그거.  
107049 @ 맞수다.  
107049 #8 가민, 서너 말 사다그넵에 소곰 버무렁 향에 각각 담양 놔두민 자리젓, 그 젓.  
107050 @ 멜젓은 안 담가수과?  
107050 멜젓, 멜젓. 멜 들엇쟁 허민 드라장 보민 문 헤비영 귀경도 못헛젠 허난, 우린.  
107051 @ 맞수다예. 근데 혹시 아가미, 아감젓이라고 해서 안 헤봤고예?  
107051 #8 그런 것도 어서서 이딘.  
107052 @ 그다음엔 예? 쟁이로 젓 헤나수과?  
107052 #8 어, 쟁이젓도 허주.  
107052 @ 쟁이젓은 어떻 헤수과?  
107052 #8 쟁이, 저게 물에 담갓당게 방아게 딱딱 뻥상, 소곰 이레 낱 버무렁, 으레 담양 놔두민 쟁이젓 되는 거~. 쟁허민 기자 먹는 거~. 그 무신 거 나놔서~.  
107054 @ 게민 밥상에 출레론 뭐뭐 놔나수과?  
107054 #8 아이고, 김치허곡 국 허곡, 상 출리젠 흥민 간장이나 농곡.  
107054 @ 예~.  
107054 #8 김치 농곡, 국허곡, 밥허곡.  
107054 @ 자리젓 이실 땐 자리 놓고.  
107054 #8 어, 자리젓 시민, 어 것도 부젓칩이나 쫓주, 가난헌딘 자리젓도 어서.  
107054 @ 자리젓도 어서나수과?  
107054 #8 젓갈 이시민 젓갈이나 흥쌀 농곡. 상 출릴 땐 그것 뿐.

###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른 이제는 예, 장아찌도 담강 먹어놔잖아예?

107055 #8 아이고 그때 장아찌 어서난.  
107055 @ 아무것도 어서수과?  
107055 #8 응. 어서선, 장아찌.  
107055 @ 무신 마농 장아찌나 대사니 장아찌도 어서수과?  
107056 #8 마농, 마농지, 그땐 마농지엔 해서.  
107056 @ 마농지면 마농 그 저.  
107056 #8 그 들에 강 마농, 그땐 막 드르에 마농이 경 좋아난. 집이 안 싱거도 경 좋아난. 이젠 저레 다 하우스 해부난 땅이 원 엇주마는 그땐 우리 오라난 저펜 이 경, 그때 조 갈아냥 그 땅을 기냥 네비아. 조만 헤 아상. 그 땅.  
107056 @ 예.  
107056 #8 겨민 그디 마농이 막 미얏헤여.  
107056 @ 그거 얘기하면 마농은 아까 드룻마농 얘기려는 거지예?  
107056 #8 어, 드룻 마농 그거.  
107056 @ 드룻마농으로만 장아찌 헐 예?  
107056 #8 어, 어. 드룻마농으로만 그것 장아찌 헐 허주, 집이 마농으로 장아찌 잘 아네반.  
107057 @ 휘 종류는 뭐 이서수과?  
107057 #8 휘 종룬 거 자리나 사다그넝에 자리훼나 허주.  
107057 @ 아까 무신훼?  
107057 #8 자리훼.  
107057 @ 자리훼 말고 또 하나 이서수께.  
107057 #8 빗개훼.  
107057 @ 아, 빗개훼.  
107057 #8 이젠 빗개, 바당에 빗개 씨 젓주. 옛날에 바당에 빗개두 잇곡, 폐선(표선)이 시장에두 가민 막 빗개가 이섯는디 이젠 그 씨 저비언.  
107057 @ 게민예 그다음엔 물고기로 헤가지고 퀘기 잡양오면 훼나 물회로 헤 먹 엇덴 헛잡아예?  
107057 #8 으, 으으. 물훼 헤먹엇주.  
107058 @ 그믐 우럭 ㄹ튼 건 안 잡아 먹어수과?  
107058 #8 우럭, 여름에 두린 때 나까당 나까당으네. 그 말 ㄹ라봍서. ㄹ망 우럭 나까난 거.  
107058 @ ㄹ라봍서.  
107058 ## 옛날에는 저 코생이란게 이서, 코생이.  
107058 #8 이젠 코생이 어십니다, 바당에.  
107058 ## 게메, 코생이 이서가지고, 바늘로 낙시 멘들어가지고 게민 낙시 으 줄 에다가 세 개난 두 개나 이어가지고 바당에 가서 걸 낙는데 잘 낙는 사름은 그 핑 장히 많이 낙가.

107058 @ 낙강 왕 걸로 졸여먹어수과?

107058 ## 그렇게 들이치민 막 모여드니까.

107058 @ 거니까 졸여먹언마씨? 집에 왕. 보간먹언?

107058 #8 어, 어. 졸여. 간장 놓고 졸여.

107058 @ 간장 놓고 졸연예?

107058 #8 으, 그때 간장은 집에 듬으난 실피 먹고, 간장은.

107058 @ 고사리는 케다그네 고사리는 어떻 보까수과?

105058 #8 고사리? 툇량게 윈 그 겐 또 혼 서너 번 솟디 낵 솥양. 물 빼영, 빼영 또 솥곡, 또 솥곡헤사 고사리 먹주.

107058 @ 아, 기파?

107058 ## 고급 요리가 돼놔서.

107058 @ 고사린 막 혼하지 안헤수과?

107058 #8 아니, 옛날은 고지 가. 고지~.

107058 @ 아.

107058 #8 고지, 우리도 서너 번 가왔주마는 고지 고사리거 조민, 큰 멥텅이, 그 나룩씩, 이제 ㄱ트민 나룩씩이주게. 막 이만이 큰 멥텅이 지영 가그네 고지 가민 혼 멥텅이씩 꺼꺼와 고사리. 계난 고사리 어둑어 가민 집이 잇당, 고사리 마중 저~ 산에 가주.

107058 @ 예, 예.

107058 #8 거, 산에 마중 헤여사주, 기자 지어오지 못헤여.

107058 @ 그추룩 하영 이신 걸 무사 귀한 음식으로만 먹어신고예? 집에서 막 보까먹어도 텔 거 아니파?

107058 # 보까먹을 생각? 기자 툇라그네 그때 풀양 돈 으멘이라도 사젠 헛주.

107058 @ 아. 풀양~. 옛날에도 풀앗구나예?

107058 #8 으. 풀안 든 썸. 옛날에도.

107058 @ 그거 보끌 땀 어떻 보까수과?

107058 #8 보끌 때? 그건 세 번 솥아야. 고사리 세 번 솥양 담갓당, 또 솥곡 또 솥곡 헤영, 물에 담갓다그네 물 영 싹 빠지민 그레 간장 놓아그넵에 또 불 때영 바글바글 헤영게 그 간 맞게.

107058 @ 예.

107058 #8 갱형 바글바글 헛주. 무시거 간장만 놓앗주, 무시거 놀 거 어서 옛날에.

107058 @ 호박 잇잖아예? 호박으론 뭐 헤먹어나수과?

107058 #8 호박두 마찬가지. 호박두 제서 때나 보끄주.

107058 @ 호박도 제사 때?

107058 #8 가족 베껴도그넵에 으만씩 토막토막 썰어그넵에 그 젓, 물 흐쓸 농곡 간장 농곡 헤민 그것도 확 헤그네 확 건저베사주 흐낌 오래 딸리민 탁 카저그넵에

제서 때도 것 도글도글 헤사. 제서 땀, 이 집이 습박허주. 제 먹으레 오민. 저 부엌에 깝장. 다 습박허민, 거 다 갈라. 고사리영, 콩나물도 놓아 거 옛날엔. 제서 돌아오민.

107058 @ 음~.

107058 #8 갱, 놓아그네 허민, 그때 옛날에도 식게 먹으레 문딱 방상에서 오민 그거 문 갈라 먹곡, 갈 때 문 싸주국. 경혜낫주 옛날에.

107058 @ 음, 경 혜낫구나예.

### 장 담그기

107059 @ 이젠예 장 담그는 거 흔 번 여쭙보크라예?

107059 #8 어?

107059 @ 장, 웬장 담그는 거 예?

107059 #8 아, 당글 때~?

107059 @ 장은 언제 담금니까?

107059 #8 당글 때? 저, 거시기 겨울 돌아와 가민.

107059 @ 겨울 돌아와 가민예?

107059 #8 겨울 돌아와 가민 장, 봄이나네 이제 막 덤양, 장 익영 먹을 때, 이제.

107059 @ 장 담글 때는 웬장만 담과수과?

107059 #8 아, 소곰물 타그네.

107059 @ 건 나중에 물어보크라예. 웬장만 담가수과?

107059 #8 아니, 아니. 그때 웬장만 덤어나지 안헤서. 그때 소곰 잘리에 켕, 매주 농곡 물 농곡 큰 향의 소곰잘리 이만헌 것에 허영 이추룩 켕 이추룩.

107059 @ 예, 예 예.

107061 #8 영 커그넵에 허민 이추룩 매주 울어나가민 영 발~강 허민, 이거 따시 헤베도그넵에 또 잘리 이에 소곰을 담양 또 이추룩 담그곡, 뻗~번 덤그민 이 간장이 간 맞아.

107061 @ 예~.

107061 #8 경허민 따시 간 맞이민 소곰 안 낱 따신 이추룩 크지 아녀. 흔 서너네 번 덤그민. 소곰을 이거 다 녹으민 또 이 잘리터레 또. 그땐 소곰도 막 가마니로 사야. 장 덤그젠 허민.

107061 @ 당 덤그젠 허민~. 고추장은 안 담가수과?

107061 #8 어느 하가이, 고추장 담곡.

107061 @ 경헛구나예?

107061 #8 어, 고추장은 안 덤아 받.

107062 @ 매주는 언제 슴음니까?

107062 # 겨울 틀어가민.

107062 @ 겨울 틀어가민 슴아~.

107062 #8 겨울 들어가면 으라 솟 숲주, 콩은. 매주 많이 흐젠 흐민. 콩 이젯말로  
흔 닷 말썽은 숲아 콩. 콩도 어시민 다 돈 주영 사당.

107062 @ 사당예?

107062 #8 부젯칩인 이녁 땅 이시나네~. 거 영 해도 땅 이신 사름이 뗏 사름이  
어시난.

107062 @ 맞수다.

107062 #8 어시나네 기자 해당 콩 장만 행 이녁대로 흐곡. 거 어신사름은 그  
막~ 어려운 때 헤그넵에 고사리 헤영 다 풀곡, 만 거 모다그넵에 그 콩을 혼 댓 말  
경 사사. 그 장도, 옛날은 매 집이 경 장 안 돕은 집이 어서.

107062 @ 어서서예.

107062 #8 그 장으로만 사난. 먹는 것이.

107063 @ 당 담글 때 혹시 멍심 헐 거는 어서나수과? 뭔가 멍심해야 웬다는 말  
어서수과?

107063 #8 아니 미시거 그런 거 어서. 기자 우리도 어멍덜 경 장 돕글 때 나민  
이추록 소곰만 이추록 커그네 영~헨 돕강게.

107063 @ 삼춘은 장 안 담가나수과?

107063 #8 아니, 난 우리 시대엔 우리도 흐깎 담아나도 어멍네 만이 경 장 안 돕  
아 받. 우리 세엔, 우리 대엔.

## 떡류

107064 @ 이젠 떡에 대해그네 여쭙보크라예?

107064 #8 떡?

107064 @ 아까 떡 종류 쪽~ 곱아봍서. 친떡 잇고.

107064 #8 솔벤, 절벤, 제펜, 중래, 약래.

107065 @ 침떡부터 저기 물어보크라예? 시루떡, 시루떡이 침떡이지예?

107065 #8 시리로 다 썩~. 대썩 농곡, 칭칭 허젠흐민. 이디 대썩, 저 대 아무디나  
것도 어서. 거 썩 툃툃툃 쫄라당 제펜 흐젠흐민. 이추록 층허게 영 놓양, 대썩 코~  
친 허게 영 낱, ㄱ루 이레 영~ 허경, 제펜. 제펜 찌젠흐민 쟁행 그걸로 대썩으로 다  
익으민 베민 그 대썩 툃툃툃 떼어불민 꾀닥헌 침떡이 뉘어.

107066 @ 그다음엔예, 송편은 여기서 뉘렌 곱아수과?

107066 #8 솔펜은.

107066 @ 솔펜? 영영 줍아가지고 쫄끌락 허게 만드는 거.

107066 #8 절벤?

107066 @ 절벤, 예.

107066 #8 절벤도 ㄱ루 곱아다그넵에 떡 으만썩 만들영 솟디 낱, 막 숲양 절벤떡  
으만썩 현 거 다 익으민 건져그넵에 다라에 낱 막~ 꾀영, 꾀~딱허게 춤지름 이레  
비우멍. 영영 달황 꾀딱흐민 또막또막 으만썩 으만썩 똥꺄똥꺄 영흐게 헤노민, 두

개 영 툽툽 부찌민 그 절벤 본으로.

107066 @ 아니, 그거 말고.

107066 #8 게 거거거 그거주게. 켈벤.

107066 @ 속에 영~ 팔 놔가지고 만디처럼 만드는 떡.

107066 #8 아, 거 쉰, 만두처럼 만드는 건, 건 만디.

107066 @ 아, 건 만디. 떡을 만디렌 해수과?

107066 #8 건 만디. 옛날 만디.

107066 @ 만딘 어떻 만들어수과? 만디 만들 땐?

107066 #8 만딘, 이거 큰 거민 영행 텅, 터그넵에 동글랑허게 나오며는 영 접앙, 영 툽 허게 두 개 부찌민.

107066 @ 속에 뭐 낱?

107066 #8 속에 늪뻬 숲앙. 늪뻬 숲앙 소굽에 담앙 영영 접아. 모믈꺾루 곶아당. 모믈꺾루.

107066 @ 아니, 그거 말고.

107066 #8 게 곶아당 그거 행 만디떡 만들엇젠 허난.

107066 @ 게, 건 마디떡인디 쫄꺾루로 뜨거운 물 놓앙 반죽 행 허는 거?

107066 #8 아, 거 송뻬?

107066 @ 거난 송뻬~. 송뻬을 어떻 만들어수과?

107066 #8 거 솔벤이주.

107066 @ 아, 거 솔벤이파?

107066 #8 오, 거 솔벤. 꺾루 곶아당 영 떡 본이 이서. 툽 드는 건 솔벤. 켈벤은 동글레미 툽랑 두 개 붙영 툽툽 허는 거.

107066 @ 게, 건 절벤이고.

107066 #8 솔벤 절벤 그 두 가지고. 또시 중꺾, 약꺾.

107067 @ 중꺾, 약꺾는 나중에 물어보고예? 모믈꺾루, 모믈꺾루로 얹게 지저그네 속에 늪뻬 낱 허는 떡은 뉘렌 곶아수과?

107067 #8 거 만디.

107067 @ 아니, 길~게 하는 거.

107067 #8 아, 정기떡~.

107067 @ 정기떡?

107067 #8 어, 옛날에 그거 정기떡.

107067 @ 정기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7 #8 정기떡은 정기 꺾루 낱 이디 물 놔그넵에 막~ 영 영 뜨려그넵에 압꺾, 막 뉘민 그것이 딱딱 벌러정 안 뉘어. 경허민 옛날에 솟뚜꺾에 불 떼영, 불 떼영 솟뚜꺾이 시성, 영~ 해영 안쩌그넵에 낱꺾기, 집에 낱꺾기가 이서? 어디 저 산에쫘 가그넵에 낱꺾기 해당그넵에 불 떼영, 정기떡 영 거리 낱 지저. 쫘굽에 늪뻬 담아그네. 이제 저디 푸는 거 으만씩 해도 그땐 정기떡 으만씩 꺾게 허여.



107067 @ 맞아예. 맞수다.

107067 #8 이만씩 걸게 허여.

107067 @ 맞수다. 흐나 먹으믄 배 불어나난 거 기억 남수다.

107067 #8 어, 경헤여.

107068 @ 그다음엔 상왜떡은 어떻헤수과?

107068 #8 아, 상왜떡은 밀ㄱ루. 므 밀 정ㄱ레에 곶아. 이젠 기꺃방에 나주마는 그땐 기꺃방 안 나주. 정ㄱ레에 곶앙 ㄱ루 빠그넝에, 거 또 피는 거, 상왜떡 피는 거, 옛날엔 기지엔 허여. 이젠 쉰다리라도. 기지 헤놌그넝에 상왜떡 그 물루 돌아그넝에, 것도 아무상 어시 잘 피는 사름. 아니 피민 기자 납작헤볼고. 잘 피민 으만씩 에~쁘게 나오곡. 아니 피민 이 닦아비아~ 아니피민.

107068 @ 삼춘은 막 잘 피어나수과?

107068 #8 아니, 나도 잘못헌 때도 잇곡 잘헌 때도 잇곡 헤난 나도.

107068 @ 경헤낫구나예.

107068 #8 우리 대도. 어머니넝 잘 헤낫주 마는.

107069 @ 제사떡에는 어떤어떤 떡들이 이서수과?

107069 #8 난, 아버지 돌아가부난, 그 쨍벤, 솔벤, 제펜, 거시기 중꺃 약꺃, 솔벤 곶꺃 이 삭꺃 때라도.

107069 @ 하나 더 무시거?

107069 #8 그거 다 못헤여. 조꺃설펜, 조꺃솔펜으로 간단허꺃, 산디쨍 흐 말 물에 쨍, 그땐 저~ 꺃선이 가사 거 ㄱ루 곶아와.

107069 @ 예~.

107069 #8 ㄱ루 기꺃방에 강 곶아당 집이 오라그넝에 쨍 흐 말은 커사. 거 숙꺃가 많이 이서 그땐, 흐 말헤영 그 조꺃송펜 만들앙 다 이디서 갈랑 먹어볼민.

107070 @ 솔펜 얘기허는 건 다시 나중에 여꺃볼꺃예? 상꺃떡은 어떤 꺃꺃?

107070 #8 상꺃떡?

107070 @ 아니, 상 날 때 허는 떡. 상 날 땐 무신 떡 헤수과?

107070 #8 어, 장 난 땐? 어, 장 난 땐, 설벤, 절벤, 제펜, 중꺃, 약꺃 딱시 제펜. 그거 다 만들어 헛꺃 허난. 옛날에 장 난 땐.

107070 @ 장 날 때난 제사 헛 때난 별 차이 어서수과?

107070 #8 제사 헛 땐 그거 불편헛 다 아이 만들어, 다 아니연.

107070 @ 꺃헛구나예?

107070 #8 크꺃, 대상 소상 때 그거 다 만들어. 꺃디 딸덜 이시민 그거 다 말아가. 솔벤 말아가는 사름, 절벤 말아가는 사름, 옛날엔.

107071 @ 설꺃떡이 뺃꺃? 설꺃떡.

107071 #8 어?

107071 @ 설꺃떡.

107071 #8 설꺃떡은 이디 어서난꺃디?

107071 @ 어서나수과?

107071 ## 미신떡?

107071 #8 설기떡. 설기떡. 거? 어서수다.

107071 @ 백설기떡. 하얀 쌀 가루갈아당 만드는 떡.

107071 #8 쌀가루 만드는 건 게 솔벤, 절벤, 제벤, 중웨, 약웨 대소상 때나 그거 허주. 제서혈 땀 그거 복잡해영 안허여.

107072 @ 인절미는 어떻게수과?

107072 #8 은절미는 영 툄앙 으추룩 칼로 쫄랑 이거 이거 이거. 이석이 은절미.

107072 @ 은절미 무치는 ㄱ루는 뭘로 해수과?

107072 #8 은절미는 모플ㄱ루로도 허곡 산디ㄱ루로도 허곡 허여 그건.

107072 @ 은절미 붙으지 말게 뿌리는 ㄱ루.

107072 #8 아, 춤지름. 붙으지 말게 춤지름. 영~헝 붙으지 쩡 나오민 물에 판~ 짝, 이거 씻어그넝에 이레 다 춤지름 불랑 영 영 놔사 부트지 아니여. 그때 고통차 반지.

107073 @ 절편은 마씨?

107073 #8 절벤?

107073 @ 예, 절벤.

107073 #8 절벤도 마찬가지로, 절벤도.

107073 @ 절벤 혈 땀 뭉뭉가 필요해수과?

107073 #8 아, 산디ㄱ루, 산디ㄱ루.

107073 @ ㄱ루는 이서야 돼는데 그거 자르는 거라든가 본뜨는 거라든가 그거는 뭘로 해수과?

107073 #8 무시겨 눈 거 어신디 그건.

107073 @ 그게 아니라 짜를 때~.

107073 #8 칼로.

107073 @ 칼로만~.

107073 #8 돛베 밀영 으만씩, 으만씩 찢르민 똑 으만씩 쫄라.

107073 @ 절편 하고 인절미 하고 크기가 다르파?

107073 #8 절벤 허고 은절민 달르주게. 절벤은 돌글랑 허게 헤여그넝에 본, 똑똑 쫄랑 동~글랑 허고, 이건 거시기 으추룩 허는 건 은절미고, 솔벤은 또 영 헤영 본 이서. 짹짹 밀영 본으로 딱딱 명. 떠그넝 솟디 낱 저, 소낭썩 ㄱ루ㄱ루 아니 썩 기 차다그넝에 영 ㄱ명 영 놔사, 거 떼명 솟디 낱 처사.

107073 @ 처그네예.

107073 #8 옛날에 떡을 얼마나 복잡하게 헤나시니.

107075 @ 우 짹은 안해수과? 우 짹?

107075 #8 무사 우 짹, 거 대소상 때. 영장 때나 소상 대상, 옛날엔 다 허난. 우 짹 이영.

107075 @ 우 짱은 어땡 만듦아수과?

107075 #8 우 짱은 으만~이, 으멘이 현 본 이서. 건 상에 올릴 거 베피 아니여.

107075 @ 아, 그냥 먹을 건 안헤마씨?

107075 #8 먹을 건 아니여. 상에 올릴 거 뿐 우 짱. 건 상에 올릴 때 다 쓸거난.

107075 @ 기름떡도 헤나수과?

107075 #8 지름떡은 으 찻솔 곁아다그네 으중간에서 지름떡, 찻솔 곁아다그넵에 지름에 튀겨.

107075 @ 튀경예? 그 지름떡 혈 때도 별모양으로 딱 뜰 때는 어땡 것도 분이 이 서수과?

107075 #8 아니, 그건 본으로 떠그네 지름에 튀겨.

107075 @ 아, 튀경, 그걸.

107075 #8 찻찰 떡 흐리는 거난. 조심헤영 헤사.

107075 @ 그때 본뜨젠 허민 그거는 어땡헝 만듦아수과?

107075 #8 무시거?

107075 @ 본, 본.

107075 #8 아, 본. 거시기, 본은 양철.

107075 @ 양철?

107075 #8 양철 췌로 헤그넵에 영~ 헤그넵에 떡 본을 만듦민, 영 밀영 딱 허게 트민 솔벤 나오주게.

107075 @ 본도 삼춘네가 만듦아수과?

107075 #8 어, 만듦앙.

107075 @ 누게가 만듦아수과?

107075 #8 아버지가. 아버지가 산 때 만듦앗단 아버지 젊은 때 돌아가부난 곁로 허다네, 기자 대소상 때 곁로 쓰다네 제서 땡 거 아니여, 아니영 그자 넘어가.

107076 @ 그문 바당에나 아니문 당에, 본향당 잇잖아예? 당에 강 제사 지넵 때, 곁허는 당.

107076 #8 어, 어. 우리 그런 거 아네여. 우리 성당. 옛날부터 성당.

107076 @ 성당 다녀수과?

107076 #8 성당, 이제두 성당. 어머니가 일생 세설 적에부터 어머니가 그 성당에 땡기단 돌아가부나네 미사드리국 허당보나네 우리두 성당.

107076 @ 여기 어른덜은 당에 제사 할 때 무신떡 험신고예?

107076 #8 다 그거 그거.

107076 @ 그냥 똑 같이?

107076 #8 으.

107076 @ 기냥 흰떡만?

107076 #8 아니,이젠 아니여. 옛날에 허주, 이젠 아니여.

107076 @ 옛날에, 옛날에.

107076 #8 그자 나 곶은 거 다 헤나서.

107076 @ 다데가 뭐꽈? 다데.

107076 #8 무시거?

107076 @ 다데.

107076 #9 거 떡 일름 아니라 다데. 거 믱을 일름인디, 저디.

107076 @ 당이나 이렇게 그.

107076 #8 장의사?

107076 @ 아니, 아니. 신방허는 당이나 바당에 가그네.

107076 #8 우리 성당에 텡겨부난 그런 걸 아녀나부난.

107076 @ 봐난 적도 어수과?

107076 #8 어, 어. 그런 걸 아녀난 우린.

107077 @ 그믐 곳 떡도 무시거 허는 지 모르쿠과?

107077 #8 무시거?

107077 @ 굿혈 때 허는 거.

107077 #8 아~, 굿허젠 헤도 우리 구경은 헤나거. 게 소곰도 안 놓고, 쓸 물에 컷당, 담갓당, 기갓방에 강 ㄹ루 곶아당, 스곰도 아이냥, 기자 궤는 물에 기자 몰랑, 돌레떡 만들야. 푼글랑 허게.

107077 @ 아, 돌레떡 만들양, 돌레떡으로~.

107077 #8 어, 돌레떡 만들양 굿떡 거 허는 거.

107077 @ 아, 굿떡은 돌레떡 예?

107077 #8 거 소곰 안 낱 허주게. 경호민 다 올라나민 신방덜이 그 곳 ㄹ까나민 그디 구경허는 사름덜 ㅎ나씩 다 태워주어.

107077 @ 아~ 아.

107077 #8 겨민 그거 얻어먹젠 다 아자.

107077 @ 아, 그렛구나예.

107077 #8 거 얻어먹젠.

107077 @ 겨민 예? 아까 그 애기헌 일곱가지 떡, 우썩까지, 돌레떡 까지 빼놓고 다른 떡 더 어서수과?

107078 #8 무시거 다른 떡?

107078 @ 그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기.

107078 #8 아, 우리 먹는 떡은 기자 만디떡, 경헌 뎨 기자 영 몰양 시꺼 빨리 헤지는 걸로. 영행 기자 줍양 모믈ㄹ루로 영행 만디떡 만들양 기자 확, 숲아네영.

107078 @ 확, 숲아네영 예? 만디떡도 안에는 늬뻬 넣고 예?

107078 #8 으.

107078 @ 저 아까 정기떡도 늬뻬 넣고 예?

107078 #8 으, 정기떡두 이젠 아네여.

107078 @ 안혜여예.

107078 #8 이제 잔치 때베끼 정기떡 아니허, 잔치 때. 으만~씩 허게.

### 소와 고물

107079 @ 이젠예? 떡 할 때 아까 송편 같은 거 속에 뭐 놓는 거에 대해 한 번 여쭙보쿠다예?

107079 #8 어 노는 거? 늬삐베끼 어서, 늬삐. 늬삐 솥앙 싹 건정.

107079 @ 겨난 정기떡이나 만디 할 때 할 때 늬삐 놓주마는 저, 무시거 할 때게 송편, 송편 할 때.

107079 #8 아니, 건 밀영 기자 솔입 걷어당 기자 낱게 영 납작헌 거 기자 찌덴 허난.

107079 @ 아, 그 무신 떡이파? 떡 속에다가, 우리가 먹는 송편인데 쌀 갈아다그네 뜨거운 물 낱 반죽하잖아예? 반죽 손으로 영 뜯으멍 이 속에 뭐 설탕이나 깨나 놓고 허는 건 뭐파?

107079 #8 어, 그건 우리 잘 안 만들어봤는디이.

107079 @ 아, 기파?

107079 #8 솔펜, 기자 그것도 솔펜이엔 그라. 송팽 송팽.

107079 @ 송펜 속엔 뭐 놔수과?

107079 #8 그거, 그때 꿰 보깁도 놓곡, 저, 풋도 솥아그녕에 놓곡, 경혜영 그때.

107079 @ 경혜나수과?

107079 #8 이신 거, 기자 이신 거.

107080 @ 이신 거. 그다음엔예 은절미나 이거 하며는 은절미는 참기름 말고.

107080 #8 찰지름베끼 불르는게 뭐 어서. 기자 영~ 행 칼로 삭삭 키차그녕에.

107080 @ 녹두가루나 콩가루는 안 놔수과?

107080 #8 아니, 곱닥허게 기자 헤여.

107081 @ 그다음엔예, 떡에 관련돼어가지고예 무신 속담 같은 거 어서수과?

107081 #8 무시거?

107081 @ 떡에 대한 속담. 아니면 떡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라든가.

107081 #8 아, 그 그런 거? 시리떡 칠 때엔 그 부엌에 들어가민 그 떡이 아닉어. 그 떡이 아닉영 시리에 파식파식 허멍. 게난 으거 부엌이민 그 딱 그 불 때는 어른만 그마니 그디 아점주. 일로 사름도 들어가지 못허국, 사름 시리, 영~ 아진 때에 사름 들어가민 떡이 아닉영 경 저들라. 파식파식 올로 파식파식 물 나오멍 사름 들어가민 부정헤그녕에.

107081 @ 아, 사름 들어가민.

107081 #8 경헌뎡 허멍 느시 아닉영, 경허멍 우린 시리떡 난 아녀봤주. 난 기자 영 구경만 헤여. 시리떡 할망 할 때 이딧당 들어가지도 아녀.

107081 @ 아, 경헛구나예?

107081 #8 떡이 아늯어~.

107081 @ 안 익어그네예?

107081 #8 아, 거 조심헤야 돼는 거, 시리떡 칠 땐.

107081 @ 기구나예?

## 별식

107082 @ 혹시 순때 같은 거 담양 먹어봐수과?

#8 아이, 순대,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 생신 때 나 시집오나네 도새기 잡앙, 도새기 잡아그네 그때 순대, 경행 막~ 이것저것 놔, 아버지가.

107082 @ 무시거 무시거 놔수과?

107082 #8 몰라. 그때 양념은 무시것사 놔신디 우린 먹음만 헤부난. 모믈꺾루 농곡, 그디에 대사니도 뽕사농곡, 양념 다~ 헤놔. 다 행행 순대 담야. 담양 저 그땐 솟디서 찌도 아녀고, 어머니가, 보난 숲안게. 물 끌령, 영~ 형. 숲양 터지민 막 행 무시거 허곡. 어머니가 순대 담안 우리 주난 먹엇주. 우리 손으론 아녀보고.

107082 @ 안 헨 먹어봤구나예?

107082 #8 아녀보고 그건.

107083 @ 두부는 혹시 만들어 먹어봐수과?

107083 #8 어?

107083 @ 두부, 두부.

107083 #8 두부, 두부두 우린 아니 만들어봘.

107083 @ 안 만들어봐수과?

107083 #8 어.

107084 @ 게민 저 모믈쫄로 모믈묵은 헤랏지예?

107084 #8 어, 그거 우리 우리, 아이고, 저서 때에 모믈꺾루 사다그넵에 솟디 놔 그넵에 파~옥! 힘 다넵 저서야 돼여, 저서야.

107084 @ 흔 땃 시간정도마썰?

107084 #8 저성 막 익으민 다라터레 이디 퍼 낱, 바~뽕 허게 이디 영 만들어그넵에 동~글락 영 흐민, 거 다 식으민 영 네모나게 싹싹 베민, 베엇다그네 허민 말 췌 돔베에 놔그네 으추룩 다 찰랑, 고쟁이에 꿩영.

107084 2 땃 시간정도 저서야 됩니까?

107084 #8 저슬 때? 흔 시간 이상이라. 아이고, 겨민 스땃 여름엔 땀이 이레 닥 털어지민 수건 이디 농곡, 땀 이레 들어가카부텐 수건 이디 농곡 저서사 돼여.

107084 @ 삼춘 저슬 때 남자삼춘 안 도와 줍디가?

107084 #8 무시거?

107084 @ 막~, 모믈떡 허 때, 묵 허 때 저슬 때, 도와주지 안헙디가?

107084 #8 예, 이 어른 그때 시에 강 살아볼민, 겨국 남저덜 도와주지 아녀 경헌 때. 여저덜만 허주 남저 안 도와주어. 안 도와주어, 남저덜.

107085 @ 청묵은 끌려 봐수과?

107085 #8 아, 청묵은 우리 안 끌려봐.

107085 @ 안 끌려봐~.

107084 #8 어, 우리 기자 그 모믈코루 제서 때 사당, 탄 건 못해도 묵은 푹~ 해야.

107084 @ 모믈묵 혈 땀예. 모믈묵 혈 땀 무시거 가까이 가면 안 돼곡 허는 이런 거 어서수과?

107084 #8 묵 혈 때, 저슬 땀 그거 엇고. 시리떡만 탄 사름 가까이 가면 안 돼영 팡, 일루두 팡 터지국, 절루두 터지국 허명 아이 경 승봐. 시리떡 혈 때. 푹 그 할망만, 이디 사름 못 땡겨.

107086 @ 개역은 헤먹어봐수과?

107086 #8 어, 개역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 베어두 개역은 막 행 먹어봐. 개역.

107086 @ 언제까지 헤먹어봐수과?

107086 #8 개역, 보리 솟디 낱 보끄민, 그거 헤영게 딱딱 벌러져 다. 겨민 그걸 더 걸경 이레 놔동, 또 보리 솟더레 낱 또 저섯다 저섯다 흐민, 그거 헤영게 피영다 보까지민 이레 박세기로 막 솟디 거영 이레 거러놔동, 또 이레. 그거 보끄젠 허민 스뭇 푹이.....

107086 @ 굴 땀 뭇로 굴아수과?

107086 #8 어, 굴 때? ㄱ레예. 정ㄱ레예 아자그녕에. 흐민 버청, 그때 이 어른은 어신 때라도 몬 아이덜이라도 도와주어사 해주, 혼자 못 굴아 버청. 영 형 굴젠 흐민. ㄱ레예 굴젠 흐민. 원 그 ㄱ레 다 어디사 가신디 몰라.

107086 @ 계난예, 진짜.

107087 #8 오, 그 ㄱ레 다 어디사 가신디 몰라, 이제.

107087 @ 지지미는 헤먹어 봐수과?

107087 #8 어? 지지미?

107087 @ 여긴 뭇렌 굴읍니까? 땡뿌라를.

107087 #8 아, 땡뿌라? 기자기자 땡뿌라 그땡 땡뿌라? 어느 하가의, 땡뿌라 생 각? 어느 하가의 아년 먹어봐.

107087 @ 아이들안티 안 헤줘봐수과?

107087#8 어, 애기덜아피도 안 헤주고, 보리쫄 솥양만, 그때 어느 하가의 땡뿌라 지지곡? 경 무신 ㄱ를 경 땡들아져서? 이이덜 으숫 개라도 흑교에 갈 때 듯날 아치기 보리쫄, 나가 막~ 인척 일어낭 밥흐당 봐도 거 보리쫄만 낱, 보리쫄만. 무신 탄 거 늘 거가 이서, 무시 것가.

107087 @ 아니, 무사 옛날에 영 어릴 때 생각해보면 도새기 기름 영 두껍게 헤 뵈당, 비오는 날 막 헤주고, 전 기억 나거든예?

107087#8 아니, 그 그런 거 우린 안 헤봐. 도새기 지름으로 우린 안 헤봐.

107087 @ 안 헤바받예?

107087 #8 어, 우린 우리 대엔. 우리 해본 거만 곱앗주.

107088 @ 계민예? 오메기술은 해떡어 봐수과?

107088 #8 어, 오메기, 어머니 하는 거 구경만 헛주, 난 잘 흘 줄 몰라.

107088 @ 거 어떻 만듭니까?

107088 #8 오메기떡 물 꿩왕 좁쌀, 희린좁쌀 물에 컷당, 어머니 살 땀, 아버지영 살 땀, 물그레에 곱아. 물그레영 이디 서나서. 겨민 막 행 그루 곱앙, 치명 그루 곱 아다그넝에 물 꿩와그네 그걸 막 영영 만들앙, 오메기떡 문털문털 여디 꼭꼭 누루 뜨멍, 솟디 낱 남불 어시민 검질로 숨아야 웨어 그땀. 난 잘 어신 땀. 검질로 어멍 뚝 찰찰 흐멍, 그거 흐민 우리도 불 도와 영 검질로 도와. 그땀 경 낭이 어디 어려 완 남풀이 경 어서라게.

107088 @ 계난예?

107088 # 검질, 검질 기자 경허민 그 떡 흘 때도 검질불 숨앙, 흐민, 불치 흐난 조~심행 허영 영 불치 올라가지 못 허게시리, 영영영 솟강알 이디 그득으민 막땀이 루 이디 영영 끈어불국 흐멍~.

107088 @ 계민 오메기술은 오메기술이엔 곱아수과?

107088 #8 어, 어. 어멍 잘~ 헛저.

107088 @ 그 술 이름을 뭐렌 곱아수과?

107088 #8 저, 거시기 막걸리.

107088 @ 막걸리렌 곱아수과?

107088 #8 어, 어어. 막걸리, 막걸리엔 그랏지양? 오메기 술 그라 막걸리엔 곱아 수께? 판 말은 어숫께?

107088 ## 탁베기.

107088 #8 오, 탁베기, 탁베기. 탁베기, 어머니 경 그런 걸 잘 만들어나서. 겨민 어머니만 헛주, 난 아니 만들어봐.

107089 @ 쉼다리는 만들어 봐수과?

107089 #8 무시거?

107089 @ 쉼다리.

107089 #8 어, 쉼다리도 어머니가 경 잘 만들어. 난 잘 못 만들어.

107089 @ 순다리엔 험니까? 쉼다리엔 험니까?

107089 #8 쉼다리. 거 옛날엔, 어머니가 옛날엔 막 이디 잘 살아난, 사름 검질멜 때에, 혼 오십 명씩 빌영.

107089 @ 허이고.

107089 #8 경허민 그것 다 상왜떡 어머니가 잘 만들어. 경허민 검질메는 사름 점 심 전의, 그 떡 혼 빗씩 검질메는 사름 아지랭 해영 문 테와줘. 그 떡 얻어먹젠 오 십 명, 삼십 명 온덴 허난.

107089 @ 아이고 계난.

107089 #8 그 떡 얻어먹젠, 게 놓 아이 빌어도. 어멍은 경 잘 살아나서, 어멍은.



연날에도 그대에.

107089 @ 계난예?

107089 #8 어머니가 대판서 오란 땅을 땅이 아버지가 산.

107089 @ 아~ 예~.

107089 #8 저 검질 정, 그 떡, 어머니 떡을 경 상왜떡을 경 잘 만들앙. 검질 흐루에 다 메여. 동네사름 다 왕. 흐루 오십 멍씩 삼십 멍씩, 그 떡 얻어먹젠게. 그 떡 흔 빗 얻어먹젠. 경 놓 안 빌어도 다 오랑 경 헤낫젠 허난, 어멍.

107090 @ 누룩은 만들야 봐수과?

107090 #8 어? 술?

107090 @ 누룩.

107090 #8 게 술도, 경.

107090 @ 아니, 누룩 누룩.

107090 #8 어, 누룩도 경 어머니 잘 만들앙.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들야수과?

107090 #8 누룩은 난 아이 만들안디 누룩도 보리쌀 곶아그넵에 물 버뜨려그넵에 영영.

107090 ## 누룩은 밀로 만들앗주.

107090 @ 밀로? 누룩도 옛날 누룩이렌 곶아수과?

107090 #8 어, 어. 그때도 누룩. 여형 그레 막 돌 지들루아놔뒤.

107090 @ 밀로?

107090 #8 밀로 곶아그넵에 영 형 막 동글라허게 떡고찌 만들야.

107090 @ 음~. 밀가루?

107090 #8 아니, 밀도 ㄹ레에 검피. 정 ㄹ레에 밀 영 검피, 검핏쟁 히여~.

107090 @ 예~.

107090 #8 반 검피여. ㄹ루 반, 쌀 반. 쟁히영, 쟁 ㄹ레에 영 검피그네 누룩, 경 어머니 잘 만들앙 막걸리, 이젠 막걸리에 허주마는 그땐 기자 술, 탁베기 탁베기 행 헛자 난 어멍 정 헛거 봐나도 난 잘 못 만들야.

107091 @ 옛은 안 만들야 봐수과?

107091 #8 여, 무사 옛 아녀? 옛은 나도 잘 만들야.

107091 @ 옛 만들앗던 거 곶아줍서. 어떻 만들야신디.

107091 #8 흰좁쌀, 희린좁쌀 기자 죽 반, 밥 반 풀탁허게 썬. 썬 거 어렵지 아녀. 이젠 그 희린좁쌀이 잘 어서부난 아니 만들암주. 풀탁허게 썬어그네 거식으민 곶사다그넵에 그레 영~ 서끄민 곶만 아지가민 자르르르륵, 팔팔 헛당. 쌀로 다 세여져. 곶만 그레 다 들어가민. 사르륵 허게시리. 흐민 ㄹ만이 낫다그넵에 흔 서너 시간, 서너네 시간 놔두민 그 곶이영 거 복쩍~이 웨어. 어 뜻뜻힐 때 행 나두민. 복쩍이 웨민 그거 문달 문달 문달 영 쓸도 영영 허곡 영영 허곡 행, 우의 걸 체로 걸러. 체 알아지지 이?

107091 @ 예.

107091 #8 걸음체 걸음체. 걸음체로 쓸 이디 거 물 반양 이 솟더레 비우곡, 또 쓸 문작문작 헤그넵에 두 번쫘은 헤영, 체로 물이 고속속 하게 나오주게. 겨민 체로 걸렁 솟더레 비우곡 솟더레 비우곡 흐민 솟으로 혼 솟 돼주 물이. 거 흠치 하영 경 흐무로 가, 그건~.

107091 @ 예.

107091 #8 강행 반 솟 혈 때도 잇곡, 혼 솟 혈 때도 잇곡. 난 거 어머니 돌아가 벼도 그 옛은 잘 만들어져나고 나. 그거 옛은. 그 저 골감지는. 골감지, 경 만들어그 넵에 불 떼영게 것도게 영 접지랑 버려도 그 물만, 혼 서너 시간 불루 딸려야 딸려 냐 들혀주.

107091 @ 아이고, 경헛구나.

107091 #8 딸리지 안혀민 싱거왕 못 먹어. 경 서너 시간 딸리민 것가 들헤여게. 경허민 정월 멥질 때 멥질 때. 난 이제 아이 만들어, 늙어부난.

107091 @ 게민 삼춘 아까 골감지 잘 만들앗젠 헛잖아예?

107091 #8 으, 난 그거 골감지 잘 만들어지주.

107091 @ 골감지 만드는 방법을 곱아줍서.

107091 #8 골감지 만드는 방법, 게메, 희린좁술 사당.

107091 @ 아니, 옛 말고. 골감지.

107091 #8 게메, 골감지. 희린좁술 사당 죽 쭈영 죽 쭈영.

107091 @ 예.

107091 # 죽 팔딱팔딱 쭈어그넵에 그 죽 숙어사. 식어서, 골도 저디강 사당 좁쌀 관대로 흐나민 저, 그 골도 관대로 흐나치씩 폴아.

107091 @ 예.

107091 #8 경흐민 죽두 흐깁 얹지랑 하게 놓양 식어사, 그 곱을 그레 비왕, 영영 저스민 이 물 ㄴ찌 이치룩 사룩 헤여. 사룩 흐민 ㄴ마이 경 나뉘. 나두민 이 물이 북쩍이 웨여. 혼 서너 시간 돼민.

107091 @ 예.

107091 #8 웨민, 싹싹 저서그넵에 체로 그 물을 받청, 이디 또 체 우의 난 건 또 영영영영 접지랑으넵에 팍 바닥바닥 접지랑 저 쓸이영 곱이영 여기 주생이 잇주게.

107091 @ 예.

107091 #8 버려두곡, 딱시 행. 두 번 헤여 두 번. 두 번 헤영 그 물 솟드레 놓곡, 솟드레 놓곡 두 번 헤영 구 주생인 영 버려동 그 물은 하영 흐민 막 두말 띄기 솟으로 흐나 돼주게. 경흐민 흐나민 딸릴 때에 세 시간 네 시간은 딸려. 남풀 떼영.

107091 @ 예.

107091 # 솟 앓정, 남풀 떼영 딸리민 그것이 풀풀 흐곡 옛 ㄴ찌 들헤여 것가. 미 시거 안 봐도. 안 봐도 이 물이 들~ 흐민 그것이 감지 웨여. 것가 감지.

107091 @ 음~. 것은 감지 웨고.

107091 #8 감지 뉘고 또시 그것가 감질 흐젠 흐민 더 오래 딸려야. 더 오래 딸려. 흐 댕 시간 딸리주. 댕 시간 딸려야 솟디 낡~.

107091 @ 음~.

107091 #8 나 옛두 잘 헤저.

107091 @ 기파~.

107091 #8 옛두 잘 허곡, 감지도 잘 허곡. 잘 헤저도 이젠 늙어부난 간세로 안 햐주. 것도 댕 시간 딸리민 풀풀 솟디서 흐민 ㄱ만이 놔두민 옛뉘어 식으민. 식으민 옛 뉘민 굿영 무시것더레 영 담양 낫다그녕에 그거 떡이라도 무시거 이시민 거 거려네영 영 찍영 떡곡, 그 시절에, 그 시절에.

107091 @ 그 시절에 예?

107091 #8 그 시절에 든 거 거베피 어섯주게, 이젠 설탕도 많이 잇곡, 무시거 이섯주. 그뉘 설탕이 어디시니?

107091 @ 설탕대신에 썰구나예?

107091 #8 설탕 어서서 그 시절에.

107091 @ 게난 그걸로 설탕대신에 썰구나예?

107091 #8 오게, 그걸로 제서 때, 제서 때 꼭 골감지 헤사. 골감지 꼭, 떨어진 때 어서. 이젠 무신 골감지 햐서? 설탕물 타그녕에 혼직 햐 상에 올리곡.

107091 @ 경헛구나예? 고맙수다예.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우다예.

107091 #8 게 게,

잘 ㄱ랏지?

107091 @ 예, 예. 고맙수다예.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어, 이번에는 주생활인데예? 아까 우리 그 저, 들일 할 때 잠깐 그 저가 말씀드렸잖아예? 집을 흑시 직접 지으셔낫냐고예? 지금부턴예, 집 짓는 거, 구조는 어떻게 뉘는지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디다예?

108002 @ 두 분 다 직접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잇다 그렷잖아예? 그뉘 그때 지은 집이 초가집이어수과?

108002 #1 나, 초가집.

108002 @ 지은 지 언제쯤 뉘어수과?

108002 #5 음~ 현 오십 년.

108002 @ 한 오십 년? 오십 년예?

108002 #5 오십 년 더 햐주.

108002 @ 더 뉘언예?

108002 #1 난, 우리 집 지은 때가 예, 오십팔 년도에 지어시나네 오십팔 년부터 오십구 년까지 지었구나. 사삼사건, 바로 지어네 흑질헨 들어가나네 젓, 사삼사건 일어나부난.

108002 @ 그른 예? 어, 교장선생님부터 집 지었던 예? 낭은 어떻게 준비헸고, 바닥은 어떻 다졌고, 잇단 그 집 짓게 뉘 동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쪽~ 지었던 이야기 흔 번 곱아줍서.

108002 #1 천구백오십 년돈가, 여기 큰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네, 집에 거의 그 뉘할 정도 뉘가지고 이젓~트,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울타리에 잇던 그 당시에 그 살던 집 물로 끄서버리난 살던 집 울타리에 나무들이 많이 이섯는데 그.

108002 @ 무신 낭마씨?

108002 #1 여러 가지 종류 나무가 이섯주. 나무가 이섯는데 주로 그런 거는 그 오려가지고 그 백서기, 이 초가집에 마루에 옆에 나무로 판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 여놋주게. 그것을 이용허고 젓~트, 다른 나무는 저 의귀리 가가지고 소나무, 소나무 하고 젓트 숙테나무 하고 사다네 산단 집도 지었즈. 근데 집은 보통 뉘 뉘이냐 허든 그때 삼칸집, 보통 가정에는 삼칸집이주게.

108002 @ 세칸집예?

108002 #1 으. 크게 어디 종손집이나 큰집에 거시기 허며는 사칸을 허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사칸을 안 지어. 삼칸집 허주게. 게 안거리 밧거리 헤 이렇게 짓고, 한 쪽에는 소 메는 소막. 소 길루는.

108002 @ 쉼막마씨?

108002 #1 어, 쉼막 그걸 짓고 헸는데, 굿~ 트, 나무는 사단 허고. 서리도, 그 소나무 서리를 췌는데 서리도 다른데 강 사다 해서. 우리 집 지어서. 다 지은다음에 또 옆에 예날 초가집은 우에는 나무로 해서 나물 기둥에 나무 서리에 전부 뉘 헤그네 나무로 흐는데 그 울타리는 돌, 돌로 헤그네 다와. 이렇게 집 모양으로.

108002 @ 예.

108002 #1 돌로 다와서. 그 돌은 구멍 날 거 아니?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흙을 파가지고 저, 보리짚, 보리짚을 많이 췌주.

108002 @ 예. 옛날 보리짚이파 보리짚이파?

108002 #1 보리짚. 보리짚이엔도 허곡, 보리척이엔도 허곡. 보리짚을 거기에 놓아 그네 막 소 여러마리 헤다그네 막 불러. 그러면 막 흙이 물도 동네사람들이 물 그 부조로 헤가지고, 전부 물 허벽으로 물 지어다가 전부 부어.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부어서 다진 다음에는 또 굿~ 트, 또 뒤집지. 건 쉼스렁으로 해서 이 짚하고 그 흑하고 물하고 이게 막 범벽이 되잖아. 범벽이 뉘니까 또 뒤집어서 또 밧는단 말이 어. 그래가지고 그 흑을 갖다가 벽에다가 발라. 게서 구멍을 막거든. 게고 안내는 어떻게 하느냐며는 지붕 우에는 그 안내 젓~ 트, 양토를 허젠 허며는 그 서리에 헸 다음에 여피에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 지금 마트며는 그 구물망 구물 갖다 췌와서

허는 것 모양으로, 그 지붕이 이렇게 뒤편이 이 서리, 나무로 중간 중간에 서리가  
잇잖아?

108002 @ 예.

108002 #1 이 걸쳐진디, 으기에 대나무난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나무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네거든. 저, 세지 말게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냐? 아주 작은  
구멍이 나지마는 그렇게 현 다음에 여기에 역새를 행 깔아.

108002 @ 역새를 한꺼번에 다 비어당마씨?

108002 #1 어, 역새 비어당 말린 거. 말린 거 역새를 해서 전부 현 번 끼우고, 그  
우에는 새 잇잖아? 지붕 이는 새. 새로 해서 행 지붕을 더뜨는 그게 초가집이주게.  
게 안에 내부는 방, 온돌방. 온돌방은 굴목을 떼어. 방 안에는 얇은 돌, 돌 헤다가  
깔아가지고, 그 밑으론 불 떼며는 돌이 뜨거워지잖아?

108002 @ 예.

108003 #1 그러면 그 돌 우에는 흙으로 아주 얇게 해놔 그 우에다가 종이나 무  
시거 다른 걸 발르거든. 발라서 방을 절루는 거라. 그렇게 허고. 현 쪽에는 그 삼칸  
집이머는 현쪽에 방허고 양쪽에 방허는 디도 잇고. 또 저 현쪽에는 고팡, 창고에 쌀  
ㄱ튼 거 머는 거만 놓는다, 그런 고팡이 잇고. 현쪽에는 부엌.

108004 @ 정지예?

108004 #1 어, 정지, 정지 그렇게 허고.

108004 @ 노인회장님도 초가집 지을 때 지금 사는 집 하고는 거리가 먼디라수  
과?

108004 #5 그 터에 지금 사는 집을 지었는다.

108005 @ 처음에 집 지을 때 네깃돌이렌 험니까? 주춧돌 놓는 거 땅 다져난 다  
움에 이제 돌 놓잖아예? 네깃돌. 어떤 지역엔 네깃돌이렌 험디다마는, 여긴 뒤편 ㄱ  
라나신디 모르쿠다마는 그 맨 처음에 중심이 되는 기둥하고 지둥이지예?

108005 #1 네 기둥이주 기둥이 네 개라.

108005 @ 계난 거 기둥 세우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예? 자세히 곱아줍서.

108005 #5 지둥굽이엔 허주, 지둥굽.

108005 @ 지둥굽이렌 험구나예?

108005 #1 굽돌.

108005 #5 저, 그 옛날에는 집을 지으쟁허며는 이 담 담는 날, 흑질허는 날, 서슬  
허는 날, 삼일을 의무적으로 가서 봉사를 허는 거여, 동네사름 전부가.

108005 #1 다 도와줘.

108005 #5 다 도와줘. 건 품도 안 받고, 삼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고. 여자는  
흑질허는 날 물 질어다주는 게 또 그게 부주로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짓는 거주게. 계난 아까 이 첨 형님 얘기 해주마는 구조는 거의가 백 프로 ㄱ타. 집  
구조는.

108005 @ 집 구조는예?

108005 #5 집 구조는 다 ㄱ트고 짓는 방법도 다 꼭 ㄱ튼 거라. 동네사람 삼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고 여자는 물허벅 저그네 그 흑질허는 날은 물 질어당 비우는 거.

108005 @ 그 저 췌 빌어당 아니든 질루는 췌로 해가지고 이제 막 다질 때.

108005 #5 다질 때 것도 암췌는 안 돼어.

108005 @ 다질 때도 다지는 거를 전문적으로 허는 사름덜도 잊지 안해나수과?

108005 #1 아니, 동네사람들 다 부주로 왕 했주.

108005 #5 췌도 거 암췌는 거 못 불러.

108005 @ 예.

108005 #5 아, 거 실헌 심췌 밧갈췌. 밧갈췌덜이 걸 걸어다니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힘없는 거는 건질 못허주.

108005 @ 췌, 땅 다지기 헐 때 옛날에 걸 다짐 댐 ㄱ라수과 뭇렌 곶아수과?

108005 #5 블린텐 허주.

108005 @ 흑 블렛잖아예? 흑 블릴 때 막 그 노래도 불르멍 헛덴 허멍예?

108005 #5 거 노래는 밧 불리는 소리 헛주게.

108005 @ 아, 흑 블릴 때도 밧 불리는 소리 해수과?

108005 #1 췌 믋는 소리.

108005 @ 아, 기구나예. 게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다 ㄱ튼 방법으로.

108005 #5 산태라고 잇서, 산태. 산태로 앞 뒤 사름이 이렇게 긴 거에 흑을 이제 다듬은 것을 퍼 놓면 그걸 집 안에, 주위에 부어 놔야 그걸 또 부찌는 사름은 이제 불를 거나네, 들르는 사름은 이제 또 힘췌 사름이, 늙은이나 이런 사름들은 안 돼어.

108005 @ 음~.

108005 #5 그 무거운 것들을 들러 다그네 돌리가 앞뒤로 영 들렁 가그네 비와야 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인심도 좋았고, 서로 도우면서 옛날엔 살았는디.

108005 @ 게난예.

108005 #1 그 집 짓넝 허머는 아, 그디 언제 무시고 험신고 해그네 다 도울 생각.

108005 #5 아, 그디 내일 서슬 험저 허민, 으무적으로. 서슬이엔 현 거는 서까레를 영 서리를 다 해놓면 그 우일 찰찰 허게시리 이렇게 행 허는 걸 서리라고 허주게. 그거를 동네사름이 다 해주고 헛주. 집 주인은 점심 혼 때 해주는 거베끼 뭇 돈도 아니주고.

108005 @ 점심 해주고.

108005 #5 택이라고 이신디 거는 사름이 양쪽에서 사름이 서로 ㄱ찌 안허민 안 돼어. 혼 사름만은 안 돼니까, 저쪽에서 사름이 사고, 이쪽에서 사름이 상 ㄱ찌 이렇게 부짱헤야지.

108006 @ 부쩍다는 건 중심엔 뭐가 돌담.  
108006 #5 중심에 나무 촘촘하게 얹어 눈 게 잇주게. 거기에 흑을 부찌는 거야.  
108006 @ 안팎에서 부쩍다는 거구나예?  
108006 #1 어, 어.  
108006 @ 맞아예.  
108006 #5 방 들레를 전부 그렇게 헨 부쩍 헨 거지. 요즘 ㄱ찌 무신 베니다 부찌고 그런 게 아니거든.  
108006 #1 게, 주먹으로 쉰 사름은 탁 박으민 그거 무너나.  
108006 @ 한 번 집 지스젠 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수과?  
108006 #5 아이고, 오래 걸렷주.  
108006 #1 일년 내내 걸려.  
108006 #5 목수가 빨리 해주며는 빨리 뉘는데 목수가 그렇게 빨리 잘 헤질 못헤여. 목수가.  
108006 @ 게, 동시에 여러 채들은 못 지서시키여예?  
108006 #5 옛날에는 나무 으만 헨 거 집에 지등을 세우나 뭐 허젠 중요하게 쓰는 나무는 헨나에 요즘은 갹 안헨주마는 옛날엔 헨 삼일 썩, 나무 호나에 일을 헨 삼일썩 가서.  
108002 @ 아이고, 진짜 어뎡 헤신고게. 그다음엔 초가집 말고, 초가집도 잇주마는 집에 종류들 ㄱ라줍서. 우리 영 보당 보문 이제 그 돌로 뉘그네 흑 부친 집도 잇잖아예?  
108002 #5 돌로? 옛날엔 다 돌에다가 다 흑 부춧주.  
108002 #1 다, 돌에 흑 부춧지.  
108002 @ 그런 집을 무슨 집이렌 헤수과? 것도 초가집이렌 헤수과?  
108002 #5 초가집, 초가집.  
108002 #1 우에 지붕 허며는 초가집이고, 갹 아니민 도당 갖다 부찌민 도당집.  
108002 #5 아, 옛날에는 도당 그런 것도 어섯거든.  
108002 #1 도당은 네중에 나와시난.  
108003 @ 맞수다. 그다음엔 집에, 집 채에 종류 잇잖아예? 뭐 안거리가 잇고 박거리거 잇고 또 무슨.  
108003 #5 쉼막.  
108003 @ 쉼막도 잇고.  
108003 #5 불춧막.  
108003 @ 보통 안거리 밧거리, 이렇게 집을 지서낫잖아예?  
108003 #1 어.  
108003 @ 모커리는 뭐짜 모커리?  
108003 #5 모커린 또 모에 잇는 거.  
108003 #1 으렇게 허며는 요기에 집 짓고, 요건 요기에 지으며는 이견 들어가는

밧거리, 으 으 이쪽에 잇는 건 모커리.  
 108003 #5 모에 잇는 건 모커리라.  
 108003 @ 모커리, 경헛구나예.  
 108004 @아까 그 삼칸집 지엇덴 헛잖아예? 세칸집 짓젠 허면 구분은 어떻 짓고,  
 아까 방 두 개 안방하고, 안방 말고 다른 방은 계민 뉘렌 곶아수과? 곶팡 말고.  
 108004 #1 방 두 개 흘 수도 잇주게.  
 108004 @ 아까 얘기한 삼칸집은 방 하나, 마루 하나, 곶팡 및 정제 그것파?  
 108004 #1 아니, 방 두 개 흘 수도 이서.  
 108004 @ 방 두 개.  
 108004 #1 방 두 개, 곶팡, 부엌 허는 수. 부엌은 혼 쪽 갈랑 조그마케.  
 108004 @ 방하고 방 사이에 잇는 건 뉘렌 곶아수과?  
 108004 #1 마루.  
 108004 @ 마루엔 곶아수과 옛날예?  
 108004 #1 마리.  
 108004 @ 마리. 마리까지 합쳐그네 삼칸이 아니파?  
 108004 #1 음. 합청 삼칸.  
 108004 @ 합청 삼칸이지예?  
 108005 @ 그다음엔예? 집을 지을 때 이제 주춧돌이나 보, 도리, 서리 서까래 이  
 런 거 잇잖아예? 아까 그 말씀해 주신대로 주춧돌 아까 무신 거 마씨?  
 108005 #5 지등굽.  
 108005 @ 지등굽, 지등돌, 그다음엔 지등예? 그다음엔 또 뉘가 이수과?  
 108005 #5 무시거?  
 108005 #1 상모루, 중모루, 도리.  
 108005 @ 도리.  
 108005 #1 도리는 쉼~ 베피띠.  
 108005 @ 베피띠 잇는 거예?  
 108005 #1 중간 건 중모루. 우에 모루 으렇게 해서 우엿게 상모루 상모루에서 비  
 스듬히 요건 저 서리중에 긴~ 서리. 아이고 건 무시거엔 아이고 잇어버릿저.  
 108005 #5 저 옆에 허는 거.  
 108005 #1 서리, 긴 서리. 네 귀에 흐는 서리.  
 108005 @ 서리 잇고예? 그다음엔.....  
 108005 #1 그 가운데는 서리.  
 108005 #5 추년, 추년. 추년 서리. 모예. 모예. 네 모예.  
 108005 @ 아, 추년 서리~?  
 108005 #5 실 허고, 긴 낭을 대는 거주.  
 108005 @ 음~. 그다음에는 지붕이파?  
 108005 @ 그 다음엔?



108005 #1 서슬 잇고 째 헤그네 더프는 거.  
108012 @ 문들도 잇잖우파? 문.  
108012 #5 문이사 대문, 창문, 정짓문 뭐 다.  
108012 @ 으 지붕하고 지붕 잇는데.  
108012 #1 으기, 올로 으게 추년서리주게. 으 귀따지로부떠 으기 하고, 또 으기로 부떠 으기, 으쪽 귀따지부떠 으기까지가 기고. 저, 주로 큰~ 기둥은 으쪽에 하나 으쪽에 하나, 추년서리 끝에 올로 으사이는 보통 마루허주, 마루.  
108012 @ 마루예?  
108012 #1 대문은 으기, 창문, 아이고, 무신 문이엔 허는니? 족은 거.  
108012 #5 것 마라.....  
108012 @ 으건 뭐렌헙니까? 으건. 정지문이고.  
108012 #1 부엌 헐 때는, 보통 부엌 헐 때는 으쪽에 잘 허주게?  
108012 @ 음~.  
108012 #1 만약에 으것이 으 평면도를 그린다며는, 으롱게 집이 웨지아녀서이?  
108012 @ 예.  
108005 #1 으롱게 웨며는 으기로 부터 으기는 네 기둥이 잇거든, 네 기둥사이가 으기에 것이 포라 포. 포엔 허주게. 큰 저 나무로 행 포. 으 켈 가운데로 으롱게 이어진 게 저 상모루. 올로 으롱게 헐 것이 추년서리, 단른 것도 전부 이렇게 서리가 잇주마는 으것이 추년서리. 또 으것이 기둥이고 방은 어떻게 웨는냐하면, 으것이 평면도라고 하며는 으롱게 나뉘서 여기는 온돌방.  
108014 @ 굴목은?  
108014 #1 굴목은 으쪽으로 헤그네 으롱게 옆으로 헤그네 떼거든. 떼고 으기는 보통 고평 잘 하주. 고평, 방인디 고평. 으기는 으롱게 남양 방 허는디가 잇고. 으기 부엌 허는디가 잇곡.  
108010 @ 세화리 사람들은 부엌이렌 마라수와 정지렌 곱아수과?  
108010 #1 정지, 정지. 겐디 정지를 앞에 허는디도 이서.  
108010 @ 예~.  
108008 #1 앞에 정지허고 뒤에 방허는디도 이고. 으기는 상방이라 상방, 마루.  
108008 @ 이 상방 앞에 큰 문이 잇잖아예? 큰문 앞에 작은 걸터안지는 마루 잇잖아예?  
108008 #1 건, 거시기 난간.  
108008 @ 난간이렌 헤수과?  
108008 #1 어, 난간.  
108008 @ 그다음엔 우리 보다보면 난간에 올라가젠허민 무신 돌 이렇게 낫잖아예?  
108008 #1 디딤돌, 디딜팡.  
108008 @ 그것이 디딜팡파?

108008 #1 잇돌이엔 허느냐?  
108008 #5 잇들은 쪽~허게 박은 게 잇돌이고.  
108008 @ 잇돌이고예?  
108006 @ 이제 흑을 발라야 될 거잖아예? 흑 블를 때?  
108006 #1 흑질.  
108006 @ 흑질헌덴 허잖아예? 여기서는 흑이렌 혜수과 흑이렌 혜수과?  
108006 #5 흑, 흑질.  
108006 @ 흑질 헐 때, 외가 잇고 산자, 인방, 반자틀 이런 것들이 이서예?  
108006 #1 무시거?  
108006 @ 흑질 할 때. 외, 산자, 인방, 반자틀인데 그게 무시거나면 아까 흑질허 쟈하면 으 뭔가 세워져 잇서야 돼잖아예? 빈지 잇잖아예, 거난 빈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서 흑을 부쳐야 될 거잖아예?  
108006 #1 어.  
108006 @ 그믐 흑 부짚 때 다 부찌고난 다음에 거를 빈지라고 헛잖아예?  
108006 #5 다 헝, 다 블라냥.  
108006 #1 블라 논게 빈지주.  
108006 @ 그 블를 때 그 속에 들어져 잇는 거. 빈지 속에 들어져 잇는 것이 뭐 뉘여수과?  
108006 #5 튀기, 튀기.  
108006 @ 튀기?  
108006 #1 튀기를 혜냥 흑을 블르는 거주.  
108006 # 5 흑을 블르는 거주.  
108006 #1 튀기터레 흑을 블르는 거주.  
108006 @ 튀기가 뭐뉘로 튀 이서수과?  
108006 #5 나무로. 나무나 대나무든 혜영, 으만씩 구멍 나게 촘촘허게 경 엮어그 네 양쪽에서 흑을 블라부는 거.  
108006 @ 아.  
108006 #5 계난 으거 헐 때도 새로 노 깃양 묵는 거. 뭐 옛날엔, 요즘은 뭐 무슨 나이롱끈 그런 거 잇주마는 옛날엔 거런 거 어시난 새 혜그네 두드렁, 노 꼬아그네 이걸로 다오는 거라.  
108006 @ 경헛구나예?  
108006 #5 거난 서슬 노가 엄청 많이 들주게.  
108006 @ 예, 서슬허는 노가예?  
108006 #1 막, 그는다란 노가 아니면, 막 슬진 거 꼬아도 안 돼주게.  
108007 @ 이제 삼칸방이 만들어지잖아예?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안방이 큰방이 지예?  
108007 #1 어.

108007 @ 그다음엔 부엌 붙은 방이 죽은방예? 그다음 시렁은 어느 방에 혜수과?  
108007 #5 시렁은 방에 다 헛주. 방마다.  
108007 @ 시렁은 방에, 다 헛고예?  
108007 #1 겐디 시렁 밑에는 굴목 살리는디가 돼여.  
108007 @ 아, 시렁 밑에가마썸?  
108007 #1 음.  
108007 @ 아, 시렁 밑에서 굴목 살리민 시렁 이쪽에가 따뜻한 데가 됐구나예?  
108007 #5 시렁은 방 안에 잇는 거고.  
108007 @ 시렁하고 벽장 하고는 다른 말이지예?  
108007 #1 어. 시렁은 쥬 ㄱ튼 거 올려놓는 디.  
108007 @ 벽장은 따로 만들어나수과?  
108007 #5 벽장이렌 현계 이런 거 보고 벽이엔 헛주게.  
108007 @ 계난 빈지, 아까 얘기한 벽.  
108007 #5 빈지, 벽.  
108007 #1 벽장은 여기에다가 굴루이 또 그 저, 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엉, 일부러 만들아야 돼여, 벽장은 만들젠 허면. 겐디 으기에 시렁에다가 직접 벽장 흐는디도 잇주게.  
108007 @ 시렁에 문달양예?  
108007 #1 음, 문달양. 시렁 우에다가 그대로. 옛날에는 그건 아년.  
108007 #5 지금 나니까 벽장이여 뒤여 헛지, 옛날에는 그런 게 어서.  
108007 #1 다, 쥬나 놓주.  
108007 @ 그리고 그 이불 같은 것은 이불상 따로 이서수과?  
108007 #5 시렁에 놓주게.  
108007 @ 시렁에예?  
108007 #1 시렁.  
108007 @ 그다음 여기다 굴목 지들 거 아니과예? 여기가 시렁이엔 헛잖아예?  
108007 #1 어.  
108007 @ 여기가 방이잖아예?  
108007 #1 이쪽.  
108007 @ 따뜻한 데를 뒤렌 굴아수과?  
108007 #5 것 ㄱ라.....  
108007 @ 윗목 아랫목 헛 때 옛날 윗목 아랫목 헛 때 다른 말 어서수과? 따뜻헌 디난 저 아랫목에 강 안지라, 그런 말 어서수과? 다른 말 제주도 말로 어서수과?  
108007 #5 다른 말로 뒤 이서난는다.  
108007 @ 알겠습디다.  
108007 #1 으 따뜻헌 디로 오라, 허멍 무시거엔 ㄱ는다, 갑자기 흐난 잇어부러져.  
108008 @ 건 그냥 너머 가고예? 그다음 아까 그 방하고 방 사이에 마루가 이섯

잡아예?

108008 #1 어.

108008 @ 옛날엔 그 마루를 뭐렌 글아수과?

108008 #1,5 마리.

108008 @ 마리. 삼방은 뭇과? 게민.

108008 #5 상방, 그제 상방.

108008 #1 상방이 마리.

108008 #5 마리엔 헌딘, 널을 노난 거고. 또 그거 놓지 못헿 그냥 북데기 방에 기냥 헿 이섯주게.

108008 @ 그걸 상방이렌 허고예?

108008 #1 옛날엔 마리도 이, 귀틀마리라 이. 만약에 으것이 마루 아니? 이? 마루며는, 귀틀이엔 헤그네 밑에 으룽게 헤그네 젓, 나무가 긴~ 나무가 놔. 긴 나무 이렇게 헿 노며는 으 나무광 으 사이에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갖다 끼워놔.

108008 #5 이게 귀틀마리라고 허는 건데 이게 톱으로 오려낸 게 아니고 도치로 깨어낸 널판지라 이게.

108008 @ 아.

108008 #5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지 못한 거지.

108008 #1 이렇게 헤그네 사이에 끼우게 돼이서.

108008 #5 거 들러네지는 흐나흐나 다 들러네지게끔.

108008 @ 거른 그건 더 만들기 어려워실 거 답다예?

108008 #5 으 귀틀마리는 어떤 식으로 허냐며는 어떤 식으로 똬냐며는 으련식으로 쪽~허게 나무가 돼이서. 으 판자를 으 사이에 다 끼우는 거야.

108008 @ 상방 마리엔 똬똬가 들어가나수과?

108008 #5 부섭. 부섭이 들어가났주.

108008 @ 부섭예? 부섭은 똬로 똬 부섭마씨?

108008 #1 돌로.

108008 @ 아예 부섭을 만들엇지예?

108008 #5 돌로 네모나게 영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불을 부쳐주.

108009 @ 그다음엔 아까 그 고팡, 고팡엔 똬똬가 이서수과?

108009 #5 고팡엔 쓸, 쓸항아리. 쓸항, 장항.

108009 @ 쓸항이 잇고 장항이 잇고, 그다음 흑시나 이 세화쪽에는 안칠성이라고 이서수과? 칠성.

108009 #5 아, 거는 집집마단 다 엇고, 잇는 집은 잇고.

108009 @ 잇는 집은 잇고예?

108009 #1 칠성이른 바깥띠에 똬 하주.

108009 #5 겐디, 제서 때는 거기 똬 칠성이라고 해서, 안칠성이라고 해서 밥 허

고 뭐 고기 그런 거 헤그네 고평에 차반지에 아지당 낫다그네 기냥 아사불곡 흐는 거. 보통은 다 그레.

108010 @ 다 경험예? 그다음 정지엔 정지에는 뭐뭐가 이서수과?

108010 #5 살레.

108010 @ 살레가 잇섯고예?

108010 #5 살레, 물항, 솟.

108010 @ 그 솟 안칠 때, 아까 굴목 지드는 거 따로 굴목을 만들엇젠 헛잖아예?

108010 #5 으.

108010 @ 저는 어릴 때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할머니네 집에 가보면 웨할머니가 솟덕 잇고예, 그 우에 솟 안쳐그네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엇거든마씨, 부엌 안에서, 정지 안에서. 그며는 해주면 이제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면 정지에서 밥 해난 그쪽이 아랫목이 돼가지고 따듯해났거든예.

108010 #5 아~, 그거는 그런 구조가 험디도 이서.

108010 #1 그런 구조 허젠 허민 옛날에는 그게 어려와서.

108010 @ 아, 기과?

108010 #1 옛날엔 그게 위험해. 그런 구조는 어느 때부터냐며는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시멘트 나오기 시작허니까 그게 이서서.

108010 #1 우리가 집지슬 때는 그런 게 어섯고.

108011 @ 경헛구나예? 그리고 그다음에는예? 문설주 잇잖아예? 문설주.

108011 #1 문설주?

108011 @ 문지방.....

108011 #1 문지방은 밀엿 거고.

108011 #5 알지방 옷지방 경해서.

108011 @ 돌쩌귄 뭐과?

108011 #1 도절귀. 문 드는 거.

108011 @ 어떻 돌아마씨?

108011 #1 만약에 문이 으롱게 잇잖아이, 문광 기둥 사이에 저 췌 고리 헤가지고, 갖다 끼우게 돼이서.

108011 #5 문을 까와서 으랏다 단앗다 허게.

108011 @ 아, 경첩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과, 경첩인가?

108011 #1 어, 정첩. 정첩 모양으로 하돼, 도절귀는 췌 고망냥 거 이 기둥에 찢르고 으롱게 으디 들어가게 깃톱 현 건 문에 달곡 행으네 갖당 문 그레 끼우민 돼어.

108011 @ 돌쩌귀가 아니라 도절귀예.

108011 #1 도절귀.

108011 @ 문얼굴은 뭐과? 문얼굴.

108011 #5 문얼굴?

108011 @ 이게 문이면 여길 뭐렌헤수과? 이 밀엿게, 문지방.

108011 #1 아랫지방, 윗지방.  
108011 @ 으기를 뭐렌 곱아수과?  
108011 #1 아, 문틀.  
108011 @ 아니, 으 틀 말고.  
108011 #5 가운데? 것사 방이주게.  
108011 #1 지게문도 잇고, 쌀문.  
108011 @ 창오지, 붙은 그 꼭.  
108011 #5 아, 문. 그건 지게문. 창오지 붙지는 거는 지게문.  
108011 @ 문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오지를 붙이는 그 부위를 뭐렌 곱아수과? 문 지방과.....  
108011 #1 문 쌀.  
108011 @ 문 쌀? 문 쌀. 그 문쌀을 전체적으로, 문쌀들 잇잖아예? .  
108011 #1 문쌀이 지게문은 이렇게 행으네 이게 전부 문쌀이주게. 문쌀인데 그디 무늬를 으롱게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십자로 현 거시기만 해그네 다른 건 안 써서.  
108012 @ 아, 그렇구나예. 그다음엔예, 문 아까 지게문이라고 헛잖아예? 지게문 말고 문 종류는 뭐뭐가 이서나수과?  
108012 #5 널문.  
108012 @ 마리에 들어갈 때 큰문예?  
108012 #5 으 으, 그게 널문.  
108012 @ 그다음엔 정지 들어갈 때 문은?  
108012 #5 그것도 정지에도 널문.  
108012 @ 널문? 이름을 널문이엔 해수과?  
108012 #1 대문, 창문.  
108012 @ 창문은 그냥 창문이렌 곱아수과?  
108012 #1 창문도 구들문 이런 지게문이 잇고, 그 집에 상방에 잇는 문이 들어가는 문은 대문이고 조그맣게 현 널문이 잇서. 으건 창문이엔 헛서.  
108012 @ 으건 창문이렝 헛다는 거구나예.  
108012 #1 음, 음. 또 방에 잇는 문은 널문으로 많이 헛주게.  
108012 @ 창 바를 때 붙이는 종이는 뭐렌 해수과?  
108012 #5 창오지.  
108012 @ 창오지 어실 땐 어떻 해수과?  
108012 #5 창오지 어실 때는 저, 뭐, 건 아주 옛날인디 천, 무시거 이저.  
108012 @ 미녕마씨?  
108012 #5 음, 미녕 그런 천으로도 블르곡, 종이 어실 때.  
108013 @ 호렝창은 무시거짜? 호렝창.  
108013 #5 호렝창이 이거라 이거.  
108013 @ 이걸(마리 대문 옆 안방 창문) 호렝창이렌 해수과?

108013 #1 거 창문이 호령 흐는디지게.  
108013 @ 호령허는 디난.  
108013 #5 거긴 양반덜 거기 아쟈다그네 ‘어험’ 허여그네.  
108013 #1 ‘야, 누게 이레 오라!’ 헤그네.  
108014 @ 아까 굴묵에 대해선 충분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예, 굴묵 때 쉼똥, 뭇똥 그거 말고 또 굴묵에는 뉘뉘로 지더나수과?  
108014 #5 ㄱ스락 곁은 것도 헤영 허곡.  
108014 #1 고스락, 기자 몬도기.  
108014 @ 몬도기가 뉘짜?  
108014 #1 쓰레기.  
108014 @ 아, 이것저것들 다.  
108014 #1 어, 다. 남도 떼나고.  
108015 @ 경혜낫구나예. 풍체에 대행 곁아줍서.  
108015 #1 풍체는 대문 앞에 비가림, 가지로 해서 바람막이.  
108015 @ 그때도 풍체렌 곁아수과?  
108015 #1 응. 풍체. 거기 받치는 걸 풍체 작대기.  
108016 @ 음~. 물향이 잇고 물팡은 물허벅 부리는 데잖아예?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수과?  
108016 #1 높이는 이 저 거시기 사람의 엉덩이 높이.  
108016 @ 엉덩이 높이로~. 그든 그 집에 그 집 어머니 엉덩이 높이로 헛갯다예?  
108016 #1 어, 대강 다 비슷헤여.  
108016 @ 예~.  
108016 #1 이건 춤. 춤향.  
108016 @ 춤에 대해선 나중에 질문 하겟습시다예?  
108016 #1 이거 물허벅인게.  
108017 @ 올레 잇잖아예? 보면 모든 집들이 올레가 이서낫잖아예? 지금처럼 길 옆에 짓진 안헛잖아예?  
108017 #1 집광 큰길 사이에 집에 들어가는 디를 올레라 허주.  
108017 @ 올레를 무사 만들어수과? 기냥 길 옆에 집 안 지성.  
108017 #5 올레는 자기 집이 들어가젠 허민 늬의 땅으로 들어가저게?  
108017 @ 아니, 그계 아니고.  
108017 #5 길가에 집을 안 지엇느냐?  
108017 @ 예, 예.  
108017 #5 자기가 사용할 수 잇는 땅은 안쪽에 잇스니까 흘 수 어시 거기 짓고, 올레는 업스니까 들어갈 땅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으 막아진 땅을 자기 올레 헛 걸로 사서 담 다와그네 올레로 뎡기곡 헛주게.  
108017 @ 아니, 이게 길이면 길가에도 자기 땅이 잇을 수 잇잖아예? 집은 옛날

에 보면 길가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이서도 흐김 이렇게 올레를 만들  
양 집을 지을 지었는지?

108017 #1 안네 강 짓지.

108017 @ 예. 게 무사 경혜수과?

108017 #5 아마 조용하게 뭐 헐려고 그러는 거지.

108018 @ 게메양 경험구나예. 그다음엔 문간체, 이문간 잇잖아예?

108018 #5 세화리는 이문을 잘 안해서.

108018 #1 저, 거시기 내가 잇고, 저 가시오름이 잇는디 세화리는 가시오름이 대  
문이나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문 아난다고 해여.

108019 @ 아~. 그다음은 낮가리 잇잖아예? 놀 잇잖아예? 우연네 놀을 누면 놀  
누러놓고 이제 놀에 아이들 숨바꼭질하게 놀도 짝 채운 게 아니라 이제 그.

108019 #1 놀광 놀 사이에 트멍 잇주게.

108019 @ 예, 트멍 잇잖아예? 그거는 어, 놀과 놀 사이에 무사 트멍을 네수과?  
그걸 뭐렌 굴아수과 놀 사이에 트멍을.

108019 #1 트멍, 무시거엔 안 ㄱ라. 게난 만약에 놀을 웨 트멍 나게 허냐며는, 먼  
저 출 해당으네 출놀이 잇주게. 출놀이 이서. 곡식은 곡식대로, 딱루 누러야주게.

108019 @ 아니 그래서 옛날에 얘기들.

108019 #1 놀 트멍에 강으네 곱앗젠 해낫주게.

108019 @ 예, 예.

108019 #1 경허는 거. 놀 트멍이엔 허주게.

108019 @ 예, 예. 거가 강 숨바꼭질 곱을락 해낫지예?

108019 #1 경 허주. 겨난 그 놀이 저 대부분 겨울에 잇는 놀이 출놀. 그다음엔  
곡식 해당그네 누러나두는 거. 그 즉시 장만 못허며는 경 허주게.

108019 @ 아~.

108019 #5 경허난 조침 ㄱ튼 것도 나중에는 또 놀고, 흐민 으라게 영.

108019 #1 또, 고구마줄도 몰 ㄱ튼 거 맥여낫거든. 그것도 몰류며는 무꺼당으네  
흔 짝에 누렁 나뒹당으네 몰 맥이고 해엿주게.

108020 @ 맞수다. 그다음엔예? 그 돼지우리 뭐렌 굴아수과?

108020 #1 도통.

108020 @ 도통에 대해가지고, 도통은 대체로 어디다 지엿고, 어느 정도 크기에  
지엿으며 그 도통 속에는 뭐뭐가 이서신지 굴아줍서.

108020 #1 도통, 돼지허고 돌트구리베핀 더.

108020 #5 돛집.

108020 @ 돛집 이섯잖아예? 그다음 또 이서나지 앓아수과?

108021 #5 또 디딜팡이라고.

108021 #1 똥 싸는디.

108021 #5 똥 싸는디 그기베피 엿주게.



108021 #1 그게 화장실이주게.

108021 @ 혹시 옛날에 집에 문제가 있던 헤가지고 도통을 뛰어넘는 그런 뭐 방  
시 ㄱ튼 거 이서수과?

108021 #5 동토라고 헤가지고 그거 뭐 잘못 건드리민 동토 걸렸저 무시거 헛저  
허멍 허는 그런 거.

108021 #1 동티엔 허주, 동티. 거 동티 낫저.

108021 @ 동티낫저 한 것이 동티가 게른 돼지도통 이렇게.....

108021 #1 아니, 아니. 그게 안고.

108021 #5 동티, 저 도통 뛰어넘으면 무시거 허는 건 어서.

108021 @ 그면 이제 옛날에 도통에 동시에 디딜팡이 잇고예, 그담엔 변을 보거  
나 이렇게 헤난 다음에는 뭘로 따까나수과?

108021 #5 검질.

108021 @ 검질은 거기다 이성 뽕으멍 헨마씨?

108021 #5 아니, 그기 아지당 놔동 검질을.

108021 @ 그 디딜팡 옆이에.

108021 # 거기 낫당 그 검질을 그 무슨 종이가 이서서?

108021 @ 맞수다. 여기 질문이 이서부난 다시 여쭙보크라예? 게문예, 설사 날 뎨  
어떻 헤수과?

108021 #5 설사나면 계속 갖다왔다 할 수베끼.

108021 @ 설사 날 때 그 검질로 따끄며는.

108021 #5 검질로 헤주. 뭐 방법이 어서.

108023 @ 그담엔 쉼막예, 옛날엔 쉼막을 뒤편 곶아수과?

108023 #1 쉼막이주게.

108023 @ 그냥 쉼막예?

108023 #1 응.

108023 @ 쉼막에는 어떤 것들을 놓앗고 누가 살아수과?

108023 #5 쉼막엔 쉼가 살주게.

108022 @ 쉼만 살아수과?

108022 #1 쉼막에 여유가 이시며는 방아를 갖다 놔나서. 혼쪽에. 혼쪽에는 소 쪽  
메고. 만약에 집이 으롱게 이잖아이. 가운데 나뉘서 소들을 으디도 혼 머리 으롱게  
으롱게 메는 수가 잇주게. 여러 마리 흐면 여러 마리 메는 수가 잇고, 여유가 이시  
며는 혼쪽에는 방에 놔뒀.

108022 @ 방에 낫잖아예? 어, 게문 저가 쉼막에 뒀뒀 나놔수과 여쭙는 것은 헛  
간이 따로 이서수과? 곶쟁이, 삼 ㄱ튼 거 노는 거. 헛간이 따로 이서수과?

108022 #1 아, 기니까 거시기 이 쉼막에 이 거시기 기구덜, 그거 나뒀주게.

108022 @ 거난예, 어디다 놔나신고 헨.

108022 #1 그디가 헛간 뒀는 거지.

108024 @ 맞수다. 옛날에 장항이리영, 웅장 간장 항아리덜 어디다 놔나수과?

108024 #1 거, 뒤에도 놓는디 있고, 열에도 놓는디 있고.

108024 @ 그걸 뭐렌 ㄹ라수과? 항하리 놓는데를.

108024 #1 장독대, 장독대를 별도로 만든 데가 어서서.

108024 #5 고팡에도 놓곡, 뭘 베끼디도 놓곡.

108025 @ 아까 춤하고 춤향 말씀하섯잖아예?

108025 #1 어.

108025 @ 무슨 나무에 무신걸로 어떻게 헛는지 자시히 곶아줍서.

108025 # 춤향은 이 이파리가 겨울철에 아니 떨어지는 나무는 아무 나무라도 헤여. 아무나무라도 허곡 새로 헤그네 좀 여꺼. 으마니 여꺼그네 나무예 강 무꺼. 무꺼냥, 여자 머리 땃드시 따와나그네 항아리를 헤영 물이 그니 들어가게.

108025 #1 계난 물이 그 새로 인헤가지고 더러운 건덕지는 그 새에서 다 걸러져 그네 이레 떨어지주게.

108025 @ 춤향은 집집마다 다 이서수과?

108025 #1 다 잇주. 그래서 울타리에 나무 심는 거. 상록수 심는 거.

###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이체는 예 집을 다 지섯잖아예? 다 지서그네 장독대도 있고, 무신 저 아까 뭘 쉼막도 있고, 돛통시도 다 있고 한데 초가집은 지붕을 다시 새로 이엇잖아예?

108026 #1 어, 일 년에 혼 번.

108026 @ 일 년에 혼 번헤수과?

108026 #1 일 년에 혼 번이시난. 매 해. 겐데 다른딘 이 년에 혼 번도 잇는디 특 하나 으 표선면에는 장마가 잇기 때문에 일 년에 혼 번씩.

108026 #5 새 긴 걸로 행 집 인덴 허주.

108027 @ 그걸 어떻 준비헨마씨?

108027 #5 거기 그냥 새왓덜이 이섯주게.

108027 #1 새, 들에다가 새 들인 밧이 이서.

108027 #5 그거 헤다그네 허곡, 각단이라고 줄 놓는 거 잇주.

108027 @ 아, 새 중에서 짧은 새구나예?

108027 #5 각단. 각단으로 줄 놓주.

108028 @ 아까 말씀하신 줄 놀 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아수과?

108028 #1 줄 놓는 사람, 비는 사람.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빌주.

108028 @ 아, 그러면 졸븐 줄로는 졸른 줄 만들고 새로는.....

108028 #1 아니, 아니. 각단은 무조건 줄 놓는 걸로. 긴~ 새는 지붕 이는 거.

108028 #5 겨난 긴 새로 지붕은 허주마는 각단으로 지붕은 못 더퍼.

108028 @ 아, 기구나예. 근데 집줄 만들 때는 진 줄이 잇고 졸븐 줄이 잇잖아예?

108028 #1 어. 긴 줄은 이 삼칸집이녀는 켈 긴~ 게 잇잖아. 길게 들잖아. 썩른 줄은 가로 놓는 거.

108028 @ 기구나. 그 큰 만일에 이게 이렇게 지붕이라고 첫을 때예? 으기하고 으기하고 묶으잖아예?

108028 #1 겐디 이거 놓는 것도 긴줄 하나 노며는 썩른줄 두 개라든지 이렇게어나드령 노메.

108028 @ 어나드령예?

108028 #1 어.

108028 @ 으 줄을 무엇잖아예? 으걸 뒀엔 곶아수과? 무꺼지는 디.

108030 #1 거왕대. 대로 보통 허주게.

108030 #5 거왕.

108030 #1 거왕, 대로 허며는 거왕대고. 보통 대로, 왕대로 잘 허는디.

108030 #5 왕대 흐민 오래 가곡.

108028 @ 음~. 집줄 만들 때 걸 줄이렌 2라수과?

108029 #1 어. 집줄 빈덴 허주. 놓는 사람 으걸(호랭이) 비는 사람(돌리는 사람).

108029 @ 돌리는 건 호랭이잖아예? 붙잡는 건.

108029 #5 뒤치기.

108030 @ 그다음은예,평고대는 뭐파? 집을 이을 때 허는, 이건 거왕이고 평고대?

108030 #1 아, 저 거시기 서리 꼬쟁이에 거시기 너슨 현 거 말아냐?

108030 @ 대나무, 긴 대나무나 긴 막대기 혹은 철사 같은 걸로.

108030 #1 아, 아. 거왕 거왕.

108030 #5 그게 거왕이주게.

108030 #1 평고대가 아니라 거왕이엔.

108031 @ 거왕에 집 줄을 무끝 땀 뿔로 무꺼수과?

108031 #5 줄로게.

108031 @ 그것 자체로?

108031 #1 그걸 그대로. 평고대엔 표준어 그거 잘 만들어놔져 평고대엔.

108031 @ 길 줄 땀 때 줄은 몇 번 감아수과? 거왕에.

108031 #1 아, 흐 번 감아그네 딱.

108031 #5 삼커리, 삼커리로 으롱게 허면 바꼬땀로 영 들어가그네 일루 나와그네 또 일루 들어장 일루 나오민.

108031 #1 이레 등겨불민.(비닐로 묶는 법 시연) 비가 와나곡 춤허게 가라안지며는 으걸 땀긴단 말이야, 땀겨가지고 으 안으로 으롱게 와서 으걸 땀긴단 말이여, 으롱게 헤놔. 게 헤놔 그다음 이렇게 헤그네 으롱게 행 잡아메영 꼬너부려.

108031 @ 그것도 잘 안헤부렁 흘락흘락 헤불민.

108031 #1 겨난 두 번에 무꾼덴 허난. 처음 집 지어 일 때는 임시러 건짐 메고.

108032 @ 그렇구나예. 이제는 쓰다 남은 집 줄론 땀 만들어수과?

108032 #5,1 방식.

108032 @ 정지 방식에.

108032 #1 이렇 거 해당 남지? 남으며는 그걸로 똥그랗게 헤 낱 이렇게 사이에 꼬며는 가운데는 구멍 뚫리지고.

108032 #5 게, 거 멘들아그네 정짓일 허멍 낱앙 앓곡.

108032 @ 경헛구나예.

108032 #1 것 ㄱ라 도리방석이엔 허주.

108032 @ 아, 도리방석이엔 헤수과? 줄방석이 아니라 도리방석.

108032 #1 똥그랗게 만들민 도리방석, 겐디 줄로 만들민 줄방석.

## 연장

108033 @ 집지슬 때 연장들이 필요하잖아예? 집지슬 때 어떤 어떤 연장들이 필요혜수과?

108033 #5 목수가 다 가정 오는 거니까.

108033 @ 생각나는 대로 곁아줍서.

108033 #1 에~, 톱.

108033 #5 자귀, 끌, 데페, 홈베기, 또 이 저 낭 까끄는 귀자귀, 그런 것들 잇주.

108033 @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저, 여쭙볼게예?

108034 @ 톱은 어떤데 사용하고 종류는 뭐가 이수과?

108034 #5 톱은 무조건 나무 잘르는 거.

108034 @ 예.

108034 #5 낭 끈는 게 톱이고.

108034 @ 톱도 한 쪽으로만 톱날이 뵈 거 잇고, 양쪽으로 톱날이 뵈 거 잇고.

108034 #1 웨날 톱도 잇고, 쌍날 톱도 잇는데 보통 톱 허며는 혼 쪽에는 저 그대로 끈는 거. 허나는 무늬 좋게시리 곱게 끈을 때 쓰는 거.

108034 @ 톱 이름이 뭐파?

108034 #1 줌진톱이 잇주게. 줌진톱, 큰톱 잇주. 큰톱 죽은톱 허는다.

108035 @ 그다음엔예, 못 뽑을 땐 뭇로 뽑아수과?

108035 #1 못빼기.

108035 @ 못빼기를 다른 말로는 어서수과? 그냥 못빼기?

108035 #5 요사인 빠룬디~, 옛날엔 못빼기엔.

108036 @ 그다음엔 아까 데페 말씀하섯잖아예? 옛날에는 데펜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

108036 #1 데페?

108036 @ 예.

108036 #1 밀데페가 잇고, 그대로 데페가 잇고, 홈 지우는 홈파는 데페가 이서.

108036 @ 그 이름은 뭇렌 헛니까?

108036 #1 흠베기.

108036 @ 아, 흠베기가 흠 파는 데페구나예?

108036 #1 어.

108037 @ 그다음엔 자, 지금은 줄자주마는 옛날엔 어떤 거를 자로 사용혜수과?

108037 #1,5 곱은자.

108037 @ 곱은자 잇고 또?

108037 #5 곱은자베편.

108037 #1 보통 목수들은 곱은자베편, 줄자는 어서서.

108037 @ 곱은자가 할 수 잇는 건 한계가 잇잖아예? 긴~ 거 험 땀 뿜로 혜수과?

#1 긴 거 험 때 무시거 끈이나 헤여그네 재여그네 으거 얼마여.

108038 @ 혹시 먹통이나 먹줄 그런 거 어서수과?

108038 #5 먹통 그런 거 다.

108038 @ 먹줄 먹통 이섯지예?

108038 #1 그런 거 이서.

108038 @ 옛날에도 먹통 먹줄이엔 혜수과?

108038 #1 어.

108038 @ 먹통 먹줄은 어떤데 사용혜수과?

108038 #1 먹통은 먹통에 줄이 이서그네 그 흑 무처저그네, 먹 무처저그넨 영, 으롱게 눌러블민 무처정 땡기며는 그게 땡겨져, 그래서 딱 거기장 꼬부며는 으것 탕 탕구리면 줄 짹혀게 나오지.

108038 #5 줄 그어정.

108038 @ 자 역할을 헤나신게예?

108038 #1 어. 긴 자 역할 헤서. 것 그라 먹술이렌 허주.

108038 @ 먹술? 거 봅서. 게난 먹술 이수게, 다른 말이. 먹술예?

108038 #1 먹술 탕겨보라, 헤낫주. 옛날 그 사또 잇잖아? 사또가 귀자귀 자귀로 나무를 짹, 깎고 잇거든. 짹 깎고 잇스니까 그 저트, 길게 거시기 뭐 헤놓고 어떻게 얼마나 그걸 잘 허느냐고 갱 하니까 자귀질 하다가 저트, 그 사또 입은 관리가 입은 그 옷에다가 계춤을 탁 허게 바닷서. 바트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웨 그런지 볼 거 아냐? 켄디 자귀질 하다가 짹 그 자귀로 허난, 그 계침 바꾼 걸 짹 까까 버렸대. 한나 옷도 상허지 않고. 그런 기술이 이섯다고 헤여.

108038 @ 듣기도 처음이우다예?

108039 @ 그다음엔 우리가 빈지를 만들잖아예? 빈지를 세울 때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흑을 곱딱허게 허젠 만들잖아예?

108039 #1 앙토.

108039 @ 발르는 걸 앙토렌 험니까? 발를 때 그 기구를 뭐렌 곱읍니까?

108039 #1 아, 손. 흑손.

108039 @ 흑손. 흑손인데 영영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서 바르잖아예? 이 건 뭐런 ㄹ릅니까?

108039 #1 받침. 흑받침.

108039 @ 흑받침예. 흑받침은 무슨 낭으로 써수과?

108039 #1 그, 판자.

108039 @ 그냥 판자?

108039 #1 널짝. 옛날에는 널판이 귀혀주게. 귀혀니까 보통 저 옛날에 자귀로 나무를 이렇게 쪼갯서 이. 쪼게가지고도 허고, 그렇잖으면 큰 나무를 아릅드리나무를 들이 뺑기는 줄테페, 그자 줄톱으로 밀고 뺑기고, 밀고 뺑기면사 나무를 오렸거든.

108034 @ 아까 톱 종류에서 줄톱도 이섯구나예? 아까 그 톱에 ㄹ는톱도 이섯고 양날톱도 이섯고 줄톱도 이섯구나예?

108034 #1 응.

108039 @ 경행 펜펜허게 헤그네 그걸로 흑손을 만들엇구나.

108039 #1 밑에 손잡이 만들어그네 탁 바쳐그네 흑 해당 얇게 헤가지고 여기에 삽으로 떠서 이 우터레 노며는 그사람 우에, 높은데는 칭게 봐야 일어살 거 아니라? 경행 밑에서 받아그네 거기서 으기에 낱 이거 허주.

108039 @ 그게 나무로 사용하다가 췌로 바졌잖아예?

108039 #1 어.

108039 @ 췌로 바뀐 지 언제쯤인지 알아지쿠과?

108039 #1 거, 췌손.

@ 췌손은 언제쯤 헤수과?

108039 #1 췌손, 췌손 나온 게 해방 후에베끼 나는 못 봐서.

108039 #5 췌멘으로 헐 때는 췌손이 나온 거.

108039 @ 췌멘이 언제부터 헤수과?

108039 #1 해방 후에.

108039 #5 흑 흘 때는 췌손이 어섯고, 췌멘.....

108039 #1 그때 전부 그 저 흑손이라.

108039@ 예, 알았습니다. 오늘 집짓는 거는 여기까지 하겿습니다예.

## 9. 신앙

109001 @ 그냥 흔히 집에서 하는 거 여췌보겿습니다예. 흑시 저, 어디 다니는데 이수과?

109001 #6 다니다가 안다녀요.

109001 @ 어디 교회 다녀수과, 절에 다녀수과?

109001 #5,6 절에.

109001 @ 무사 안다넘수과?

109001 #6 절에 다니다가 저디 막 트라블 생겨서 송서 재판허곡 막 허니까 그 설러비엇지요. 설러벳자녀.

109001 @ 계난예, 오늘 저가 하는 건 뭘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예 여기서 헛던 것들 일어난 일들을 예, 그냥 옛날 썼던 말들로 지금 허듯이 골아주면 똤는 거라예?

109001 #6 예 예 예, 알아수다.

109001 @ 절대로 이건 표준어로 골아야 똤 거라 해가지고 허든 절대로 경허든 안똤 거예?

109001 #6 알아수다.

109001 @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주십서예? 기왕이면 옛날 말들 생각하멍예?

109001 #6 예.

109001 @ 지금부터는 신앙에 대한 건데 절에 안다니셔도 상관 어신 거예? 일단 제사 지낼 때 허는 거라 먼저 한 번 물어본 거라예? 계난 절엔 안다넘고예?

109001 #6 예.

109001 @ 혹시 집에 모시는 신 이수과?

109001 #6 신은 없어요.

109001 @ 신은 없고예? 혹시 집안에서 대대로 모시던 신은 어수과?

109001 #5 어서.

109002 @ 없고예? 계든, 집안에 모셨던 신이 어시민 성주도 어시쿠다예?

109002 #6 아, 성주는 네낫어요.

109002 @ 아, 성주는 네나수과? 그든 성주 똤 때?

109002 #6 나가, 나가 아프니까 굿헛어요.

109002 5 굿해낫주게. 굿 헛 때에.

109002 #6 굿 헛 때에 성주 네서 므녀 시작, 성주 네놔서 굿 시작합니다게.

109002 @ 성주 똤 때 그 과정을 골아줍서.

109002 #6 성주 똤 때 내가 아프니깐, 나가 아팠 다 죽어가니까 무당 빌어당 헤시난.

109002 @ 굿허난 나습디가?

109002 #6 굿허난 낫질아녀고 수술, 디스쿠 걸러네 권원에서 잘못하니까 전딜 수가, 다리가 딱딱딱 티고 전딜 수가 엇스니까, 헌덴 헌 건 다 해똤서요. 굿도 똤 번사, 죽은 굿도 똤 번헤고, 우리 아저씨가 저 할림ㄱ지 가서 다 점 지레 다니고 다 들어보레 다니고, 게서 부천 중앙병원에 가서 또 수술, 재 수술헤연 살앗지.

109002 @ 음~, 지금은 쁘찮아마씨?

109002 #6 예, 이제는 흐건디가 한 이십오 년 넘으니까.

109002 @ 그추룩 헤신디 쁘찮아마씨?

109002 #6 한 마흔네 설에 경혜시난.

109003 @ 아이고, 경헛구나예. 문전제사에 대헛 곁아줍서.

109003 #6 문전제사는 우리 노는 데로 기자 문전은 절헛고 다 헛서 승농헛고 다 헛서.

109003 @ 어떤식으로 상 출리고 헛수과?

109003 #5 문전제사는 제사는 술을 쳇 번 올리곡 이 저 참잔 헛곡 헛 네 번을 잔을 올리는데, 문전제사는 헛 번에 올리주게.

109003 @ 아, 경헛수과?

109003 #6 헛 번 헛 잔. 헛 잔 올려그네 승농 올려. 헛 번에 딱 헛게 올린 거 쯤 끽씩 잡식 헛짜그네 딱 걸로 끝나는 거, 문전제서는.

109003 @ 문전제사는 상차리는 거 그날 제사 할 것들 다 놓고예?

109003 #5 다 놓고.

109004 @ 다음엔예 조왕에 대헛 곁아줍서.

109004 #6 조왕은 그 조왕에도 음식을 꼭 ㄱ찌 놓곡, 다 밥 한 사발 거러놓고, 곡 한 사발 헛곡 숟가락 다 놓곡, 것도 조왕에 다 허여.

109004 #5 건, 고펡에 아저당 놓는 거.

109004 #6 옛날 고펡에 놓는디 이제는 부억에 놓지.

109004 @ 그믐 조왕제 지넛 땐?

109004 #5 건 제 안지네는 거.

109004 #6 쯤 지네지 아녀고 감지 헛다가 잡식헛서 버리는 거.

109004 @ 감주만.

109004 #6 응, 감주만.

109004 @ 문전제사엔 술도 놓는디 술도 안 놓고마씨?

109004 #6 어, 술도 안 놓고.

109005 @ 아, 기구나예? 혹시 칠성은 모셔나수과?

109005 #6 칠성, 우린 안헛여.

109005 @ 혹시 이 동네도 칠성 모시는 사름 이서나수과?

109005 #6 이서, 이서낫주. 이서도 다 치왓주.

109005 #5 다 이젠 안헛여.

109005 @ 안헛고예?

109005 #6 이제 치와서.

109005 @ 혹시 칠성 모셔난 그 집엔 어떻.....

109005 #6 시방도 경 헛실 거, 모셔나네 그디서 뉘 헛실거라게.

109005 @ 몇 세쯤 난 분들이파?

109005 #6 시방 나이?

109005 @ 예.

109005 #6 돌아가셔 부럿주게. 다 돌아가시고 시방 잇는 분은 여자분 하나 신디.



109005 @ 예~.

## 12. 통과의례

### 출생

112001 @ 이제는 예, 아까 그 조왕이니, 칠성이니 그런 부분들 다 끝나고예, 이젠 통과의례렌 해가지고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뱃속에 이이 키우고 낳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저기 여쭙보크라예?

112001 #6 응.

112001 @ 거난예? (웃음) 거난 요만, 뭐 헛어요만 안헤그네 그냥 동네사람안티 마르듯이 마라줍서예?

112001 #6 알아시난.

112001 #5 경헤야 돼여.

112001 @ 이거 하는 목적은예? 여기 저, 세화리에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말투를 사용헤신가 그걸 하는 거라부난예? 모르민 그냥 몰라도 돼는 거예?

112001 #6 응.

112001 @ 걱정허지 말고예?

아까 그 저기 이남 이너렌 헤신디예? 아, 어, 그 태교는 어떻 헤수과? 뱃속의 아기를 위헤가지고.

112001 #6 아무치도 안헿 순순이 낳주게.

112001 @ 아니, 그니까 태교, 뱃속에 잇슬 때 우리 애기 뭐 훌륭한 뭐 무신 대통령이 돼게 헤줍서 라든지.

112001 #6 아녀서, 아녀서. 그런 거 아녀서.

112001 @ 기냥 임신헤시난 가지고 열 달웨시난 낳고.

112001 #6 아홉 둘만에 나서. 우리 큰 아덜만.

112001 @ 큰 아덜예.

112001 #6 경헤도 그렇게 으망젿서.

112001 @ 경헿구나예. 거문예, 태교는 경헿다 치고.

112002 @ 그다음엔 애기날 준비를 헿잖아예, 그건 어떻 헤수과?

112002 #6 아이고, 애기 낳, 옛날 촌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게. 계난 애기 나동 듯날 일허레 가곡 다 헿주게.

112002 @ 진~짜 듯날 일허레 가수과?

112002 #6 응, 우리 듯날 일허레 가곡.

112002 @ 애긴 어떻 헤비동.

112002 #6 애기구덕에 저 아정. 저 아저그네.

112002 @ 밧디 가수과?

112002 #6 밧디. 그때 고구마 빼떼기 썰어네 흠맛, 오름에서 몰류난 그거 거두레 애긴 득란 갓주게.

112002 @ 가을에 낫구나예?

112002 #6 응, 가을에 난. 구월에 난.

112002 #5 북서풍이 워낙 세게 분디, 막 춤주게. 추운디 간. 구덕에 애기 녹전에 담얌에 보름 의지에 간 영, 하니보름 의지에 간 영 놔뵤. 죽기 살기로 막 일만 허단 완 보난, 폭 어퍼저비언.

112002 @ 하이고게.

112002 #5 거난 쏘곶에서 기냥 경해도 잠 자분 거라.

112002 @ 집에서 애기 낫잖아예?

112002 #6 다, 집에서 애기난.

112003 @ 그믐 테와 텃줄은 어떻 헤수과?

112003 #6 불로 스랏주게.

112003 @ 테반 텃줄 다 스란예?

112003 #6 다 스란.

112003 @ 게민 누게가 짤라수과?

112003 #6 (손으로 노인회장님을 가리킴)

112003 @ 누게 짤르는 거 봐나수과?

112003 #5 아이 봐나도 뭐.

112003 @ 안 봐나도 그냥 짤르고예? ㄴ세 뭐 소독, 끌령이라도.

112003 #6 소독허곡 무신 하간 거 허곡 하이고.

112003 #5 경해도 어떻 안 허여.

112004 @ 그믐 그, 애기 나 노면, 산모 음식으론 뭐 헤먹어수과?

112004 #6 밀가루, 아 그 저 모물가루.

112004 @ 옛날엔 모물을 뭐렌 ㄴ라수과?

112004 #6 메밀. 모물, 모물 ㄴ루 헨 가루 타 먹언.

112004 @ 저베기 흰마씨?

112004 #6 그자, ㄴ루 흘탁허게시리 헤그네 그자 모물저베기 허는 식으로 ㄴ라그 네 흘탁하게 헿 먹엇주게.

112004 #5 갱헿 뿌리멍 저스민 막 받은 카지곡.

112004 @ 메역국은마씨?

112004 #6 메역국은, 아이고, 무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노난 메역국은 안 먹어 서. 옛고 힘들어노나네.

112004 @ 게민 그 모물로 혼드락허게 허민 그거 맛 좋읍디가?

112004 #6 맛종을 리가 이서게? 맛 좋으멍 말멍 먹을 거난 먹엇주게.

112004 @ 경혜수과?

112004 #6 먹을 거난 먹엇주.

112005 @ 깨민 애기 목욕은 어떻 시켜수과?  
112005 #6 목욕은 우리 씨어머니가 시나네.  
112005 #5 거난, 우린 일허레 가불민 어머니가 문 아이덜을 다 밥 주곡 키왔주게. 집이서~.  
112005 # 젓 맥이러 밧디 정 오곡.  
112005 #5 경흐곡, 낮 웨민 업영 밧디, 혼 오리, 오리 흐면 지금 ㄱ뜨민 약 혼 스키로. 걸영 젓 맥이레 가곡.  
112005 @ 흐루에 밧 번마씨? 젓 맥이레.  
112005 #6 흐루 혼 번 맥이곡, 저녁에 왕 맥엿주게.  
112005 #5 낮에 혼 번 원.  
112005 @ 하이고 경헛구나예?  
112005 #5 경헛 살아서.  
112006 @ 애기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을 뭐렌 곱아수과?  
112006 #6 것 ㄱ라 벳저고리엔 곱읍니까?  
112006 #5 벳저구리.  
112006 @ 벳저구리~. 보텃옷예? 벳저구리는 누가 만들안마씨?  
112006 #6 할망이.  
112006 @ 만들안 나듭디가?  
112006 #6 응 응.  
112007 @ 음, 경헛구나예? 그 혹시 할망상이라는 거 들어봐수과?  
112007 #6 우리 할망상 안 나.  
112007 @ 할망상 허는 디 어디 잇지예?  
112007 #6 잇긴 이서도 우린 안 해봐서.  
112007 #5 삼신탈망? 그런 말은 해도 우린.  
112007 #6 상신탈망 우린 안헛.  
112008 @ 배넛머리는 어떻 해수과?  
112008 #6 베넛머리?  
112008 #5 거는 문 끈엇주.  
112008 @ 언제 끈어수과?  
112008 #6 초과일 날 끈엇주.  
112008 @ 가을에 나도, 봄에 나도 초과일 그렇게 예?  
112008 #6 어. 겐디 제집아의는 안 찢라서, 소나눔만 찢란.  
112008 @ 소나눔만 찢란예?  
112008 #6 어.  
112008 @ 그 찢르는 건 누가 찢라수과?  
112008 #6 이디 하르방이 다 이밭해서.  
112008 @ 기파?

112008 #6 가위로 문 탁탁 잘란.

112008 #5 가위로. 제집아의덜 단발도 다 나가 해주고.

112008 @ 경헛구나예?

112009 @ 사십육 년생이렌 헛잖아예? 육십육 년에 애기를 나아신디 그때당시엔 그 흥역이나 저 천연두 ㄴ튼 거 어서수과?

112009 #6 흥녁은 막 아이가 야트게 헛 흥녁 허는 등 만둥 너머가서.

112009 @ 넷 다마씨?

112009 #6 아니, 아니. 죽은아덜은 고등학교 이학년 때 흥녁 막 크게 헛네. 학교 서 저 시에 살면서 허니까 시방 몸에 다 꿈보저서.

112009 @ 저, 그 다쳐난 아이마씨?

112009 #5 음.

112009 @ 나머지 셋은 그냥 무사히 너머 가고예?

112009 #6 응. 무사히 넘고게. 가의는 고등학교 이학년 때 경헛. 시에 살명.

112009 @ 그러면 흥역 헛을 때 집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주과?

112009 #6 흥역 허미는 이 모든 게 칼질 허는 거라도 주의허꼭 다 허꼭 주의헛서.

112009 @ 칼질허는 것도마씨?

112009 #6 췌 ㄴ튼 것도 무시거 허곡, 닥닥닥닥 흐는 거 다 주의허라 그측 허거 든. 근디 우리 아이덜 세 개는 다 게북게 허니까 자리 정 눅거나 무시거 안헛나서.

112009 @ 고등학교 텅겨부난 막 힘들게 헛구나게.

112008 #6 가의 고등학교 때 헛부난 크게 헛. 학교를, 강헛부나네 이녁만 자치허 니까 그디서 막 게네 보나네 학교를 흐 일주일 동안 못가네 그추록 헛낫주게. 시방 도 몸 안에 조금 조금씩 꿈보 서.

112009 @ 얼굴은 어떻 안 허고예?

112009 #6 응, 얼굴은 어떻 안 허고.

112009 @ 경헛도 것도 소망 이어수다게. 흥역 때는 칼 소리 난다든가 그렇지 안 허고.

112009 #5 조심허주. 큰 신 ㄴ찌 막 헛어.

112009 #6 그거를 잘못허다간 탈 보카부덴.

112010 @ 올레 바깥디 뭐 이렇게 뭐 뭐파 거?

112010 #6 솟 메는 거?

112010 @ 예.

112010 #6 솟은 안 메고.

112010 @ 애기 날 땐 메수과?

112010 #6 애기 날 땐 다 안 메서. 우린. 솟 안 덴.

112010 #5 우린 아무것도 다 안덴.

112010 #6 애기를 쉽게 나니까, 그자 금방 검질 메당 왕 그자, 춤 우리 죽은딸은

열 시까지 검질 매단 완 금방 나비서.

112010 @ 족은뜰은 네 번째 마씨?

112010 #6 세 번째.

112010 @ 아들이 네 번째파?

112010 #6 아들이 세 번째.

112010 @ 그른 아들, 딸, 딸, 아들?

112010 #6 응.

112010 @ 경헛구나예? 그른 애기 낫을 때도 솟도 안 메고예?

112010 #6 응. 솟도 안메고, 아무 것도 안헛.

112010 @ 바로 검질 메레 가고예?계면, 특별나게시리 애기 낫덴 헤가지고 막 금기 하거나 이런 건 어서수과?

112010 #5 그런 것도 아녀보고.

112010 #6 아녀보고.

112010 @ 경해도 잘 크고예?

112010 #6 어. 겐디 다침은 다 흐 번씩 막 헛. 우리 큰아덜도 다리 갑자기 오그라져벤게. 경헛 막 밤이, 흐 멧 시 웅 후제 그때 영동병원 아니다. 저 저디 그 무신 병원이니, 그 호방에 이서난 디.

112010 #5 아 저 서귀포?

112010 #6 그디 가네, 그 다리 흠마 이 저 그 ㅁ장썸 걸러시카부덴, 갑자기 다리 오그라정 걸질 못헤 가니까. 그때 학교는 안 다닐 때라게. 경헛 흐곡. 족은 아덜은 막 여라 번 다천.

112010 #5 동산의원인가?

112010 @ 예, 옛날에 이서낫덴 헛디다.

## 흔레

112011 @ 그러면 결혼식 헛 때는 그때가 그른 육십오 년썸이난 그른 결혼식은 막 현대식으로 헤시쿠다예?

112011 #6 그자 저 옛날 가메, 우린 가메타곡.

112011 @ 아, 그때도 가메타수과?

112011 #6 어, 우린 가마로.

112011 @ 가메 탄 갓구나예?

112011 #6 집이 가까우니까 이디민 으 저 저디 저 무시거 찜질방 막 거리 반베 띠 안 뉘니까 가메 타고.

112011 @ 기파?

112011 #6 응, 가메타고. 가메타는게 버스 타는 거사 계속허주마는 가메타는게 힘들잖아.

112011 @ 맞아 예.

112011 #6 어. 가메타고.

112011 @ 경헛구나예? 그때도예?그 때 결혼 헛을 때 한번 영 쪽~ 곁아봘서. 어  
뎡 헛신지 가마타그네.

112011 #6 그때는 뉼 무시거 족두리 쓰꼭 가마 탕 가민타민 걸로 끝. 한복 입언  
그때, 한복.

112011 @ 그믐는 그때 시집살이 헛 거꽈? 헛 집에. 안팍거리?

112011 #6 아니, 아니. 거리는 일루 그트민 저 찜질방 거리마니베끼.

112011 @ 그게 아니라 시집 강.

112011 #6 아, 우리 씨어머니 헛나뿐이난 그찌 살앗지.

112011 @ 경헛구나, 어머니 혼자 계섯구나예.

112011 #6 어, 혼자 계시니까.

112012 @ 음, 두 분 결혼은 중매 혜수과, 연애 혜수과?

112012 #6 그라봘서.

112012 #5 연애주.

112012 @ 경해도 그때도 아멩해도 헛꿈 낫다예. 다른 분들은 보난 막 일제 때  
결혼하고 할 뎡 그런 게 어선게 마는 예? 경해도 나이 흠김 차이 이서실 건디다가.

112012 #6 (웃음) 이 하르방 젊은 때는 시방 영 늙어부난 뉼 헛주 완전 머섯저나  
서(웃음),

112012 @ 경헛 거 담수다게.

112013 @ 경허며는 연애 혜부난 무신 저 막 편지 그튼 거 주고받고 안헛시키여  
예?

112013 #6 그런 거 어서.

112013 @ 안헛고예.

112014 @ 그다음 결혼혜난 다음에 이제서 경허는디 옛날엔 어떻헛신지 모르쿠다  
마는 이바지음식 그튼 거 혜수과?

112014 #6 우리, 이바지음식 안헛서.

112014 @ 안헛지예?

112014 #6 우리도 우리 어머니 혼자뿐이니까 이바지음식 안헛서.

112014 @ 아 기꽈? 사삼 때 그면 삼춘 혼자 낳아신디 양?

112014 #6 동생 이신디, 우리 동생은 팔월 달에 낳고 동짓뜰에 우리아버진 돌아  
가시고 사삼사건 나부니까, 동생 이서.

112014 @ 계믐 어머니가 오누이를?

112014 #6 자매를.

112014 @ 자매를 혼자 키우섯구나예? 잘도 힘들어시키여예?

112014 #6 음.

112015 @ 시집 갈 때 아멩 어려워도 이불은 헛 가수과?

112015 #6 이불 헛 갖주, 무사.

112015 @ 이불 때 채 혜수과?  
 112015 #6 이불 때 채 출리곡. 혼 채 행가서.  
 112015 @ 기파? 근데, 삼촌도 잘도 고와나신게마썸.  
 112015 #6 고와나서?  
 112015 @ 예. 고와나실 거 답아.  
 112015 #6 늘거부나네 시방 젊을 때도 이거주.  
 112016 @ 결혼 할 때 예장은 어떻 혜수과?  
 112016 #6 예장, 우리 웨삼촌네가 시니까 예장 혜낫주.  
 112016 @ 다 혜쫓낫구나예?  
 112016 #6 다 혜난.  
 112016 @ 그 예장 할 때 함엔 무시 거 낫고, 이런 거 다 혜수과?  
 112016 #5 다 헨.  
 112016 #6 옛날 함엔 혜봐야 시마지 혼 통 노앗주게. 그 애기 나민 샷마흐렌 시  
 마지 한 통 논 거 뿐이주게.  
 112016 #5 옛날엔 다 경혜서게.  
 112017 @ 경헛구나예. 가문잔치는 헛잖아예?  
 112017 #6 가뭇잔치명 잔치명 이틀 허는 건 이틀 허는 건디 우린 켜당덜만 영  
 헤그네.  
 112017 #5 가문찬치는 아시 날 전날에 도새기 잡앙 그자 막 가까운 동네헛곡 친  
 축 근당들 헤그네 저녁 먹고 흐는 거주게.  
 112017 @ 경 헛지예? 그때당시에 가문잔치 허면 부주는 무시 걸로 어떻 혜수과?  
 112017 #6 옛날엔 부주, 쌀. 보리쌀이민 브리쌀 혼 말 헤오는 사름, 닷 돼 헤오는  
 사름 그추룩 헛주게.  
 112017 @ 경 헛지예?  
 112017 #6 이젠 돈으로 헛곡, 요세 잇다가, 또 곤쌀 혼 말 허는 사름도 이서나곡,  
 건디 그 시절엔 보리쌀, 대중 보리쌀, 보리쌀이나 좁쌀 그런 거 헛주.  
 112017 #5 돈이 그렇게 귀헛주게.  
 112018 @ 맛수다예. 그때 우시는 누가 가수과?  
 112018 #6 우리 웨삼촌.  
 112018 @ 웨삼촌이 다 가고예?  
 112018 #6 다 돌아가서부난 이제 엇주.  
 112019 @ 음. 그 대반은 누가 안자수과?  
 112019 #6 대반은 우리 동세.  
 112019 @ 동세, 그른 삼촌이 뗏 번째파?  
 112019 #5 막내.  
 112019 @ 아, 막내구나예. 형제 뗏마썸?  
 112019 #5 서오누이.

112019 @ 서오누이, 그 중 막내구나예. 대반 잇고, 중방은 어떻 해수과?  
 112019 #5 중방?  
 112019 @ 예 중방.  
 112019 #5 중반이엔 현 말은?  
 112019 @ 여긴 대반만 안지고예?  
 112019 #6 대반 아지국, 남잔 우시 안지국.  
 112019 #5 남자도 대반은 안주게.  
 112020 @ 맞수다. 부지는 보리쌀, 두 돼나 혼 말허곡.  
 112020 #6 보딘 무시 거는 혼 말, 경 아녀민 두 돼 그거주게.  
 112020 #5 두 돼가 닷 돼주게.  
 112020 #6 두 관돼.  
 112020 #5 두 관돼가 닷돼주.  
 112021 @ 혹시 이 동네도 암창개 헤난 사름도 이수과?  
 112021 #5 암창개 어서.  
 112021 #6 암창개는?  
 112021 #5 거 여자 어신디 남자만 와그네.  
 112021 @ 정 허기도 허고.  
 112021 #6 옛날에 누게 이섯단 다 죽어부난, 그 사름 이서나그네 헤서. 암창개 헤네 이디 왓단 헛젠 헨디.  
 112021 #5 암창개 허민 서방 어신디 여자만 가그네가 암창개고 그거주게. 예를 들어서 군인을 가비영 날짜를 정해놔신디 군인 가비영 난리 못 올 때는 암창개로 그냥 그날 새각시만 데려가는 거주.  
 112021 @ 그런 적은 없고예? 이 동네에서?  
 112021 #5 이 동넨 어서.  
 112022 @ 그믐 혹시 사혼은 해나수과?  
 112022 #5 사혼은 뭐 계속됐주, 사혼은.  
 112022 @ 사혼은 계속헤여예?  
 112022 #5 사혼은 뭐 요즘은 그런 거 아년는디, 혼 일이십 년 전만헤도 사혼허던 사름덜은 가끔 이이서실 거라.  
 112022 @ 삼춘네 집안은 어서수과?  
 112022 #6 어신.  
 112023 @ 결혼 헐 때 혼례와 관련헤 가지고 금기 ㄴ튼 게 어서수과?  
 112023 #6 아이고, 우리 헐 때가 금혹곡 무시거 혹곡 헤저서게?  
 112023 #5 아무것도 우린 기자 원.  
 112023 #6 시집이엔 가민 한복 혼 불 그거. 그거 받은 거주.  
 112023 @ 아니 뭐 잔칫집에 동티난 사름은 가지 말라든가?  
 112023 #5 우린 그런 말도 안헤나서. 이 북군더렌 그런다고 허드라고. 경헤그네



잔치 택일 나곡 동네 택일 나민 자기네 잔치 허게 돼민 그디도 안 가곡, 이 북군에  
는 경헛넌.

112023 #6 여기도 경허는 사름은 경 험서. 잔치 택일도 혼 들 안에 나민 이 집이  
잔치 험 때는 그 사름이 안 오주. 경 험나신디 이제는 경 허는 사름도 가끔 이서도  
하진 안 허주게.

112023 #5 자기 집에서 안 허고, 전부 마을회관에서 험노니까.

112023 #6 이디, 이디왕 현 때문에.

112023 @ 이젠 그럴 필요가 어신 거잖아예?

112023 #6 음.

112023 @ 이제까지는 결혼식 잔치에 대한 거고예?

### 상례

112024 @ 장례식에 대한 거를 여쭙보크라예? 이 사람이 죽어신지 안 죽어신지  
어떻 확인험나수과?

112024 #6 아, 우리 시부모네는 집이서 돌아가시니까 병원에 강 돌아가시지 아네  
고, 집이서, 우리 집 안에서 죽으니까 집이 낫다가 영장 험주.

112024 @ 아, 케난 이 어머니가 죽어신가 살아신가 확인을?

112024 #5 아, 계속 밤낮을 지켜 잇거든.

112024 #6 계속 앞이 지켜 아지니까.

112024 #5 언제 목숨 떨어질지 모르난 동네사름덜 뭐 권당덜 막 웨어정 밤 세는  
거라.

112024 #6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덜이 서울에 대학교 가니까 그디 침 우리 아덜  
오자마자 할무니 나, 케나제나 ‘영철이 와시냐’ 이름이 영철이니까 ‘영철이 와시냐’  
허나네, 방학험 오니까 칠월 달에 돌아가셔신디 우리 아덜이 와서 ‘할머니 나 와수  
다’ 허난 듯날 오갓 돌아가션,

112024 @음, 아 막, 손지 기다려신게예?

112024 #6 손지 기다련. 그 손지가 그렇게 할망이 에끼고, 춤 나가 때러벳다그네  
메칠씩 말도 안 글곡 험서.

112024 @ 그 다른 손 위 동서의 얘기들도 이서실 건디예?

112024 #6 우리 동세네 얘기는, 우리 동세네는 양젤 가부니까 큰아방 아덜은 양  
젤 가부니까 우리 씨부몬 모시고 우리가 험 거니까 우리가 모시고.

112024 @ 음, 경 험구나예? 그며는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돌아가섯져 허민  
걸로 돌아가신 거마썸?

112024 #5 으응, 다 아장 자지도 안허고 그냥 아장 날 셋어. 자꾸 뗏 분에 혼 번  
씩 강 영 맥 지퍼보곡, 영험당 맥 떨어지민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섯져’ 허민 걸로  
웨어난.

112024 @ 거민 돌아가섯져 허잖아예?

112024 #5 맥이 안 껌히며는 아는 거주게.

112024 @ 거민 안 잡혀서 돌아가셨다 허민 언제 그 입관 험니까?

112024 #5 건 가그네 날짜 강 빵, 와그네 어느 날에 조반 허라, 뭐 입관 허라, 뭐 하관 허라, 다 택일 행 오랑.

112024 @ 혹시 죽엇덴 헛는데 살아난 경우는 어수과?

112024 #6 구십셋 난 돌아가셔노난.

112024 @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어머니일 경우고, 동네 누군가가 죽엇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도 안헤신디 죽엇저 행으네?

112024 #5 아니, 그런 사름은, 그런 경우는 어디 어디서 우리도 그런 말은 들어서.

112024 @ 계난예?

112024 #5 죽어네~ 예, 사름이 죽엇는디 다 무껌 나뒀는디 뭐 무신 관이 딱 헨 놔뒀는디 무신 소리가 통통 나니까 열안보나네 살아 살안 뭐 헛젠 말은.

112025 @ 그난 그럴 수도 잇는 거잖아예? 그다음 죽은 다음에 복 불를 땐 누가, 언제, 어떻게 불리수과?

112025 #6 아, 혼 불를 때?

112025 #5 혼 불를 때는 동네사름안티나 대게는 권당, 권당 그 삼춘 벌 뒀는 사름, 조카 벌 뒀는 사름이영 허그네 흐며는 그 저 흐쉴 머 험셴 흐며는 옛날에는, 지금은 베피띠서 영 사그네 허는디, 지봉 우에 올라 가, 지봉 우에 올라 강 그 혼적삼 이라는 게 이서이, 혼적삼 영 들렁 삼춘 벌이민 ‘삼춘! 삼춘!’ 혼 세 번 불러. 경헤 그네 또 그 적삼으로 또 집 디우로 강 상제가 강 영 받아온다고.

112025 @ 아, 예. 혹시 복 불르는 소리, 그냥 삼춘! 삼춘! 경 세 번만 불런마썸?

112025 #6 아니아니, 상제 이름도 곧지 아녀?

112025 #5 아니, 상제 이름도 곧지 아녀고. 대게는 망인 이름을 불르나, 직함을 불르나 경 침 헤영 형제 뺄 뒀는 사름은 이름을 불러, 이름을 불르고 막 그때 침, ‘보!’ 헤영 끝나는디.

112025 @ 예를 든다면 저가 최연미잖아예? 그러면 ‘최연미! 최연미! 최연미! 보!’ 이렇게 끝나마썸?

112025 #5 어, 그런 마끄땀.

112025 @ 마끄땀마썸? 그 중간에 다른 말 안허고마씨? 잘 가라라 라든가 이런 말 어시?

112025 #5 아니아니, 기자.

112026 @ 기구나예? 그다음 장지 마련은 누가 어떻험니까?

112026 #6 아, 영장 마련? 마련은.....

112026 #5 뜯, 예를 들어서 뜯 이시민 뜯이 밥 출리곡. 또 아덜은 점심을 허던가 조반허곡.

112026 #6 피력 허곡.

112026 #5 딱루 점심 허곡, 또 판 딸이 이시민 피력허곡. 거 혼 가지씩 다 말아 그네 허주게.

112026 @ 그른 돌아가신 집에 그걸 행 오는 거예?

112026 #6 응, 응.

112027 @ 관하고 그 횡대는 어떻 마련합니까?

112027 #5 관은 널 사당, 사다가 동네 목수를 빌영, 동네 목시 빌어그네 이거 관 짜 드렌허며는 관 짜그네 입관 흘 때 깐지 그거 영 더경 입관 흘 때깐지 그거 영.

112027 #6 풀 썩그네.

112027 #5 아, 풀 썩그네 뭐 불르곡 무시거 헨 건, 관 짜냥 거, 예를 들어서 집 도배허는 식으로 그 창오지로 불르는 거주게, 관 안네를 깨끗허게 불라그네 경행 노양, 시간 뒤며는 관 더끄민 목시는 걸로 깐이라.

112027 #6 또 이서. 무사게 목시 입관 흘 때는 누게 이름 막 거 ㄹ르민..... 곧주 게.

112027 #5 듯날 영장, 게메 목시가 경 헤영 못 볼 사름을 거기 보지 말렌 헨 택 일에 무신 생, 이름으로 누게 보지말렌은 아녀고 무신 생 무신 생은 보지 말아라 영 허며는, 그 불르는 사름이 ‘무신 생 잇소!’, 영 허며는 목시가 거기서 ‘없소!’, 행 대답 허주게.

112027 @ 예~.

112027 #5 또 ‘무신 생 잇소!’, 허민 ‘없소!’ 허민 ‘이놈의 문세가 고녕이 문세로구나!’ 허민.....

112027 #6 ‘세상만사 허세로구나!’

112027 #5 ‘허사로구나!’

112027 @ 허사로구나! 허면서 못 쳐부는 거봐?

112027 #6 어, 경행 딱딱 못 박아부는 거. 우리 ㄹ르민 집 못 박듯 딱딱 박아부는 거. 경행 끝나부는 거.

112027 #5 경허미는 듯날은 목시가 그 개관문을 달화. 지금 그 구멍이를 파주게. 목시가 강 파그네 그 하관 헤여그네 흐며는 목시는 걸로 깐이라. 게민 그뎨 동네사 름덜이 봉분도 다 멘들곡 동네사름덜이. 요즘은 뭐 장의사 헤그네 멘들민 알양 다 햐주마는.

112027 @ 그 관 놀 때, 관을 놓고 그 우에 까는 거 뭐.....

112027 #6 칠성판. 아, 멩진 닳은 거 깐지 아넘니가게 그 더꺼그네. 관 우의 멩진.

112027 @ 개관이렌 험니까?

112027 #6 개관 더끄고.

112027 #5 개관.

112027 @ 그건 어떤 무슨 나무로 어떻 행 만드는 거마썸?

112027 #5 옛날에는 막 치레허는 집인 뿡낭이나 것 ㄹ라 머엔 낭이라 흐는지, 그

질긴 낭덜이 잇주게. 뽕낭, 귀카시낭, 이런 썩지아너는 낭덜.

112027 @ 노가리 ㄹ튼 거마썸?

112027 #5 어, 노가리. 그런 거 허다가 요즘은 뭐 저, 제밤낭, 제밤낭 허고, 요즘은 저 장의사에 땀겨부난 흐는 거 보니까 전부 소낭.

112028 @ 소나무로예? 음. 경헛구나예.

그러면 이제 그 입관도 다 허고, 그 다음엔 수의는 입관허기 전에 수의는?

112028 #5 전부 다 집에서.

112028 @ 집에서 만들앙예? 수의는 뭘로 무슨 천으로?

112028 #6 베로.

112028 @ 베로, 베는 사당예?

112028 #5 노인네 이시며는 미리 준비헿 나뉜.

112028 #6 베 상나두주게.

112028 @ 그 베를 사지 안헿 직접 삼으로 짓진 안헿수과?

112028 #5 옛날에는 삼으로 헿낫주게.

112028 @ 삼춘네는 혹시 그거 하는 거 봐나수과?

112028 #5 아, 우리 바낫주게. 집이 짜는 거.

112028 @ 어머니가 짜나수과?

112028 #5 어, 우리 어머니네가 허는 거 봐난.

112028 #6 우리 씨어머닌 그 짠 걸로 목경 가서.

112028 @ 아, 본인이 짠 걸로.

112028 #6 어. 짠 걸로.

112028 @ 기구나예. 그때 헿던 그 베클이라던가 물레 ㄹ튼 거 다 데껴베수과?

112028 #6 언제라게.

112028 #5 지금 놔둔디 어실 거라. 박물관이나 잇주.

112028 @ 상복은 어떻 마련헿수과?

112028 #5 상복?

112028 @ 예.

112028 #5 거는, 추상집이서, 추상.

112028 #6 이녀 부모 모시민 우리가 부모 모션 사나네 우리가 알앙 그거 다 베 사다그네 우리가 다 만들어그네 상제덜 다 입전.

112028 @ 상제도 베로 헿수과?

112028 #6 어. 베로 입전.

112028 @ 광목으로 안헿그네예?

112028 #6 광목으로 안헿, 우린 광목으로 안헿.

112028 #5 모자도, 모자 헿저라, 두건.

112028 #6 다 베로헿.

112028 @ 두건예? 상장은 어떻 허고, 집동은 어떻 마련헿수과?

112029 #5 상장은 동쪽 부락에 이서서. 그거 메고 갈 메는 거. 다 부락에 그뎨 이섯주게.

112029 @ 어디 보관해나수과?

112029 #6 저디, 학교 아래도 보관해나지양?

112029 #5 상여집이라고 해서 좀 사름 사는 딜로 조금 동떨어진디 으멘헌 집을 지서.

112029 @ 옛날에도 상여집이렌 해수과? 생이집이렌 안해수과?

112029 #6 생이집, 생이집. 저기 저 누구 죽어분디 살아난 생잇바이말 생잇바이말 안 낄아수과?

112029 #5 생여, 생잇집이렌 상엿집.

112029 @ 상여, 생잇집예? 음. 짚동은 뭐파?

112029 #5 짚동?

112029 @ 상여 뭘 때 그거는 어떻 마련해수과?

112029 #5 줄 헤영, 줄 비영으네.

112029 @ 줄은 뭘로 해수과?

112029 #6 새, 새로.

112029 #5 새로 줄 비영, 양쪽으로 쪽 허게시리 사람 어깨에 영 메영 가게끔 헤냥, 조깅 잘 사는 집안에는 거길 다시 광목으로 쪽~ 영 양쪽에 헤영. 아 건, 잘 사는 집에. 정헤영 메영 가는 거주.

112029 @ 짚동을 메젠 허면 짚동 만들 땐 바로 돌아가신 때 막~ 그것도 만듭니까?

112029 # 5 아니, 아니.

112029 @ 미리 생잇집에 이서마썸 그계?

112029 #5 생잇집에 기구덜은 잇스니까.

112029 #6 영장 아섯 날, 일뿏 날 거 만들엇주.

112029 #5 대게 줄 ㄹ튼 건 그날 아침에 다 멘, 뒷날 나가는 아침에 보미게 웬 거라.

112029 @ 그 찌이 어시민마씨? 새찌이 어시민.

112029 #6 새찌 다 마련행 나두어그네, 마련행 낫당 허주.

112029 @ 기구나예?

112029 #5 경행 줄 멘들아, 줄 비어.

112030 @ 아까 그 두건 말씀하셔신디예? 두건하고 복치마는 마찬가지 그 천 갖당 만들어마씨?

112030 #6 어, 천으로 만들야.

112030 @ 직접 만들잖아예?

112030 #6 어, 만들양 헤여.

112030 @ 두건은 누구안티까지 줍니까?

112030 #6 켄당덜 다 주어.

112030 @ 복치마는마씨?

112030 #6 복치마는 상제덜만. 웨손ㄱ지.

112030 @ 복치마를 뉘렌 ㄱ라수과?

112030 #6 복치메엔 ㄱ랏주.

112031 @ 돌아가시며는 풋죽도 쭈잖아예? 풋죽은 누가, 무사 쏘니까?

112031 #6 풋죽은 똑 썬는게 그 이젠 안 썬는 사람도 잇주마는 구신이, 옛날에는 풋죽 구신이 흐쓸.....

112031 #5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죽을 풋죽으로만 쭈렌 현 게 아니고 워낙 사름이 죽영 바쁘니까 밥허는 거 보단 아메도 죽 썬는 게 쉬웠던 모양이지. 경 허기 전에는 죽을 먹엇주게. 저 입관허기 전에는.

112031 #6 예구, 풋은 구신을 방지흐는 그.

112031 @ 예날 동화책 읽다보면 도깨비나 귀신이 이제 풋 싫어해가지고 풋죽 쭈고 하잖아예?

112031 #6 계난 이 저 심방을 와 가나민 그 풋을 막 뿌리는 거야. 계난 심방이 와 가나민 풋을 집 안에 다 뿌리는 거라. 구신 방지헌덴.

112031 @ 아예 ㄱ찌 나가불렌예?

112031 #5,6 방시로.

112032 @ 성복제도 헤나수과?

112032 #6 성복제 헤연.

112032 @ 성복젠 언제 어떻 허는 거파?

112032 #5 장례 옷 ㄱ튼 거 두건 ㄱ튼 거 문딱 멘들앙, 두건도 다 테와주곡, 다 헤냐그네 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 성복제. 죽영 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 성복제.

112032 #6 입관 헤불민.

112032 @ 성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파?

112032 #6 복을 쓴다는 뜻이주게.

112032 #5 어, 복을 쓴다.

112032 @ 음, 그렇구나예? 복을 쓰는 거구나예?

112033 @ 옛날에는 영장 허기 전에 일포제 헛잖아예? 무사 일포제를 헤신고예? 그리고 일포제는 다 장례식 전날은 일포제파?

112033 #5 어.

112033 @ 무사 일포제렌 헤신고예?

112033 #5 거는 거 전날에 허는 거는 나가 동네사름이든 친척들이든 미리 와그네 의논허는 날로 정허는 거. 거민 일포날은 저녁때에 해가 떨어질 때 뉘며는 일포제를 지넛주게.

112033 @ 아, 제를 해 떨어질 때.

112033 @ 아까는 잔치헛 때 부지 허젠 허면 보리쌀 혼 말, 곤쌀 두 뉘 이런 식

으로 헛잖아예?

112033 #6 어.

112034 @ 거른 영장 낫을 때 부지는 어떻 허고 조문은 누계까지 와수과?

112034 #6 떡, 빵. 빵 사 아정오고, 제물떡으로.

112034 @ 제물떡을 행 가정완마씨?

112034 #6 어. 제물떡으로 차반지에 헤아저그네, 근대구덕에.

112034 #5 제물떡 것 그라 고령이엔 허주게, 제물떡 혼 고령 갖다 영 흐는 거고, 남자는 또 고기, 고기 헤그네 영 싸그네.

112034 #5 찢으로 싸그네.

112034 #5 찢으로 싸. 쟁 강, 상에 올령 절허는 거라.

112034 @ 게민 그걸로 일포 때 나눠 먹는 거파?

112034 #5 제물떡 맛든 거야 나눠먹지마는 거 레기 썬 거는 으멘헌 거 하나 나눠 먹곡 말곡 어디. 제숙으로 쓰는 거주, 제숙으로.

112034 @ 제숙으로? 일포 때는 뭐 헤먹어수과 게문? 오는 사람안티 먹을 건 쥐야 될 거 아니파?

112034 #6 국수허곡, 밥도 허곡. 밥허는 사름도 잇곡, 국수허는 사름도 잇곡 허주.

112034 @ 밥도 먹고, 국수도 먹긴 하는데?

112034 #6 밥은 조반에 행 주곡, 또 정심 때엔 국수 행 주고.

112034 @ 게문 그 조문 온 사람덜 떡을 다 혼 고령씩 가져오면.

112034 #6 그거 다 나눠먹지.

112034 @ 그 작산 떡 다 나눠먹어마씨?

112034 #5 그날 밤에 듯날 영장 날에, 방상덜이영 그날 다 모이잖여? 그거 다 나눠먹어.

112034 @ 거른 그 떡을 혼 고령씩 허젠허민 집에서 다 찢그네 와수과?

112034 #5 찢넛주게 잡이서. 그 당시야 잡이서 헛주.

112034 #6 잡이서 쟁 온 사름도 잇곡, 또 모믈로 만디 그찌 만디 만들양도 오는 사름도 잇고.

112034 @ 만디도예?

112034 #5 빙떡도 행 오는 사름도 잇긴 잇는디 만디가 흐곡, 기자 빵이.

112034 #5 춤, 생각허는 사름은 친떡.

112034 @ 친떡도 헤오고예?

112034 #6 빵도 옛날, 시방 밀가루가 아니지. 옛날 밀가루, 벌경헌 밀가루 토종 밀가루 헤그네.

112035 @ 그 다음은 영장 묻기 전에 토신제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예?

112035 #6 어, 토신제.

112035 @ 토신제는 누가 강, 어디 강 언제 헤수과?

112035 #5 거는, 것도 멧 시에 토신제 지네령 허는 건 택일기에 다 적어져서. 택 일혜을 때에, 대계 밤 시간에 허렌 허주. 계민 영장밧디 아니덴긴 사람이 가서 제를 지내어.

112035 @ 영장밧디 아니 다녀본 사람마씨?

112035 #6 어.

112035 #5 부정 아년 사름.

112035 @ 가족이 가는 게 아니고마씨?

112035 #6 켤당이라도 영장밧디 우리 집이 영장 나시민 그디 텅기지 말앗다그네 제 지네레.

112035 #5 계민 제물도 영장 집이서 출리지 아녕 판디서 출령, 토신안티 허는 제 니까.

112035 #6 득, 장득 혼 므리허곡. 제물 허곡.

112035 @ 득은 술망마씨?

112035 #6 아니, 썩겨. 썩겨 가져강.

112035 #5 썩겔로 허곡, 제숙도 썩겔로. 제숙도 전부 썩겔로. 죽영 허는 게 업서. 전부 썩겔로.

112035 @ 아, 안 죽은 득마씨?

112035 #6 응. 안 죽은 득 가져강 거기서 제 지내냥, 야이 탁 끄녕 그디 물어볼 곡 그걸 지내는 거.

112035 #5 행 그거는 집이도 아냐저오곡, 그디서 드르에서 쫄망 먹어. 집이 아니 가져온덴 헤나서.

112035 @ 아, 계민 이제 켤기도 다 썩겔로.

112035 #5,6 으, 썩겔로.

112035 @ 계민 떡 ㄴ튼 거 안헤그네 과일 ㄴ튼 거 가져가시키여예?

112035 #5 어, 과일로. 떡은 아녀서.

112035 #6 과일허고, 득허고 밥.

112035 @ 밥은 행 가신게예?

112035 #5 동태도 썩겔로 가정가고.

112035 #6 동탱가 멩탱가 시방 파는 거 멩태 그런 거게.

112035 #5 다 썩겔로.

112036 @ 어, 그다음엔예 그 상여가 나가젠 허면 상에꾼들이 잇잖우파예?

112036 #5 으, 동네 청년덜.

112036 @ 동네 청년들이 갓구나예? 따로 놓 쓰는 건 어섯고예?

112036 #5 놓 비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다 알앙 나와.

112037 @ 그믄 이제 관, 상여를 집에서부터 이제 그 장지까지 가는 거잖아예? 저기 산 문을 때까지예? 그디까지 갈 때 상장은 누가 들고.

112037 #6 아, 그건 종손이. 큰아덜.



112037 #5 큰아덜이 들고 산제는 두에 전부 따라 가고.  
112037 @ 그다음엔 노래 같은 걸 불릿잖아예?  
112037 #5 상엿소리. 생엿소리라고 허는디.  
112037 @ 생엿소리는 누가혜수과?  
112037 #5 것도 동네사름덜이 가명 허는 거. 선소리 흥민.  
112037 @ 계난 선소리를 누가 혜수가?  
112037 #5 동네사름이 거 잘 흐는 사름이.  
112037 #6 우리 흘 때는 느게 강훈이 하르방이 혜수과?  
112037 #5 어.  
112037 #6 죽어빚주.  
112037 #5 선소리 먼저 하며는 훗소리로 메영 강 사름덜이 훗소리 허주게.  
112037 @ 선소리 헛던 사름 혹시 살아계신 분 어수과?  
112037 #6 죽언, 돌아가셔부런.  
112037 #5 게 그 소리 혈중도 모를 거라.  
112037 #6 무시거 혈 때 강훈이 하르방 살아나수과?  
112037 #5 살앗주게.  
112037 #6 강훈이 하르방이 그 선소리 그 소리혜실거우다. 친묵이고 허나네 동넛 어른이고.  
112038 @ 거민 이제 그다음엔 이제 봉분 잇잖아예? 옛날 그 봉분은 뭐렌 그라수과?  
112038 #5 봉분.  
112038 @ 그냥 봉분? 봉분은 어떻 행 만듭니까? 혹은 어디서 준비허고.  
112038 #6 거기서 파그네.  
112038 @ 판 걸로 웨어마썸?  
112038 #6 그디 판 걸로 아니 웨민 판 거 파다그네 그레 놓아.  
112038 #5 예를들어 이 밧디 산 혈 적에는 제일로 구석진디 혹은 동네사름들이 다 그걸 파명, 멩텅이에 담양 지어당 비우명 다, 또 봉분 쌓는 사름은 흔 서너사름 이 태로 이퍼가명 혹 비아가명 행 쌓는 거주.  
112038 #6 태도 이 벵디서 곧 태로. 이제는 다 육지 그 잔디 들어왕 험주마는 우 린 이디서 그자 그.  
112038 #5 옛날에는 다 지방에서 봉은 동산에 거.  
112038 @ 봉은 동산에 거 태들을 케는 데가 이서나수과?  
112038 #6 응. 이서나서. 우리 옛날 이 가시오름에 거 막 헤낫주게.  
112038 @ 가시오름에 거예? 봉분은 경 행 만들고.  
112039 @ 호층에 대행 곶아줍서.  
112039 #6 호층이 뭐라?  
112039 #5 으층이 아니고?

112039 @ 예. 호충.

112039 #5 호충은 어린애이 죽은 무덤을 호충이라고 해주게.

112039 @ 아, 기파?

112039 #5 잔디도 엇곡, 애기덜 혼 대엇 술 미만에 죽은 애덜. 그걸 호충이렌 해주게.

112040 @ 그 장지에서는 상여꾼안된 어떤 음식을 대접해수과?

112040 #5,6 밥.

112040 #6 가기 전이, 메영 갈 때 가다가 거리 멀메는 술 혼 잔호곡, 고기 돼지 고기 거곡 술안지, 빵 호쓸씩 주멍 먹으렌.

112040 #5 그건 아주 멀리 갈 때 혼 대으숯 참씩 경 갈 때는 경호곡, 경 안헐 땀 혼 번에 강 내려나동 점심을.

112040 #6 이디서 조반 먹영 가니까 정심은 거기서 상제, 딸이시민 딸 출려간 거.

112040 #5 그디 가그네 미리 준비행 나뉘, 점심을. 경 행 맥여.

112039 @ 그 저, 관을 놓잖아예? 개관 더픈다음에 흑을 놓기 시작 하잖아예? 그 축 할 때 그거를 보든 안 뉘는 사람을 뉘렌 곱음니까?

112039 #5 보지말렌 무신 생.

112039 @ 그걸 호충이렌 허는 거 님은디예?

112039 #5 그걸? 건 모르겇는다. 무신 생 무신 생은 오지말라.

112039 @ 오지말라, 보지말라 하잖아예? 그건 누가 허는 거파?

112039 #5 보지말렌 허지 하관허는 거를.

112039 @ 게, 그건 누가 헉니까? 거는.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

112039 #6 아, 그디 목시가 하관헐 때 무신 생은 보지말렌.

112039 @ 입관을 하관이렌 곱아진 거 님다.

112039 #5 입관은 처음 죽영 관에 놓는 게 입관이고.

112039 @ 하관헐 때도 목시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

112039 #6 음, 음.

112039 @ 기구나예. 어떤디 보면 제관, 제 지내는 디 총 감독하는 사람?

112039 #5,6 도감.

112039 @ 도감은 궤기 써는 사름 아니파?

112039 #5 궤기 써는 사름이 옛날에는 총 책임이랏주.

112039 @ 아, 기파? 그런 사름이 누게는 구지난 보지말라 안 헛구나예? 목수가 헛구나예?

112039 #6 목시가 알앙.

112039 @ 아, 경헛구나예.

아니, 그 목시보다도 자기네 집인 일이니까 늙은 상관엇고, 이녁 손지엔 허딩가, 딸이엔 허딩가 아들이엔 허딩가 으런 사름 내에서 오지말렌 허며는 미리 곱앙 넬라

그냥에 그디 사도 그레 쳐다보지말앙 저쪽으로 돌아가불라 경허는 거주게.

112039 #6 비껴불라.

112039 @ 어떤 사람안티 그추룩 곶아수과?

112039 #5 이녀,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으 집안에 영장이 나며는 이 집안에 중순이나 켈 어른이 잇슬 거 아녀. 게민 이 사람이 택일을 헤다 놔그네 영 뺑, 아이 ㄱ찌 무신 생 무신 생은 보지 말라.

112039 @ 아, 안 맞은 사름은, 부정한 사름이 아니고. 순리가 안 맞앙 보지말라, 기구나예?

112039 #6 으 응.

112041 @ 그다음엔 장지에서 영장 다 하고 봉분 다 하잖아예? 이제 거기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안티는 어, 어떻 헤수과?

112041 #5 수고헌 사름이엔 헌 게 그때는 침, 동네사름이 다 수고 헤부니 이거는 의무적으로 경 헌 걸로 허고 이 정시라는 게 이서. 요즘 ㄱ트민 풍수지리 보는 사름.

112041 @ 그 사름을 정시라고예?

112041 #5 응. 정시라고. 정시허곡 목시안티는 대접을 허는 거주게.

112041 @ 예~.

112041 #5 정시안티는 일푼날 떡허곡 술허곡 돛다리허곡 거 행 가져가곡. 또 도감안티도 쟁혜영 아저가곡 또 장날 때 저, 목시가 제일 수고가 많지? 게 목수안티는 거기서 하관제라고 이서. 하관허기 전에 제 지내는 거, 전부. 복신덜이니 권당덜 다 모여나그네 제지내는 거. 그때 헤난 음식, 올려난 거를 전부 목시안티.

112041 #6 오고생이 전부 쥐부러.

112041 @ 아, 기구나. 옛날엔 목시가 잘도 대접받았저예?

112041 #6 이제는 돈으로 줘주마는.

112041 #5 그때는 안 받거든. 요즘에야 다 돈으로 줘주마는.

112042 @ 영장 끝난 다음에 상 찰리잖아예? 집에 왕 상 찰릴 때는 언제부터 상을 찰립니까?

112042 #6 삼일동안 출리는 거주. 삼일동안.

112042 @ 삼일동안.

112042 #6 영장 행 와서면 널 아침, 막으며는 그때 못허곡 막지 아녀면 돛날부터 삼일동안 상 차리고.

112042 @ 막으며는이 무슨뜻이파?

112042 #6 상제들이 막아불민.

112042 @ 무사?

112042 #6 굿텐.

112042 #5 택일에 예를 들어서 제를 돛날은 못허겠다 헌 걸 다 적영 나와.

112042 @ 아.

112042 #5 돌아가신 거 택일허래 가민.

112042 #6 우리 아저씨가 승상제라그네 못볼 때는 삼일 잇다가 또 날짜 바그네.

112042 @ 음.

112042 #5 사름이 그래서 허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안 좋아서 듯날허는 예가 많아.

112042 @ 아, 사십구일 사십구제 안 헤그네 삼일만 헤수과?

112042 #6 응. 삼일만.

112043 #5 경혜영 초허루 보름, 삭망 헤낫주.

112043 @ 언제까지 헤수과?

112043 #6 삼년동안.

112043 @ 소상, 대상.

112043 #5 대상 깐지.

112043 @ 삼일 헛지마는 그 이후에 대상까지는 초허루 보름을 삭망헿 올렸다는 구나예? 헿 들에 두 번예.

112043 #5 헿 들에 두 번.

112043 @ 요즘은 안 헿니까?

112043 #6 요센 아녀. 초허루도 아녀. 아무것도.

112043 #5 요즘은 그날 헿 낫나부는 시름들안티.

112044 @ 소상은 언제 헛고, 대상은 언제 헤수과?

112044 #6 죽는 아시날 허는 거주게. 오늘 죽엇스며는 넬. 어제헤야.

112044 @ 몇 년 이땅?

112044 #5 예를 들어서 그 사름이 보름날 죽으면 영 나흘 날에 소상을 허는 거주.

112044 @ 그 소상을 죽영 보름만에 허는 게 아니라.

112044 #6 일 년 웨사, 일 년.

112044 @ 일 년 지나그네 첫 번째 허는 건 소상, 그다음엔?

112044 #6 또 일년 웨그네 허는 거 대상.

112044 @ 지금도 소상 대상 헿니까?

112044 # 6 아녀. 이젠 그날 삭망도 아녀. 그자 그날 거기서 가그네 산에서 문딱 제지네동와그네 걸로 낫.

112045 @ 음. 토롱에 대헿 말헤줍서.

112045 #5 토롱이엔 헿 거는 택일이 없을 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며는 좋은 터에 강 물을라고 정시라고 아까 얘기헿지?

112045 @ 예.

112045 #5 그 풍수지리 보는 사름. 그 사름을 빌어다그네 터 보레 뗏 들을 댕기는 거라. 게 굿디깐지 나불민 그땐 냉장고도 엇고 뉘 헿 때 썩어볼 거 아니라게. 게 난 임시 땅 쏘곱에 문영 나두는 거. 것 보고 임시 헛다가 제라허게 터를 봐서 흘라

고 흐는 게 토롱.

112046 @ 아, 기구나예. 혹시 이장도 헤나수과?

112046 #5 이장도 많이 허주. 우리도 이장헤나서.

112046 @ 무사 이장헤수과?

112046 #5 아, 그거 뭐 산 터가 나빠 가지고.

112046 @ 요즘은 별초가 하면 다들 한꺼번에 막 헤그네 화장하는데 거 어디봐?

112046 #6 납골당에.

112046 @ 예. 납골당에 헤븐덴 헨게마는, 삼춘넌 경 안 헤수과?

112046 #5 그런 사름도 요젠 많아.

112046 @ 안 헤나수과, 삼춘네는?

112046 # 우리 아년. 우린 가족공동묘지가 이시니깐.

112047 @ 아, 경헛구나예? 상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6 삼년 웨민. 벗어그네 그때는 대상 때 벗어그네. 이젠 다 스라뵤주마는  
그뻘 겐로 옷도 행 입곡, 막 헤서. 이젠 다 스라비어.

112047 @ 우리 어머니 아직도 그거 행 빨앙 말령 이불 헤주고 경 헛디다마는.

112047 #6 것도 경 헤여.

112048 @ 그다음엔 예? 그 장례식하면서 장례식 끝나고 삼년상 대상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건 금하고 뭐 이런 건 어서수과?

112048 #6 그런 거 어서.

112048 @ 뭐 아이덜 결혼 안 시킨다든가 뭐?

112048 #5 아니 아니.

112048 #6 그런 거 절대 아녀반.

112048 @ 전혀 어시 그냥 막 헤수과? 혹시 그~ 전엔 아녀나수과? 오래전에, 삼  
춘네 어릴 때.

112048 #5 우리 어릴 때?

112048 #6 영장 나민 결혼시키는 거 금헤신가?

112048 @ 영장이 사월 달에 들엇저. 겐디 잔치가 오월이여 허민.

112048 #6 금허는 사름은 금헤수다게.

112048 @ 오월에 나는 그 들에 결혼을 하거나.

112048 #5 미리 땡겨비영. 그런 거 이서난 거 답아.

112048 #6 념영을 허던가.

112048 @ 그믐 최근에도 이제 멩질, 구정멩질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셔분거라예?  
거난 멩질 다 세고, 세배 다 끝나네, 멩질 다 다음 날인 가야 날 잠안 그 후.

112048 #5 경 헤여. 부정허카부덴.

112048 @ 부정허커부덴예? 지금도 경헛니까?

112048 #5,6 시방도 마찬가지로.

112048 @ 어, 지금까지는예,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끝나고 대상까지 그거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여쭙봤고예. 이젠 제사를 해야 할 거 아니파예?

### 제례

112049 @ 제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예? 제사준비는 어떻습니까?

112049 #6 제사준비는 시방도.

112049 #5 큰메누리가 허는 거주.

112049 @ 게민 이제 양제가부나네.

112049 #6 나가 우리 시아버지 씨어머니 제서햄주.

112049 @ 경햄구나예. 제사 준비허젠허민 아침부터 시장보고 햄지예?

112049 #6 시장은 아시날 봐다그네, 떡ㄱ루 곶아오곡 다 행 떡허곡 만디허곡 다 햄주.

112049 @ 떡도 집에서 햄수과?

112049 #6 집이서 조개송편 줍양 허곡.

112049 @ 햄수과? 진짜 착한 메누리우다예.

112049 #6 빵도 밀가루 사다그네, 저 침떡 헤도 먹을 거 빵도 나가 다 피우다그네.

112049 @ 지금도마썸?

112049 #6 음, 지금도.

112049 #5 아, 제서먹으레 처음 오며는.

112049 #6 빈 입 가그네 흘 수가 이서게.

112049 #5 대접허며는게 떡허곡 고기허곡 뭐 그거.

112049 #6 드려그네게 채소허곡 행 먹읍센.

112049 @ 일 년에 제사 몇 번햄수과?

112049 #6 두 번.

112050 @ 어무니, 아버지 거예? 그 제물로는 무시거 무시거 준비혜수과?

112050 #6 제물은 뭐, 빵허는 건 아녀도 침떡 행 오고, 조개송편 줍양도 허곡, 존떡도 헤오곡, 묵허곡, 모믈묵 허곡, 묵 썬그네. 또 전덜 전 ㄱ튼 거 지지곡.

112050 @ 적도 허고예.

112050 #6 적도 소고기 적허고 돼지고기 적허고 또 문어도 사당 적허고 기자.

112051 @ 그 콩나물 ㄱ튼 건 이젠 막 산 햄주마는 혹시 집에서 키우명 안 혜수과? 옛날엔?

112051 #6 옛날엔 헛주마는 이젠 다 사당 햄주.

112051 @ 다 사당 햄지예? 옛날엔 키우긴 혜나수과?

112051 #6 응, 키왕. 시리에 헤서 그 네왕으네.

112051 @ 메칠 전부터 경헛구나예? 그 콩나물 시리에 키울 땐 한 메칠 정도 키웁니까?

112051 #6 불봐그네, 콩이 딱딱허니까 물 낱 콩 불봐그네 시리에 뭐 검질을 깔던

가, 뭐 치마 거시기 아래 시리 아래 깔아그네 콩 놔그네 싹 나가민 물 계속 흐루에  
흐 번씩 물주민 그.

112051 @ 메칠?

112051 #6 그 여 흐 열흘 넘어야 그 콩이 이녁 먹을 때 돼주게.

112051 @ 열흘 넘어. 경허민 이제.

112051 #6 으만씩 크며는 그.

112051 @ 멧질 제사가 흐 보름 남았저 허민.

112051 #6 응, 그때. 그때 키와그네덜 다.

112052 @ 경헛구나예. 그다음엔 제사지낼 꿩기덜 잇잖아예? 바닷꿩이나 육꿩이  
가 어떻 준비해수과?

112052 #6 우린 미룻 다 해당 낫당 해. 소고기도 미룻 지방 우리 칠월에 먹을 소  
고기 다 해당 준비헛 놔뵈. 바닷고기도 강 사다그네 바당에 강 사다그네 거 물류와  
그네 냉동실에 낫당 그 제사준비.

112052 @ 예날엔 고기렌 안 행 꿩기렌 헛지예? 바당 꿩기 뭐 췌꿩기 이런 식으  
로 헛잖아예? 아, 게민 적은 아까 문어까지 헛헛 헛잖아예? 적은 뱃 종류 해수과?

112052 #6 게, 서너네 개 헛주게.

112052 #5 췌꿩기, 도새기꿩기, 문어, 상어도 헛 수도 잇고, 소라 ㄹ튼 것도 뵈는  
데로 이시믄 헛고 너댓가지.

112053 @ 거믄 적은 누가헛니까?

112053 #6 우리 아저씨가.

112053 #5 메뉴리덜도 육지 이서불고 허니까 나대로.

112053 @ 우리 집안은 적은 다 남자가 해여예. 나머지는 여자덜이 하는디예.

112053 #6 그디도 경헛? 우리도 적은 경허곡, 전 ㄹ튼 거 떡 ㄹ튼 건 여자가 허  
곡 해영.

112053 @ 기지예?

112053 #6 경헌디 이신게게.

112054 @ 그리고 그다음엔 떡은 아까 무신 친떡.

112054 #6 친떡허곡, 조개송편 줍곡, 난 준떡 강 해오는. 난 대부분 멧질 때 ㄹ튼  
때영 흘 때는 이녁대로 만들영 해여.

112054 @ 그 준떡이렌 현 건 어떤 떡이꽈?

112054 #6 준떡은 술변 절변 허는 게 준떡이주게. 그런 거는 네 가지 술변, 췌변,  
인절미, 또 과질 네 가지.

112054 @ 아, 과질도 헛니까?

112054 #6 어, 과질도 해여.

112054 @ 거 다 사당예?

112054 #6 다 사당허는디, 난 뵈 수 이시민 기자 ㄹ루 곶아당으넵에 이녁대로 만  
들어그네 그 쉬 답아그네 조개송편 만들어그네.

112054 @ 그렇구나예. 그러면 떡을 다 준비해 노면 피는 순서는 어떻게수과?  
112054 #6 순서는 친떡 아래 놓곡. 펜틀에.  
112054 #5 펜틀에 처음에는 친떡, 그 다음에는 인절미, 절벤, 솔벤 젤 우예 낱, 우짱 우예 영 노민 되는 거. 걸로 끗.  
112054 @ 우짱은 그냥 집에서 만들잖아예?  
112054 #6 그 찹쌀 골아다그네 영 멘들아.  
112055 @ 과일은 뭐뭐 준비해나수과?  
112055 #6 과일은 사과도 허곡, 배도 허곡, 포도도 사당 허곡 또 미강도 허곡 또 뽕나나도 사당 허곡, 다 해.  
112055 @ 바나나도 놔마씨?  
112055 #6 어. 다해.  
112055 @ 그믐 사과, 배, 미강, 또 바나나, 포도.  
112056 @ 녹물은 뭐뭐 준비해수과?  
112056 #6 녹물은 뭐 콩녹물허곡, 고사리허곡, 거예 뭐 잡채덜도 허곡, 채소 헤그네.  
112056 @ 시금치 ㄱ튼 건 안 해마씨?  
112056 #6 거 해. 시금치도.  
112056 @ 옛날에는 뭐 해수과? 시금치 어실 땐.  
112056 #6 아, 옛날에는 시금치 어시난 유채녹물 잇잖아, 유채녹물도 무청허고. 무우 무우채허곡.  
112056 @ 아, 무우채 헛잖아예.  
112056 #5 호박으로도 허곡.  
112056 @ 호박으로 현 걸 뭐렌 ㄱ라수과?  
112056 # 호박메물.  
112056 @ 아 메물, 맞아. 경 헛지예?  
112057 @ 진설은 누가 헛니까?  
112057 #5 진설은? 나가. 사름이 어시나네.  
112057 @ 어시나네 영 올려놓고 허는.  
112057 #5 아, 아덜덜 올 때는 아덜덜이 허고, 이디 아덜이 어서노니까 우리 하르방이 올려.  
112058 @ 그 우리 집에는 메나 갱을 메누리가 뜨거든예.  
112058 #6 나가 다, 메나 갱 거리는 건 다 나가 뜨지.  
112058 @ 아니, 큰아덜 메누리나 죽은아덜 메누리가 안 해마썸?  
112058 #6 아덜덜은 멧질 때나 와도 나가 다 허여.  
112058 #5 멧질 때 와야 뭐 헐 거, 육깃아이덜이난 뭐 헐 줄 몰르고.  
112059 @ 음, 기구나예. 이젠 현관에 대행 말씀해주십서. 현관.  
112059 #5 환관은 초현, 아현, 중현, 집사, 뭐 그거.



112059 @ 예. 그믐 초헌은 누가 뭐헤마씨?  
112059 #5 그 제 모시는 사름이 허주게. 초헌허곡.  
112059 @ 예.  
112059 #5 또 다음에는 아헌이 허나.  
112059 @ 종헌은마씨?  
112059 #5 종헌은 켈 또 어린 사름이 허주.  
112059 @ 집사는마씨?  
112059 #5 집사는 손자뻘 되는 애덜이 허곡.  
112060 @ 파젠 뗏 시에 험수과?  
112060 #6 옛날엔 열두 시 넘어서 허는디, 이제는 아홉 시예.  
112060 #5 이제는 당일. 돌아가신 아시 날 저녁에 옛날엔 켈 지넷거든, 제를 지네며는 열두 시, 열흐 시 반 이상 돼야 이제 켈 지넷는디, 당일 헤불며는 그 날은 당일에는 아무시간에도 상관 엿주.  
112060 112060 @ 아, 기지예? 우리도 당일허겐 아무리 ㄱ라도 안행예. 매날 열두 시에 허젠 허난. 요번에도 멩질 때 막 모야그네 경 허지마랑늬들처럼 허겐 헤도.  
112060 #5 지금 당일에 허는 사름 어서.  
112061 @ 문전젠 어떻 지넬수과?  
#6 문전제도 그 마찬가지로주게.  
112061 #5 문전제? 문전제는 찰려 논 제물 전부 혼 가지씩 더 올령.  
112061 @ 문전젠 뗏 시에 험수과?  
112061 #5 거는 듯날. 멩질 때는 듯날 아침에 기냥허고, 진설 다 꺾나며는 문전 켈 지네고. 큰상에 진설 다 꺾나며는 문전제 지네는 거.  
112061 #6 제서 때도 마찬가지로주게. ㄱ녀 상에.  
112061 #5 문전제는 문저 지네는 거.  
112061 @ 그다음 제반 거들 때는 누게가 거뵈수과?  
112061 #6 그 제반 올린사름이. 켈 현 사름이.  
112061 @ 제반 험 땀 어떤 식으로 험수과?  
112061 #6 밥 ㄱ녀 떠농곡, 국 떠 농곡 헤동 떡 다.  
112061 #5 건 허는 사름이 다 헤와도그네 송늬그릇에 차례대로 영 행, 쪼끔씩 쪼끔씩 그레 헤 낱, 옛날에 지봉 우터레 영 헤낫주.  
112062 @ 게 제반허는 것도 초헌이 헤마씨?  
112062 #5 아니, 집사가.  
112062 @ 제반은 집사가.  
112063 @ 그다음에는 지제, 제사 끝나는 건 언제 험니까?  
112063 #5 그니까 열흐 시 반이나 열두 시 허는 사름도 있고, 당일 날 저녁 혼 으둑 시 아홉 시 허는 사름도 있고.  
112064 @ 음복은 누가 험니까? 그날 모인 사름 다고치들예?

112064 #5 응.

112064 @ 게, 삼촌넌 뭣 명쫘 모여마쫘?

112064 #5 우리 아덜덜은 전부 육지 살아부니까 우리 형님네 아덜이 뒤 사름 잇주게.

112064 #6 누나에 조케예, 우리 딸덜, 사위덜.

112064 #5 혼 으나쁜 사름.

112065 @ 그 제사허고 관련해가지고 혹시 무슨 특별나게 금기하는 건 어서수과?

112065 #6 우리 금지허는 건 어서.

112065 #5 개고기 ㄴ튼 거. 개고기, 물고기, 으런 거는 금허고, 또 장밋디 다녀온 사름은 혼 거기 참석 말아야 돼고.

112065 @ 예. 이제까지 제사에 대해그네 여쭙봐수다예. 다음에는 민간요법이라예? 아이덜 어떻 아플 땐 어떻헤신가예? 일단 제사에 대한 건 꺾나고 하계예.

### 13. 민간요법

※ 이제는 아이들 넷이나 나가지고 키우면서 아니면 삼촌네가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헤쫘는지 기억하명예?

113001 #6 우리 큰아덜은 갑자기 다리 오그라지난 병원에 실러 가고.

113001 @ 이제 흐나씩 흐나씩 이제부터 여쭙보쿠다예?

113001 @ 기계충이렌 헤가지고 머리예?

113001 #5 머리 벗어지는 거?

113001 @ 건 어떻 헤수과? 그때.

113001 #5,6 우리 아이덜은 하나토 아년.

113001 @ 아니, ㄴ피 아이라도 헐 땐 걸 어떻 헤수과?

113001 #6 그 막 그 약 무신 신낭 지름헤영 막 블루곡 헤난.

113001 @ 무시거마쫘?

113001 #6 신낭 지름예, 신낭 열매헤당 지름 빵 이런디 막 블루곡 헤난.

113001 #5 거, 그게 우리 동네 흥중이엔 현 아이 경 헤났저.

113001 #6 기계충 올라그네.

113001 @ 신낭 열매를? 어떻 허민 그 지름이 나와마쫘?

113001 #6 거 헤그네 막 보까그네, 우린 안헤바신디 늑덜 그거헤그네 막 불르난. 시방도 그거는 폐적이 막 이서.

113002 @ 맞수다. 그 기계충이 잇는 반면에 독창이라는 게 잇잖아예?

113002 #6 으. 막 카저그네.

113002 @ 예. 그건 어떻 헤수과?

113002 #6 그걸 그사름덜 시방 그 아인 이디가 다 카지난 그르가 문쫘헐 썩언

그디가 고름이 잘잘 막 해나서. 요즘에 우리도 그디 검질 메레 가그네 밥 먹쟁허민 그 아이 프리 막 머레에 퀘는 거 해나신디. 그디 아이들 성젠가 서오누이가 그축 다 해나서.

113002 @ 올랏구나예?

113002 #6 응. 올라네. 그 이디 흰허게 폐적 시방도 이서.

113002 @ 나이가 뭇 살쭈 똬신디마씨?

113002 #6 시방, 흔 쉰뎛 똬서. ㄱ- 또 우의 동생도, 쉰, 우리 영철이가 쉰셋 똬 수과? 쉰셋이민 가인 넷 똬아이주.

113002 @ 지금도 그니까 흥터가 이서마씨?

113002 #6 폐적이 이서, 폐적이.

113003 @ 아이고 기구나예? 그담엔예? 머리에 비듬 일잖아예? 비듬은 어떻헤수과?

113003 #5 비듬은 다 이서나고. 나도 이서.

113003 #6 비듬은 이 하르방도 이서낫주. 이제난 비듬어섬주, 옛날에사 아이고, 옷에 보민 희똥희똥 다 비듬 털어정.

113003 @ 계난 그 비듬은 어떻 헤그네 낫게 헤수과?

113003 #5 나삼서계? 항상 이섬주.

113003 #6 시방 이섬서? 시방은 어섬주.

113003 #5 나야 항상 이섬서.

113003 #6 이섬서? 아니라, 삼프 써가난 어서.

113003 #5 저 교장선생은 이 지금 최고로 그분이 비듬 많은디 검은 양복 입으민 여기가 허영현다고 여기가 털어정.

113003 #6 시방 비듬 이신사람이 어디 수과?

113003 #5 비듬 한덴 허난.

113004 @ 버즘은 어떻 헤수과? 버짐.

113004 #6 버즘은 저 무시거 허영 블루곡 헛저마는. 버즘에 저 무시거 그거 무시 거과? 들쟁이, 들뽕이 옷벗은 들뽕이헤영 막 문뎡나두민 좋아. 우리 딸도 이런디 딱 꼬망에 버즘 인뎡 문뎡 그즈룩 행 나두난 좋앙게.

113004 @ 좋안예? 요즘 달쟁이 화장품 완전 비싼 거 유행험잖아예?

113004 #6 그 들뽕이 헤그네 민달민달허게 막 불량, 거기서 헤네 행 나두난 좋앙게.

113004 @ 계난, 옛날 어른들 다 알긴 알아나서예?

113004 #6 딱꼬망 애염에 버즘 들어네.

113005 @ 백선이라고 헤가지고 허영게 똬는 거 잇잖아예? 버즘하고는 좀 다른 거?

113005 #6 음.

113005 @ 건 어떻 헤신고예?

113005 #6 건, 우린 안혀보난 몰라.  
113005 @ 동네선 안 바봐수과?  
113005 #5 아니 경 현사름 어서나서.  
113006 @ 여드름은 이서낫잖아예?  
113006 #6 여드름은 이서. 다 거물거물 다 이서나신디.  
113006 @ 건 어떻 헤신고예?  
113006 #6 그건 다 짜명 어떻 무시거 행.  
113006 #5 그땐 대게 손톱으로 놀렁 찢주게 짜서.  
113006 #6 게도 우리 아이덜 그 여드름은 안 나바서.  
113006 @ 그건 삼춘네가 여드름은 안 나난.  
113006 #6 나도 여드름 안 나난.  
113006 #5 난 나나서.  
113006 @ 나나수과?  
113006 #5 짜벼 낫주게. 짜비여 나서.  
113007 @ 켜데, 삼춘은 얼굴에 기미도 안 끼는 얼굴이다예?  
113007 #6 크게 현 것덜 제거헐. 검은버섯 난 거.  
113007 @ 그거는 병원에 간 제거헐 거지예?  
113007 #6 은. 병원에 간, 그 피부과에 가네.  
113007 @ 그전에는 기미나면 어떻 헤나신고예?  
113007 #5 건 그거 절석보시라고 해서 의당히 경 혈 거로 알주게.  
113007 #6 경해도 우리 하르방 이디 막 이서.  
113007 #5 나이 먹으면 건 누구나 오게 쥬 거라.  
113007 @ 나이 안 먹어도 여자들은예, 임신해도 생기고.  
113007 #6 난 임신해도 기미 쓰거나 무신거 안 헤반.  
113007 @ 경 험디가?  
113007 #6 응. 원 안 헤반. 원 입덧도 아녀고, 애기덜 나는 것도 쉽고, 입덧도 일  
절 안헐. 애기 뱃젠, 배도 크지아넌. 늙이, 애기 배신가 흥민 나부는 따문에.  
113007 @ 케난 지금도 피부가 잘도 곱수다.  
113007 #6 고와? 하이고 곱은 무신?  
113008 @ 주근깨는 다 그냥 살았잖아예?  
113008 #6 주근깨는 다 이서.  
113008 @ 유독 주근깨가 하영 이신 사람도 잇잖아예? 동네 보며는예?  
113008 #6 응.  
113009 @ 것도 그냥 잇고예? 사마귤 어떻 헤수과?  
113009 #6 사마귤 파분 사름도 잇곡. 우리 아덜도 이디 콧대에 거 파베성게.  
113009 #5 병원에 강?  
113009 #6 예, 파베십디다.

113009 @ 병원에 강예?

113009 #6 어, 병원에 강 판 거주계.

113009 @ 음.

113009 #5 사마기는 파지 말렌 옛날 어른덜은. (눈 밑을 가리키며) 요런디 나면 건 눈물 사마귀다 해서 그런 사람은 항상 울 일이 많을 것이다, 막 경 헝곡 해놔주 게.

113019 @ 맞아. 그런 말 해난예.

113010 @ 그 사마귀 날 땀 그렇고 다래끼 날 땀 어떻 해수과?

113010 #6 다래끼 날 때는.

113010 #5 눈에 뭐 영.

113010 @ 뭐렌 마라나수과? 위에 날 땀 뭐렌 곳고, 아래 날 땀 뭐렌 마라수과?

113010 #5,6 개씩, 개씩.

113010 @ 개씩이렌 헛잖아예? 밑에 난 건 뭐렌 마라수과?

113010 #6 돌룻.

113010 @ 돌룻예?

113010 #6 우의 난 게 돌룻일 거라. 아래 난 게 개씩아닌가?

113010 #5 개씩나젠 경 해나난.

113010 @ 건 어떻 치료해수과?

113010 #5 발바닥에 글로 천평지평 써그네.

113010 @ 거민 진짜 나읍디가?

113010 #6 나사, 나사.

113010 @ 아, 기파?

113010 #5 나도 땀 번덜 써 쥐맞는디 써 주미는 나사.

113010 #6 그것이 무사 닳는 거냐민 저, 갓긋 것을 먹으며는 이 피부에 안 맞으 니까 나는 거 닳아.

113010 @ 갓긋시 것을 먹으면마썸?

113010 #6 마메길 잡아당 먹엇든가 그디강 아무거라도 소라헝 먹엇든가 해민 이 녀이 피부에 안 맞이민 그런 거 나는 거 닳양게.

113010 #5 그건 아니고, 그게 개씩이라고 해서 나며는 막 어떤 사람은 막 주랑허 게시리 나는 사람도 잇곡.

113010 #6 크게 나는 사람.

113010 @ 맞수다.

113010 #5 것도 글 쓰는 것도 처음 나올 때 써버려야지 나그네 완전히 티어나옴 시작허민 써맞자 소용어서.

113011 @ 그다음엔 눈에 별정허게 충혈 혈 땀 어떻 험니까?

113011 #6 난 충혈 허민 약 놓아.

113011 @ 그 전엔 어떻 해수과? 약 어실 땀.

113011 #5 그전에는 배춧입, 옛날 어른덜은 당배추엔, 배치 썩헤그네 소금에 툽 툽 뭍로 때리민 그계 소금물이 들어갈 거아니? 그디.

113011 @ 예.

113011 #5 게민 녹물도 좀 카지곡.

113011 @ 예.

113011 #5 소금도 들어가곡 허멍 카지며는 눈에 영 더퍼.

113011 #6 소금물로 싹 싹헛 헛주게.

113011 #5 더프미는 경혜영 허는 걸 바나서, 두린 때엔.

113012 @ 이빨 아플 때는 어떻 헤수과?

113012 #6 아이고, 난 이빨 다 어신 사름이난, 이빨 아플 땐 어떻 허여게, 약을 먹으민 약 먹고.

113012 #5 아프민 강 빠블곡, 아프민 빠블곡 허단 보난 원.

113012 @ 옛~날에는 어떻 헤수과?

113012 #6 옛날에는 이녀대로 뺏지. 아프민.

113012 #5 싹로 걸려. 확! 등겨그네.

113012 #6 흔들민.

113012 @ 아니 젓니 빼는 건 경 험다치고, 충치 걸려그네.....

113012 #6 아이고, 소금 행 물곡. 또 백분헤당 물곡.

113012 #5 간장 물곡, 이 빠는디.

113012 # 백분 헤당 다 물곡 헤서 니 빨 땐.

113012 @ 니 백슬 땐. 삼춘도 게 백분 헤당 집어 짜나수과?

113012 #6 아니, 난 안헤난.

113012 #5 백분은 거 독약이주게. 독약이나네 그 니 영 충 그 니는 가운데 고평 딸라져. 그레 백분을 담는 거주. 그 입 안트레 낳은 큰일 나주게.

113012 @ 음.

113012 #6 백분 담양.

113013 @ 그다음엔예, 피곤하거나 허면 혀에 막 뭍 일잖아예?

113013 #6 나, 막 나.

113013 @ 걸 뭍렌 곱아수과?

113013 #6 셋가시?

113013 @ 셋가시 일민 어떻 헤수과?

113013 #6 칭, 난 칭 블라.

113013 @ 어릴 땐 어떻 헤수과? 칭 어실 땐?

113013 #6 아이구, 어릴 땐 세우리 영 영. 세우리 소금에 헤그네.

113014 @ 맞아예. 여기도 경헛구나예? 그다음엔예, 흥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천연두라고 이섯지예? 예날에 이서낫잖아예?

113014 #6 천연두? 큰흥녀 죽은흥녀이주게.

113014 #5 큰한집, 죽은한집이엔 헛주게.  
113014 @ 큰한집 헐 땀 어떻 해수과?  
113014 #6 큰한집은 우리 아이덜 안 해보난. 우리 죽은 아덜이 큰한집일 거라, 그거. 곰보지멍 헐 때.  
113014 @ 아.  
113014 #6 막 얼 먹엇주게.  
113014 @ 그때는 약이라도 사 먹을 때잖아예?  
113014 #6 으. 옛날에 사 먹언.  
113014 #5 그때 그거 해그네 죽는 수도 잇곡.  
113014 #6 큰흉넉 허당 죽는 사름 하주.  
113014 #5 그 옛날 어린이덜은 거의 구십 프로가 그 병으로 죽엇주게.  
113014 @ 혹시 삼춘네 또래도 죽은 경우 이서수과?  
113014 #6 어서. 우린 아이덜 어서.  
113015 @ 그때도 예. 그래도 어선 예? 그 아까 이이덜 키우면서 에서도 물어본 적이 이서수다 마는 흥역 헐 땀 어떻 해수과?  
113015 #6 흥역 헐 땀 우리 아이덜 돌아댁기멍 흥역 해부난 무신 거 경 뭐 자리 정 놓거나 해보진 아년.  
113015 #5 그거 뭐 막 자리 정 누며는 그거 진짜로 위험헌 병이주게.  
113015 @ 그냥 보름만 씌우지 아녕 집에 그냥 이서난예?  
113015 #5 어, 보름, 집에 ㄱ만이 이서야지.  
113015 @ 어, 따로 뭐 먹이는 거도 어서난마씨?  
113015 #6 어, 딱루 경 어서서.  
113016 @ 음. 학질 알아지쿠과? 학질. 모기 물려 가지고 막 아픈 거.  
113016 #5 말라리아?  
113016 @ 말라리아하고는 좀 다르고.  
113016 #6 두두레기 파는 거?  
113016 @ 막~ 추엇다가 허는 거. 학질.  
113016 #5 여름철인 그것 ㄱ라 뭐엔 곧는니?  
113016 @ 뭐렌 ㄱ라수과?  
113016 #5 말라리아렌 ㄱ라나지 안해신가?  
113016 #6 뭐엔 ㄱ라나신디, 튼네지 못허키여.  
113016 #5 갑자기 막 얼멍, 털멍 허는 게 이서낫주게 여름철에.  
113016 #6 으스으스 얼멍?  
113016 @ 그런 건 게민 어떻 해수과?  
113016 #5 그런 거 하낫저.  
113016 #6 그 우리 으스으스 얼멍 털멍 허는 거는, 이제사 병원에라도 가주마는, 그땀 기자 방안에 누웁으네 이신베끼 흘 수어시 이불 더깁 누웁 그거베끼 어서.

113016 #5 저, 열나민 물수건 더깁 째질 해주고 거베핀 뒤.  
113016 #6 그거베피 어서.  
113017 @ 음. 불거리엔 헤가지고 으기 막 부우멍 아픈 거는 헤낫지예?  
113017 #6 아, 거는 잉꾸 블라난, 이는디(귀 밀 목을 가리키며).  
113017 @ 잉꾸 블라난예? 걸 뒤엔 ㄱ라수과?  
113017 #6 것 ㄱ라 무시거엔 곧나마는. 아이고.  
113017 #5 볼테기 영 붓는 거?  
113017 @ 예, 예.  
113017 #6 무신거엔 곧아라 마는 튼네지 못허키여.  
113017 #5 그뎨 거 막 유행이라 낫주.  
113017 @ 맞수다. 지금도 유행합니다.  
113017 #6 지금도 허는 사름 서?  
113017 @ 예. 지금도.  
113017 #6 켄디 우리 아이덜은 안헤봐서.  
113017 @ 잉크 발란예?  
113017 #6 게, 잉꾸가, 쎡에 거 이서나서. 그걸 막 이디 블라나서. 켄디 늣덜 현 거 우리 아이덜은 안 헤반, 우리 아이덜은.  
113018 @ 그다음엔 불거리랑 비슷하기도 한데 다른 거, 목거리라고 해서 목 막 붓는 병 알아지쿠과?  
113018 #6 아, 갑상선 그 목 붓는 거는 그 시절에 뒤 행 맥엇저 마는, 목 붓는 거. 하든 뒤 헨 먹연, 목 붓는 건 우리도 건, 우리 아이도 뒤 헨 먹어나긴 해서.  
113018 @ 뒤 헨 먹어나수과?  
113018 #6 아, 돛박지름.  
113018 @ 돛박지름 맥여그네예?  
113018 #6 으. 돛박지름.  
113018 #5 건, 복질에 맥이고.  
113018 #6 복질 삭아가 가민 목도 부수곡 험수계게.  
113018 @ 맞수다게.  
113018 #5 복질, 지침, 어린애들 지침허는 거는 돛박지름이 약이라.  
113018 @ 돛박지름. 그거 빠다가 흐 순가락씩 맥여수과?  
113018 #6 응, 맥여.  
113018 #5 물에 강 맥여도 뒤고.  
113019 @ 그냥 살앗주 허던데, 뚝띠 날 뎨 어떻 헤수과?  
113019 #6 뚝띠 날 뎨?  
113019 @ 예.  
113019 #6 어이구, 뚝띠 날 뎨 기자 어떻 어떻 전뎨주. ㄱ루왕 글그멍이라도 전 뎨주.



113019 @ 아니, 애기들 뜯떠 나면~.

113019 #6 애기덜 뜯떠 날 땐 약 사당 볼르곡 헤나실 거라. 우리 이이덜 뜯떠 나  
게 밧덜 안 텡기니까, 우리 아이덜은 뜯떠 안 나밧주게.

113019 #5 할망이 집이서만 기냥 살아노난.

113019 @ 시원하고 하난예? 문 열민.

113019 #6 남냥 집이난 시원허곡.

113020 @ 그른 허물 날 땐 어떻 헤수과?

113020 #6 허물 날 땐 약 발르고, 거 무시거렌.....

113020 #5 고약이라고 행 이,레약, 레약 허주게.

113020 @ 고약예? 그거는 기냥 파는 거마씨?

113020 #5 파는 거주.

113020 @ 집에서 무신 약초를 뜯어가지고 한 적은 어수과?

113020 #6 아이덜 뉘 헐 때는 켈맹주 허당 거 맥이곡 헤낫주. 거 무시거.

113020 @ 켈맹주는 무시거파?

113020 #6 대썸 헤그네 스라그네 그거 케영 맥이곡 헤낫주.

113020 #5 조약으로는 그 저 우리도 그거 많이 헤봣는다.

113020 @ 허물 나신디마씨?

113020 #6 거 허물 날 때는 고약헤당 부찌고, 거 풀, 함박풀인가 잇잖으파? 그거  
헤당, 함박풀이엔 헐 거 헤당으네 득득 두두렁 소금에 헤영 부찌나서.

113020 #5 들싸움고장이라고 이섯는다 거 허곡 함베낭 거죽 헤다그네 새꺼플 헤  
당 득 부찌곡.

113020 @ 무신낭마씨?

113020 #5,6 함베낭.

113020 @ 함베낭은 어떻 거파?

113020 #6 노~랑 허게.

113020 #5 함베낭 거죽이 이쪽으로 웨이서. 처음에 잇는 중간에 거죽은 질기고,  
노랑헌 으런 색깔이고, 우에는 또 북삭북삭허는 껍데기 잇는 나무가 이서. 막 나무  
는 질긴 나문디, 껍데기가 고름 짜내는 그 역할을 허주게.

113020 @ 음, 고름 짜는 역할. 그런 거 발라 낫구나예?

113021 @ 그다음은 헐데 잇잖아예? 이렇게 막 헐고 이럴 때.

113021 #6 아, 이디가 막 헐어그네 뉘 헐 때?

113021 @ 그뎐 뉘 발라나수과?

113021 #6 건 가시새, 가시새 헤다가 달라서 그 게여그네. 막 그문디 가시새, 모  
욕도 그거 헤다그네 모욕도 허고, 그 물로 헤그네.

113021 @ 가시새는 뉘파?

113021 #5 가시새 빨리 파다그네 불에 태왕, 숯 그찌 멩그랑, 기름에 싸그네 영  
영 막 허머는 물로 행 블루주.

113021 #6 모욕도 허고, 그 물에.  
113021 @ 가시새가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  
113021 #6 가시새는 박하넝 닮은 거라.  
113021 @ 아, 기파? 박하넝 닮은 건디 넓은 거?  
113021 #6 음, 흐쨌 넓은 거.  
113021 @ 모시 얘기 험신가?  
113021 #6 모시 아니. 똑, 박하넝 닮은 거야.  
113021 #5 그건 원 나무도 크지 않는거라. 으만이.  
113021 @ 계민 지금도 막 이서마씨?  
113021 #6 지금도 으디 가민 이서.  
113021 @ 아. 기파?  
113021 #5 나왔디, 나왔디.  
113021 @ 나중에 한번 이제 앞으로 식물 이름덜 수백 가지 헐 거라예? 그 안에  
혹시라도 보여주민 그림 안에 이시민 ㄹ라줍서예?  
113022 @ 그다음에는 허물하고도 좀 다른데 종기 잇잖아예?  
113022 #6 아, 종기 난거는 저, 종기나민 그 고름 짜젠.  
113022 #5 것도 함베낭.  
113022 @ 것도 함베낭마씨?  
113022 #6 어, 저 것도 함박풀 해당 고름 짜낭 그디 부찌곡.  
113023 @ 그다음에는 거런 종기 비슷한 건디 습중 잇잖아예? 물 잘잘 나는 거.  
113023 #6 어, 물 잘잘 나는 것도 거.  
113023 #5 우린 그런 거 아니 걸려보난.  
113023 #5 아니 걸려보난, 것도 하여튼 뭐 그 약 조약으로 헤실거라 우리.  
113023 @ 막 진물 흘리는 거마씨?  
113023 #6 함박풀 헤그네 고름 짜게시리. 고름 나게, 어이구, 그런 사름 하나서.  
우린 그런 걸 안 헤바신디 종진 ㄹ튼 거 안 나바신디, 보민 둥굴랑허게 이디 고름  
나그네 고름 짜명, 우리 진육인가 누게 헤난 거 담다. 으디. 모가진가 어디. 헤난 거  
담수다. 가의도 고름 짜난.  
113024 @ 그다음 생손알이도 들어봤지예?  
113024 #6 생손 알리는 건 천지라. 거는 니로 씹어.  
113024 @ 생 손을?  
113024 #6 응. 손을 영영영 씹어(손가락 끝을 씹는다).  
113024 #5 으기 생손을 나가민 막 가려우멍 막 아푸주게. 계민 그거는 이빨로 그  
자 생각나는 대로 자꾸 허며는 그게 없어져부러.  
113024 @ 무사 생손 알려신고예?  
113024 #6 아이 몰라, 무사 생손 알려, 생손 알려는게 무신 때문에 생손 알리는  
건지 몰라.

113024 #5 계난 그게 베접이엔 허주게.  
113024 @ 무시거마씨?  
113024 #5 베접 낫젠.  
113024 @ 아, 베접 낫젠예? 그든 이빨로 씹으멍 그냥 나산예?  
113025 @ 땀띠도 잇고 땀띠하고 좀 다른 게 두드러기잖아예? 두드러긴 어뎡 헤수과?  
113025 #5 뭐 잘못 먹엉.  
113025 #6 두디레기 날 때는, 것도 뭐 소금물 헤영 모욕을 허든가 무신거 헤서, 것도.  
113027 @ 혹시 애기덜 중에 경끼 헤난 애기 이수과?  
113027 #6 우린 경끼 헤난 애기 어서.  
113027 #5 경끼 허는 거는 갑자기 자빠저그네 정신 일러부는 게 경끼라고 허는디, 그거 저 무신 청심환?  
113027 #6 어, 청심환 헨 먹엇저.  
113027 #5 청심환이 아니고.  
113027 #6 정노환, 정노환.  
113027 #5 아니, 아니.  
113027 #6 절멩지 헤그네 같아나지 아녀수과?  
113027 #5 절멩지.  
113027 #6 절멩지 해당 갈아 멕여낫주게.  
113027 @ 절멩지마씨?  
113027 #6 절멩지, 약국에 가민 약방에 저 무시고 한약방에 가민 팔아.  
113027 #5 약국에 노랑헌 약 잇주게. 그게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그걸 헿 먹엇주.  
113027 #6 정끼 허는 아이덜. 거 무시거 이수게. 돌아다니는 거. 그디 돌아뎡기는 거, 아이구 매, 매 헤다그네 정끼허는 사름 딸렁 물 헿 멕이구.  
113027 @ 물 헿 멕이고예?  
113027 #6 응.  
113027 @ 정끼 허당 막 어른이 뉘도 막 아프고 허는 사름.  
113027 #6 경 헌 사름, 우리 스춘 아지망도 경 헤나서, 시방도 헤나수게게. 학봉이 어뎡. 밤이 막 이추룩 이쳐부리는 거.  
113027 @ 그든 그럴 뎡 뭐 뭐 먹연마씨?  
113027 #6 물, 물 무시거.  
113027 #5 그건 저 뭐아냐?  
113027 #6 간질.  
113027 #5 간질.  
113027 #6 경끼허당 버치민 그것이 간질이 되는 거 아니짜게.

113027 @ 간질에 대해선 다시 여쭙 볼게요? 정기 할 때는 매 딸렁 맥이고, 그담엔 아까 무시거 아까 정로환 아니고?

113027 #6 절멍지.

113027 @ 절멍지.

113027 #6 그거 이서. 빨강 현 거라. 우리 애기덜토 그런 거 맥여나서.

113027 @ 음.

113027 #6 큰아방 순아네.

113028 @ 그러면예 물이나 불에 데엇을 때 화상 입엇을 땀 어떻게 헤수과?

113028 #6 하상 입을 때, 아이고.

113028 #5 하이고, 화상사 조그만이덜, 물에 데영덜? 우리 손지도 욱지서 오란 버련허다네 손 팔팔 끌리는, 그 누게 태기 경 안헤나시야? 국사발러래, 무시거 저저 알루웨.

113028 @ 알로에 집에 키우는 게 이서나수과?

113028 #6 우리 지방 잇주게. 하우스에 헨나 잇주.

113028 #5 알루웨 그 거 행 부찌는 게 최고. 원, 그보단 더 헨 약이 병원에 가도 없어. 텐디는.

113028 @음. 옛날 알로에 어실 땀 어떻게 헤신고예?

113028 #6 아이고, 어실 땀 그 저 무시거 어떻게 관리헤신지 몰라.

113028 #5 약은 이서? 전디무로 살앗주.

113029 @ 동상 입엇을 땀 어떻게 헤수과?

113029 #6 동상 입을 땀, 저 더운물 헤그네 방 돕그는 거베기.

113029 @ 더운물 담갓다가 나중에 차가우면 더 심헤질 수도 잇지 안 헤마씨? 특별나게 뭐 어서수과?

113029 #6 우린 동상 걸리지 안헤보난 몰라.

113029 @ 음. 아니 어떤데 보면.....

113029 #6 늣뻘, 늣뻘 헤그네 저 막 허는 사람도 이서서, 동상 걸렁. 무우, 무우 헤그네.

113029 @ 기지예? 무우로. 아니 어떤 마을은 가지냥 딸려서 당근다든가.

113029 #6 여긴 무우헤그네 막 그디 밭에 막 등, 그 무우 딸렁 뜻뜻허게 헤그네 이 자꾸 동상 입는 건. 켜디 우린 동상 안 입어보나네.

113029 @ 여긴 추운지역 아니파?

113029 #6 경 막 춥다 허지는, 브름은 이서도. 집은 어디라? 시예 아니?

113029 @ 아니, 우린 서귀포마씨.

113029 #6 아, 서귀포? 서귀폰 뜻뜻헌 디난 더.

113030 @ 계난예? 감기 걸렸을 땀 어떻게 헤나수과?

113030 #6 감기 걸려실 때는 감기약 사당 먹어사주.

113030 @ 아니 약이 어서실 때~. 삼춘네 애길 때.

113030 #6 아이고, 약 어실 때 감기헤그네 무시거 먹어저신고?  
113030 #5 저, 고뿔이엔 현 거 약이 서서?  
113030 #6 하이튼 조약 헤지민 조약헤서.  
113030 #5 조약도.  
113030 #6 조약헤긴 조약 헤실건디.  
113030 @ 조약이 뭐파?  
113030 #5 애기덜은 나그네 열 나곡, 경 허며는 좃.  
113030 #6 뽕나무에 좃, 좃. 그 베랭이. 뽕나무에 베랭이.  
113030 #5 뽕나무 싹곱에 번데기가 이만씩(검지 손가락을 가리키며) 현 거 들어  
가. 뽕나무 나무 싹곱에, 게민 그거 헤다가 스곱에 거 놀루며는 하얀 게 나오주게.  
하얀 물이. 게 그거 맥이민 대번 대번 나아나서.  
113030 #6 좃 타래 땡겨가민 막 하낫주.  
113030 @ 음~.  
113030 #6 뽕낭에 거도 허곡, 귀까시낭에 거도 허곡.  
113030 #5 귀까시낭엔 건 좋질 안 현덴 허고.  
113030 @ 귀까시낭이나 뽕낭이나 비슷한 나무잖아예?  
113030 #6 어 어. 귀까시낭 종텐허명 다 파가부런 하나토 어수다.  
113031 @ 계난예. 막 기침 계숫할 땐 어떻 헤수과?  
113031 #6 목질이렌 허명 것도 저 그거주게. 뽕낭, 그거 맥여.  
113031 @ 기침하는 것을 목질이렌마씨?  
113031 #6 어른들은 저 땡유지고 딸령 떡곡, 기자.  
113031 @ 땡유지마씨?  
113031 #6 어. 땡유지 저 무시거 낡 딸령 먹고. 저 생강 이서 생강.  
113031 @ 생강 놔가지고예.  
113031 #6 그거주게, 그거.  
113031 # 땡유지는 거의 집집마다 흥나씩은.  
113031 #6 우리도 이서.  
113031 @ 지금도 이수과?  
113031 #6 응, 낭 이서. 올리도 꽃 피엄선게.  
113032 @ 기파? 그다음엔 아이덜 딸꼭질 헐 땐 어떻 헤수과?  
113032 #6 아이고 딸꼭질 어떻, 등 탁 두두렸주.  
113032 #5 등 탁 두두리명 '너 누구네 어디서 도독질 헤 왔지' 허며는 예가 캄짝  
놀래부러려. 게민 어서저.  
113033 @ 게메 경헛덴 헉디다게. 코피 날 땐 어떻 헤수과?  
113033 #6 코피날 땐 뭐 속 헤다그네 이디 집어 낫주.  
113033 #5 늘쑥 헤다그네 비병 코 막으민 데빠에 윈. 지혈 시키는 거나네, 쑥은.  
113034 @ 옛날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기침헤나그네 가래 같은 거 끓으면 건 어

땡 해수과? 가래 막 날 땡?

113034 #6 아이거, 게메. 가래, 가래 헤그네 조약으로 먹지 안헤신가?

113034 #5 건 몰라.

113034 #6 이 시방도 감기 걸렸당 좋아갈 땡 기침 할 때 가래 굴꺾랑 굴꺾랑허는 사름도 이신디 우린 경을 안 헤보난.

113034 @ 조약은?

113034 #6 조약은 뭐 혈디도 감기 걸 때는 마거베기 땡유지베기 더 이서? 거 저 파빨리도 딸렁 먹고.

113034 #5 모물축 써 낱, 탁베기 혼 보시 그레 비와 낱 저성도 먹어나고, 감기에.

113034 @ 탁베기가 무시거파?

113034 #6 막걸리게. 막걸리 만들어그네.

113034 #5 그거 허며는 그거 먹어그네 땡 네와불민 준넨 허멍.

113034 #6 모물축에 파빨리헤그네 먹으민 준넨 헛주.

113034 @ 그 파빨리는 대과 얘기허는 거파?

113034 #6 아니 아니. 쪽과.

113034 @ 아, 기팡? 기구나.

※ 가래툇을 잘못 설명한 부분입니다. 녹화한 것이라 전사합니다.

113035 @ 그다음엔 가래툇, 가렌데 이제 기침 헤난 다음에 가래가 잇고, 그다음엔 이 완전 고질적으로 계속 끼는 거 잇잖아예? 그런 건 어땡 헤신고예?

113035 #5 목에 코 코 막앙 가래로 막 코도 막아불곡.

113035 #6 아이고 무시거 하르방 감기 걸렁 멍멍 험싱게.

113035 #5 저, 쿡줄, 쿡 잇저, 쿡. 박, 박. 박줄. 가을철에는 박 타불민 줄만 남자녀게. 그거 헤다그네 딸렁 실컷 먹어난 땡이 이서. 뵙여난 기억이 나.

113035 @ 예. 그 박은 어떤 박마씨? 둥근 박이파, 아니른 콧박세기?

113035 #6 콧박세기, 옛날 그걸로 저 밥 국 강, 밧디 강 일허레 갖당 걸로.

113035 #5 그릇으로 써나서.

113035 #6 또 물박도 그걸로 헤나수게.

※ 여기까지 가래툇을 잘못 설명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13036 @ 설사 날 땡 뭐 먹어나수과?

113036 #5 설사 날 때는.

113036 #6 거 무신 빨리 헤단 딸려 먹으민 설사 좋아나서. 이젠 약 먹으민 좋주마는.

113036 #5 설사 약이엔 헛 것이 저 뭐, 이질풀이라고 잇주. 일본말로 겻노썬코라는 건디, 이질풀이랏는디 그거 딸렁 두 킵만 먹으면 웬만 헛 설사는 그 그냥 좋아부러.

113036 @ 아. 이질풀을 예? 이질풀을 풀을 딸려수과 뿌리를 딸려수과?

113036 #6 풀, 풀. 기자 풀 번는 거난 꼬차다그네.

113036 #5 보라색, 이런 색으로 꽃이 피어. 겐디, 늪은이덜은 이질풀이렌 허민 잘 모르고 갯노쑈코라며는 뭐 혼 칠십 세 이상은 다 알거라. 그게 어찌다가 그 저 병원에서 못 고치는 설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그거 먹어서 나온 사름이 이서.

113036 @ 음.

113036 #5 계난 설사 난데는 아주 최고여, 최고. 계난 뭐 이거는 뭐 어디 저, 들에 나가며는 많아.

113037 @ 그른 설사 날 때는 경 하고, 진짜 이질 걸렸을 땐 어떻 헤신고예?

113037 #5 이질, 이질은 싸지 못헿 빠지직 빠지직 허멍 피 나곡 허는 건디.

113037 @ 경허당 이거는 죽을 수도 잇는 거예.

113037 #5 옛날에는 거 독새기 기름에 뜨령 거 먹어났는디, 계란 찹지름에 막 저어가지고 먹어났는디.

113037 @ 옛날에 이질 걸령 막 죽기도 헤났잖아예?

113037 #5 어, 그렇지. 고치지 못헤영.

113037 @ 이질 걸렸을 때 이질풀을 끌령 먹어시민 좋앗을 수도 이서실 건디.

113037 #5 그렇지. 으거 설사에는 썩건 준 거니까 거예도 좋을지 몰라.

113037 @ 계난예?

113037 #5 아, 설사에는, 지금도 난 그거 그 풀 가끔 잇당 헤다가 설사나민 먹어.

113037 @ 말리지 안헿예?

113037 #5 말렸당도 돼곡, 놀차도 돼곡.

113038 @ 예. 그다음엔 토사곽란이라고 헤가지고.

113038 #5 광난이풀이라는 풀. 곽란에 걸렸다는 거 요즘 말로민 급질이라, 급질.

113038 @ 예, 맞수다.

113038 #5 급질인디 광난이풀이라고 그게 할미꽃이라 할미꽃.

113038 @ 아, 광난이풀이마씨?

113038 #5 광난이풀이엔 헿게 할미꽃이라고 허민, 그거 헤그네.

113038 #6 저, 너삼빨리 아니?

113038 #5 그걸 헿, 베또롱을 들룬다고 헿던가?

113038 #6 곽난이풀 헤그네 베또롱 들라나수다. 손꾸헤기 헤그네 멧 번 영영 들리곡.

113038 #5 왼쪽을 멧 번 들리곡, 오른 쪽으로 멧 번 들리곡 경 헤서.

113038 @ 광난이풀을 뜯어왕마씨?

113038 #5 뜯어다그네.

113038 #6 거 이레(배픍을 가리키며) 놔가지고.

113039 @ 그다음엔 체 헿을 땐 어떻 헤수과? 언첫을 때.

113039 #6 손으로 뭐 따고 경 안헤신가?

113039 @5 건 야게 걸릴 때, 가시 걸릴 때 먹당 손으로 영 찢령 막 토허젠 헤난

거주.

113039 #6 아니, 급체 걸릴 땐 급체 걸렁 죽는 사람은 오죽 하수과?

113039 @ 맞수다.

113039 #5 체는 손가락을 무꺼그네.

113039 @ 어느 손가락?

113039 #6 엄지손가락.

113039 @ 체할 때 엄지손가락 따도 나는 난, 완전 체 잘 허거든예. 안 웹디다.

113039 #5 계난 그계.

113039 #6 안 웨여? 옛날엔 그 방법베끼.

113039 #5 대게는 그거 그거베끼는 어서.

113040 @ 그다음은 우리가 벨 때, 칼에 베이기도 하고, 풀에 베이기도 하는데.

113040 #6 소, 속. 속으로 지르는 것이. 우리 죽은 아덜 다쳐네 들에서 영꾸려 박아전 이디 켈 땐 우리 씨어멍 쉼똥해단 처멘.

113040 @ 그건 이따가 여쭙볼거메 이따가 그라줍서예. 베일 땐 속 하당 허고예.

113041 @ 모기 물릴 땐 어떻 헤수과?

113041 #5 모기 물릴 때는 그 모기 물린 데는 그 약이 어서. 엇고, 모기 방지로 해서 내피와낫주.

113041 @ 뭐로 내 피워수과?

113041 #5 연기? 불 헤여그네.

113041 @ 무신 불?

113041 #5 속 풀.

113041 @ 속으로예?

113041 #5 뭐 헤여그네, 여름철에는 이 촌에는 저녁때는 뭐 마당에서 말이여, 멍석 깔아와그네 밥을 그디 출려 낱 먹고, 거기 또 자고, 그 베끼디 자곡 헛는디, 모기가 그 막 허며는 불을 피와. 그 옆에. 연기 막 나게. 계민 켈 싫어 허는 게 모기가 싫어 허는 게 연기거든.

113041 @ 예.

113041 #5 계난 도망가분 다음에.

113041 @ 그믐 밤새 그렇다고 속 태우진 못허잖아예?

113041 #5 줌들기 전에.

113041 #6 줌자불 거주.

113041 #5 뜯어먹던 말던 네불 거주.

113042 @ 그 지난번에 뱀에 한 번도 안 물려봤덴 헛는데예? 흑시나 뱀에 물릴 땐 어떻 헤시코예? 옛날에.

113042 #6 그 허븐고사리 헤다그네 구완헤실 거라 그때.

113042 @ 허븐고사리가 뭐파? 뱀고사리?

113042 #6 뱀고사리. 거난 우리 동생 독사 물려네 그 성읍리 어른안티 간 그거



헤다네 구완해실 거라게 그거.

113042 #5 그 물리멍씨라 이 저 무경 우터레 피 올라가지 못허게 헤그네 최고로 좋은 게 입으로 빨아부는 게 최곤디, 그 독을.

113042 @ 예.

113042 #5 겐디, 입 안에 무신 상처가 이시민 큰일 나. 게난 상처만 어신 사름은 입으로 빨아버리는 게 최고여.

113042 #6 겐디 바로 빨아집니까?

113042 @ 아까 고사리는 무신 고사리?

113042 #6 고사리는 허분고사리엔 허멍 그걸 헤그네 저 성읍리서 건, 성읍리 어른이 그런 거 헤그네 구완해난.

113043 @ 경 헤낫구나예? 벌에 쏘였을 땐 어떻 헤수과?

113043 #6 벌 쏘 때는? 저 셋빨리. 침, 셋빨리는 지냉이 물 때구나.

113043 #5 지냉이 물 때는.

113043 #5 벌 쏘올 때는 뭐 블라나신고? 나도 막 벌 쏘아낫주게. 저 그 밧디 강 일허다네 그 알 우녀밧디 벌통 노나네 아이고, 진짜 감당 못허크랑게. 그 주인이 와 네 썩와네 이거 다 빼주난. 겐디 난 약 블라나진 안해서.

113043 @ 그냥 이서도 웹디가? 벌에 쏘이면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잇잖아예?

113043 #6 어. 죽는 경우도 이서. 벌 쏘양 죽는 거 사름 핫주. 또 드르에 가민 벌통 잇잖아. 으만씩 헌 벌통에 벌 모아져다그네 막 모아들영 쏘우민 그 벌은 진짜 아광 전디지 못할 거라.

113043 @ 혹시 세화에서도 벌 쏘양 죽은 경우들 이서수과?

113043 #6 어서. 세화에선 벌 쏘양 죽은 사름은 어서.

113044 @ 그다음엔 옷 올를 때, 칠 올를 땐 어떻 헤수과?

113044 #6 칠 올를 땐, 우리 저 하르방 칠 올라나신디 그 칠낭 해당 그거에 득 헤네 먹어네 좋아나신가? 하르방! 칠 올를 때 무시거 헨 헤수과? 득 헤단 먹언 어떻헨 좋아나수과?

113044 #5 무시거 헨 때?

113044 #6 칠 올라네, 밧디 출 비레 갓단 칠 올라나수게?

113044 #5 칠 올를 때?

113044 #6 응, 하르방 뭐 헤나수게? 그때.

113044 #5 아, 칠 올를 때는 그 저 바닷고기, 비린내 나는 고기 헤여네 딸렁 그 물로 몸 곱아나서.

113044 @ 아, 경허난 나습디가?

113044 #5 어.

113044 #6 저 하르방 칠 올란 아이고 완전.

113044 @ 아, 비린내 나는 고기를 끌렁 그 물로 씻으니까 나샷다고예?

113044 #6 출 비레 갓단 칠 올라네.

113045 @ 그다음엔 멍 들 땐 어떻게합니까? 씨러져그네 멍들 때.  
 113045 #6 독새기. 독새기 영 굴리주.  
 113045 @ 굴리는 거.  
 113046 @ 그다음엔에 가끔 말 더듬는 사름들도 잇잖아예? 그럴 땐 어떻게 험신고예?  
 113046 #6 말 더듬는 사름사 뭐.  
 113046 #5 말 더듬는 건 약이 어서.  
 113046 @ 약이 어선예?  
 113047 @ 허리 빼엇을 땐 어떻게 해수과?  
 113047 #6 허리 빼엇을 땐 강 손바리, 저슬살이 해당으네 처멧주.  
 113047 #5 저슬살이.  
 113047 @ 저슬살이 찌그네 마씨?  
 113047 #5 아니, 그냥 찌지 말고 썩으로 보따리에 싸그네 등어리에 놔그네 자곡 해주.  
 113047 #6 보 딱 싸그네, 경 아녀면 헛사저부러.  
 113047 @ 워낙 독헌 거난예?  
 113047 #6 독헌 거난.  
 113047 #5 옛날 어른덜은 다 경 해서.  
 113047 @ 경 행 나사신가예?  
 113047 #6 옛날 나사신디.  
 113047 #5 옛날엔 나사시난 존 약이엔 현 거주.  
 113047 @ 아니, 다른 마을도 보민 그렇게 대답 하기도 행 저슬살이가 워낙 독한 풀이잖아예?  
 113047 #5 독성이 잇는 거주.  
 113047 #6 우리 지방 담에도 자꾸 나 저슬살이.  
 113048 @ 계난. 발목 빼엇을 땐 어떻게 해수과? 잘 고무끄잖아예?  
 113048 #6 발 무끝 땐 췌 와야주게, 강. 췌는 사름안티.  
 113048 #5 돌 구웁도 허곡.  
 113049 @ 다음에 귀에 물 들엇을 땐 어떻게 해수과?  
 113049 #6 귀에 물 들어실 땐 그 해동 춤지름 놔, 춤지름 이레 질어. 물 들어그네 귀 알리주게, 알려.  
 113049 #5 귀, 귀 영 영 행 탁탁탁탁(물든 쪽 귀를 아래로 가게 머리를 옆으로 숙이며 흔들흔들).  
 113049 #6 알리민 춤지름 놔. 조금 들어가게.  
 113050 @ 무좀엔 어떻게 해수과? 무좀은.  
 113050 #6 무좀 걸리민 무신 풀 헤다그네 그 마라나신디 잊어불엇저. 난 식초 블라나서 난, 식초.

113050 @ 무신 풀마씨? 참 옛날엔 무좀을 뭐렌 ㄹ라수과?  
113050 #6 미시무시.  
113050 @ 미시무시?  
113050 #5 미시무시는 거 일본말이다.  
113050 @ 맞수다.  
113050 #6 그 저 무시거게. 무신낭이엔 허느니, 그 저 히노끼라는 낭이다.  
113050 @ 편백마씨?  
113050 #5 어, 편백. 편백 이파리 그거 내 피왕, 그거 헤영 발에 내 썩와낫주게.  
113050 @ 그면 나습디가?  
113050 #6 난 몰라.  
113050 #5 그 진짜 나도 헤봤는디 뭐 발바닥 막 ㄹ루와네 무시거 헨 막 거죽 베  
껴지멍 메 그거 허난 달른긴 달를 거라.  
113050 @ 지금은 어수광?  
113050 #6 지금은 어서.  
113050 @ 나슨 거 담다예? 지금은예?  
113050 #5 판 약 먹어사 산디.  
113050 @, #5,6 (웃음)  
113051 @ 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잇잖아예? 습진 헐 뎀 어떻 헤수과?  
113051 #6 습진 헐 때 그 물 쭈쭈 나멍 습준 헐 때?  
113051 @ 예 예.  
113051 #6 것도 거 무신 풀이라, 아이고 풀 헤그네 습진 걸럿젠 허멍 헤나신디.  
113051 #5 그때 뭐 저, 돌싸움고장풀, 함박풀, 함박풀. 함박풀 헤그네 처메 나실  
거라.  
113052 @ 그다음엔 그 저 발가락 으른디 사이에 눈처럼 으렇게 갈라지는 거.  
113052 #6 아, 눈. 거 니 잡앙 봐나서.(웃음)  
113052 #5 맞아, 경헤나서. (웃음)  
113052 @ 걸 뭐렌 곱아나수과?  
113052 #6 것 ㄹ라 눈텃젠, 눈텃젠.  
113052 @ 눈 텃젠?  
113052 #5 발 눈텃젠.  
113052 @ 발 눈터네 거기다가 니 잡앙 봐?  
113052 #6 니 잡앙 노민 좋아나서.  
113052 #5 좋은 지 안 좋은 지 몰라도 누게 장난으로사 ㄹ랐는디 모르는다.  
113052 @ 아니 그 왜, 영화에도 보민 임금이 그 뒤에 옥창 걸리면 거기다가 저  
기 거머리 갓당 놓잖아예?  
113052 #6 거덜, 피 빨아 먹으렌.  
113053 @ 그다음엔예, 민간요법, 지금 저가 여쭙본 거 말고예, 계속 그 어릴 때

라든가 아팠을 때 어떤 식으로 민간요법으로 치료 했다는 예기 혹시 어서수과?

113053 #6 무신 우리 어린 때 약 경.

113053 #5 나 어린 때 저, 우리.

113053 @ 아까 죽은아덜 다쳤을 때 어머니가 쉼뚱 붙았던 애기 혼 번 그라쥬 봅서, 어떻 해수과?

113053 #6 나, 고사리 꺼끄레 가부난, 저 옷드레 고사리 꺼끄레 가부난, 아방은 민방위 훈련 가분 때주게.

113053 @ 예.

113053 #6 그때 왕 보나네, 아이가 막 다 죽어감서. 고사리 꺼끄레 옷드레 강 왕 보난. 딱 이만 때라. 옷드레 강 오난 이만 때난, 완 보난 이디 머리에 처멘에 잇관, 아인 다 죽어가고 경 헤네 이젠 폐선이 혼 숨에 여발로 돌아가네 폐선이 가난 병원 못 보켄 헤네. 이엔, 그때 무신 전화가 시카 이젠 또 돌아와네 이젠 저 서귀포 시방 무신 변원이파? 그 병원.

113053 #5 동산병원.

113053 #6 동산병원, 아니 동산의원은 영철이고. 시방 서귀의료원에, 서귀의료원에 가네, 간 입원 허나네, 토만 허민 죽넨 허연.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맥이고 주사만 난. 아인 혼말 팡팡 곤곡, 저 밥 먹어난 디가 지 다숫 때 먹어 나구렌 헛말만 계속 그르니까.

우리 아신 간 봤단 ‘아이추룩 헛말 곤곡 밥 드렌 밥 먹어난 때가 경 허는 거를 혼 번 쥬 봅센, 병원에선 절대 주지 말렌, 일주일 동안 주지 말렌 해도 그걸 이젠 밥을 맥여서. 맥연 그때 진짜 아이가 살아나서. 굶어네 혼마 굶영 죽을 변해서.

113053 @ 그 머리에 쉼뚱 발라부난 균은 어떻 없앤마씨?

113053 #6 쉼뚱 발라부난 거기 강 청소, 소독으로 다 씻어내, 보난 팡까지 슬이나, 경 호여노난 그거 다 시저네 거 소독헤네 거기서 저 주사 농곡 막 경 헨 헤신디, 겨난 일주일 동안 토만 허민 죽는덴 허멍 맥이지 말렌 헨 거.

113053 @ 게도 피는 멈춘 건 그 쉼뚱 덕이 아닌가예?

113053 #6 그 쉼뚱 헨 피는 멈춘 거. 게난 아이가 낮에 헨 건디 그때까지 피 나민 죽엇주게. 죽을 거라. 그때 혼 대으숫 설 때란게.

113053 #5 일곱 설인가 될 때라게.

113053 #6 게난 아이구 나 가의 업언, 업언 허곡, 가의 가윈 하영 일 먹어서. 중학교 때 빨 차단 다리 꺼끈 걸 몰란 내부난 게, 그 선생은 폐선이 병원에 가네 임시 그것 간 그 엑스레이 찍어보지 아년 내부나네 그자 그디서 소독만 하고 헨 헨 다리가 이만이 부서그네 아이, 이딴 동넳아이가 실러아정 온 건 보난 경 헨, 영동병원에 실런 들양 가나네 다리 꺼거젓덴 헨 걸 네비언.

113053 @ 경헨 걸어완마씨?

113053 #6 아이고 나가 거기서 시에서 혼 메칠 살멍하고, 나 중학교 업어갓다 업어왔다 해서. 아이고 중학교서 이층 우에 올랑 업영, 중학교 삼학년 때난 업영 갓당

업영 왓당 버치네 사람 업영 왓당 업영 갓당 헛주. 이디 차에 타레 업영 왕, 차 탕 강 폐선이 또 내려그네 학교에 업영 강, 이층에 깐지 올려동 ‘야, 야이 오줌 쌀 때’ 친구들 ㄹ라 헤드렌 헤동 또 업으레 가곡 경 헛주게.

113053 @ 경 헛구나예.

113053 #6 어.

113053 @ 어, 지금까지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여쭙봤습니다예.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잇잖아예? 혹시나 어렸을 때라도 그 죽은 놈 말고 두 분 중에라던가, 아니면 두 분의 가족 형제들이라든가, 혹시 죽을 뻔했다가 산 적은 어서수과?

114001 #6 우리 동세 아덜 다 죽은 거, 막 갈레죽 깐지 다 헤다 낫당도 살아서.

114001 @ 어떻 헨 살안마씨?

114001 #6 에이, 글아봅서.

114001 #5 그 사름 사는디, 옛날 뇌막염, 뇌막염 걸려네. 우린 저, 거 아과도 뭐 고빨 걸려신가 헤네 네벼돈, 우리 형님 아덜인디 둘째 아덜인디 가의 혼 일고으듭 술 으듭 술쫓일 거야 아마. 내벼돈 우린 팔월에 출 버서 돈 벌라고, 저 손당(송당) 이란 부락이 서.

114001 @ 예.

114001 #5 그디가 소를 많이 질루니까 축 거 큰 낫으로 영 비는 거를 막 여기 와그네 모집을 헤가주. 겨 우린 거기 가네 출 비레간 그 이틀을 비엇는가 헨. 이만 때 이정도 어둡우며는 이제 일을 설를, 설러서 집에 가 뭐 목욕허고, 저녁 먹곡, 거기 자명 허니까. 일 설러서 올라고 일 설르며는 그 낫에 풀 막 한 종일 벼나며는 퍼런 풀 때가 막 양쪽으로 영 묻주게.

114001 @ 예.

114001 #5 겐 그거를 따까베도그네 오젠 거 헨 거 낫 ㄹ는디 가네 아자시나네 저, 혼, 오백 메다 쪽으로 오는 게 걷는 것이 똑 우리 동네사름 걷는 거 담아 빼어. 게, 우리 형님 보고

‘절로 오는 사름 저것 연춘이 아방 아니파?’ 허멍. 영 봐네

‘연춘이 아방이 무시거 허레 오는니?’

‘똑 기 답수다.’ 아 겐 영 베련에 아. 온 거 보니까 그 사름이라. 겐, 그 사름이 우리 형님허고 동서지간이거든.

114001 @ 예.

114001 #5 그난 그때는 뭐 핸드폰도 어섯고 뭐 전화기도 어섯고 아무 것도 어시니까. 무슨 말이 잇으며는 그 뭇 일이 잇으며는 사름이 직접 연락을 헛거든. 혼 삼

스십리 썩 걸으그네, 그 사람이 교통 역할을 했으니까.

114001 @ 예.

114001 #5 겨난, 여기서 손당이머는 거리가 얼마여. 거리가 아마도 오십 리 더  
웨지 않을까? 걸언 그 연락하러 갔는데, 게 지금 곤는 애이가 다 죽었다는 거야. 오  
늘 저녁 넘기지 않을 것이다 허연. 그 말을 듣고 이 거기서 기냥 집이 들리지도 아  
녀고 글루 기냥 서의가 내려 오는다, 밤에 밤길을 그디 손당서여기 걸어오젠 허니  
까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혼시 두시 뵈겟지.

114001 @ 예.

114001 #5 게, 완보니까 다 뻘어서.

114001 @ 음~.

114001 #5 뻘언 보난 동네사름덜이 다 모였는디 ‘아이, 살지 안허겟다고.’ 견, 밤  
새 줌 안자고 영, 죽었나 살았나 헤연. 침, 삼덜이영 갈레죽 다 갖다놓고 죽으며는  
파 묻으레 갈라고 준비 경 헤네, 듯날 저녁도 안 죽었서. 안 죽어네 듯날은 바로,  
어 이 집인가? 으쪽엔가 살아난 최 의원이라고 살았는디, 그 옛날 의원 질 줌 허고.  
아니 이 사름이 소문 들언 위문 간 거지 그러니까. 위문 간 영 환자를 영 받, 아 영  
고개를 영 떨치면서 저 미신 약 써뵈느냐고, 아 저 무신 약 무신 약 써 뵈덴. 그뻘  
모두 조약이랏거든. 그 사름이 박줄, 박줄을 헤다가.

114001 @ 아까 그 콧마씨?

114001 #5 어.

114001 #6 콧, 콧.

114001 @ 콧줄.

114001 #5 ‘콧줄을 거더다그네 딸렁, 노랑 흰 물 날 때 깰지 딸려그네 거를 맥여  
보라’ 허난, 그거야 뭐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거고, 누게네 집 지붕 위의 콧줄 잇저,  
무시거 잇저 떡~ 허난, 으라 사름 뭐 허난, 아 어디 콧줄 이섯덴 헤네, 그거 거더네  
달련, 다 뵈 땀 때 깰지 딸려네 아침 때 깰지 딸리는 거지. 혼 서너 시간 딸련 거를 억  
질로 막 맥인 거라.

114001 @ 예.

114001 #5 억지로 맥연, 이제 또 뭐 헤볼바이, 요즘 ㄱ트면 병원에 가꼭 헛주마  
는 그뻘 병원도 어섯고. 병원에 갈 돈도 어섯고. 서울 뭐 이런디야 잇섯겟지. 체부  
시에도 병원이 이섯겟지마는 돈도 엇고 허니까 기자 그만큼 내부린 거라. 게 그거  
먹으니까 맥연 혼 서너 시간 잇으니, 코로 시 퍼렁 헛 게 이렇게 나와(검지와 장지  
를 콧구멍에 대며).

114001 @ 아~.

114001 #5 짹~ 짹허게.

114001 @ 아!

114001 #5 거 뻘겨볼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 혼 뵈 번 헤부니 아 애가 살아  
나기 시작 현 거라.

114001 @ 아, 신기하다예?

114001 #5 켜, 살아나서.

114001 #6 시방 살안, 육십 육십 다 뭐 가는다.

114001 #5 계난 그게 그 애, 가이가 초등학교 혼 이삼학년 쉰 때 아인가? 하튼 초등학교 텅길 때라. 막 으망지고 머리가 좋아났는디 그거 그처럼 해난 후에는 머리가, 자꾸 잊어불고 뭐 거 허난.

114001 #6 나이 먹어가난 이제 더해.

114001 @ 장가는 가고마씨?

114001 #6 장가 간 아덜도 잇고.

114001 @ 아이는 켜참고마씨?

114001 #6 으, 어떻 아녀고, 시방 대학교 나오고 해네, 저 어디 공무원.

114001 @ 것도 신기하다예? 콧 쓸망, 콧 줄기 쓸망 먹으면, 이 코 같은 게 코보다?

114001 #5 더 완전 딱딱한 게.

114001 #6 퍼렁헌 게 막. 뇌에 거.

114001 #5 쉰방귀 공장에서 판매과장으로, 거 물건 생산허며는 팔레 그 판매과장으로 이제도 판매과장으로 뭐 해연. 일본도 가꼭 무시거 해연.

그만이 그디 이시지 자기 독립 허겄다고 나오란 독립헌 혼 뭇 년 후다가 아엠에프 걸런 복삭 망헤비서.

114001 @ 아.

114001 #5 계메 경헨 이디 등그러오란 사는디 큰 뭐 지장은 엇고, 가끔 아득아득 잊어부러. 뭐 헐려고 후다가 잊어불곡.

114001 @ 경해도 직장도 좋은디 다녀나고 헛저예?

114001 #6 시방도 저 직장 다니긴 다념서. 저 요, 요양 거 무신거파?

114001 #5 요양원에. 할머니, 늙은이들 데려 갖다 데려 왔다 운전, 거 차 네주니까.

114001 @ 기구나예?

114001 #5 지금도 또 술 아니 먹엄서도 똤는디 술을 고레 그찌 먹주게.

114001 @ 아이구 기구나예?

114002 @ 그다음에는예? 옛날에 그 도깨비를 봐났던가 그런 적은 어수과?

114002 #5 그런 말은 들엇지.

114002 @ 말남 들어나고예?

114002 #5 어, 말은 들어나고 본 적은 엇고.

114003 @ 어, 그다음에는 예, 커갈 때 여자 어른들이야 좀 안 할 수도 잇지만 참 웨나 수박이나 다른 뭐 과일 같은 거, 서리 다녀나지 안 해나수과?

114003 #6 그거 장난이, 두린 때 그거 안혀구렌허민 잘못된 사름이라.

114003 @ 주로 뭐해나수과?

114003 #6 미깡이주.

114003 #5 미깡, 미깡.

114003 @ 미깡.

114003 #6 나수미깡.

114003 #5 처음 미깡 나올 때에 미깡들 이 저 혼 열 집에 혼나 시나 마나 해연. 미깡나무 혼나가. 그 못 먹으면 썩장히 어려왔거든. 웨정 때에 그 일본서 뗏 개 가 저단 싱근 나무덜인디, 그거 땅 먹으레.

114004 @ 기구나예. 그담엔 어렸을 때 특별나게 뭘가 재미있는 얘기, 추억 어수과?

114004 #5 재미있는 거두린 때엔 무신, 무시거허영 재미질 거라? 재미질 게 엇주.

114004 #6 얘기 들은 게 어시냐 물엄수게.

114004 @ 아니, 경험한 거.

114004 #5 경험헌 거? 어서. 나 으 손가래기 어릴 때.

114004 @ 어멍 불바분 거.

114004 #5 돌로 므사부나네 ㄹ자도 짜부라진냥 이제 원.

114005 @ 어, 그다음엔예, 그냥 어른들도 한 얘기고 지금도 하고 잇슬지 모르겟지만예,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뭘 경허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속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기어 같은 거 어수과?

114005 #5 그러지 말라 헐 때는 이 어른은 ‘네 이놈!’ (웃음)

114005 @ ‘네 이놈’ 허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늬의 말 곤지 말렌 허는데예? 그러면 뭘렌 ㄹ르멍 ‘늬의 말 곤지 말라’ 헤수과?

114005 #6 늬의 말 곤지 말렌 허는 거? 늬의 험담 허지 말렌 하는 거?

114005 #5 무신 늬의 저, 남을 헐뜻지, 헐뜯어그네 막 그 사름을 모략헤가민 ‘그 늬의 말 허지 말라’ 허멍 ㄹ라낫주.

114005 @ 걸 속담으로 허는 말 어수과? ‘에이구 무신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르렌 헤라’뭘 이런 것들. 여기 이 세화에서 허는 말, 말 잘 들으렌 허는 말 어서나수과? 어른들?

114005 #6 아이 늬의 말 헐뜻지 말렌 헌 말사 자꾸 곤주게. 헛주마는 늬의 말 헐 필요 없덴 자꾸 곤는 건디.

114005 @ 다른 말로 곶앗지예? 곶을 때예예?

114005 #6 갑자기 튼네지 못허키여.

114006 @ 그 지난번에 노인회장님, 옛날엔 집 혼 채 짓젠 혼민 온 동네가 다 ㄹ치 왕 수눌엇젠 헛잖아예?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헛을 때, 지금의 삶하고 그 옛날에 삶허고 비교헛을 때, 어떤 삶이 ‘아, 난 정말 이런 삶이 더 좋아.’라고 할 때 어느 삶이 더 좋아마씨?

114006 #5 썩하기야 지금이 백 번 편하지.



114006 @ 편한 건 백 번 편한디예?

114006 #5 아이고, 우리 집 어서그네 늬의 집 살다그네 집 짓젠 허난 다 동네 사  
름덜 모다들언 다 해줘서.

114006 @ 게, 그런 거 생각 헛을 때 펜한 걸로야 지금이 가장 편하지만.

114006 #5 시방이 편해주게, 아이구.

114006 @ 시방이 펜해주마는.

114006 #5 사는 과정은 옛날 사는 것은 ㄴ찌 시방 사는 게 펜헤덴 헤도 아멩헤  
도게 이 돈 가정에 대해서는 아멩헤도 옛날은 그날 첨, 험뵙을 벌어도 그자 임시 살  
무신거 헨 거주마는 시방이 돈 쓰는 더 하영 써저.

114006 @ 만일에 옛날로 돌아가그네 살렌 허민 살아지쿠과?

114006 #5 옛날로 살렌 흐민 살지 못허주. 옛날에 보리밥 조팝 먹으멍 산 거주록  
살렌 흐민 못살크라, 하하.

114006 @ 알았습니다디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겡습니다디예.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멩이
201002	대가리	대가리, 데멩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꼴
201005	제비초리	제비꼴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답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뽑쓸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름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가름
201019	이마	앞이멩이
201020	넓다[廣]	넓직허다
201021	이마뼈기	임탱이
201022	솜털	섬털
201023	얼굴	늦
201024	낫[面]	늦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 대야
201028	씻다[洗]	씻다, 씻다
201029	거울	멩경, 뺑건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양지, 불탁사니
201032	뺨따귀	불탁사니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불	삐얌
201035	불따구니	불떼기
201036	불거리	귀톡, 귀똥이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재기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애기
201042	검은자위	검은애기
201043	눈꺼풀	눈통어리
201044	거적눈	개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검다
201047	속눈썹	웃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이맹이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까랍다, 폐까롭다
201052	눈곱	눈뽀제기, 눈뽀
201053	눈초리	눈각
201054	사팔눈	고리눈, 젓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지다,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높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페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딱끄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주뎡이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하다, 답들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글다
201076	입방아	소도리, 추격부치다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눠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吞]	슴키다
201081	가래침	게츄
201082	빨다[吐]	바뜨다, 바트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지
201085	혀	세
201086	훅다	할트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셋봉우지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걸니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어금니빨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오다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아굴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작박지다
201102	수염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바위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똥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야개
201114	굽다[顛]	슬치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201116	먹살	목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뒷데멍이
201119	꼭뒤	상곡지
201120	뒷덜미	뒷목

###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분체짱
201123	어깨죽지	어깨모작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모작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득술
201131	팔꿈치	폴꿈치
201132	팔목(=손목)	홀목, 폴목
201133	뼈	팡, 뼈
201134	뼈다귀	백딱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챙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흥글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201145	할퀴다	굽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검지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약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울리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맹줄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얼	젓명얼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어리, 등따리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담붙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실린물
201178	등마루	등때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엉치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201195	가래뿔	살뿔에 멩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암참지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절벤짱
201202	뼈다[脛]	고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절벤이
201204	정강뼈	절벤이짱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승게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긫다[凶]	긫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모작

201214	겹질리다	ㄱ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봉우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저굴르다
201220	간지럼	저금
201221	발가락	발가레기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지발가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가운데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저끄띠꺼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발꺼림
201223	까치눈	눈튼 거
201224	티눈	눈튼 거
201225	고린내	그렁내
201226	발톱	발콥
201227	발뒤축	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폐
201230	마음	므슴, 모슴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배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대창
201232-2	작은창자	작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설압다
202002	시다[酸]	독허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밥못먹다
202005	낳다[媿]	낳다
202006	태(胎)	붓
202007	탓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술, 멧술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므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끼리다, 깔리다
202013	어린아이	역은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계집아의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업개, 애기업괘
202018	업저지	애기웁괘
201019	폼다	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리다
202026	지렁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넛저고리	붓뎛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걸렁이
202032	포대기	뚜데기
202033	보자기	포
202034	보따리	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졸라메다
202037	처네	뚜데기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정뱅이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줍메줍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삿찌삿찌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덴데덴데
202045	부라부라	걸엄찌 잘잘 걸엄찌
202046	걸음마	걸음발
202047	걸리다	걷는 거 배와주다
202048	곤두박질	씨러지다
202049	곤두서다	재기 일어삼다
202050	가동가동	선대선대, 드락들락
202051	안다[抱]	쿡다
202052	안기다	굽에쿡다
202053	목말	정게고게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틀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새움
202058	자라다[成長]	클뜨다
202059	부아	용심, 부애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몽니
202062	몹다[憎]	미썩발르다
202063	옛말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뺨지치기	뺨지치기
202067	통차기	장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밥허멍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재기뜨기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뜰락
202075	줄다리기	베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숫걸틀락, 예숫걸르기, 걸틀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네키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
202082	사금파리	사그막주시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드를락
202086	겨루다[競]	해보다
202087	제기차기	쫓끼차기
202088	헤엄치다	휘다
202089	웃놀이	넉둑베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웨이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추사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드령
202100	편벽하다	편들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등구리기
202102	팽이	드로기
202103	돌다[回]	돌آمد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네기방장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쌀대
202108-2	콩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중심대
202108-3	꿇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쌀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대, 옆구릿대

202109	방구멍	충심
202110	꼭지	귀
202111	갈개발	발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꼭지줄
202112-3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머릿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중심줄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짜얼레
202115	네모얼레	네모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연놀이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굴뚝
202120	밑신개	굴뚝판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등굴어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염
202128	선하품	선하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춤춤허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느레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녕자다
202139	잠꼬대	헛꿈밤저, 헛말ㄹ람저
202140	잠귀	예수즘
202141	잠꾸러기	즘꾸러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툄구지
202146	재채기	하쟁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뻑제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아옴내, 누린내
202153	사레들다	살트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한집
202157	학질	날걸리
202158	천연두	큰한집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기계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듬
202164	옷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도리버즘
202167	진버짐	너븐버즘
202168	주근깨	푼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늑깨미
202172	명	명
202173	퍼렁다	푸리다
202174	굳은살	헝이
202175	부스럼	허물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거림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발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고름
202183	낫다[癒]	종앗다
202184	아물다	아무람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배접
202187	앓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칭땡과니	눈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혼착눈봉스
202194	사팔뜨기	삼팔뛰기
202195	다래끼	개썸
202195-1	아래	개썸
202195-2	위	들윗
202196	언칭이	청보, 얼칭이
202197	외언칭이	흔뵤디터진사름
202198	쌍언칭이	두뵤디 다 터진사름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중치메깁사름
202203	혀짤배기	세다들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토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퐁
202206	가납사니	말벨레기
202207	곰배팔이	폴벙신, 벙신
202208	곰사등이	곰세
202209	절뚝발이	다리저울레기
202210	얇은뱅이	아진베기
202211	문둥이	용다리, 민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아방, 아바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마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시누이 이름 대며)오라방, 집이사름
203008	아내	애기어멍, 집이사름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곱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죽은말젯
203012-9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이녀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봉가온딸  
 203018 자식 즈식, 새끼  
 203019 없다[無] 엇다, 어서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애새끼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으다, 측긋이  
 203024 어이딸 애딸  
 203025 어이야들 애새끼  
 203026 맏이 믱지  
 203027 막내 막냉이  
 203028 형 성님, 성  
 203029 누님 누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님,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동
203034	외딸	단딸, 단딸레기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글다,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감다
203038-2		양제들다
203039	처녀	비바리,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잔치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지보다,
203044	중신	중신, 중매
203045	권당	친척, 켄당
203045-1	덥덜	*
203045-2	방상	방상
203046	얕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아머니	씨어머님,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버지, 웨하르바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메,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어머니 아버지뻘 연배)삼촌
203056	아주버니	씨아지방,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방
203058	환갑	환갑, 회갑
203059	늙으신네	어르신, 영감님
203060	꾸정꾸정하다	곳짜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으든
203063	병추기	뱅주시, 뱅쭈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켄당
203072	외척	웨켄당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언니, 성님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삼촌, 족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삼촌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삼촌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생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생모,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데려온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누미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ㄱ슴
204002	끓다	믈르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썰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아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멘네씨
204009	닷새무명	홀근미녕
204010	엿새무명	즘진미녕
204011	생목	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설맹지
204018	숨틀	소게클
204019	숨틀집	소게태우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고령착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썩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낭, 개뽕낭
204029	오디	오동, 뽕낭여름
204030	다듬잇돌	다드메
204031	다듬잇방망이	마께
204032	펴다	손보다
204033	빨다[滌]	빨다, 서답허다

204034	거품	버끔, 버끌레기
204035	물거품	버끌레기
204036	빨랫돌	서답팡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께, 서답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출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돌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데기바투리, 빨렛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레다
204046	헹걸	헹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쯔계기

#### 복식

204049	바지	정뱅이,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가달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옷섭
204058	단추	블므작
204059	매듭단추	블므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스미, 끝동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후루메
204068	고쟁이	스중이, 스중기

204069	토시	각반
204070	누더기	늑빈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끈, 준등이끈
204074-1		준등이끈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학삼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에톡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발등어리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진보선
204080	버선발	맨보선창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적삼
204084	겹옷	저구리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룻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거적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소게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플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부숨
204097	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자부동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호칭
204107	베갯머리	머리맛디
204108	베갯모	베갯도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폐랭이	폐랭이
204112	유건	이명거리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폐랭이, 밀데모저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각신
204118	판총박이	각신
204119	미투리	창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트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 몽수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푸꾸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눔쌍지, 바눔쌍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들르다

204133	골무	손꼴메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타
204136	실패	썰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찔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쪼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꼬불다
204145	곶치다	감치다
204146	휘곶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자몸틀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뜨다
204153	씨아	물레, 멘네씨 콜르는 거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칼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꺄라얹는 거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지시빠는 거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즌록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씨 갈라지는 거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마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새 \*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비우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끓다
205007	뵈다[渴水]	젓다, 즈잠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르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팍밥	팍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승농
205017	더운밥	뜨순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실린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괘밥	괘밥
205019-2	괘래밥	괘래밥
205020	밥보	밥장군, 떡새
205021	밥술	숯가락
205022	밥알	밥티
205023	끼니	때, 끼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재기, 인척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누렁이
205029	화독내	칸내, 밥카는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치짐치, 느물짐치
205051	무김치	늬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츄느물짐치

205053	물김치	물집치
205054	나박김치	너바기집치
205055	갯김치	갯늬물집치
205056	파김치	패마농집치
205057	깍두기	깍데기집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덤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늬
205065	소금장수	소곰바치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허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눅디늬물
205071	무나물	늬삐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탕시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밧
205077	고비	허븨고사리, 허분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쉼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승키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츨웨
205086	수세미외	*
205087	만물	섯 파먹는 거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갈장기

205090	원두막	엇막, 궁둥막
205091	갯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푸린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즉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익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썸
205100	시들다	물르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좁지롱허다
205107	초(식초)	취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백시리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솔펜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떡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멘, 우등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숭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묽다[淡]	익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글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술춘
205138	엷다	비우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술광질다리
205140	술독	술춘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사례들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지짐
205148	누름적	묵
205149	산적	묵ㄱ지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구리, 불망구레기
205154	불뚱	불데미
205155	부엌비	정지비치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눗다,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끄스렁, 기시렁

205160	검댕	숫뽕뎡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메우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숫떡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쇄숫
205169	끓다[沸]	레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뽕뎡이
205176	부삽	갈레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뎡이
205181	짚방석	정짚방석
205182	성냥	화곽, 불곽
205183	성냥개비	화강쌀
205184	성냥갑	화갑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싯돌	부돌
205187	부싯깃	불짚
205188	부시쌈지	부시주뎡기
205189	부시통	활통
205190	등잔	깍제기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접싯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숫	숫

205197	검다[黑]	꺼명허다
205198	숯가마	술구덩이
205199	뜨숯	냉발이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카는내움새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부섭
205207	돌화로	붕덥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죄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데다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접게
205215	다리쇠	*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춤
205217-2		춤항
205218	담배	붕초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초간, 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먹다
205223	물부리	물빨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통설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딸이
205228	벼루	베릿돌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밥사발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껍	가짓갱이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팬틀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205240	간종지	장종제기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저분
205243	수저통	젓통
205244	설거지	사발 씻다, 그릇 씻다
205245	구경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밥장석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꼭
205251	뒤옹박	뒤옹박
205252	조롱박	꼭박세기
205253	쪽박	측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릿고냥
205260	시룻번	시리고냥 막는 거
205261	경그레	*
205262	함지박	남박세기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축신대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물른대
205271	무른대	축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승키칼
205278	빼다[拔]	매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썰뜰
205282	날카롭다	늘쓸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짚수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베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술코
205292-4	(반이펍)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허백이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세발간데기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신작로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와집
206008	흙집	흙집
206009	돌집	돌축다운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이칸집
206012	안채	안커리
206013	바깥채	밭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불치막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지섬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대
206021	헛간	쉐막구석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러빚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칙간, 돛통
206026	부춘돌	드들팡, 드들팡돌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
206029	냄새	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담안내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출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태, 도리판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틀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
206043-2		풍체
206044	디딤돌	디딤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루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걸리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죽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떼끼다
206067	바람벽	축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스렁
206070	시렁	스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훗대	공장
206073	도배	블르기
206074	귀얄	솔
206075	풀비	풀비치락
206076	찾방	*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노다,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든든이 놓다
206081	안뒤결	집등어리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추년서리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추년
206088	처맞기슭	추년끝
206089	낙숫물	지스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춘흑
206093	찰흙	춘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흑질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블르다
206098	산자(撒子)	테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פות지둥
206101	뒗기둥	백선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둥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모루
206106	보	포, 중모루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서슬
206109	귀틀	귀틀
206110	외(椗)	퇴기
206111	인방	귀틀
206112	문설주	문백선
206113	문곶도리	알귀틀
206114	문얼굴	문꼴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지팡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지팡
206119	지계문	도절귀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호령창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
206127	여닫이	*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톨쩌귀	암토절귀
206134	수톨쩌귀	숫토절귀
206135	문고리	문걸췌
206136	배목	걸췌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개철
206142	부수다[碎]	부쇄다
206143	서랍	설합

### 연장

206144	툽	거두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줄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49-1		건자귀(큰자귀) 귀자귀
206149-2		손자귀(작은 자귀) 곱자귀
206150	옥자귀	곱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빠루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깨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베기대패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우다
206162	곱자	곱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흑손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농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밭틀갱이
207006	병작(竝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긱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어 나간 나무	쟁기몽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치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치세역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부리페

207009	옥보다	속으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두덕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이렁
207017	거웃	고랑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괭이
207022	곡괭이	못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렁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맹탱이
207034	꿈계	끄서끼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완류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걸라 가게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검질 메는 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품

207048	비싸다	올랐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눔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조륙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수메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세역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 못	웨못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등어리
207052-6	낫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미뿌쟁이
207055	새끼	줄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끄네기
207060	참바(바[索])	줄태
207061	짐바	노끈
207062	질빵	배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췌앗배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게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207067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게
207067-2	봇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탱이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친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작대기

207069	바지개	맹텅이
207070	밭채	바드랭이
207071	물지개	물지개
207072	이삭	고구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
207076	벼훑이	새치기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이석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이석클

207078	타작하다	마장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방울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 힘, 죽을 목숨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톨레

207085	여물	출
207086	쭈정이	줄레기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출밭
207089	꼴꾼	출놉
207090	꼴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바레기

207093	복두	바레기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ㄱ는체, 걸음체
207101	챗바퀴	엔들레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푼다
207107	드리다	불림질허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풍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뒤왓세기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솔박
207115	말[斗]	말통
207115-1	통말	말통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골르다
207118	고무래	근데, 널레근데
207119	불당그래	불근데
207120	떡등구미	맹텡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끗다[引]	끗다, 끄스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케우리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비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노뉴에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단풍들다
207133	밟다	뽏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츨보리
207139	맥주보리	줄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가라수보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수에비
207153	좁쌀	좁츨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곤츨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멧들 짝	멧들의 위아래 돌	짝
207164-2	윗돌	멧들의 위 짝	웃 짝
207164-3	아랫돌	멧들의 아래 짝	알 짝
207164-4	매암쇠	멧돌 위 짝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고 망
207164-5	멧수쇠	멧들의 아래 짝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 좃
207164-6	멧손	멧들의 손잡이	체 경

207165	멧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멧돌	정ㄴ레
207168	풀매	정ㄴ레
207169	썰기	세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네 사람이 썰는)		*
207171-3 (다섯사람이 썰는)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엿간
207174	븀비다	물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기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고랑
207178	방앗돌	멧돌
207179	연자멧간	물고랑
207180	절구	절구통
207181	절곳공이	방엿기
207182	빻다	찌다
207183	뉘	머을
207184	고르다[擇]	주스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무게기
207187	콩	장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즙진콩

207190	콩깍지	줄레
207191	콩짚	콩쩍
207192	꼬투리	콩체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데비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생이
207198	완두	보리콩, 푸린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방울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주생이
207209	고소하다	코수랑허다
207210	메밀	모물
207211	메밀밭	모물팻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물체
207214	메밀국수	모물칼국
207215	메밀수제비	모물저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물칼국
207217	메밀떡	모물떡
207218	메밀묵	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뻗떼기
207222	찌다[蒸]	찌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눔
207225-1	마늘대	마눔대

207225-2	마늘밀	대사니
207225-3	마늘중	마늘쫘
207226	마늘장아찌	마늘지
207227	파	꽤마늘
207227-1	파밀동	꽤마늘빨리, 꽤마늘씨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썸
207230	시래기	*
207231	장다리무	씨늪삐
207232	열무	춤물
207233	배추	배치늪물, 늪물
207234	고갱이(배추)	배치썸
207235	나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길대	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축
207240-1	옥수수	강낭대으물
207241	수수	사당대축
207242	쌀수수	동굴대축
207243	비목수수	비대축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축
207245	수수짱	대축대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수
207247	물길	숨비는 거
207248	물웃	스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대분
207249-2		죽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코지
207258-1	이물간	방짱
207258-2	이물사공	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지통무늬
207259-2	고물사공	젓사공, 옆파락( 배 옆쪽 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베릿베
207263	활대	어음대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이자
207264-2	세대박이	삼대받이
207265	노(櫓)	네, 뉘
207266	결노	적결이
207267	상책(노착)	대가리
207268	노잎(노깃)	뉘섭
207269	노앞	화네가지
207270	노뒤	지통문
207271	노손	뭉그지
207272	눅구멍	뉘썩
207273	눅줄	뉘줄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닷가지
207276	닷줄	벤드레
207277	닷돌	닷돌
207278	닷걸이	설픽들
207279	키[舵]	도리가지, 도목가지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사공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파락
207284	떼[浮筏]	터배



## 기타

207285	이웃	이웃스촌
207286	더불다[與]	의정좋다
207287	마을	마을
207288	고을[村]	*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상등
207291	옮다[移]	절립
207292	아랫마을	하등, 아랫마을
207293	마을가다	마을가다
207294	밤마을	어둑함에 마을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쪽글락헌 점방
207297	다녀오다	강왓다
207298	심부름	신바람
207298-1	부름씨	신바람
207299	잔돈	잔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느리우다
207304	우수리	주릿돈
207305	받다[受]	앗다
207306	나머지	*
207307	홍정	*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푸릿돈, 품돈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집	대장집
207313	풀무	불미퀴
207314	손풀무	불미퀴
207315	모루	돌판
207316	모루채	췌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갓전, 입져, 갓
207318	망건	임덩거리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능캐
207324	사냥꾼	포수쟁이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사능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아지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수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여든,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으숫돼	읏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돼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석 돼	뒤서너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개	두서녀 돼	두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녀 돼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다숫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숫 개	대으스 돼	대으숫 말
208006-7	(6-7/예닐곱)	으숫 개 일곱 개	여니곱 돼	여일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구으답 개	일구으답 돼	일구으답 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답 개 아홉 개	으답돼 아홉 돼	으답 말 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 자~흔두 자 더
208014-2	명주	마흔 자~흔두 자 더
208014-3	광목	*
208014-4	베	스물두 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200평  
 208016 뭇 단  
 208017 묶다[束] 묶다,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바리  
 208019-1 무계미  
 208020 조짐 개비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서른단
208021-2	조(이삭 있음)	웃단
208021-3	콩	웃단
208021-4	밭벼	열 <sup>으</sup> 답 단
208021-5	꿀	서른 단
208021-6	띠	서른 단
208021-7	각단	서른 단
208021-8	어욱	쭈물넉 단

208022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취
208027	돌이(양태)	양태
208028	마리	필
208028-1	두[頭]	필
208028-2		필
208029	축	단
208030	궤미	끼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뵤
208035	바퀴(운동장)	둘레
208036	뭇	무끼미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암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봣땃저구리
209005	배넛머리	배넛머리
209006	돌	챗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뽤끼
209010	시집가다	씨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감다
209014	함	여장
209015	위요(우시)	우시, 옷각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槩]	메어지다
209019	이바지	*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209022	겹사돈	가지사돈
209023	상갓집	상갓집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주상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상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대
209032	짚동	북침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뒗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이
209040	보장(寶帳)	포
209041	계(契)	접
209042	상두꾼	상디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광중터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층	홀기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창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상디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묘제
209055	묘위전	수분전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칩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철상, 음복
209061	메	메밥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시리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변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주다
209070	몹	반
209071	면례(緇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무끄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장귀
209080	뽕과리	뽕과리, 깡메기(치는 사람)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백중, 물마지레
209084	모래찜질	모살찜
209085	추석	팔월멩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올레대집, 어귀지시, 조양지시, 문전지시, 안내, 마도
210004	당	당, 본향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
210008	명두	멩디칼
210009	추다[躡]	굿버치다
210010	소지(燒紙)	지전슴
210011	사르다[燒]	지전믈랑 스지 슴
210012	살(煞)	광질미치다
210013	삼살방(三煞方)	*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헛깨
210016	허깨비	헛깨
210017	어둑서니	그신세
210018	무섭다	므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크시
210021	고수레	잡식
210022	포제	천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룻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불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넷각
211007	물가	넷바이
211008	따르다[從]	*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절벽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ㄱ깝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섬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섬벌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거림길
211017	묻다[問]	물어뵤가다
211018	비탈길	설덕길
211019	벼랑길	설덕길
211020	내리막길	거뵤이
211021	오르막길	오름길
211022	길가	길긱
211023	큰길	큰길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뵤디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성에
211031	구렁	구렁치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뒤갈라지다
211036	천상수	ㄱ랑친물
211037	숲	숲
211038	성(城)	성담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끄시
211041	바닷물	츄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븍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붕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판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끄시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한바당
211052	과도	절
211053	과똥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삼승절
211056	굵뉘	후내기
211057	물결	늘
211058	잔물결	블다, 브라진 물결
211059	무수기	물깍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
211059-2	두무날	두물	10
211059-3	서무날	서물	11
211059-4	너무날	너물	12
211059-5	다섯무날	다스물	13
211059-6	여섯무날	으스물	14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16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
211059-10	열무날	열물	18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19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
211059-13	(열서무날)		
211059-14	아끈채기	아끈조기	21
211059-15	채기	한조기	22
211059-16	한조금	조금	23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개창
211062	물밀다	물든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쓸물난다
211065	썰물	쓸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늘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정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저께
211074	그끄저께	그적아시날
211075	새벽[曉]	세베기, 세백이
211076	꼭두새벽	셋날

211077	해[太陽]	동,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거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오렌밤, 제서때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복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린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크다
211094	달무리	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믐들
211098	햇무리	갓
211099	무지개	함구지
211100	쌍무지개	함구지 두 개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새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읏췌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췌
211113	대엿새	대읏췌
211114	지나다[過]	지내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어두엄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저블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정월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후내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
211127	따스하다	뜨뜻허다
211128	땡별	독헌벧
211129	가을별	선선한벧
211130	양지받이	벧바른디
211131	아지랑이	아지렁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애깃그늘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아르레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브름받른디
211140	바람살	브름쓸
211141	회오리바람	회오리브름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미프름
211144	서풍	서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꾸어지다
211148	빗줄기	장엿비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챙명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쟁이
211151	소나기	췌네주제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씨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벌립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평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편개
211165	홍수	골내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붕애
211168	오다[來]	왁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 물르는 눈
211171	내리다[降]	왁다
211172	희다	희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긋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아피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끄띠
211185	옆	여피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아르레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짜
211191	오른쪽	늑단짜
211192	밑	알르레
211193	흐르다[流]	늑리다
211194	안[內]	안내
211195	밖	바꿧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
211198	가[邊]	퀘떼기
211199	가장자리	엔둘레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ㄱ짜허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숫쉐
212005	취소	슴쉐
212006	불까다	불블루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랭이
212009	얼룩소	얼룩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늑대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다간
212105-3	사릅(3)	사릅	사릅
212015-4	나릅(4)	나릅	나릅
212015-5	다듭(5)	다숫	다숫
212015-6	여듭(6)	으숫	으숫
212015-7	이릅(7)	일곱	일곱
212015-8	여듭(8)	으답	으답
212015-9	아듭/구릅(9)	아홉	아홉
212015-10	열릅/담불(10)	열	열

212016	작두	작도, 작디
212017	쇠죽	쉐죽
212018	구유	쉐죽통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매, 청총이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따물
212028	얼룩말	얼룩이
212029	유마	몽생이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등검은 가라물
212032	곰배말	등곱세, 등구부쟁이
212033	조랑말	듬박물
212034	달리다[走]	들린다
212035	마소	므시
212036	글갱이	글갱이
212037	털[毛]	꺼럭
212038	말고삐	물늘대
212039	당기다	이끄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짖구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숫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랭이 올른 개
212048	비루먹다	도랭이올랐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숫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들코녕이
212053	살쥬이	식, 슣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턱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독시렁, 독스릉
212060	닭장	독집
212061	달갈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일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에기
212064	까다[剝]	끼암다, 꿰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퇘
212067	암돼지	암퇘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튼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شم씨
212072	생등이	*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 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군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무지렁이
212081-1	둘암소	무지렁이
212081-2	둘암말	무지렁이
212081-3	둘암돼지	무지렁이
212081-4	둘암개	무지렁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렁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쓱싸다, 쉬쓸다
212088	가시	웁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논다니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ㄹ느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뱃속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덜, 거머리
212104	바구미	느다리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아지
212108	그리마	버랭이
212109	쥐며느리	쥐메누리
212110	노래기	노레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권시
212113	진딧물내리다	권시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이눈이, 눈이누니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집어신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빨간준게염지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산등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저베기
212126	귀뚜라미	모물말축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쉐두메기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똥구리	쉐똥구리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좁제기
212133	하늘소	하늘쉐
212134	노린재	노린제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날آمد
212138	사슴벌레	하늘쉐
212139	잠자리	좁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빨강좁자리, 고추좁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좁자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
212143	매미허물	허물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
212145	쓰르라미	고시락재
212145-1	매미종류 추가	*
212146	소금쟁이	물장귀
212147	방개	물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왕벌
212153	말벌	사당벌
212154	붓다[腫]	부푼다
212155	진드기	진두기, 서떡
212155-1	진드기 새끼	서떡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송충이

212157	개구리	가개비
212158	올챙이	고노리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미, 뱀이
212161-1	뱀띠	뱀헤치
212161-2	뱀허물	뱀태, 뱀겹질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클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감다	쌈물다
212173	쥐구멍	챙이망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
212176-1	오소리 굴	*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212179	멧돼지	산툫
212180	원숭이	즌나비, 잔나비
212181	원숭이띠	잔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꿀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늘짐승
--------	------	-----

212186	꿩지	꿀랭이
212187	깃[羽]	터럭
212188	새총	고무총
212189	새가슴	비둘기가슴
212190	참새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매
212195	솔개	매천이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까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주주머리
212201	올빼미	옥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세기
212206	꺼병이	꿩비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바다올랭이

#### 바다 동물

212210	고둥	고둥
212211	개울타리고둥	참고메기
212212	명주고둥	맹지ㄹ메기
212213	눈알고둥	문다드레기
212214	밤고둥	보말
212215	팽이고둥	수두리
212216	각시고둥	맹지고메기
212217	두드럭고둥	매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둥	매운고둥, 매옹이
212220	대롱뿔고둥	*

212221	제주개오지	땅깨비
212222	애기삿갓조개	오갈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적
212225	군부	굼벵
212225-1		췌굼벵, 물굼벵
212226	진주담치	가마구부리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큰 소	쟁쟁이(작은 소라), 민둥구쟁기(큰 소라)
212228	전복	생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숫천복, 마드레(늙은 전복), 꺼꾸떡(새끼전복)
212229	전복갑	껍뎡, 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조개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쟁이
212233	부채게	돌쟁이
212234	엽낭게	듬북쟁이
212235	참게	춤쟁이
212236	꽃게	여쟁이
212237	소라게	게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돌쟁이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박게
212241	말미잘	말문두리
212242	성게	귀
212243	말뚱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망텅이, 물망석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멍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해섬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바릇궤기
212255	맑다[淸]	흰허다
212256	흐리다[濁]	왁왁허다, 흑물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닐
212260	배따다	페쓰다
212261	생선(生鮮)	늘궤기
212262	미끼	니궤
212263	갯지렁이	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춘지다
212267	낙싯줄	정술
212268	붕돌	뽕들
212269	참대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어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꽃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덤벨렁이
212280	말뚝망둑어	돌트구리
212281	별망둑	줄락
212282	매통이	에리, 모살맹이
212283	고생놀래기	줄래기, 썰어렁이
212284	용치놀래기	썰어렁이
212285	어렁놀래기	멕지푸원
212286	실놀래기	어렁이
212287	옥돔	생선, 솔래기, 생성, 올똥미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물툭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구릿
212292	황돔	뺩꼬, 납작생성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보구치
212297	보구치	보구치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이까(일본어)
212299-1		
212300	북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불락, 꺾은불락
212302	농어	농어
212303	퀴치	젝주리
212304	우럭불락	멜우럭, 방장우럭
212305	불락	불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다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방어, 히라스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비근다리, 빗개
212313	괭이상어	즌다니
212314	귀상어	키상어
212315	돌묵상어	벙상아리
212316	수염상어	빗개
212317	두툽상어	갱치리, 즌다니
212318	별상어	상어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배알로, 금새기
212321	쥐돔	도둑베기, 도둑베기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대우리
213002	갈대	글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품	미
213005	화승(火繩)	미쁘쟁이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미엇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진황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모작풀
213014	바랭이	춤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북덕제완지
213016	조개풀	대통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쉐터럭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큰진황
213020	개솔새	작은진황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돌나리
213024	메꽃	메마꿀
213025	갯메꽃	갯메마꿀
213026	비름	춤비눔
213027	쇠비름	쉐비눔
213028	개비름	비눔
213029	참비름	비눔
213030	땅빈대	고름풀
213031	애기땅빈대	즌고름풀
213032	평의밥	즌쉐터럭
213033	여우구슬	감낭풀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뜯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못, 물웃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오나리풀
213045	영경귀	소랭이
213046	췌기풀	좁찢낭
213047	수크령	글리억풀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진꿀
213050	병풀	함박풀
213051	깨풀	헤바레기풀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께
213054	땅파리	밀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내풀
213056	도깨비바늘	개바늘
213057	도꼬마리	도꼬마리(일강점기: 학생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서 열매를 따 오라고 함.)
213058	모시풀	모시
213059	왕모시풀	찢낭
213060	천남성	초남성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풋퀘기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물오줌낭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부체순이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니풀
213072	배풍등	정당
213073	취	꼭
213074	취덩굴	꼭더월
213075	취뿌리	꼭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츄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운동고장
213085	멀꿀	정당
213086	천문동	정당
213087	계요등	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대풀
213090	수영(승아)	큰술란지
213091	애기수영	작은술란지
213092	싸리	싸리낭
213093	땀싸리	좁싸리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마귀	고름풀
213098	고들빼기	고름풀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꿀풀
213102	마삭줄	즌담쟁이
213103	갯기름나물	석방풍
213104	구렁대	구렁대
213105	으아리	저슬사리
213106	익모초	눈비애기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신서란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구렁대
213112	부들	부들
213113	개구리밥	개구리밥
213114	줄	줄풀
213115	마름	마름
213116	싱경이(바다식물)	*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동메기, 꽃동메기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광난이풀, 할미꽃
213125	붓꽃	난초꽃
213126	참나리	나리
213127	맨드라미	떡꽃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전기꽃, 정기꽃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쑥부장이
213133	수국	도체비꽃
213134	산수국	수국
213135	광대나물	광대풀
213136	제비꽃	말싸움고장, 싸움고장
213137	복수초	복수꽃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백년초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지등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남
213147	하다[爲]	낭흐레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떨감	지들꺼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물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디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팔순이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촉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대기낭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소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목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배롱낭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츄칠낭
213192	팡팡나무	꺼펙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죽낭
213195	마가목	마가목
213196	말채나무	물마께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급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들뽕낭
213205	돈나무	돈낭
213206	무환자나무	머귀낭
213207	쥐똥나무	뽕뽕이
213208	섬쥐똥나무	뽕뽕이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줄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북가시낭
213212	중가시나무	츄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돌가시낭, 독마리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간절귀, 꺾기시낭
213217	덜꿩나무	얼루레기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까끄레기낭, 가시레기낭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머귀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매	돌오줌낭
213223	증대가리나무	하람낭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실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굴피낭
213230	후박나무	누룩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츠낭
213236	참나무	츠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췌피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사철낭
213241	겨우살이	겨울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불나무	북칠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여름
--------	----	----



213250	꺾질	꺾데기
213251	꺾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뱀탈
213255	명석딸기	탈
213256	복분자딸기	탈
213257	줄딸기	탈
213258	산딸기	탈
213259	가시딸기	탈
213260	검은딸기	탈
213261	장딸기	탈
213262	개암	개암낭으물
213263	머루	새멀리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메기멀리
213266	산머루	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개드레
213272	보리수나무	풋볼레낭
213273	보리수	보리볼레, 풋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지
213282	탱자나무	탱지낭
213283	감	감
213284	꺾다[柿]	츄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익은감

213287	꽃감	꽃감
213288	청미래덩굴	맹게낭
213289	맹감	벨레기
213290	찔레나무	독고리낭
213291	영실	독고리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꽃배낭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저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세꺼플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곰포
213310	미역쇠	메역썰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프레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너페
213316	지층이	진저리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물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깨꼬도리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